야고보 알베리오네

알베리오네 전집

OPERA OMNIA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G. D.P. H.)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요한 5,39)

성바오로수도회 마에스트로 야고보 알베리오네가 이끈
성경을 주제로 한 열 차례의 성체조배

바오로가족

성바오로수도회 안젤로 콜라크라이가 감수한 편집본
©성바오로수도회 로마 총본부, 2003

감수·출판 허락,
2003년 11월 26일, 로마
성바오로수도회 총원장 피에트로 캄푸스 신부

이 작업을 위해 협력해 주신 성바오로딸수도회 엘리사베타
카펠로 수녀님과 성바오로수도회 엘리세오 스카르보사 신부님,
그리고 마우리치오 티라펠레 수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작품 머리글자: LS

© EDIZIONI SAN PAOLO s.r.l., 2004
Piazza Soncino, 5 − 20092 Cinisello Balsamo (Milano)
http://www.edizionisanpaolo.it

Diffusione San Paolo s.r.l.
Corso Regina Margherita, 2 − 10153 Torino

차 례

약어표 10

여는 말 11

본문의 역사–편집: 저자와 구성–제목과 참고 문헌–작품의 기본 주제–성경을 읽는 사람: 말씀의 제자들–새로운 지침–새로운 독서 방법–맺음말

일러두기 30

원본 속표지 31

머리글 33

입 문 37

성령께 바치는 찬가 38

제1부: 성경과 믿음(진리)

1일: 성경이란 무엇인가? 43

모세–모세오경–묵상1: 성경이란 무엇인가?–모세의 찬가[#]–독서: 천지 창조–모세의 기도

2일: 영감을 받은 성경 61

여호수아–여호수아기–묵상2: 성경은 모두 영감을 받았다 –세 젊은이의 찬가[#]–독서: 여호수아의 유언–유딧의 기도

3일: 성경의 의미 76

사무엘–판관기·룻기·열왕기 1,2권–묵상3: 성경의 의미–독서: 주님께서 당신 율법을 적으라고 명령하시다 –세 젊은이의 찬가[#]–감사기도

4일:성경과 교의신학 90

예레미야-열왕기 3,4권-묵상4: 성경과 교의신학-교의신학이란 무엇인가?-세 가지 결론-세 젊은이의 찬가[#]-독서-지혜가 가져다 주는 혜택-예레미야의 기도

5일: 성경과 윤리신학 103

에즈라-역대기 책들-에즈라가 쓴 책들-묵상5: 성경과 윤리신학-윤리신학이란 무엇인가?-즈카르야의 노래[#]-독서: 사랑과 도덕의 핵심-기도: 주님, 찬미받으소서

6일: 성경과 교회 신분 116

토빗기-묵상6: 성경과 교회 신분-사목신학이란 무엇인가?-구원된 이들의 감사 노래[#]-독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제들에게 복종하며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솔로몬의 기도

7일:성경과 수덕신학 126

유딧기-에스테르기-묵상7: 성경과 수덕신학-하바쿡의 찬가[#]-독서:가장 큰 계명-에즈라의 기도

8일:성경과 신비신학 140

욥기-묵상8: 성경과 신비신학-히즈키야의 찬미가[#]-독서: 하느님께서 성 바오로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선물-유딧의 찬양가

9일: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진리다 152

다윗-시편-묵상9: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진리다-한나의 찬가[#]-독서: 사도직에 있어 성실함과 솔직함-기도

10일:성경은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165

솔로몬-잠 언-코헬렛-아 가-지혜서-묵상10: 성경은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유딧의 찬양가[#]-독서: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내시-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기도

제2부: 성경과 도덕(길)

11일: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신덕 183

시라의 아들 예수-집회서-묵상11: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신덕-감사 노래[#]-독서: 의로움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다윗의 기도

12일: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망덕 196

이사야-이사야 예언서-묵상12: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망덕-찬가[#]-독서: 부활의 희망-기도

13일: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애덕 208

예레미야 예언서-예레미야 애가-바룩 예언서-바룩-묵상13: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애덕-창조주께 드리는 찬가[#]-독서: 사랑의 특성-다윗의 기도

14일:성경과 복음에 나오는 참행복의 실천 218

에제키엘-에제키엘 예언서-묵상14:성경과 복음에 나오는 참행복의 실천-찬가: 참행복[#]-독서:최후의 심판에서의 의인과 악인-슬픔과 확신의 기도

15일: 성경과 수도자 신분 231

다니엘-다니엘 예언서-묵상15: 성경과 수도자 신분-찬가[#]-독서: 수도자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기도: 신심 깊은 영혼의 갈망

16일: 성경과 사제직 242

호세아 예언서-요엘 예언서-아모스 예언서-오바드야 예언서-요나 예언서-미카 예언서-묵상16: 성경과 사제직-찬가[#]-독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지혜를 청하는 솔로몬의 기도

17일: 성경과 가정의 덕목 254

나훔 예언서-하바쿡 예언서-스바니야 예언서-하까이 예언서-즈카르야 예언서-말라키 예언서-묵상17: 성경과 가정의 덕목-찬가[#](모세의 노래 계속됨)-독서: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의무-기 도

18일: 성경과 사회적 덕목 267

마카베오기-묵상18: 성경과 사회적 덕목-찬가[#](모세의 노래 계속)-독서: 형제적 교정, 함께하는 기도의 효과-사라의 기도

19일: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길이다 277

성 마태오-성 마태오 복음-묵상19: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길이

다-찬가[#]-예수님의 기도-독서: 박해 중에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20일: 성경을 읽는 자세 289

성 마르코-마르코 복음-묵상20: 성경을 읽는 자세-찬가[#](모세의 노래 계속)-독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기 도

제3부: 성경과 신심 행위(생명)

21일: 죄를 사하여 주는 성경 305

성 루카-루카 복음-사도행전-묵상21: 죄를 사하여 주는 성경-찬가[#]-독서: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나무라시다-에즈라의 기도

22일: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 318

성 요한-요한 복음-묵상22: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창조주 하느님께 바치는 찬가[#]-독서: 가나안의 어머니-예레미야의 기도

23일: 우리를 보호하는 성경 329

성 바오로-교의 서간-묵상23: 우리를 보호하는 성경-토빗의 찬가[#]-독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기 도: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24일: 성경과 성직자 양성 345

도덕 서간-묵상24-성경과 성직자 양성-감사 찬가[#]-독서: 성직자의 자질-기도: 주님의 집에 들어가려는 갈망

25일: 연옥을 단축하고 복된 희망을 키우는 성경 359

사목 서간-묵상25: 연옥을 단축하고 복된 희망을 키우는 성경-찬가 중의 찬가[#]-독서: 숨겨진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다윗의 기도

26일: 성경과 거룩한 전례 369

성 소 야고보-성 야고보 서간-묵상26: 성경과 거룩한 전례-다윗의 찬가[#]-독서: 성찬례 제정-기도

27일: 신심의 샘인 성경 381

성 베드로-묵상27: 신심의 샘인 성경-찬가[#]-독서: 성찬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기도

28일:성경 읽는 방법 397

성 요한의 서간들-묵상28: 성경 읽는 방법-창조주 하느님께 바치는 찬가[#]-독서: 항구한 기도의 효과-기도: 선택된 백성을 위하여

29일: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생명이다 409

성 유다-유다 서간-묵상29: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생명이다-입법자 하느님께 바치는 찬가[#]-독서: 복음과 인간적 지혜의 대립-기도

30일: 성경은 누가, 어디서 읽어야 하는가? 422

묵시록-묵상30: 성경은 누가, 어디서 읽어야 하는가?-다윗의 찬가[#]-독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기도

성경에 대한 공경 433

복음과 성경 전반에 대한 공경의 예禮는 지성, 의지, 마음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444

성경을 언제 읽을 것인가?-성경을 어디서 읽을 것인가?-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전할 것인가

몇 가지 기도 449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성경을 읽고 나서 드리는 기도-예수님처럼 영혼들을 목말라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 바오로께 바치는 주간기도 -성 바오로께 드리는 기도-거룩한 저술가들의 호칭기도

약어표

AD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Abundantes divitiæ gratiæ suæ*」

CEI 이탈리아주교회의(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DV 「계시 헌장*Dei Verbum*」

EMC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대피정과 묵상*Esercizi e meditazioni del Primo Maestro*」

ER 「대피정과 월피정*Esercizi e ritiri*」

HM 「이것을 묵상하라*Haec meditare*」

IA 「그의 말을 들어라*Ipsum audite*」

MPM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묵상*Meditazioni del Primo Maestro*」

PCB 교황청 성경위원회(Pontificia Commissione Biblica)

Pr D 「보급에 대한 설교*Predicazione sulla Diffusione*」

RM 「월피정*Ritiri mensili*」

SPa 「바오로 영성*Spiritualità Paolina*」

UCAS 「인쇄 사도직 협력자회*Unione Cooperatori Apostolato Stampa*」

UPS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Ut perfectus sit homo Dei*」

여는 말

「성경을 읽으십시오*Leggete le SS. Scritture*」(=LS)는 성경을 교리교육 방식으로 다룬 책으로, 알바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주관**한 열 차례의 '성체조배' 묵상 자료로 구성된 일련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것이다. 스승 예수님께 바치는 매월 첫 주일의 장엄예식을 바치는 날의 저녁기도 때는, 성체를 현시하고, 설명을 덧붙여가며 성경 본문을 읽는 방식으로 성체를 흠숭하면서 스승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귀여겨듣는 기회를 가졌다.[1] 열 번에 걸친 가르침을 30개의 장으로 나누고, 많은 귀감과 독서로 풍요롭게 하여 한 달 동안 매일 묵상할 수 있게 했다. 곧 성체조배 때 언급된 열 차례의 가르침을 30개의 장으로 나누어, 귀감이 되는 예화와 독서와 함께 한 달 동안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2]

본문의 역사

이 책은 알바에 있는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새 인쇄소에서 발행되었다. — 이 책의 표지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성바오로딸수도회는 로마와 메시나에도 인쇄소가 있었다. — 이 발행본에는 날짜도 없고, 저자 이름이나 교구 인가, 또는 다른 어떤 연도 표시도 없으므로 '작자 미상'으로 남을 수도 있었다.

---

1. "스승 예수 신심", "성체조배와 복음 경배",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스승 예수: 역사적, 카리스마적 논설 *Gesù il Maestro, ieri, oggi e sempre, Excursus storico-carismatico*」, 로마: SSP, 1997, pp.86－101 참조.
2. "스승 예수의 달"에 대해, 위의 책, pp.94-98 참조.

그런데 알베리오네 신부가 1933년 11월 22일자로 성바오로딸들에게 보낸 회람을 보면 "성경 읽기에 관한 (강론이 포함된) 성체조배 책이 이미 인쇄되었다."라는 언급이 있어 이 책이 1933년에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6년과 1928년 사이에 교리교육 수업을 재개하던 때에 이미 성경에 관한 책들이 등사 복사본으로 나왔으며, 1936년 10월 「장상들을 위한 대피정*Spirituali Esercizi alle Maestre*」이라는 책의 부록으로 이 복사본이 정식으로 인쇄되었다.[3]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3년에 쓴 이 책에서 저자는 복음서가 모든 가정에 들어가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복음서 공경과 복음서에 대해 설교하고 복음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분은 사제생활 초기부터 자신이 매 주일 미사 중에 복음을 설명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성 바오로 성전에서 30번에 걸쳐 흠숭기도가 있었는데, 이때 성경을 통틀어, 특히 복음서에 관해 설교하고 글을 썼다.(나중에 출간됨)." (AD 140-143항 참조)[4]

「성경을 읽으십시오」 초판은 부족한 본문을 수정한 다음, 루이지 M. 그라시 주교의 교회 인가를 받아 1933년 11월 1일자로 재판되었다. 책 말미에는 1933년 11월 1일자로, 마에스트로 로발도의 내부 검열 확인 표시와 함께 프란치스코 키에사 몬시뇰의 검열 표시가 첨부되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는 성서 연구에 관한 교회의 두 가지 주요 문헌, 곧 다음에 설명할 레오 13세의 회칙 「지극히 섭리하시는 하느님*Providentissimus Deus*」(1893)과 비오 12세의 회칙 「성령의 영감*Divino afflante Spiritu*」(1943)이 부각된 시기에 탄생했다. 이 두 회칙은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영성 면에서 성숙해지고, 성경에 따른 수덕적 가치와 사목에서 성경 활용에 공헌했다.[5]

편집: 저자와 구성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경을 읽으십시오」는 저자 표시가 없이 출간되었다. 저자 표기는 책 표지에도, 속표지에도 공동작업으로 출간된 작품으로 간주하는 G.D.P.H.(Gloria Deo, Pax Hominibus: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약어로 대신했다. 머리글에는 성바오로수도회 M.길리오네M. Ghiglione, ssp라는 편집자의 서명이 있었다.

편집자의 설명에 따르면 저자가 야고보 알베리오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M.길리오네라고 서명한 원본의 머리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성체조배 시간에 성경에 대해 다룬 강론 내용을 받아 적은 다음 정리하여 출판하라는, 사랑하올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부탁을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 저는 가능한 한 아버지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 적으려고 노력했고, 다만 여기저

3.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1999년 4월 6일, 안젤로 콜라크라이에게 보낸 성바오로딸수도회 안토니에타 마르티니 수녀(1937-2003)의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1932년 11월 13일,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경과 믿음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는 1933년 2월(p.9), 3월(p.6), 4월(p.8), 세 부분으로 나누어 「출판 사도직 협력자회 회보」에 게재되었다. 같은 묵상 내용이 성경에 대한 다른 몇 가지 묵상 형태로 발행되었다.(MPM/c,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묵상*Meditazioni del Primo Maestro*」, 1932, 성바오로딸수도회 총본부 문서고 참조)."

4. "1907년 8월, 그는 세 번에 걸쳐 성경 주일을 편성하여 성경을 교리교육 방식에 적용하여 설명했다."(AD 138항 참조)

5. 이러한 성과는 1965년에 공표된 「계시 헌장*Dei Verbum*」(DV)에 드러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권위있고 규범적인 표현에 다다른다. 이 교의 헌장은 성경의 신학적 사목적 활용의 대헌장이 된다.

기에 성경 구절이나 거룩한 교부들과 교황들이 남긴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첨가했을 뿐이다."

처음 네 차례에 걸친 성체조배 시간과 다섯 번째 시간의 '묵상' 내용의 일부는 「출판 사도직 협력자회*Unione Cooperatori Apostolato Stampa*」(1933-1934)회지에도 실렸다.[6]

작품의 구성과 내용 구분은 전형적인 알베리오네의 방식을 취했다. 자신의 '방법'에 충실했던 알베리오네 신부는 **"진리-길-생명"**이라는 삼중 구조에 따라 강론을 전개했다. 각 가르침에 대한 세 가지 요점도 잘 정리되어 **I.성경과 믿음**(진리), **II.성경과 윤리**(길), **III.성경과 전례적 예배**(생명)와 같이 3부로 전개된다.

이 편집자는 시간이 흐른 뒤 더 자세히 다른 증언을 덧붙였다.

"1981년 6월 17일, 아리차"

I.「성경을 읽으십시오」의 발행을 위해 받아 적은 내용은 녹음은 하지 않고 제가 종이에 직접 쓴 것입니다. … 프리모 마에스트로께, 강론하실 때 너무 빨리 말씀하시지 말라고 부탁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모든 내용을 연필로 받아 적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기록한 원고를 타자해서 프리모 마에스트로께 가져갔습니다. 때때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말에 표시를 해 놓으면 신부님이 보시고 그 모두를 교정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II. 제가 첨가한 부분은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저에게 대충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신 성경 인용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대여섯 개의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면, 신부님은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구절을 고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부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결실을 이끌어내고 회심으로 이끄는 법을 알았던 성경 인물들의 예화를 찾아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 예화도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III. 성체조배를 위한 세 가지 요소 곧 믿음, 윤리, 전례적 예배 — 길, 진리, 생명 — 를 다루도록 3부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은 성경에 대한 한 달 묵상에 맞게 3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IV.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타자기로 작성한 초고를 읽고 수정하여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넘기기 전 하느님의 종 키에사 참사위원과 조반니 에반젤리스타 로발도 신부[7]에게 그 원고를 읽어보게 하셨습니다.

V. 신부님은 더 충실하게 쓰여진 것이 그 책인지, '협력자회' 회지인지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지에 실리는 원고는 내용을 요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길리오네 신부의 서명이 있음)[8]

6. A. Damino,「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문헌 목록*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 로마: 바오로가족 역사 문서고 본, 1994, pp.36-38 참조.

7. 조반니 에반젤리스타 로발도 신부(1896년 쿠네오 고르제뇨에서 태어나 1977년 로마에서 선종함)는 성경, 특히 복음서를 출판할 때 알베리오네 신부의 지향을 가장 충실하게 해석한 사람으로, 교리교육학적 주석을 붙였다. 그는 어린이부터 가정의 어머니들, 수도자, 본당 공동체, 약혼자들과 군인에 이르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각각의 연령에 적합한, 15종에 이르는 다양한 성경본을 편집했다.

8. 바티스타 길리오네 신부(1908년 쿠네오에서 태어나 1992년 알바에서 선종함)는 1922년 11월 6일 성바오로수도회에 입회하였으며, 1930년에 예로니모라는 수도명을 받고 첫서원을 하였다. 1934년 성탄절에 종신서원을 하였으며, 1935년 12월 21일에 사제품을 받았다. 신학생들의 마에스트로 보조자였고, 양성장이었다. 또한 바오로딸의 여러 공동체의 고무자요 강사이기도 했으며, 사도직의 여러 가지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준비하며 교황청 언론과 공연 위원회에서 기록 보관인으로 협력하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판본과 재판본(1933년 11월)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초판본 앞표지에는 제목, 복음서 인용 구절(잘못 참조된 부분도 있음), 출판사명(성바오로딸수도회, 알바-메시나-로마) 외에 구름에 둘러싸인 비둘기 모양의 성령께서 펼쳐진 성경을 내려다보는 상징성 있는 파란색의 그림이 있다.

— 재판본에서 이 그림은 노란색으로 바뀌고, 잘못된 복음서 인용문이 수정되었으며, 출판사 소재지의 표기 순서도 (알바-로마-메시나)로 바뀌었다. 뒷표지에는 틴토리Tintori가 번역하고 주석한 이탈리아어 새 성경 광고가 실렸다.

2. 재판본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로 풍요로워졌다.

— 교회 인가는 Aloysius M. Grassi B.[Barnabite]라고 필기체로 된 서명이 복제되어 있고, 인가 날짜는 Albæ Pompejæ 1–XI–1933–XI [=파시스트 시대 11년]이라고 표기돼 있다.

— 본문 외에 복음 장면과 성경 저자들의 초상화 등 20여 점의 삽화가 실려 있다.

— 16쪽짜리 종이 한 대가 추가 삽입되어 미사 전례문과 복음서의 저자들이 실렸다.

— (초판본에는 없던) 본문 색인이 추가되었다.

— 마지막 쪽에는 검열자 G.E. 로발도의 선언문과 참사위원 프란치스코 키에사의 검열 표시가 있다.

바오로가족 역사 문서고에는 「성경을 읽으십시오」의 또 다른 두 가지 발행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언급한 재판본과 편집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으며, 두 발행본도 편집 디자인이 서로 다르다. 이는 초판본이 적어도 세 차례나 재판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재판본에는 모든 책에 공통적으로 있는 교회 인가와 검열 표시만 있을 뿐 연대 표기가 없어 발행 순서를 확실히 표기할 수가 없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알바에서 출간한 1937년 재판본 「성경을 읽으십시오」는 페델레 파스쿠에로Fedele Pasquero 신부[9]의 감수로 발행되었다. 그는 성경의 모든 책에 대한 요약·검토와 머리글로 긴 입문을 삽입한 것은 물론, 성경 구절을 첨삭하고, 성경구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본문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오페라 옴니아 시리즈를 위한 현 발행본은 1933년판을 그대로 실은 것이다.

제목과 참고 문헌

불가타본에서 번역한 성경 본문을 제외한 이 책의 참고 문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인용된 인물과 저자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각주를 삽입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 p.72(쪽번호 72)에 책 제목과 저자 언급 없이 단 한 번 한 권의 책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아마도 1931-1932년경에 발행된 책으로, 내용은 **사도행전**에 국한되어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각각의 성경을 소개하기 위해 한 권 이상의 성경 개론서에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책 제목이 알베리오네 신부가 제안한 대로 붙여진 것인지, 아니면 편집자가 선택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편집자가 머리

9. 바오로인 사제(1911년 알바 코르넬리아노에서 태어나 2001년 알바노 라치알레에서 선종함)이다. 성경학 박사로 수많은 성경 관련 출판물을 편집했다. 그 가운데 원문에서 편집한 「최신판 성경*Nuovissima Versione della Bibbia*」(성바오로, 1967-1980)이 있다.

글을 쓰고 M. 길리오네M. Ghiglione S.S.P라고 서명했을 당시 그는 겨우 25세에 지나지 않았으며, 종신서원자도 사제도 아니었다.

어찌되었든 현 제목은 유다인들과 토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요한 5,39)

이 책을 읽는 데 열쇠가 되는 이 구절은 **수용적** 의미에서 사용되었다.[10] 그렇다 해도 알베리오네 신부는 여기서 거룩한 본문을 부지런히 읽으며 꼼꼼하게 공부하는 사람들로 부각되는 유다인들의 면학성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자의 의도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직설법으로 사용하신 동사는 명령형 또는 초대형으로 변형되어 "읽으십시오leggete"가 된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11]

작품의 기본 주제

알베리오네 신부 강론의 일차적 목표, 곧 글로 기록하여 책으로 발행한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물론 사도직에 부름 받은 모든

10. "… 수용적 의미는 우리가 성경 단어와 구절에서 제시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의도의 타당성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다소 진실되며 적절할 수 있습니다."(LS, P.42)

11. 독서를 위한 "바오로적" 초대는 콜로 4,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고 난 뒤에 라오디케이아 교회에서도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라오디케이아에 가는 편지를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여기서 그리스어 "읽다leggete"는, 권고를 의미하는 무한한 가정법을 나타낸다. 신약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러한 문법 형태의 '읽다leggere'라는 동사를 찾아볼 수 없다.

수도자에게 필수적인 다음 몇 가지 원칙과 태도를 마음에 새겨주기 위한 것이다. 곧,

1)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보다 영적으로 읽는 것의 시급함,

2)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의 가치,

3) 성경을 공동체 삶과 사도적 삶에 연관시킬 필요성,

4) 이러한 빛 속에서 성경 '전체'를 읽도록 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이 책의 중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령의 책인 성경. "성경에 대한 성령의 활동은 삼중적이다.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성경 저자들을 움직이시고 일깨우시며 도와주시어 그들이 모든 것을, 그리고 오로지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만을 자유롭고도 적절한 형태로 오류 없이 저술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비추시어, 같은 영을 통해 교회가 성경 말씀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며, 그 가르침을 완전하게 해석하여 당신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고, 지성을 열어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며, 읽은 것을 실천하는 은총을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께 기도하며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시기를 청하자. 또 인간적인 책들을 성경보다 더 자주 즐겨 읽은 것에 대해, 하느님과 대화하기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한 것에 대해 스승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자."(pp.9-10)

2. 인류의 책. "성경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아름다운 영화에서처럼 성경은 독자의 눈앞에 위대함과 결점, 실패와 무지를 지닌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어 자기 삶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

지, 격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때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덕을 지닐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p.16)

3. 아버지의 편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내시며, 멀리 계신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를 읽어보려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보여주실 것이다."(pp.19-20)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온 아들이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읽듯 크나큰 애정과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사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보내시는 편지다. 성경을 읽자!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것이다."(pp.32-33)

4. 성경과 교리.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 위해 긴 비평적, 역사적 각주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경 본문을 신학이나 교리가 제시하는 진리와 연결시키는 데는 필요한 몇 마디 정도로도 충분하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만한 탁월한 성경 주석가들을 빨리 보내주십사 주님께 기도드리자."(p.51)

5. 사목적, 사도적 법규. "사제와 사목자 여러분은 거룩한 책을 펼쳐야 한다. 그 책에는 여러분의 법규(행동 강령)와 삶의 규범이 있다. 거기서 사람을 구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p.73) "이러한 지향으로 성경을 읽는 젊은이는 자기 앞에 펼쳐진 무한한 지평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p.69) "모든 이가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출판 사도는 누구보다도 더, 모든 이에 앞서, 누구보다도 더 항구하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 눈먼 사람을 이끄는 눈먼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거룩한 책을 읽어야 한다. 그 사람은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고, 거룩한 언어로 말하며, 거룩한 효과를 얻는다."(p.100) "출판 사도직에 부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자기 성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는 어느 정도 사도직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퍼레이드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p. 317)

성경을 읽는 사람: 말씀의 제자들

알베리오네 신부에 따르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회심하여 바오로처럼 참제자요 참사도로 변화된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보편적인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정체성을 지닐 수 없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신심을 설교한 복자 알베리오네 신부는 예로니모[12]의 가르침과 표양을 자신의 귀감으로 삼았다. 성 예로니모는 말하길,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저자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를 제자의 귀에 전하는 사람"(서한 53,2)이라고 했다. 곧 스승 예수님처럼 교육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신중하고, 부지런하고, 관심을 갖고, 열정적이며, 정보가 풍부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예로니모가 말하는 성서적 영성을 갖추게 한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세 가지 동사, 곧 "묻다, 탐색하다, 이해하다"로 표현되는 영적 훈련과 탐구를 통해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성경 본문에 관해 탐구하거나 끊임 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12. 알베리오네 신부는 예로니모를 자주 인용한다. 특히 pp.213, 245, 247 참조.

가르쳐주셨듯이[13] 구도자의 기도와 비슷하며, 이는 지성에 대한 모험인 동시에 지성의 성화를 이룬다. 이런 여정에 있는 교회의 전통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표현에 따르면 "말씀이 쓰인 정신대로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땅humus이다.(「계시 헌장」, 12,3)[14]

알베리오네 신부는 예로니모 말고도 당대의 교회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았다. 실제로 그는 레오 13세의 회칙 「지극히 섭리하시는 하느님*Providentissimus Deus*」을 인용한다.(p.17)

"거룩한 편지들에 대한 훌륭한 연구를 장려하고, 현시대의 필요에 더 잘 부합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1893년에 발행된 이 회칙은 무엇보다 성경이 하느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하느님 말씀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원천이라는 사실의 합당함을 옹호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강론의 중심에 있어야 했다. 교회 교부들 중에는 성경에 대한 묵상을 "천상 가르침에 대한 가장 풍요로운 보물, 구원의 영원한 샘, 그 안에서 주님의 양떼가 놀랍도록 회복되고 재창조되는 비옥한 들판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높여진 매우 탁월한 구체적인 예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회칙이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15] 가톨릭

13. 마태 7,7-8: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참조: 예레 5,1; 루카 11,9-10)

14. 「위대한 성인전*Il Grande Libro dei Santi*」, 백과사전, 제2권, 성바오로, 1998, pp.947-957 참조.

15. 비오 12세의 「성령의 영감*Divino Afflante Spiritu*」(1943년 9월 30일 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기타 공식 문헌은 다음과 같다.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의 가르침*Instruction Sancta Mater Ecclesia*」(1964), 「계시 헌장*Dei Verbum*」(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5), 「교회 안에서의 성경 해석」(PCB, 1993).

신자들 중에는 성경 본문의 심화나 연구, 새롭고도 효과적인 해석 방법에 대한 개방보다는 호교론적 노선이 더 우세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역사 연구, 철학, 고고학, 문학 비평 및 일반 인문 과학 세계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환영하기보다 일반적으로 신 스콜라 철학(신 토마스 주의)의 영감을 받은 신학 학파가 주장하는 교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알베리오네 신부는 비판적 조직[16]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은 학자의 책일 뿐 아니라 믿는 이와 사도의 책이라고 생각하며 방어적이거나 호교론적인 태도를 넘어선 자세로 바오로가족을 인도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이 구원의 책이며 모든 수단으로 오늘의 온 인류에게 도달하게 할 길 진리 생명이 되도록 성경 전체를 읽고 시대에 맞게 묵상하도록 하라고 가르친다.

새로운 지침

알베리오네 신부가 늘 강조한 것처럼 성경을 시대에 맞게 묵상하도록 하고 이를 더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 1993년 교황청 성경위원회는 「교회 안에서의 성경 해석」이라는 문헌을 발간하게 된다. "성경 해석은 주석가들의 특별한 작업이지만, 독점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교회에서 하는 해석 작업은 본문의 학술적 분석을 뛰어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회는 성경을 단순히 교회의

16. 이와 관련하여 비오 10세가 과감하게 비판한 현대주의가 역사적, 비판적 연구로 인한 과격한 열정으로 태어났음을 기억하라. 알프레도 르와지(A. Loisy)는 금서 목록에 올라 파문된 성경학자이다.

기원에 대한 역사적 문헌을 모아 놓은 복합체로 여기지 않는다. 교회는 성경을 교회와 현시대 전반에 건네신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결과적으로 성경 메시지를 현대화하고 토착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영감을 받은 본문을 전례, 렉시오 디비나, 사목 직무, 교회일치 운동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정성을 기울인다."(41항)

실제로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경을 "시대의 표징"에 비추어 읽거나 다른 구절과 병행해서 읽기를 장려했다. 곧 '신문'에 반영된 것처럼 일상의 역사와 함께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는 교회의 위대한 전통 안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 성경에 기반을 둔 믿음을 함께 보도록 장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는 성경적이고 교회적인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침이나 실천할 내용을 제안하는 부분보다 전반부나 취지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덜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세상도, 학문도, 교회도 1933년에 멈춰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도 오늘날 성경의 학문적 발전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신학의 발전을 무시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그의 카리스마적 지향과 새로운 교회 차원에서 경의를 표한다는 측면에서[17] 이 책을 시대에 맞게 재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교회와 교황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러하다.

「교회 안에서의 성경 해석」에 관한 문헌은 이와 관련하여 "현대화를 올바르게 실천"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일련의 원칙을 제시한다.

17. 알베리오네 신부는 2003년 4월 27일 복자로 선포되었다.

ㄱ) 현대화는 **가능하다**. 성경 본문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풍요로운 의미는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 걸쳐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마태 28,19 참조) 곧 성경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풍요로운 의미가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 중요한 가치를 던져주기 때문이다.(마태 28,19 참조)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세대의 행동 규범과 가치 체계를 상대화할 수 있고, 동시에 풍요롭게 할 수 있다.

ㄴ) 현대화가 **필요하다**. 성경 본문의 메시지가 영속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도 그 본문은 과거의 여러 상황과 서로 다른 시대에 한정된 언어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려면 오늘의 상황과 현 시대에 맞는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ㄷ) 현대화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의 완성이요, 이를 능가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하다. 현대화는 이렇게 형성된 역동적 일치와 맥을 같이하면서 이루어진다.

ㄹ) 현대화는 신앙 공동체의 **살아있는 전통의 역동성** 덕분에 실현된다. 이 공동체는 분명 성경을 태동시키고 보존하고 전수한 여러 공동체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ㅁ) 현대화한다는 것은 **본문의 조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화는 쓰여진 성경에 새로운 견해나 이념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을 위해 지니고 있는 빛을 성실하게 찾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대화는 자구적 의미를 규명하는 정확한 본문 주석을 전제해야 한다. 독자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좋은 독서 안내서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현대화는 적어도 다음 세 단계가 필요하다.

1) 현 상황에서 출발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기.

2) 성경 본문에 비추어보거나 함께 토론하여 현 상황의 국면을 식별하기.

3) 성경 본문이 지닌 충만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를 이끌어내기.

이 작업을 할 때 신앙을 거부하는 합리주의나 무신론적 유물론처럼 성경의 근본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원리에 바탕을 두면 결국 모든 타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새로운 독서 방법

1995년에 발행된 이탈리아 천주교 주교회의 사목서 「교회생활 안에서의 성경」은 "건전한 다원주의 방법"을 배제하지 않고, "성경을 교회 공동체가 활발하게 읽도록 몇 가지 규정"을 제안한다.(17항)

이 같은 실용적 지침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앞서 언급한 교황청 성경위원회의 문헌에서 취한 것이다.

주교들은, 성경 본문의 문자적 또는 객관적 의미를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주석은 다른 여러 방법과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으나 역사 비평 방법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주석을 강조한다. 그러나 근본주의자들이 행하는 방식의 독서나 순전히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독서 방식은 거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성경 전체의 내용과 통일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을 통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의 비유나 신적 계시의 계획 전체를 통해 일관성을 지닌 진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탈리아 주교들은 같은 사목서에서, 독자들에게 성경 본문을 토착화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초대한다. 그 덕분에 하느님 말씀은 오늘날의 구원 말씀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사목서 「교회생활 안에서의 성경」 18항에 다음과 같이 "독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나온다.

ㄱ) **문자적 의미에 주의를 기울일 것.** 기록된 말씀이 강생의 신비에 참여하기에, 무엇보다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 또는 하느님이 성경 저자들을 통해 전달하시려는 내용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올바른 주석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ㄴ) **해당 성경 구절을 성경의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볼 것.**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느님 구원 계획의 통합성은, 각 부분을 전체와 연결시켜 읽으라고 당부한다. 다시 말해 각 구절을 다른 병행 구절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특히 구약성경은 가장 충만한 의미가 있는 신약성경에 비추어 읽어야 하지만, 신약성경 또한 우리 구원의 전 역사를 담고 있는 "하느님의 교육학"을 알아듣기 위해 구약성경의 빛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ㄷ) **교회적, 성사적 맥락에서 본문을 읽을 것.** 성경과의 모든 만남과 그 활용이 진정성을 지니려면 전적으로 교회의 신앙을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책을 펼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을 통해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배우자인 교회에 대한 충실성과 이

해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면 참으로 삼위일체께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ㄹ) **오늘날의 중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본문을 읽을 것.**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모든 독자에게 언제나 동시대적이고 현실적이다. 성경은 독자를 일깨우고 회심하도록 부르며 위로한다. 성령께서는 과거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삶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삶을 읽게 해주시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시대의 문제와 사건이 주는 의미를 식별하도록 도우신다.

ㅁ) **성경을 삶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 것.** 모든 말이 그렇듯이 하느님 말씀도 소통 과정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물론 이 과정은 그 초월적 신비를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수용자의 조건과 더불어 성경 문헌과 메시지의 고유한 요구에 따라 성경의 교육학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축소시킬 수는 없다.

맺음말

이 책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작품으로서, 그의 삶 전반의 이상과 사도적 카리스마의 중심 목표, 곧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을 더 친숙하게 하려는 목표에 더 명확하게 가치를 제시한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수도생활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며 오래도록 실천해 온 렉시오 디비나를 다시 활발히 하면서, 복음에 맞추어 삶을 쇄신하라고 독려한다.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신심, 면학, 사도직, 청빈 없이는 사도적 삶의 수레가 멈출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오로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일간지나

전자메일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에 더 큰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성경은, 읽는 사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도록 하느님이 날마다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2003년 4월 27일 로마

안젤로 콜라크라이, SSP

일러두기

1. 이 책의 원본은 지롤라모 길리오네Girolamo Ghiglione 신부가 편집한 초판본이다.(성바오로딸수도회, 알바, 1933) 일부 이탈리아어 철자 수정(액센트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의 본문을 충실하게 따랐다.

2. 라틴어 구절과 성경 인용문을 주목하면서 '편집자의 개입', 특히 불가타 성경 라틴어 판본을 인용한 "찬가"의 성경 구절("#"로 표시됨)은 성바오로출판사에서 발행한 「최신판 성경*Nuovissima versione della bibbia*」의 이탈리아어 판본으로 대체했다.

– 본문에서 라틴어로 인용한 성경 구절이나 교부들의 말씀은, 요약된 것이라도 번역본이 같은 본문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여 '각주'에 실었다.

– 성경 각 권의 약어와 장, 절 표기는 현재의 인용 체제와 일치한다. (번역본은 cbck의 방식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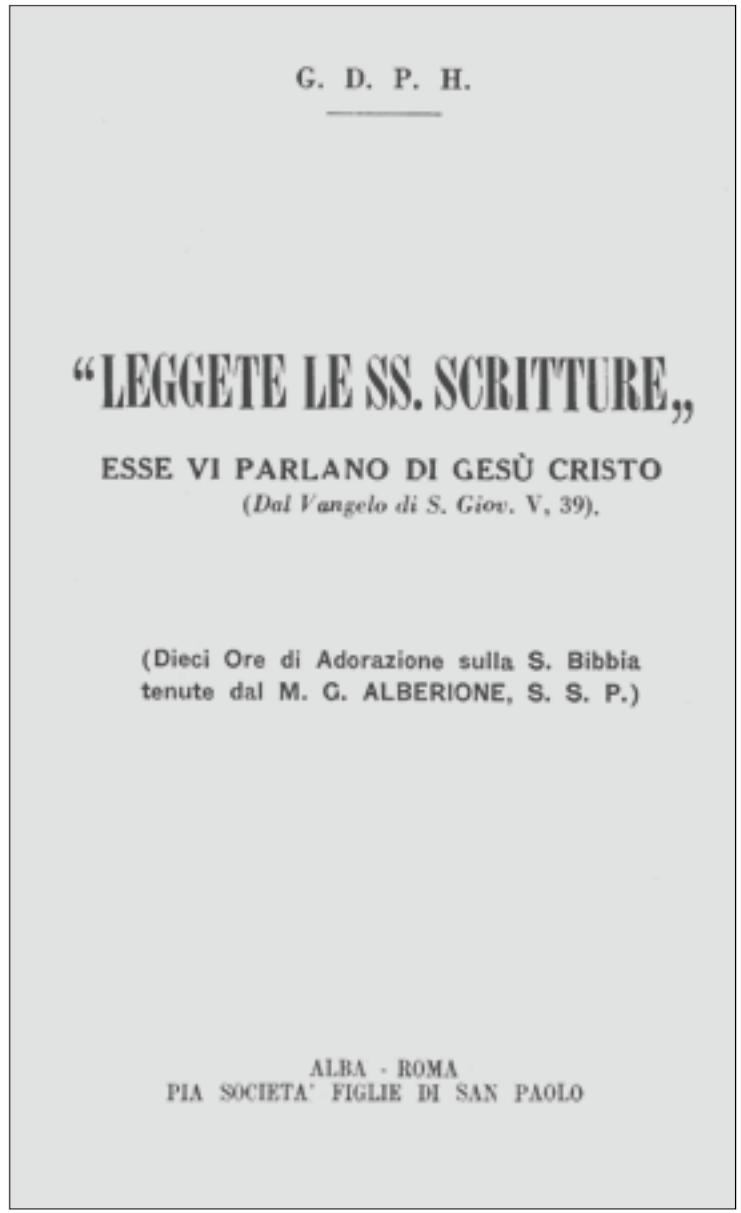
3. 역사적, 주석적 또는 설명으로 보이는 '각주'는 원본에 별표(*)로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편집자가 작성한 것이다.

– 원본에서 본문이나 각주에 다양하게 배치했던 모든 성경의 참조 표기는 본문에 통합했다.

4. 판면 양 옆 여백의 숫자는 원본 초판의 쪽수다. **색인이나 각주의 주제별 참조와 본문 인용은 이 번호를 참조한다.** 단락 중간에서 쪽수가 바뀌면 세로획 '|' 부호로 표시했다.

5. 성경 인용 색인, 분석적 주제 색인 및 일반 색인은 차례에서처럼 편집자가 작성한 것이다. (번역본에는 색인을 실지 않았음)

6. 각 장의 제목과 소 제목들은 원본의 차례에 따른 것으로 그날의 묵상 주제를 반영한다.


G. D. P.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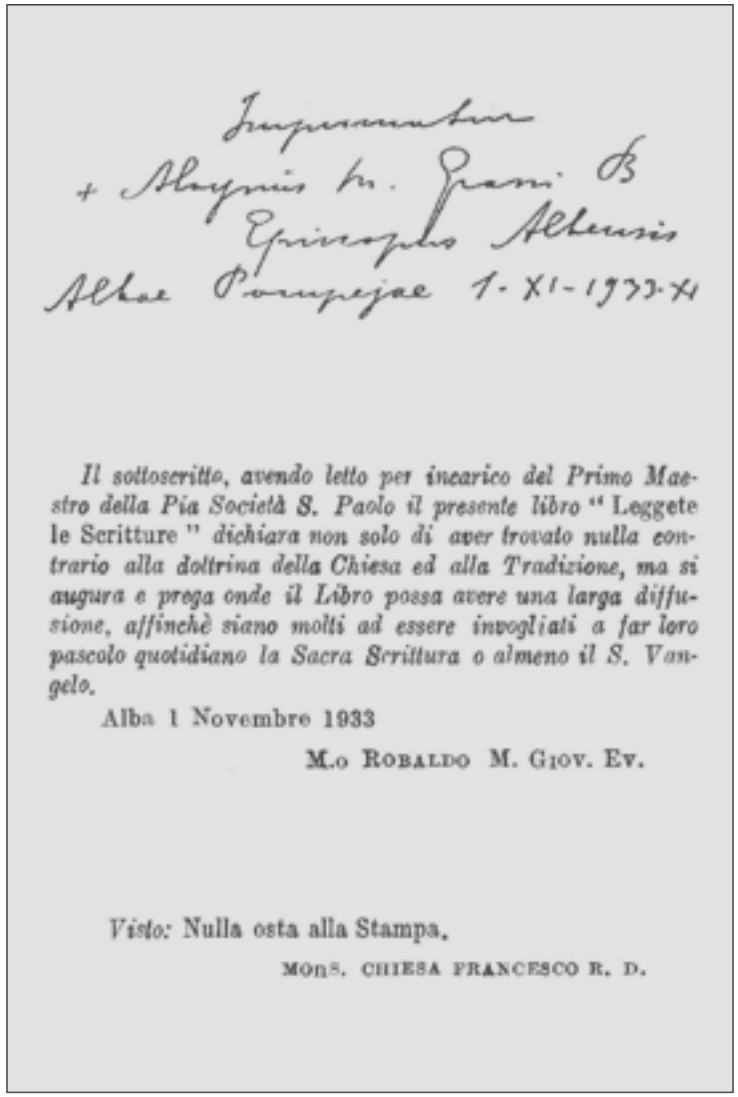
"LEGGETE LE SS. SCRITTURE,,

ESSE VI PARLANO DI GESÙ CRISTO
(*Dal Vangelo di S. Giov.* V, 39).

(Dieci Ore di Adorazione sulla S. Bibbia
tenute dal M. G. ALBERIONE, S. S. P.)

ALBA - ROMA
PIA SOCIETA' FIGLIE DI SAN PAOLO

이 책의 초판 속표지 복사본



Imprimatur
+ Aloysius M. Grassi SB
Episcopus Albensis
Albae Pompejae 1-XI-1933

Il sottoscritto, avendo letto per incarico del Primo Maestro della Pia Società S. Paolo il presente libro "Leggete le Scritture" dichiara non solo di aver trovato nulla contrario alla dottrina della Chiesa ed alla Tradizione, ma si augura e prega onde il Libro possa avere una larga diffusione, affinchè siano molti ad essere invogliati a far loro pascolo quotidiano la Sacra Scrittura o almeno il S. Vangelo.

Alba 1 Novembre 1933

M.o Robaldo M. Giov. Ev.

Visto: Nulla osta alla Stampa.

Mons. CHIESA FRANCESCO R. D.

알바 주교 루이지 M. 그라시 몬시뇰의 친필 교회 인가,
마에스트로 M. 조반니 에반젤리스타 로발도의 선언문,
프란치스코 키에사 몬시뇰의 검열 표시 복사본.
(재판 1쇄 때에는 2면에, 다른 판본에서는 책 끝에 실렸다)

머리글

성바오로수도회의 지극히 사랑하올 프리모 마에스트로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성체조배 때 우리에게 들려주실 성경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후에 다시 정리하여 발행하라는 제안을 나는 오로지 순명정신으로, 그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으로 시작한 이 작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하며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성경과 거룩한 교부들, 교황들의 저술에서 발췌한 말씀과 사건을 덧붙였을뿐, 가능한 한 신부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자 노력했다.

이 책은 강론 내용을 토대로 단순하게 작성한 것이다. 문학적 표현보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의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는 표현을 쓰고자 노력했다.

책의 구성: 성체조배 시간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처럼 이 책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부분, 곧 한 달의 첫 10일은 교의적인 것으로, 성체조배 시간의 첫째 요소인 (진리)를 다룬다.

둘째 부분은 윤리적인 것으로, 성체조배 시간의 둘째 요소인 (길)을 다룬다.

셋째 부분은 전례적으로 성체조배 시간의 마지막 요소인 (생명)을 다룬다.

성체조배(지성, 의지, 마음) 시간 전체를 쇄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

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1일, 2일, 3일) 날의 묵상이 아니라 첫째, 열한째, 스물두번째(1일, 11일, 22일) 날의 묵상을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 | 성체조배 시간에는 둘째, 열두째, 스물두번째(2일, 12일, 22일) 날의 묵상을 선택하며, 나머지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6

매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1. 성경 저술가들이나 성인 전기작가들에 대한 정보는 그들의 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빛을 받도록 그들을 알고 사랑하고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어떤 날은 이러한 정보가 없는데 이는 일부 필자들에 관한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2. 72권의 성경 각 권에 대한 짧은 기초적 설명은, 각 성경 독서의 입문 역할을 한다. 그 내용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랐다. 곧 같은 저자의 책을 한데 묶어 함께 다루었다. 따라서 몇몇 책은 매우 중요한데도 간략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3. 묵상은 성체조배의 셋째 부분에서 한다. 처음 10일간은 성경을 신앙과 관련지어 묵상하고, 그 다음 10일간은 성경을 윤리와 관련지어 묵상하고, 마지막 10일간은 기도와 전례적 예배로 성경의 거룩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얻어 마음이 불타오르게 한다.
   각 묵상 뒤에는 귀감이 되는 예화가 소개되는데, 이는 성경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달며, 성경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기까지 성경을 지킨 위대한 성인들이 지녔던 사랑을 보여준다.
4. 라틴어 성경에서 발췌한 **찬가**는 인류에게 성경을 주시고, 잃어버린 천국의 길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시편의 노래로 찬미와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5. 때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발췌한 짧은 독서는 독자에게 성경에서 발췌한 구절을 곧바로 묵상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구절에서 그 날을 위한 실질적 결심을 이끌어내게 하려는 것이다.
6. 성경에서 발췌한 기도문은, 독자들이 거룩한 영감을 받은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읽은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7. 하루 동안 스승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 행해야 할 작은 희생.
   이는 날마다 7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성체조배 시간이 완전하고, 존경하는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주관하신 것과 일치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는 예화가 담긴 묵상과 찬가와 기도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성경을 읽는 데 훌륭한 지침과 입문 역할을 할 것이다.

7

이 책의 대상 : 스승 예수님 앞에서 창립자의 지혜롭고 부성적인 가르침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성바오로수도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성바오로수도회(바오로가족) 회원들의 정신에 일치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바오로수도회(바오로가족) 모든 협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밖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진리와 생명의 순수한 원천, 곧 성경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제와 사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들은 성경에 관련한 10편의 매우 아름다운 설교와 성체조배 자료를 발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은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는 것과, 자신을 구원하고 천국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 성경은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조언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모든 이가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분명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고 진리, 길,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머무르게 될 것이다.

M. 길리오네, SSP

 [백면]

입 문

성경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Ego rogabo Patrem et alium Paraclitum dabit vobis."라고 성령을 약속하신 천상 스승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길 바라며, "당신 영을 보내시어 새롭게 창조하소서Emitte Spiritum tuum, et creabuntur." 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인간이 창조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로써 우리가 묵상하는 거룩한 진리를 이해하고 또 전할 수 있게 된다. "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Et renovabis faciem terræ."

성경에 대한 성령의 활동은 세 가지다. 성령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거룩한 저술가들을 움직이고 일깨우며 도와주시어 그들이 아무런 오류 없이 저술할 수 있게 하셨다. 둘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비추시어 같은 영을 통해 교회가 성경 말씀을 온전하고 진실되게 보존하며, 그 가르침을 그르침 없이 해석하고, 당신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움직여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게 하시며, 지성을 열어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며, 사람들이 읽은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비범한 하느님의 책으로서, 이를 읽기 위해서는 햇빛이나 전등이나 이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초자연적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임하소서, 성령이여Veni,

Creator Spiritus"를 바치며 간청하자. 더욱이 지금 이곳에 장엄하
10 게 | 현시 되어 계신 스승 예수님께, 성경보다 인간적인 책을 더 좋아하고, 하느님과 대화하기보다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한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하자.

성령께 바치는 찬가

Veni Creator Spiritus	임하소서 성령이여
Mentes tuorum visita	창조주여 임하소서
Imple superna gratia	고귀하온 은총으로
Quae tu creasti pectora	모든조물 돌보소서.
Qui diceris Paraclitus	우리들의 위로자여
Altissimi donum Dei	천주주신 선물이라
Fons vivus, ignis charitas	모든생명 근원이며
Et spiritalis unctio	타는사랑 주시도다.
Tu septiformis munere	칠은주실 성령이여
Digitus paternae dexterae	세상오신 사신이라
Tu rite promissum Patris	우리맘에 임하시어
Sermone ditans guttura	당신칠은 베푸소서.
Accende lumen sensibus	우리명오 비추시고
Infunde amorem cordibus	우리맘에 사랑주사

Infirma nostri corporis	우리들의 질병고통
Virtute firmans perpeti	즐겨참게 하옵소서.
Hostem repellas longius	우리원수 멀리쫓아
Pacemque dones protinus	참된평화 주옵시며
Ductore sic te praevio	당신인도 순히들어
Vitemus omne noxium	재앙면케 하옵소서.
Per te sciamus da Patrem	우리신덕 굳게하사
Noscamus atque Filium	성부성자 알게하며,
Teque utriusque Spiritum	당신또한 양위에게
Credamus omni tempore	발하심 알게하소서.
Deo Patri sit gloria	성부대전 영광이며
Et Filio, qui a mortuis	부활하신 성자께와
Surrexit, ac Paraclito	위로자신 성령에게
In saeculorum saecula.	무궁영광 있어지다.
Amen	아멘.

제1부: 성경과 믿음(진리)

1일
성경이란 무엇인가?

모세

모세는 위대한 예언자, 입법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으며, 모세오경을 구성하는 다섯 권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모세는 기원전 1530년, 파라오가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칙령이 공표된 다음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가 잘 생긴 것을 보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으로 그 아기를 왕골 상자에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고 누이 미르얌에게 나일 강둑에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파라오의 딸은 가엾이 여겨 히브리 여인에게 삯을 주어 그 아기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 아기는 거룩한 섭리로 자기 어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되어 40살까지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그는 히브리 형제들의 노예살이를 보고 가엾이 여겨 그들을 도우려다가 일이 잘못되어 궁전에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피해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타 없어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 한 가운데에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가서 하느님의 명령을 전했으나 불경스런 파라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열 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야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 긴 여정 동안 모세가 행한 기적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

리는 그가 갈대 바닷물이 갈라지게 했고, 바위에서 맑은 물이 흐르게 했으며,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었고, 아말렉족과 싸워 이기는 등의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시나이 산
14 기슭에 이르렀을 때 | 모세는 산위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하느님에게서 직접 거룩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120세의 나이에, 곧 기원전 1450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을 쓴 뛰어난 성경 작가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교회는 9월 4일을 모세 축일로 지냅니다.

모세오경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을 합쳐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세상의 기원과 히브리 백성의 기원을 알려주기에 창세기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책은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탈출한 내용이기에 탈출기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 책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제로서 수행하는 직무를 언급하는 규정을 주로 다루기에 레위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책은 사람들과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하기에 민수기라고 불립니다. 다섯 번째 책은 이미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약 내용과 두 번째 십계명의 선포 내용을 담고 있기에 신명기 또는 제2법전이라고 불립니다.

각각 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네 권의 책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전체를 소개하며, 인류의 기원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이르는 인류 역사를 요약하여 전합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들의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죽은 야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탈출기는 요셉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난 2년 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며, 파라오들에게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모세가 놀라운 기적들로 해방시킨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시나이 산에서 선포한 율법과 계약 궤를 모시는 성막의 건립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레위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별에 대한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개인적, 사회적 성화를 위한 모든 법과 규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나이 산에서 시작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을 전합니다.

신명기는 주로 예리코가 내다보이는 모압 평야에서 선포한 세 15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설득하기 위해 하느님에게서 직접 받은 축복과 계약을 떠올리게 하고, 거룩한 주요 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몇 가지 사항을 덧붙여 말합니다.

보다시피 모세의 활동은 하나로 통합된 전체를 구성하며, 각 부분은 그 전체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묵상 1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로마 3,2)[1]

성경을 뜻하는 Bibbia의 어원은 탁월한 '책'을 뜻합니다. 곧 성경은 거룩한 영감을 받은 72권[2]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적 계시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성 그레고리오는 "성경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에게 보내신 긴 편지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악의 깊은 늪에 빠져 하늘로 가는 길을 잃었지만, 연민을 느끼신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을 돕기 위해 편지를 쓰기로 하시어, 구원의 길을 새롭게 제시하십니다.

신비로운 이 책은 다른 모든 인간적인 책들과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겉모습은 다른 책들보다 꾸밈이 덜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성경에는 숭고한 진리와 신비로 가득한 세상이 숨겨져 있으며, 인류의 운명과 하느님의 지혜[3]가 담겨 있

1. "그들(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계시가 맡겨졌습니다."

2. 이 책은 72권의 성경(예를 들어, pp. 6, 29, 97, 145, 281), 곧 45권의 구약성경(예레미야의 편지 바룩서는 독립된 책으로 구분되지 않았다)과 27권의 신약성경(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규정한 성경 목록은 p.18을 참조하라)을 언급한다. 더 정확한 분류는 39권의 제1경전과 7권의 제2경전을 포함한 46권의 구약성경은 27권의 신약성경보다 많다. 가톨릭 경전과 클레멘스 불가타 성경에 따르면 모두 73권의 성경 책이 있다.(「불가타 성경」, 치니셀모 발사모: 성바오로출판사, 1995 참조) 제2경전(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기 상·하권, 지혜서, 집회서, 예레미야서에 첨부된 바룩서)은 기원후 70년부터 시작된 히브리어 경전에서 제외되었다. 개신교 신자들은 에스테르기와 다니엘서에 추가된 (제2경전)의 여러 책들을 외경으로 간주한다.

16

습니다. 이 외에도 | 성체성사적 빵의 모습으로 성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3]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다른 책들은 인간적이지만 성경은 신적입니다.

1. **성경의 저자는 하느님이시기에 성경은 신적입니다.** 사실, 성경의 진정한 주 저자는 모세, 다윗, 성 마태오, 성 루카 등과 같은 거룩한 저자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글을 쓰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키신**[4]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저자라고 일컫는 이들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는 자유롭고 지적인 도구이며, 성령의 활동에 매우 유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3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 하느님 선물로서의 지혜라는 주제는 이 책에 자주 등장한다.(pp.54-55, 92, 105-106 참조) 이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느님의 진리와 거룩함이 늘 손상되지 않은 채, 영원한 지혜의 놀라운 '자기 낮춤'이 드러나 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배려하고 보살피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알맞게 사용하셨는지를 배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치 예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인간들을 닮으셨듯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들이 인간의 말과 같아졌기 때문이다."(13항)

4. 이 책은 계속해서 성경에 관한 영감에 대해 언급한다.(pp.30, 32, 88, 89, 201 참조) 영감은 성경을 다른 책들과 다르게 만드는 카리스마다. 이에 대해 「하느님의 말씀」 11항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 포함되고 표현된, 거룩하게 계시된 진리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되었다. 거룩한 어머니 교회는 사도적 신앙에 따라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되었기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부분적으로 소개되는 책 전체를 거룩한 경전으로 여겼다.(참조: 요한 20,31; 2티모 3,16; 2베드 1,19-21; 3,15-16) 그들은 하느님을 저자로 삼았고, 따라서 그들은 교회에 맡겨졌다. …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2티모 3,16-17)"

2. 성경은 **전반적으로 거룩한 것들에 대해 말해 주므로 신적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하느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느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시작이요 마침이신지 깨닫는 법을 배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것들은 언제나 모든 인류를 흔들고, 앞으로도 흔들게 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닙니다. 아름다운 영화처럼 성경은 독자의 눈앞에 모든 인간의 위대함과 결점, 타락과 무지를 보여주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격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덕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3. 특별히 성경은 **그 자체로 신성함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 그리고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신적입니다. 17
진리의 왕국인 천국에서 탄생한 성경은 본질적으로 참 진리이신 하느님에게서 영감을 받아 오류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서술된 모든 것은 모두 진리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 교회의 창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올곧으며 다정한 벗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어떤 출판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유일한 출판사인 교회에 맡기신 것으로서, 교회는 성경을 오류 없이 해석하고 오롯한 마음으로 보존하며, 온전한 권리로 주석을 달고 해석하며 인쇄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교회의 철저한 검열과 주교들의 서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성경을 인쇄하여 보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회법 1385항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거룩한 공의회들과 교황들은 성경에 대한 태도[5]를 제시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레오 13세의 가장 아름다운 회칙 「지극히 섭리하시는 하느님 *Providentissimus Deus*」[6]과 비오 10세의 회칙 「주님 양떼의 사목*Pascendi Dominici gregis*」을 기억합시다.

거룩한 트리엔트 공의회는 영감을 받은 완전한 경전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그 책을 감히 부인하는 사람은 파문하겠다고까지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모인 트리엔트 공의회는 보편 교회와

5. 이 단락은 p.108과 함께 참조하라.

6. 1993년 4월 23일,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청 성경위원회(PCB) 문헌인 「교회 안에서의 성경 해석」을 1993년 1월 5일자로 발행했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여러분의 작품은 의미가 풍부한 두 기념일, 곧 두 권 모두 성경의 물음들에 봉헌된 「지극히 섭리하시는 하느님」 출간 100주년과 「성령의 영감」 출간 5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기회를 저에게 줍니다. 1893년 11월 18일, 교황 레오 13세는 주지적인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성경 연구에 대한 회칙을 출간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자극하고 권고하며 시대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교황은 썼습니다. 50년 후 교황 비오 12세는 자신의 회칙 「성령의 영감」에서 가톨릭 주석가들을 새롭게 격려하며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교황청의 교도권은 수많은 개입을 통해 성경 관련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한결같이 표현했습니다. 1902년 레오 13세는 성경위원회를 구성했고, 1909년 비오 10세는 성경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20년 베네딕토 15세는 성경 해석에 대한 회칙과 함께 예로니모 성인의 선종 15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연구에 주어진 활발한 추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완전히 확증되어 교회 전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은 가톨릭 주석가들의 활동을 조명하고, 성경에 포함된 하느님 말씀으로 자신을 더 열심히 양육하도록 사목자들과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사도좌 바티칸 시국의 주재 아래 교부들의 표양을 따라 신심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책을 받아들이며 공경합니다. 두 성경 모두 하느님이 유일한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이 법령에 거룩한 책들의 목록을 첨부하여 그 공의회
18 에서 받아들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 그 누구도 의혹을 품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의 다섯 가지 책들, 곧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열왕기 네 권,[7] 역대기 두 권,[8] 에즈라기 첫 부분,[9] 느헤미야가 쓴 것으로 전해지는 두 번째 책.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욥기, 다윗의 시편 150편.

잠언, 집회서,[10] 아가, 지혜서, 전도서.[11]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바룩서,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12 소예언서들, 곧,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디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바쿡서, 스바니야서, 하까이서, 즈카르야서, 말라키서. 그리고 마케베오기 상·하권.

신약성경: 네 복음서, 곧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그리고 성 루카가 쓴 사도행전.

성 바오로 서간 14편[12] : 로마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둘째 서간,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둘째 서간,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둘째 서간, 티토에게 보낸 서간,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성 베드로의 서간 두 편, 성 유다 서간, 성 요한의 첫째·둘째·셋째 서간, 사도 성 야고보 서간, 사도 성 요한의 묵시록.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책들을 읽는 것이 관례이며, 그 내용이 거룩한 경전과 같은 고대 라틴어 불가타[13] 원전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 책 전체를 각 부분과 함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파문될 것입니다."

7. 지금은 사무엘기 상·하권과 열왕기 상·하권.
8. 지금은 역대기 상·하권.
9. 오늘날 우리가 에즈라기로 알고 있는 책은 느헤미야기로 알려진 책으로 에즈라기와 단일한 본문을 구성했으며, 그리스어 칠십인역(LXX)에는 '에즈라기 두 번째 책'이라는 제목이 나온다. 그리스어 구약성경(칠십인역)에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발췌한 부분과 역대기의 마지막 장에서 발췌한 부분을 포함한 그리스어 외경인 에즈라기 첫 번째 책으로 등장했다. 불가타 번역본에서는 에즈라기 세 번째 책으로 제시된다. 칠십인역이 에즈라기 두 번째 책으로 제시하는 본문만이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스도교 성경에서 경전으로 인식되며, 이는 두 부분으로 분류되어 불가타 번역본에서는 에즈라기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으로 나뉜다. 현대판에서 느헤미야기라고 부르는 책은 오랫동안 에즈라기 두 번째 책으로 여겨졌다.
10. 집회서, 또는 시라의 지혜서.
11. 전도서, 또는 코헬렛.
12.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바오로 서간(Corpus Paulinum)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13편이다.
13. 불가타: 가톨릭 교회에서 채택한 라틴어 성경은 본문의 의미에 대한 충실성의 기준에서 영감을 받은 성 예로니모(4세기)가 번역한 것이다. 불가타 또는 새 라틴어 성경 번역본(로저 베이컨과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불렀음) 중에는 약 8,000개의 사본이 남아 있다. 에라스무스를 포함해 다양한 인본주의 학자들의 비판을 받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그 타당성이 엄숙하게 확인되었으며, 그 타당성은 제4차 회기(1546년 4월 8일)에서 진실되다고 선포되었다. 그러나 공의회는 자체적으로 문체 수정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시스틴 성경(식스투스 5세, 1590)과 클레멘스 성경(클레멘스 8세, 1598)이라는 두 권의 새로운 판본이 나왔다. 이 판본들은 3,0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판본에 속한다. 20세기 초, 비오 10세는 고대 불가타 비평본을 편집하기 위해 8,000여 편의 원고와 여러 교부들의 성경 본문 인용문을 수집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로마 성 예로니모 베네딕토 수도원에 맡겼다. 그 가운데

4. 성경에는 **거룩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거룩합니다. 인간이 저술한 일반적인 책은 보통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기에 종종 부정확하며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저술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성격이 서로
19 다르며 | 저자들 사이에는 수 세기라는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 성경의 첫 번째 책의 거룩한 저자인 모세와 묵시록의 저자인 성 요한 사이에는 15세기 이상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두 놀라우리만치 일치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확인해 주고, 모순을 찾아내려는 반대자들의 온갖 노력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순도 발견되지 않으며,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45권의 구약성경은 거룩한 구세주를 예고하며, 구세주의 탄생과 삶, 구원 활동, 죽음, 영광스러운 부활 등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27권의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이 언급한 바를 확증하고 이를 펼쳐 보입니다. 실제로 마태오 복음은 구약성경이 들려주는 예언의 실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놀라운 조화와 아름다운 구성이 펼쳐지는 엄청난 광경 앞에서 우리는 "성경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도록 쓴 것이므로** 거룩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책은 모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지만,

현재 정확한 개정판은 「거룩한 새 불가타 성경*Nova Vulgata Bibliorum Sacrorum*」(거룩한 필론의 편집, 교황 바오로 6세의 권위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인정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승인을 받아 공표됨, 로마: 바티칸출판사, 1979)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되어야 할 영혼을 지닌 모든 사람은 하늘 나라로 가는 길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상 스승은 사도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14] 하고 명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 멀리 떨어져 계신 아버지한테서 편지를 받
20 고도 펼쳐서 읽어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 * *

성경은 하느님의 책이니 있는 그대로 곧바로 받아들입시다. 다른 여느 책처럼 서가에 꽂아 두지 말고, 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 곧 십자가 옆에 두어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읽으며 입맞춤하게 합시다.

복음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제단 위에 놓여 있습니까! 티없이 깨끗하신 성체 아래, 지극히 복되신 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참된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와 똑같이 성경 안에, 하얀 종이의 모습 아래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관리하는 일에 그토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느님 말씀의 어떤 조각도 우리 손에서 떨어져 나

14. "Euntes in mundum universum praedicate Evangelium omni creaturae."

가게 해서는 안 되며, 하느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소홀히 하여 땅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편지를 써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성경 말씀으로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성경을 존중할 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여정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진심어린 결심을 하면서 말입니다.

귀감 –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경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젊은 아
21 우구스티노는 | 본성과 영 사이에서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그의 끓어오르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열광하며 오랜 세월 진리를 찾느라 헛된 수고를 하면서, 진리를 찾지 못해 낙담에 빠집니다. 그런 와중에 빛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열렬한 기도와 쓰라린 눈물에 감동하신 하느님 은총의 승리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감하며 카시치아쿰에 머물던 그는 고요한 정원에서 "집어서 읽어라!" 하는 신비로운 말씀을 거듭 듣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새로 태어난 사울처럼[15] 주저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놓인 책을 집어 들고 읽었습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로마 13,13-14)

그에게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이 말씀이 충분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젊은이는 이 말씀을 하늘이 내려 준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깊이 인식하며 곧바로 자기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친구 알피우스가 정원에 들어왔을 때, 아우구스티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눈물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알피우스는 자기 친구 아우구스티노가 더는 마니교에 빠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노가 교회에서 설교와 글을 통해 큰 선을 이룬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쓴 글 가운데 「고백록」, 「신국론」, 「무지한 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음악」, 「삼위일체」, 「은총」에 대한 논고 등을 상기했으면 싶습니다. 이 글들은 모두 엄청난 가치가 있으며 교리의 샘솟는 원천으로, 이는 모두 성경에 근간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의 회심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지식은 모두 성경 덕분이었습니다.

작은 희생 : 성경이 모든 가정에 들어가, 많은 영혼이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스승 예수님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세 번 바친다.

15. 사울은 사도 바오로이며, 이 책에 나오는 이름 사울은 바오로가 자신의 출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벤야민 지파의 이스라엘 임금 사울을 가리킨다.(참조: 로마 11,1; 필리 3,5)

모세의 찬가[#]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
22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피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그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습니다.
당신의 그 큰 엄위로 적들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진노를 보내시어 그들을 검불인 양 살라 버리셨습니다.
당신 노호의 숨결로 물이 모이고 물결은 둑처럼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엉겼습니다.
원수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쫓아가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 내 욕구를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그들을 쳐부수리라.'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 일러두기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불가타 라틴어 번역본에 포함된 "찬가"에 해당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이탈리아 성바오로출판사가 편집한 이탈리아어 「새 성경*Nuovissima Versione della Bibbia*」에 나오는 성경 구절로 대체되었다. 한국어 번역본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2005년에 펴낸 「성경」을 사용했다.

위업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당신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자애로 인도하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습니다.
민족들이 듣고 떨었으며 필리스티아 주민들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질겁하고 모압의 수령들이
전율에 사로잡혔으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들은 당신 팔의 위력을 보고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께서 얻으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였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주님, 그 산은 당신께서 살려고 만드신 곳,
주님, 당신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신다."(탈출 15,1-18)[16]

독서 23

천지 창조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16. 이 책(LS)에는 19절이 첨가되어 있으나, 모세의 노래는 18절로 끝난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여, 뭍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뭍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흗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빛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빛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빛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흗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샛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24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샛날이 지났다.(창세 1,1-31)

모세의 기도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삼 대

사 대까지 벌한다." …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탈출 34,6-9)

2일
영감을 받은 성경

여호수아

모세의 활동을 이어받은 뛰어난 통수권자인 그는 마침내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에프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로 호세아입니다. 모세는 그를 약속의 땅 탐정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명하고,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뜻의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사람들의 영혼을 하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적합한 이름입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그의 후계자가 될 사람으로 그를 지명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격려하면서 그를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모세가 죽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저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이른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

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 네가 사는 동안 내내 아무도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는 큰 기적을 일으켜 모든 사람과 함께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였으므로 아무도 여호수아의 칼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6년 만에 그는 31명의 임금들을 처형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26

그는 각 부족에게 돌아갈 영토를 놓고 제비를 뽑아 차지한 그 땅을 부족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18년 동안 백성을 다스린 다음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국가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을 스켐으로 모이게 하여 조상들의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는 110세가 되는, 기원전 1442년에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책은 대개 그가 쓴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여호수아기는 모세가 쓴 책들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교부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여기며 오경을 완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약속의 땅 정복과 분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진영을 떠나게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르단 강을 건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 히브리인들은 예리코 동쪽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예리코는 매우 견고한 도시였으나 주님은 그 성벽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려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여 여호수아의 명령을 위반한 대가로 온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아이를 점령했습니다.(해가 기적적으로 그대로 멈추어 있는 사건을 기념하는) 또 다른 싸움에서 다섯 명의 가나안 임금이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나 속임수를 써서 목숨을 건진 기브온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을 영원히 섬기도록 단죄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팔레스티나 남부와 북부를 정복했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수아는 31명의 임금을 정복했으나 아직 소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나누어 차지할 지역들의 이름을 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와 도시가 정해져 모든 부족에게 몫이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섬길 책임을 지닌 레위 지파만이 그곳에 살기 위해 목초지가 딸린 일부 성읍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영토를 갖지 않았습니다. 한편 |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모세한테 이미 땅을 받은 부족들은 정복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을 도운 후 그들의 영토로 돌아갔습니다.

27

자기 사명을 완수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할당된 소유지로 돌아갔습니다.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마지막 권고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모아 놓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떠올리며 하느님께 충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책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묘사로 끝납니다.

여호수아기의 목적은 당신 계약에 충실하신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로들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땅을 거주지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은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티나는 점령되었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그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묵상 2
성경은 모두 영감을 받았다

>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이다."(2티모 3,16)[1]

성경을 구성하는 72권에 이르는 모든 책의 "저자는 하느님입니다Deum habent auctorem."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모세에게 속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많은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또한 신약성경에 나오는 네 복음서의 저자가 성 마태오, 성 마르코, 성 루카, 성 요한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교회가 몇 세기 동안
28 | 성 바오로, 성 야고보,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유다 사도들의 서간으로 여겨온 그 기원을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책들이 사람들에 의해 쓰였다면, 성경이 어떻게 거룩한 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차적 저자인 하

1. "Omnis Scriptura divinitus inspirata."

느님이 계시고, 하느님께서 세상에 당신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시간과 장소와 상황 가운데 선택하신 여러 명의 2차적 저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적이며 자유로운 도구, 또는 하느님의 비서요 서기관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편지를 쓰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예화는 성경이 어떻게 두 명의 저자를 갖게 되는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ㄱ) 오늘날 세상에서 출판되는 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날마다 몇 천 명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와 여러 판형의 책을 출판하고 보급하기 위해 일합니다. 상업, 농업, 수학, 음악 등 무척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이고 거룩한 주제를 다루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며, 정확히 말해 탁월한 책, 곧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에 담긴 모든 것은 거룩한 신적 영감을 받아 쓰였습니다. 성 베드로는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2베드 1,21)이라는 말로 이를 확증했습니다.

하느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시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책입니다. 하느님 자신이 성경의 1차적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ㄴ) 네 명의 복음사가들 옆에 배치된 상징에 대해 여러분은 이
29 미 여러 차례 묵상했을 것입니다. 성 마르코 옆에는 날개 달린 사자가 서 있고, 성 요한 옆에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 상징들은 복음사가들이 복음을 저술하는 동안 그들을 도와준 초월적인 덕(힘)을 나타냅니다.

ㄷ)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제가 제단에서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또는 “사제가 미사 집전을 마쳤습니다.” 이 두 표현은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 변화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시키는 분은 하느님의 사목자인 사제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거룩한 미사에서는 예식과 같이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성 봉헌의 말씀처럼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체나 언어 등과 같이 부수적인 것들이 있고, 또 생각과 구절의 의미처럼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 곧 부수적인 것들은 모두 거룩한 저자에게 속하며 고유합니다. 예를 들어 성 마태오 복음과 성 루카 복음 사이에는 서로 다른 문체가 있습니다! 의사요 학자인 성 루카는 우아하고 쉬운 문체를 지닙니다. 한편 성 마태오는 단순한 세리로서 덜 우아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많이 받아 박학다식한 이사야는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아모스와 같은 단순한 목자는 투박하고 거친 문체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하느님이 72권에 이르는 모든 성경의 주요 저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0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교황 레오 13세는 | 1893년 11월 18일에 발표한 회칙 「지극히 섭리하시는 하느님」[2]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교회는 성경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2. 이 단락은 p.17과 p.109에서 발췌한 것임.

노력으로 편집된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없는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아래 쓰인, 하느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하느님은 초자연적 힘을 통해 거룩한 저자들로 하여금 저술하도록 자극하고 움직여 글을 쓰도록 도왔으며, 그들은 자기 지성 안에 정확히 잉태된 내용을 자기 의지에 따라 충실하게 표현하려고 열망했고, 참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오로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은 성경 전체의 저자가 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삼중 기능을 행사했습니다. 곧 무엇을 써야 하는지 그 내용과 관련하여 저자들의 지성을 일깨웠고, 그들의 의지를 움직여 저술하기로 마음먹게 했으며, 저술하는 동안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1. 성령은 거룩한 저자들을 일깨워 그들이 무엇을 써야 하는지 비추어주심으로써 오로지 하느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른 것만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거룩한 저자들은 자신들이 영감을 받아 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저자가 그 특정 사실과 관련하여 영감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 요한은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 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요한 21,25)

그리고 거룩한 저자는 때로 자신이 써야 하는 것들을 무시하거 31

나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하여 명확하게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모든 예언자는 그들이 전해야 하는 내용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지만, 몇 세기 후에 그들이 예언한 내용이 서간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느님 편에서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구세주의 삶과 죽음에 대해 가장 미세한 세부사항까지 묘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2. 성령은 거룩한 저자의 의지를 움직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쓰기로 결정한 방식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느님이 쓰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을 200번 넘게 읽습니다.

탈출기에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탈출 17,14) 하셨고, 이사야에게는 "너는 커다란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보통 글씨로… 써라."(이사 8,1)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한 저자들의 의지를 움직여 글을 쓰게 하신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 성령은 거룩한 저자가 글을 쓰는 동안 이끌며 도와주셨기에 성경 저자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께서 바라신 것만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 요셉의 사생활과 공생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합니까! 복음사가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경에

담긴 모든 것은 | 분명 거룩한 영감을 통해 쓰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3]는 "성경의 모든 내용 또는 모든 부분이 거룩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든 파문당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는, 강조하는 내용은 물론 가장 짧은 내용에까지 거룩한 영감이 미친다고 말합니다"Usque ad apicem et lineam."

그러므로 성경에는 신앙과 도덕은 물론 과학과 역사에 대해 그 어떤 오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진리이신 하느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성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랑스럽게 높였던 합리주의자들이 마침내 과학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서 머리를 숙인 채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옳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옳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과 모순에 빠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 * *

그러므로 첫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해 최대한의 존경과 공경심을 보여야 하며, 성경은 참으로 하느님을 저자로

3. 교황 비오 9세가 소집한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년 12월 – 1870년 7월)는 신앙과 도덕 문제에 대한 로마 교황의 무류성 교리는 물론 성경의 교의적 권위를 승인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여기에 교의헌장 「하느님의 아들*Dei Filius*」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인정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과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여기며 교회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성경이 거룩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파문당하게 하라."(교회법전 제 4권, 제2부, 계시에 대하여)

삼는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의 모든 책이 거룩한 영감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쓰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온하게 성경을 읽어야 하며, 그 안에서 어떤 오류도 발견할 수 없음과 오로지 우리 영혼을 위한 본질적 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 것은, 과학이 아닌 것을 과학으로 선포한 합리주의자들처럼 단순한 가설에 불과한 것을 진리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33 셋째, 우리는 마치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읽는 것처럼 지극한 사랑과 신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성경은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인 인류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늘 나라로 가는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귀감 – 비탄의 성모의 성 가브리엘과 성경. 그는 성경 말씀을 지극히 공경했으며, 심지어 겉으로도 환히 빛나는 공경심을 지녔다고 성 스타니슬라오의 제르마노 신부는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큰 기쁨 속에 맨발로, 때로는 무릎을 꿇고 자신이 읽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구절들, 특히 자기 영혼에게 적용되는 구절들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구절들을 휴대용 엽서에 적어 성무일도를 바칠 때나 가대에서 거룩한 시편을 노래할 때를 위해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통한 여러 수사들에게 그러한 구절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여 기회가 닿는 대로 묵상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거룩한 생각이 일어나고 거룩한 애정이 불타오르게 하며, 거룩한 목표에 대한 생각을 잉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깊이 존경하며 공경하는 법을 배웁시다.

작은 희생 : 성경을 읽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영광의 신비 3단을 바친다.

세 젊은이의 찬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칭송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일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진실하며 당신의 길은 다 올바릅니다.
당신의 판결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저희 조상들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내리실 적에 당신께서는 진실하게 판정하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보시고 당신께서는 진실히 판결하시어 34
그 모든 것을 내리셨습니다.
저희는 당신에게서 멀어져 죄를 짓고 법을 어겼습니다.
정녕 저희는 모든 일에서 큰 죄를 지었고
당신의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따르지도 않고
잘되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내리신 그 모든 것,
저희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는 진실한 판결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무도한 원수들, 가장 가증스러운 반역자들,

불의한 임금, 온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임금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입을 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과 당신을 경배하는 이들에게는
수치와 치욕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당신의 벗 아브라함
당신의 종 이사악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 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숫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진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모든 권세와 세력을 빼앗긴 채, 권력이 꺾인 채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주님이심을, 하나뿐인 하느님이심을,
온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다니 3,26-45)

독서 35

여호수아의 유언

주님께서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해 주신 뒤, 오랜 시일이 지났다.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이제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것을 다 보았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요르단에서 해 지는 쪽 큰 바다까지, 이미 멸망시킨 모든 민족들과 아직도 남아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너희에게서 몰아내시고 너희 앞에서 내쫓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굳세어져서 모세의 율법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너희 곁에 남

아 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오늘날까지 해 온 대로 오직 주 너희 하느님께만 매달려라. 주님께서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하였던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을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곁에 남아 있는 이 나머지 민족들에게 달라붙어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너희와 어울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다시는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물과 올가미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는 마침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보라, 오늘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두고 이르신 그 모든 좋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잘 알고 있다. |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너희에 **36**
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나쁜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셔서,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없애 버리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약을 너희가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여호 23,1-16)

유딧의 기도

"나는 내 하느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
힘이 놀라우신 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자 생겨났으니
모든 조물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당신께서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거역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산들이 그 밑바닥부터 바다와 함께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당신 앞에서 밀초처럼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을 당신께서는 가엾이 여기십니다."(유딧 16,13-15)[4]

4. 이 책은 "유딧 15,16-19"을 언급하지만 p.94에 정확히 제시된 것처럼 실제로는 15장이 아니라 16장을 가리킨다. 더욱이 이 인용문은 불가타 번역본을 제시하지만 현재의 번역문은 13-15절에 해당된다.

37

3일
성경의 의미

사무엘

엄밀히 말해 그는 예언자들 가운데 첫 번째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관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카나였고, 어머니는 한나인데 나이가 많았지만 주님에게서 아들을 얻어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봉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무엘은 실제로 성전에 봉헌되어 주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한편, 대사제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에 진노하신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을 전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대사제 엘리는 그 불행한 소식을 듣고는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사무엘이라는 다른 사제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제이자 판관 사무엘은 주님께 충실하여 지혜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는 모든 우상과 이방신을 백성 가운데서 없애라고 명령하며 모든 이를 참회로 초대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어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잘못에 대해 책망하는 거룩한 방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새 임금 다윗을 세웠으나 다윗의 완전한 승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판관기와 룻기는 사무엘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 1, 2권(70인역의 사무엘기 상·하권을 말함)도 그가 차지하는 큰

역할 때문에 그가 저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관기 – 룻기 – 열왕기 1, 2권

38

판관기는 여호수아(1442?)의 죽음에서 사울Saulle[1](1075)을 선택하기까지 하느님 백성을 다스린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한 지파, 또는 다른 지파에서, 심지어 여러 지파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첫 두 장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 다시 말해 이웃 백성들에게서 끊임없이 비롯되는 위협, 당신 백성을 적의 억압에 맡긴 주님의 포기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다음 오트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타, 삼손과 같은 몇몇 판관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부록으로, 단 지파의 우상숭배 이야기와 벤야민 지파를 멸망시킨 기브아인들의 만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판관 시대의 가정생활 장면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린 작은 걸작입니다. 그 주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근에 시달린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여, 두 아들이 모압의 두 여인 룻과 오르파와 결혼하지만 죽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10년을 보낸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와 헤어지지 못한 룻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은 보아즈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그와 결혼하여 이사이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조상인 오벳을 낳습니다.

1. Saulle는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의 또 다른 표기 방식이다.

룻기에서 감동적인 것은 고통이나 불행을 영웅적으로 받아들이는 나오미의 강인한 자세, 룻의 신심과 겸손, 보아즈의 믿음과 관대함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세 사람은 국가적, 종교적 사랑의 감미로운 배경 아래 돋보이며 거룩한 선의를 드러냅니다.

열왕기 1, 2권 : 네 권의 열왕기[2]에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억압에서 벗어나(판관기가 끝날 무렵) 요아킴의 바빌론 유배에 이르기까지 선택된 백성이 걸어간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엘리와 사무엘의 판관 역할에 대해 언급한 다음, 나중에 하느님께 불순종하여 책망을 받은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왕권의 존엄성을 확립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대신 머지않아 다윗이 선택되어 그 역량을 드러내게 되리라는 이야기는 | 사울의 시기심을 부추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사울은 다윗을 부당하게 핍박합니다. 한편 그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패배당한 후 하루만에 비참하게 자기 아들들과 군대, 자기 생명과 나라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헤브론에서 사울의 아들과 전투를 벌인 다윗 왕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후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의 통치, 그리고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지어 그의 영광이 끝나는 여러 종류의 단편적 문서로 마무리됩니다.

2. 열왕기 1,2권: 이는 그리스어로 된 칠십인역과 불가타 성경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는 사무엘 상·하권을 뜻한다. 열왕기 3,4권은 열왕기 상·하권에 해당한다. 두 권의 열왕기는 사무엘기 상·하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후편이다. 사무엘기 상·하권에는 사무엘의 탄생에서 다윗의 죽음에 이르는 시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열왕기 상·하권은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 왕국의 출현,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과 파괴(975-586 BC)와 함께 일어난 유다 군주제의 몰락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언급한다.

사무엘기라고 불리는 단일 작품을 구성하는 이 두 권의 책은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사무엘과 갓, 그리고 예언자 나탄의 글을 통해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묵상 3
성경의 의미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시편 119, 34)[3]

성 루카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루카 24,45)[4]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눈을 열어 주시어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스승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성경을 일반 책들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책들에 비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문자와 종이의 껍질켜 아래 숭고하고 보편적이며 영원한 진리의 세상이 숨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소박한 겉

3. "따르고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깨닫고 마음을 다해 준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책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신학적 연구(pp.50, 51, 69, 78, 92, 281, 392, 303), 영성(pp.227, 238, 247이하, 261, 302-303), 사목 전반(pp.69, 73s. 238, 247s, 274, 291, 317)의 기본으로 간주된다. 성경 공부를 통해 그런 경지에 이른 성인들의 예가 인용된다. 바오로 자신은 성경 전체를 모두 꿰뚫고 있었다.(p.230)

4. "Tunc aperuit illis sensum ut intelligerent Scripturas."

40 옷 안에 있는 | 하느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외형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문자와 문자의 성령을 구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 바오로가 말하듯,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활력을 줍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2코린 3,6)[5]

아, 그렇습니다! 잘못 해석된 문자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히브리인이 구약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앞으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요한 1,11)[6] 그뿐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내렸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7]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안전하게 이끄는, 오류가 없는 어머니이자 스승인 교회의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5. "Littera enim occidit, spiritus autem vivificat."

6. "Et sui eum non receperunt."

7. 현대의 과학적 요청을 숙고하지 못한 고대 주석은 성경의 모든 본문이 서로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알베리오네 신부 또한 사용한 것으로,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다. 중세 주석은 영적 의미에서 세 가지 다른 측면, 곧 계시된 진리, 따라야 할 행동, 최종 성취로 구분한다. 따라서 13세기 아고스티노 디 다시아의 유명한 이행 연구는 이렇게 말한다. "문자는 행동에 대해 말한다. 우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Littera gesta docet, quid credas allegoria,/ 당신이 행하는 도덕, 당신이 바라는 영적 해석. moralis quid agas, quid speres anagogia."(p.293의 각주 11 참조) 현대의 역사 비평 주석이 기울인 모든 노력은 성경 본문이 작성된 상황에서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복합적이며 다른 문학 장르(역사 이야기, 연대기, 비유, 예언적 신탁, 입법 규범, 잠언과 속담, 기도, 찬가 등)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 PCB는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 *

의미 없는 말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곧 **말의 시체**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하길, 어떤 사람의 말이 보잘것없다는 것은 보통으로 그러한 말이 오직 하나의 의미, 곧 문자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문자적 의미. 일반적으로 "문학적"인 것이나 근본주의적인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이 의미는 독특하다. "이는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가 직접 표현한 것"이며 거룩한 영감의 열매다. 이는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문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추론된다. 주석의 임무는 문학과 역사-고고학적 연구가 제공하는 모든 가능성을 이용하여 많은 성경 본문의 역동적 특성을 잊지 않고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대의 성경 독자는 본문이 표현하는 사고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확장을 인지하고 초기 의미에 새로운 결정사항을 덧붙여야 한다. 또한 문자적 의미는 처음부터 새로운 맥락에서 추진하는 지속적 "재독" 덕분에 생성되는 추가 설명에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영적 의미. 문자적 의미와 무관한 이질적 의미와 혼동하지 말 것.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맥락을 세우셨다. 이 맥락은 새로운 방식으로 고대 본문에 빛을 비추고 의미의 변화를 결정한다. 일반적 표시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라 이해되는 영적 의미를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와 그 결과로 생기는 새로운 삶의 맥락에서 성경 본문이 성령의 풍성한 강림 아래 읽을 때 표현되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파스카적" 문맥은 성경의 완성을 인지하는 신약성경 전체를 조명한다. 따라서 영적 의미와 문자적 의미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영적 의미는 이 책(pp.41-43)에 언급된 "수용적" 의미, 또는 상상이나 지적 추론에 의해 제시된 주관적 해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3) 충만한 의미. 충만한 의미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본문이 지닌 더 깊은 의미이지만 인간 저자에 의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의미"로 정의된다. "문자적 의미"와 구별되는 경우 이는 "영적 의미"와 같다. 그 바탕은 성경의 주요 저자이신 성령께서 인간 저자가 자기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 깊이 인식하지 못한 진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성경의 정경을 통해 원래 문맥에 의해 그림자 아래 남겨진 의미의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문맥이 만들어진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의미는 본문의 문학적·역사적 맥락과 그리스도인 독자가 살고 있는 새로운 영적 교회적 맥락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교회 안에서의 성경 해석」 참조)

성경은 하느님의 편지이기에 음절과 그 음절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결과적으로 거룩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이 빛을 비추는 기운에 둘러싸여 | 인류가 소유하는 소중한 책으로 모든 이가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

성경의 의미는 삼중적으로, 곧 문자적 의미, 신비적 의미, 수용적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적 의미라고도 하는 문자적 의미는 단어의 일반적 사용법에 따라 그 단어가 지닌 자연적 의미에서 추론된 것이며, 이는 **적절하거나 비유적일** 수 있습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표현이 첫눈에 떠오르게 하는 것을 의미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마태 20,18)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실제로 팔레스티나의 수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유적이라는 것은 단어가 문자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비유적으로 이해될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례자 성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 하고 말할 때, 그는 "어린양"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세례자의 말은 메시아가 작은 양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의 온유함과 구원 활동을 암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어린양처럼 인간의 죄를 보속하며 속죄해야 했습니다.

영적 또는 전형적 의미라고도 불리는 **신비로운 의미**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지 않고, 그 단어가 표현한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성 토요일에 모든 애도를 끝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오라." 하고 노래하게 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도시의 성벽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영혼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영혼, 교회, 천국을 | 가리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는 신비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42

이처럼 신비로운 의미는 또한 **전형적** 의미라고도 불립니다. 그 표현이 나타내는 것은 종종 또 다른 유형과 같기 때문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른 유딧은 지옥의 뱀의 머리를 짓밟은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한 전형典型입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은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표징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두었습니다.

수용적 의미는 실제로 성경에 담긴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과 구절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올바른 지향과 그 지향을 세운 사람의 학문적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다소 사실이거나 적절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8편 27절[8]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그를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며 말합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선하게 되고, 사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사악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속담을 표현합니다. 이는 수용적 의미, 곧 적용된 의미가 됩니다.

8. 불가타 번역본의 시편 17편은 원본에서 번역된 성경에서는 18편에 해당된다.

시편 말씀은 오히려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며, 하느님이 악한 사람을 벌하고 선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실 때 선한 사람에게는 자비로우시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엄한 분이심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 * *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미를 감지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독자는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 곧 문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를 인도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43 선가 모호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을 만나면 | 본문을 설명하는 각주를 참고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교회가 신학적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선택하듯이 문자적 의미를 가급적 고수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성경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의미의 중요성을 배제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적 의미는 특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주로 사도들, 사도 교부들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었고, 훨씬 후대에는 오리게네스가 이끈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성 암브로시오, 성 아우구스티노, 성 대 그레고리오처럼 최고 권위를 지닌 교부들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수용적 의미 또한 진지하게 적절한 존경심을 갖고 사용한다면 가치롭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며, 때로는 진리를 더 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수용적 의미에는 교의적 가치가 없습니다. 먼저 문자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신비적 의미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수용적 의미가 따릅니다.

어떤 경우이든 독자는 언제나 "신성한 성경 말씀은 거룩하며,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느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거나, 우리 안에 매우 귀중한 영적 초자연적 선물을 자아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성을 여시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귀감 – 성 사투르니누스와 동료 순교자들. 4세기 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막시밀리아노 황제 치하에서 일어난 박해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물론 성지와 성경까지도 무척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고통 아래 재관들에게 거룩한 책을 넘겨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영사관 아비티나 시의 사제 사투르니누스는 이 박해 44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5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그의 자녀들인 다티부스, 텔리쿠스, 사투르니누스, 힐라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사슬에 묶인 그들은 총독 아눌리누스의 판결을 받기 위해 카르타고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단순한 모임에 참여했는지 묻자 그들은 공공연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고,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내려 도와 달라고 청했습

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어서 오시어 저를 도와주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영혼을 지켜주소서. 저에게 인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고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그 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순교자 에메리투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갖고 있느냐는 총독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시오. 집에 성경이 있소, 없소?” 하고 총독이 소리쳐 묻자

“저는 제 마음에 성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하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 저는 당신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또 기꺼이 고통받고자 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해 주소서.”

영광스러운 그 모임에 함께하던 또 다른 참회자 펠릭스는 총독의 물음 앞에 솔직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희생을 큰 신심을 갖고 거행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경을 읽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면서도 사투르니누스는 “저는 제 마음에 성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참회자들이 보여준 불굴의 굳건함에 지친 총독은 그들 모두를 감옥에 가두고, 그곳에서 그들이 기진하여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경을 지키고 옹호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순교의 월계관을 얻었습니다.

작은 희생 : 오늘 나는 인간적 존경심을 넘어 거룩한 복음에 여러 번 입맞춤 하며 필요한 경우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리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45

독서

주님께서 당신 율법을 적으라고 명령하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적은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이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찌게 되면,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그것들을 섬기고 나를 업신여기며 나의 계약을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을 덮칠 때에, 이 노래가 증인이 되어 그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 후손들의 입에서 이 노래가 잊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전에, 나는 오늘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 그날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은 바로 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끝까지 다 쓴 다음, 주님의 계약 궤를 나르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이 율법서를 가

져다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 궤 곁에 두어라. 거기에서 이 책이 너희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라.(신명 31,19-26)

세 젊은이의 찬가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드높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이름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왕좌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46 커룹들 위에 좌정하시어 깊은 곳을 내려다보시는
당신께서는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의 궁창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다니 3,52-56)[9]

9. 이 책은 "다니 3,51-56"이라고 했지만 인용구는 52절에서 시작된다.

감사 기도

임금이신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저의 구세주 하느님이신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보호자요 협조자가 되시어 이 몸을 멸망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중상하는 혀의 올가미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의 입술에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주위 사람들 앞에서 협조자가 되시어 저를 구하셨습니다.
크신 자비와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삼키려는 자들의 올무에서, 제 영혼을 노리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제게 닥친 수많은 환난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사방에서 타올라 저를 질식시키는 불길에서, 제가 지피지도 않은 불길 한가운데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저승의 깊은 구렁에서, 부정한 혀와 거짓된 말에서, 불의한 혀의 화살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제 영혼은 죽음에 이르렀고 제 생명은 저 아래 저승 가까이 갔었습니다. 곳곳에서 저를 에워쌌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때 저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고 영원으로부터 드러난 당신의 자애를 기억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출해 내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땅에서 당신께 간청을 올렸고 죽음에서 구출해 주십사고 기도드렸습니다. (집회 51,1-9)

47

4일
성경과 교의신학

예레미야

사제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1] 후반에 살았습니다. 그는 요시야 임금의 통치 때 예언직에 부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서른 살도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절은 무척 슬픈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므나쎄는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 회개했지만, 그의 아들 아몬에게 왕국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몬의 통치 중에는 백성들의 도덕적 종교적 상황이 한층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요시야 임금은 첫 번째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때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시작했고, 거룩한 도성을 점령할 때까지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서 예레미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개혁에 협력한 것은 확실합니다.

결국, 그는 여호아스와 여호야킨의 궁정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예언자와 자주 상의한 치드키야가 통치기간 동안 영향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귀족들의 증오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칼데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감옥에서 해방된 예언자는 그달야 총독의 통치 하에서 미스바로 후퇴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달야가 음모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피

1. 이 책 「성경을 읽으십시오」에는 "12세기"라고 쓰였는데 이는 확실한 오타다.

신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인들에 맞서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책망하였으므로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열왕기 3, 4권[2]

48

열왕기 3권과 4권은 또 다른 작품을 구성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작품으로 다윗의 죽음과 함께 앞의 책에 연결되어 솔로몬의 통치 사건, 분열, 두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까지의 역사, 그리고 바빌론 유배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국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하느님께서 솔로몬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임금들을 처벌하겠다는 당신의 말씀에 충실하셨음을 보여주며, 마침내 선택된 민족의 유배와 함께 당신 뜻을 이루시려는 시도를 완성합니다.

묵상 4

성경과 교의신학[3]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당신의 가르침은 진실입니다."(시편 119,142)

2. 열왕기 3,4권은 열왕기 상·하권을 말한다.

3. 「교회 안에서의 성경 해석」에서 발췌한 내용을 새롭게 언급한 부분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은 … 신학적 연구의 특별한 토대입니다. 과학적 정밀성과 정확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신학자들의 주석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 편에서 주석은 그들의 연구를 이끌어 '성경 연구'가 효과적으로 '신학의 혼'(계시 24)이 되게 해야 합니다. … 주석은 교의 신학자들이 두 가지

오늘 우리는 교회가 교의신학에 포함된 진리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요약된 교리문답의 진리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 * *

교의신학이란 무엇인가?

교의신학이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어머니인 교회가 제안하
49 는 교리와 진리에 대한 | 학문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는 구세주의 삶,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 구세주의 구원 활동, 따라서 구세주의 신비체인 교회, 교황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마지막으로 오심, 곧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신학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며, 성령의 성화 활동과 성령께서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의 영혼에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성사, 준성사, 전례 등에 대한 모든 교리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이 모든 진리를 이끌어내는 원천은 성경과 전승입니다.

극단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원론인데, 이는 교의적 진리를 언어적 표현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하나는 근본주의로, 인간과 신성을 혼동하여 인간적 표현의 우발적 측면조차 계시된 진리로 여깁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하려면 분리하지 말고 구별해야 하며, 끊임없이 주어지는 긴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과 말은 동시에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성경의 모든 것은 하느님은 물론 영감받은 저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38항)

모든 신학자는 그들이 쓴 교의신학 논문 심사에서 교회의 교의 다음으로 주요 증거로서 성경 본문을 제시합니다.

[중대 사안事案이 되는] 진리를 정의하기 위해 공의회에 참석하는 주교들이 모이는 홀 한가운데에 성경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4*] 이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샘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상징은 결정적인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으므로 고개 숙여 온전히 확고하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등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 주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요! 심지어 주님의 독생성자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지만, 한결같이 무한한 사랑으로 | 선포
50 하신 우리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진리가 성경이라는 책에 담겨 기록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경은 교의신학과 교리문답의 가장 중요한 샘,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원천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신학 연구에 있어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가장 중요하게[5] 여겨야 합니다. 다른 적합성이나 이성에 따른 증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이차적 노선에 있어야 합니다.

* * *

4.* "성전의 중앙 공간은 복음을 경배하기 위해 사용된다In medio consessus poni solitum erat in sancto throno venerandum Evangelium, in quod omnium vultus conversi errant."(칼케돈 공의회)

5,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오늘날 남녀 모든 이를 위한 성경 본문의 해석 방식은 하느님과의 개인적 공동체적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또한 교회의 사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요한 바오로 2세의 문헌 「교회 안에서의 성경 해석」을 소개하는 글, 1993)

세 가지 결론

1. 신학과 교리문답을 연구하고 설명할 때 첫 번째 예例가 있는 첫째 증거는 성경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 예수, 청년 예수, 성인 예수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효과적일까요? 이는 모든 덕을 드러내는 놀라운 거울입니다! 아브라함, 유딧, 룻, 나오미, 토빗, 욥 등의 삶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교화하며 위로하는지요! 그들의 삶은 신학적이고 근본적이며 도덕적인 덕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은 그 어떤 저자도 지닐 수 없는 감미로운 기름부음과 같은 특별한 힘을 지니기에 성경에서 말씀을[6] 길어 올리십시오. 사실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6. 이 책에는 잠언의 "속담"(p.105)과 일반적으로 성경 독자(p.107)를 불태우는 "거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성경 구절들은 코톨렌고의 지시로(p.204) 토리노의 작은 출판사에서 인쇄되어 모든 곳에 전해집니다. 세속적인 위험한 말을 피하고 복음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작업의 일부입니다.(p.237) 연구 또한 이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말을 하나씩 제거한 다음 우리 뇌에 그에 반하는 복음 말씀을 한구절씩 배치하고 쓰며 새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사람은 하느님이 되었다Factus est Deus homo ut homo fieret Deus." 성체 방문에 임할 때마다 우리 머리에서 세속적인 말을 없애고 그 자리에 그에 반하는 복음 말씀을 새겨 넣으십시오. … 그렇게 하여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신들이 됩시다."(RM 1934, 71-72) "참행복에 대한 말씀은 성 마태오 복음에서 반 페이지도 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가 이에 대한 주석, 곧 참행복을 전하는 끊임없는 권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인쇄 사도직 협력자회」, 1933; 「바오로 영성」, 1962, p.281) "성 바오로는 온 마음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을 회심시키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성 바오로의 회심*La conversione di San Paolo*」, 미국 성바오로딸들에게, 1946년 1월: EMC 1952, p.75)

이와 관련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로마 15,4)

성인들과 위대한 사람들의 말도 가치가 있지만 첫 번째 저자는 언제나 하느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이에 대한 모델은 | 세네리 신부[7] 인데, 그는 자신의 설교와 글에서 오로지 성경 말씀만을 인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1**

예를 들어, 영혼의 만나 를 보십시오.[8]

3. 신학 교사나 교리교사 또는 성경에 나오는 **예**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는지 설명해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죄 짓는 기회에 자신을 빠지게 하여 저주받은 뱀과 무분별하게 대화를 나눈 하와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모든 덕을 설명해 주는 적절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예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칭찬할 만한 것은 신학과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 그 본문에 포함된 진리와 관련된 예에 대한 말씀, 성경 구절, 인용구를 여백에 기록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들의 연구와 설명은 특별한 관점을 갖

7. 예수회 바오로 세네리 신부(1624년 네투노에서 태어나 1694년 로마에서 선종함)는 1679년 피렌체에서 발행한 「사순절*Quaresimale*」로 자신의 명성을 빛내게 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 세네리는 널리 알려진 선교사인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에 비견되었다.

8. 1년 동안 매일 읽도록 성인전에서 발췌한 기도와 묵상 모음. 이 책은 1683년 밀라노에서 처음 발행되었다. 정식 제목은 「영혼을 위한 만나, 또는 기도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위한 쉽고 유익한 피정*La manna dell'anima, ovvero esercizio facile e fruttuoso per chi desidera di attendere all'orazione*」. 토데로 발행본(1766-1768년, 베니스)은 같은 저자가 쓴 「동정 마리아의 신봉자*Il Divoto di Maria Vergine*」이다.

게 하며, 연구가 끝날 무렵 성경을 읽고 몇 가지 예를 추가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모든 주요 교리의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을 파악하여 거룩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영혼에 효과적이고 유용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자세한 비평적 역사적 주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주어진 거룩한 신학적 진리나 교리문답의 진리에 적용시키는 데 사용되는 몇 마디 말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자극하여 사람들의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주석을 만들어내도록 기도합시다.

귀감 – 천사적 (박사)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교회에서 탁월함과 위대함의 선구자, 곧 대단히 훌륭한 박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삶으로 천사 박사라고 불렸고, 비오 11세는 그를 "학문의 안내자, 학교의 천사"로 선포했습니다.

52

어린시절에 그는 몬테카시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베네딕토회 사제들한테 서간은 물론 그리스도인 덕목의 실천과 성경에 대한 사랑을 배웠는데, 이는 나중에 그 유명한 파리 대학교에서 연구하며 교수로서 가르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마칠 즈음 나폴리로 가 도미니코회 사제들을 알게 되었으며, 도미니코 수도회에 들어가려는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려움을 극복한 후 파리로 건너가 성 대 알베르토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신학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스승의 박학다식한 강연과 교수법과 명료한 설명에 매료되어 그를 존경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 토마스에게 있어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토론은 그 당시 그의 활동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신학적 가르침의 토대는 성경이었다. 그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넘나들며 설명했다."

그가 가르친 첫 3년 동안 언급한 책은 이사야 예언서와 성 마태오 복음서였습니다.

어느 날, 성경의 한 구절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그는 예수님께 설명을 받기 위해 확신에 찬 마음으로 단순하게 거룩한 감실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많은 작품 가운데 「신학대전*Summae*」 두 권은 그가 박사라는 칭호를 얻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에 대한 그의 작품은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이사야 예언서와 성 마태오 복음서 외에도 그는 아가, 애가, 욥기, 시편, 성 요한 복음, 성 바오로 서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 신학적 진리 하나 하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본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천사적 박사가 가장 높은 신학의 봉우리에 오를 수 있었음은 상당 부분 성경에 대한 애착과 깊은 지식 덕분입니다.

53

작은 희생 :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성경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여 그가 성경을 읽고 싶게 한다.

세 젊은이의 찬가 [#]

“주님의 업적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 위 물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군대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해야 달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비와 이슬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람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불과 열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추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서리와 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얼음과 눈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밤과 낮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빛과 어둠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번개와 구름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산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에서 싹트는 것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샘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용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새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들짐승과 집짐승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사제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54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의인들의 정신과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거룩한 이들과 마음이 겸손한 이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난야와 아자르야와 미사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우리를 저승에서 구해 주시고,
죽음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으며
불길이 타오르는 가마에서 건져 내시고
불 속에서 건져 내셨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아, 모두 신들의 신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다니 3,57-90)

독서

지혜가 가져다 주는 혜택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변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갈망하고 갈구하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 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맞갖은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염원함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함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며 법을 따름은 불멸을 보장받는 것이고 불멸은 하느님 가까이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혜를 향한 소망은 사람을 왕위로 이끌어 준다. 그러니 민족들을 다스리는 군주들아 너희가 왕좌와 왕홀을 즐기거든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려주겠다. 너희에게 어떠한 신비도 감추는 일 없이 지혜가 생겨난 시초부터 자취를 더듬으며 그에 대하여 아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진리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사람을 좀먹는 시기를 결코 길벗으로 삼지도 않겠다. 시기는 지혜와 자리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자가 많음은 세상의 구원이며 현명한 임금은 백성의 안녕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라. 너희에게 득이 될 것이다.(지혜 6,10-25)

예레미야의 기도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 주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당신 분노를 늦추시다가 저를 잃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주소서.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고 떠드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하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득 채운 당신의 분노 때문에 당신 손에 눌려 홀로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제 상처는 치유를 마다하고 깊어만 갑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가짜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물처럼 되었습니다. (예레 15,15-18)

5일
성경과 윤리신학

에즈라

에즈라는 레위 지파로, 제사장 아론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536년 키루스 칙령 이후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유다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와 함께 445년 처음으로 고국에 가서 한데 모인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유배지로 돌아가 다른 유다인들을 다시 팔레스티나로 인도했습니다. 사실 398년, 그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서 누구나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칙령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임금은 그가 성전에 바친 예물을 모아들이고 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재무상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260명에 이르는 많은 유다인이 그와 합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에즈라는 백성들의 도덕적 개혁에 헌신하며 그 이전에 느헤미야가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유다인과 이민족 사이의 통혼으로 황폐해진 심각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민족 여자와의 혼인을 금하고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으로 돌아가 준수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역대기(그리스어로 파랄레이포메논) 1, 2권[1]과 그의 이름이 적힌 두 권

1. 파랄레이포메논은 역대기 상·하권이다. 두 권의 열왕기(이 책에 따르면 열왕기 3,4권) 다음에 나오는 구약성경의 이 두 권의 책은 "오늘의 사실 또는 말"이

의 책은 에즈라에게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8

역대기 책들

그리스어로 파랄레이포메논이라고 하는 역대기는 아담에서 시작하여 키루스 칙령에 이르는 시기를 다루며, 명확하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담에서 야곱, 유다, 다윗, 그리고 즈불론과 단을 제외한 모든 지파의 족보를 제시한 다음 예루살렘의 고대 주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바오로의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윗에 대해 말하며, 예루살렘과 전례와 성전과 다윗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윗이 죽음까지를 묘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솔로몬과 그의 영광, 특히 성전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두 왕국 사이의 분열과 투쟁 시기,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동맹 시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아스에서 히즈키야, 히즈키야에서 유배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국 임금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의 부록이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면서,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이 행복의 원천이며 불충실과 우상숭배는 왕국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작품입니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제목에 해당한다. 유다인들을 위해 그들은 정경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는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칠십인역 그리스어 번역과 예로니모의 라틴어 번역본에서 역대기는 "[이전] 전승에서 빠뜨린 부분"을 뜻하는 파랄레이포메논이라고 불렸다.

예로니모가 부여한 원 제목은 "모든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였다. 이는 책의 내용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대기 모두를 자기 이름을 명시한 두 권의 책의 저자이기도 한 에즈라가 썼다고 말합니다.

에즈라가 쓴 책들[2]

에즈라기는 바빌론 유배 이후 팔레스티나에서 이스라엘의 시민적 종교적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키루스 칙령부터 에즈라 말년까지의 역사적 시기를 포함하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3] 시대의 일부가 추가됩니다. 에즈라기는 단편적 형태로 유배에서 돌아옴,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느헤미야와 에즈라가 이룬 시민과 종교개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책은 즈루빠벨이 이끈 유다인의 송환, 성벽과 성전의 재건, 또 다른 큰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에즈라의 개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9

두 번째 책은 느헤미야의 귀향과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두 권의 책에 설명된 사건들의 순서이지만 연대순은 다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돌아왔을 것이고, 에즈라는 그의 일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

2. 에즈라가 쓴 것으로 귀속되는 두 권의 책들에 대해서는 p.18의 각주 9를 참고하라.
3. 마케도니아의 임금 필립보의 아들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드로스 대왕(기원전 356-323)은 지중해(그리스와 이집트)의 동부에서 인도까지 확장된 제국의 정복자이자 조직자로서(참조: 1마카 1,1-9; 6,2) 이른바 "헬레니즘 문명"을 이루었다. 다니엘 예언서는 일부분 그와 그의 왕국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참조: 다니 2,40-41; 7,7; 11,3-4) 헬레니즘에서 유다-그리스도교 종교로의 '개종' 시대를 목격한 역사학에는 그리스도교 시대 초창기의 라틴 문화와 철학 또한 포함되어 있다.

묵상 5

성경과 윤리신학[4]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살려 주소서.
당신 입에서 나온 법을 지키오리다."
(시편 119:88)

윤리신학이란 무엇인가?

윤리신학이란 인간이 자신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인간적 행동을 이끄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 윤리신학은 **계명**과 **규정**이라는 주제 아래 교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방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이 첫 번째 부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주요 진리를 보여주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할 법을 보여주듯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교의신학은 믿어야 할 진리를 다루고, 윤리신학은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을 다룹니다.

윤리신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0

1. **입법자는 누구인가**, 곧, 누가 법을 만들어 공포하는가?
2. **이 법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3. **제재 사항을 표시합니다.** 곧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 또는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드러냅니다.

4. 「교회 안에서의 성경 해석」은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추어 준다. "성경은 구원 역사 이야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지시 사항, 곧 계명, 금지 사항, 법적 처방, 권고, 예언적 독설, 현자의 조언과 같은 사항들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설명한다. 주석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이 풍부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윤리신학자들의 작업을 준비시키는 것이다."(39항)

그러므로 윤리신학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하고 행하게 함으로써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두 개의 길, 곧 계명을 따르는 **좁은** 길과 복음적 권고[5]를 따르는 **가장 좁은** 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교의신학처럼 윤리신학은 성경에서 숭고한 교의를 가져옵니다. 윤리적인 법의 대부분은 바로 성경에서 그 토대와 원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윤리신학을 아주 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입법자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지니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느님의 계명을 보여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동기와 이유를 알려줍니다. 마침내 계명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명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대한 드높고 숭고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은 하느님을 만물의 창조주요 아버지로, 우주의 입법자요 통치자로 묘사합니다. 이에 대한 확신은 창세기 앞부분을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네 하느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Audi, Israel, Dominus Deus tuus …"[6]

5. p.153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복음적 '권고'는 순명, 정결, 청빈이라는 세 가지 수도서원이다.

6. 히브리 신앙을 선포하는 기도 "쉐마 이스라엘(이스라엘아, 들어라)"에 대한 언급이다. 이는 하느님의 유일성, 모든 것에 앞서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당신 율법에 대한 묵상, 양피지에 쓴 성구 두루마리를 넣은 작은 검은 가죽 성구갑(테필린)을 지니고 다니며 메주자(성경 구절을 쓴 양피지를 길쭉한 통에 넣어 집 문설주에 부착하는 것)를 붙여 놓으라는 지침의 준수, 하느님 뜻

계명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라는 말
61 씀을 읽습니다. 웅장한 서문과 같은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 "너에게 말하는 이는 너의 창조주, 너의 하느님이시다. 십계명에 담긴 것을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하는 너의 주님이시다. 계명에 귀 기울여 지켜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때문에 종종 거룩한 책이 단순히 "율법서"라고도 불립니다

탈출기 20장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천둥과 번개 속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발견합니다. "…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탈출 20,2-17)

이는 십계명의 해설, 곧 율법이라고 적절하게 불렸지만, 성경에는 이 율법에 대한 수많은 주석과 권고가 있으며,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에 대한 발전이요 | 이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 62
습니다. 이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려면 성경을 무작위로 펼쳐 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시편 구절의 3분의 1 정도가 하느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권고합니다. 시편 118편[7]은 가장 긴 시편으로, 온전한 찬미가이며 거룩한 율법의 권고입니다. 그 중 한 구절만 율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175개에 해당하는 모든 구절이 명시적으로 율법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느님의 율법이 마땅히 받아야 할 중요성을 많은 사람이 율법에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주 가벼운 처벌에도 두려워하여 인간적인 모든 법을 꼼꼼하게 준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법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룩한 율법에 대한 드높은 숭고한 개념을 얻고, 그 안에서 성경을 언제나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아름다움을 찾으며,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경청하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 논평합니다.

을 '기념하는'이라는 뜻의 옷자락 솔기에 준수를 선포하는 세 가지 성경구절(신명 6,4-9; 11,13-21; 민수 15,37-41)로 구성된다. 쉐마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암송해야 하며, 그 첫 구절은 심지어 죽을 때도 선포된다.

7. 지금은 시편 119편에 해당된다.

* * *

성경에는 하느님의 계명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규정에 대한 동기와 기초가 담겨있습니다.

어느 날, 천상 스승 예수님께서 성 베드로를 불러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그에게 이같은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랑에 대해 표현하시며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7)[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 따르면 양들을 보살피는 직분은 주교들과 교회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영적으로 통치하는 권한**입니다. 예수님은 베
63 드로를 당신의 합법적 후계자로 세우고| **입법**, **행정**, **사법권**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규정을 공포하여 지키게 하는 권한은 성경에 그 토대를 두며 그에 대한 설명 또한 성경에서 이끌어냅니다.

교회의 거룩한 규정은 하느님 계명의 발로發露나 결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교회에는 다섯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를 드릴 것.
2. 금요일과 금육을 지켜야 하는 날에는 고기를 먹지 않으며, 정해진 날에 단식할 것.
3.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고, 적어도 부활절에는 성체를 모실 것.
4. 법과 관습에 따라 헌금으로 교회의 필요를 위해 후원할 것.

8. 참조: 요한 21,15-17: "Pasce agnos meos, pasce oves meas."

5. 금지된 날에는 결혼식을 장엄하게 거행하지 말 것.

* * *

세 번째로, 성경은 윤리신학처럼 거룩한 율법이 정한 제재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여 쪽에 이르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 첫 부분에는 하느님의 율법과 교회법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축복에 따른 모든 약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모든 형벌과 위협이 제시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열어 신명기 28장을 읽어 봅시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주 너희 하 64
느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희를 높이 세우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 소와 새끼 양을 비롯한 너희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 통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 소와 새끼 양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저주를 받고 나갈 때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9]

사람들의 눈에는 죄가 숨겨져 있을지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지 않아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구실을 대지만 진정한 원인은 하느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의 규정을 따르며 존중하는 가정은 신앙이 없는 통치가 부러워하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순간 주님의 거룩한 법을 잊고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미워합시다.

귀감 – 성 치프리아노. 그는 박해 시기인 3세기에 살았으며, 카르타고의 용감한 주교이자 순교자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테르툴리아노의 작품들, 특히 「호교론」을 연구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 테르툴리아노가 그의 유일한 스승이거나 주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경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의 유익함을 위해 가장 특징적인 구절, 특히 교회를 옹호하며, 그리스도교적 의무 수행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카르타고에서 개종한 부자 친구 퀴리니우스가 자신이 얻은 가르침을 완성하기 위해 쓴 책에 대해 주교의 허락을 청했을 때, 주교는 그를 위해 치프리아노로 하여금 내용을 정리하여 논리적이고 잘 짜인 계획에 따라 각 장을 배열한 성경을 인용하도록 조정해 주었습니다.

65

간단한 자료 모음인 그 작품은 라틴어 성경 역사에서 매우 소중

9. 신명 28,1–4.15–19.

합니다. 이 자료는 그리스도인의 안내서가 되어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얻었습니다.

작은 희생 : 하느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보속으로 자비송을 바친다.

즈카르야의 노래 [#]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 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루카1,68-79)[10]

66

독서

사랑과 도덕의 핵심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로마 12,9-21)

10. 이 책 「성경을 읽으십시오」에는 "루카 1, 68-80"이라고 쓰였으나 여기에 인용된 구절은 79절에서 끝난다.

기도

주님, 찬미받으소서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서 만물 위에 드높으십니다.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저희의 하느님, 저희는 지금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당신 앞에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조상처럼 이방인이고 거류민입니다. 저희의 나날은 이 땅 위에서 그림자와 같고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은 다 당신 손에서 받은 것으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당신 백성도 당신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 백성이 마음에 품은 이 같은 생각을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니게 해주시고, 당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십시오.(1역대 29,10-18)

67

6일
성경과 교회 신분

토빗기

토빗기는 예술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보석입니다.

제시된 주제는 하느님의 섭리가 의로운 사람들을 시험한다 해도 토빗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며 이승에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토빗(가난하고 눈먼)과 사라(악귀에게 살해당한 남편 일곱을 두었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함)의 불행을 묘사한 이 책은, 하느님의 섭리가 대천사 라파엘을 보내 토빗이 가바엘에게 맡긴 돈을 받아오기 위해 메디아로 가는 토빗의 아들[1]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천사는 물고기의 쓸개로 토빗의 눈을 뜨게 하고, 간과 염통으로 사라를 악귀에서 풀어주어 그 여인을 토빗의 아들 토비야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마침내 토비야는 메디아에서 돌아와 토빗의 시력을 회복하게 해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을 기원전 7세기에 토빗이 쓴 것으로 봅니다.

1. 토빗의 아들 토비야는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다.

묵상 6

성경과 교회 신분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 계명을 떠나 헤매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10)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잘 읽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사제직에 부름 받은 사람들은 성경 통독을 통해 다섯 가지 신학, 곧 교의신학, 윤리신학, 사목신학, 수덕신학, 신비신학의 교의를 배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각 신학은 거룩한 책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향으로 성경을 읽는 젊은이는 자신 앞에 무한한 지평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지성은 참으로 다양한 진리의 동기와 거룩한 아름다움을 깨달아 이를 연구하며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신비로운 빛이 끊임없이 그의 지성을 비추어, 거룩한 학문의 신비로운 길로 그를 이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범에 이끌린 그의 의지는, 끈기와 용기를 지니고 그리스도교 윤리를 실천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 앞에 무한한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것이며, 마침내 그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 *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교의신학과 윤리신학에 관련된 성경을 |

묵상했는데, 오늘은 사목신학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목신학이란 무엇인가?

성 대 그레고리오는 사목신학을 "영혼을 구원하는 기술Ars artium, regimen animarum"이라고 했습니다. 곧 영혼을 잘 보살펴 천국으로 이끄는 예술인 것입니다

이 정의를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라고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술에서도 예수님은 모범이요 스승이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스승에 대해 잘 모른다면 어떻게 그분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들의 목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먼저 거룩한 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 * *

오늘날[2] 사목생활의 실천은 특별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 대 그레고리오의 훌륭한 저서가 많이 번역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거룩한 사제의 양성을 위해 그레고리오

2. p.28의 초대장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의 세계에서 출간되는 책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pp.32, 45, 48, 53 등) 오늘날엔 대체로 성경 읽기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탈리아주교위원회(CEI, 1995)의 「사목 주석*Nota Pastorale*」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이라는 말은 주님 말씀에 대한 '커다란 굶주림'을 느끼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 또한 오늘 우리는 '새 복음화'에 열렬히 헌신하도록 초대받았지만, 거룩한 책을 통해 하느님 자신이 당신 백성을 복음화하며, 아버지로서 당신 자녀들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25항) 이 책(LS) p.78에서는 "오늘날의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유용하지만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자연과학을 더 존중한다고 한탄한다.

교황이 집필한 「사목 지침서*Regole pastorali*」[3]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의 교리교육과 교육 활동은 사랑과 자선활동, 선한 사목적인 서적 출판 등으로 참으로 좋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혼들의 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 모든 활동의 혼은 사제를 위한 것입니다. 사제는 양성 받은 참된 목자입니다.

사제는 영혼들을 위해 설교대, 제대, 고해실이 되어야 합니다.

1. 사제는 설교대가 되어야 합니다. 곧, 사제는 말로, 필요하다면 서한으로 자신의 양들을 비추며 가르쳐야 합니다. 사제는 자기 혼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있는 설교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설교하고 훈계하며 자신을 따르는 영혼들을 선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2. 사제는 고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 양들이 자신을 얽어 매는 가시덩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되는 법을 알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사제는 죄인들을 끌어당기는

3. 「사목 지침서」의 원제목은 「사목 규칙서*Regula pastoralis*」이다. 제4부로 구성된 이 규칙서에서 그레고리오는 주교의 드높은 존엄성을 조명한다. 그는 사목자의 미덕을 강조하고, 각계각층의 신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주교 자신이 하는 말을 더욱 예리하고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개인적 쇄신을 이룰 것을 주교에게 권고한다. 이 「사목 지침서」는 중세 시대에 매우 많이 보급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영혼들을 돌보는 사목자들이 계속 읽으면서 결실을 맺고 있다. 「베네딕토 규칙서*Regula Benedicti*」가 수도승과 종교인 전반을 위한 필독서가 된 것처럼 이 책은 영혼들을 위한 필독서가 되었다.

법을 알아야 하고, 아이들의 순수함을 받아들여 그들이 언제나 백합처럼 순수하게 머물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작은 이들 가운데 작은 이가 되는 법,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난한 이가 되는 법, 어른들과 죽어가는 이들과 온갖 부류의 죄인들을 대하는 법을 아는 것은 사제의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사제는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 스승 예수님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3. 사제는 제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혼들의 착한 목자는 영혼들에게 덕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뿐 아니라 참으로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제가 자신을 하느님과 영혼들 사이의 신비로운 통로로 삼고, 그들에게 모든 은총과 천상 축복을 얻어주는 것은 바로 이 제대 위에서입니다.

사제가 제대에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느님과 아주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필요와 영혼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보여드리며 모두를 위해 거룩한 희생 제물을 봉헌합니다. 거룩한 미사에서 사제는 거룩한 희생 제물은 물론 자기 자신, | 곧 자신의 안락함과 관심사와 자아를 희생 예물로 바칩니다.

72

이것이 바로 영혼들을 돌보는 사목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영혼들을 이끄는 매우 훌륭한 착한 목자의 삶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으로 이어지는 성경은 선택된 백성의 사목자요 우두머리로 자리 잡은 첫 원로들의 놀라운 예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선택된 레위 지파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받아들인 중요한 직분을 알고 있습니다. 곧 유다인의 12분의 1이 이처럼 중요한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경은 영혼들을 돌보는 모든 사목자가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자극하는 거룩한 사제들의 예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사제는 특히 신약성경에서 그 기술ars artium을 배웁니다. 거룩한 말씀이 담긴 페이지에서 그는 천상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온화함으로 가득한 분을 우리는 바로 성경에서 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목신학에 대한 최고의 논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룩한 복음에 관련하여 논평해야 합니다. 사실 성 대 그레고리오가 「사목 지침서」에서 한 것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몇몇 책의 일부에 대해 주석하며 설명한 것입니다

최근에 발행된[4] 가운데 신약성경, 특히 사도행전을 잘 보여주는 책은 사목신학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 예수님 다음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가장 완전한 모델은 성 바오로의 사도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73

4. 알베리오네 신부가 언급한 책이 무엇인지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페루치오 발렌테가 편집하여 1928년 SEI가 발행한 「성경 봉독*Letture Bibliche*」과 1929년 알바 성바오로수도회가 주석을 달아 펴낸 네 복음서 대조 「천상 스승*Il Divino Maestro*」(p.330)을 살펴볼 수 있다. 1928년 B.M. 마로니가 로마에서 발행한 「길 진리 생명- 교리교육 안내*Via, Veritas et Vita -Manuale di Catechismo*」도 있다.

사제들과 성직자들이여, 거룩한 책을 펼치십시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규범, 곧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은 사목신학의 멋진 개요입니다.

귀감 – 성 대 그레고리오. 그레고리오는 그가 남긴 작품의 수와 그 중요성 때문에 '대 교황'으로 불립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는 교회 역사상 위대한 교황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고, 자신이 창립한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 참회, 성경에 대한 열렬한 연구를 자신의 직분으로 받아들였으며, 성경을 토대로 놀라운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욥기에 대해 다룬 「윤리*I Morali*」입니다.[5] 그는 사목신학 박사입니다.

만장일치로 교황좌에 오른 그는 수도원장들에게 무엇보다 거룩한 책들의 연구를 장려토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황 대사였을 때 알았던 콘스탄티노플의 한 법조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당신께 불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일로 분주한 가운데 날마다 당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분의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에게 쓰신 편지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만일 이 지상의 황제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면, 당신은 분명 그가 당신에게 보낸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잠시도 휴식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천사의 주님이신 천국의 황제께서 당신 삶에 대한 편지를 보냈건만 당신은 그 편지 읽기를 게을리합니다. 이제 그 행동을 바꾸어 당신 창조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일이 하루도 없게 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성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권고를 실천합시다.

작은 희생 : 나는 성경 공부를 통해 영혼들을 돌보는 사목자들이 양성되도록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스승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5. 「욥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Expositio in Iob*은 동료 형제들과 나눈 대화 형태로 콘스탄티노플에서 시작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받아쓰기를 통해 지속되었다. 그 후 그레고리오는 그 모든 내용을 수정했다.

구원된 이들의 감사 노래 [#]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리라.
"주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진노하셨으나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의 구원.
신뢰하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 이름 높으심을 선포하여라.
위업을 이루셨으니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이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주민들아, 소리 높여 환호하여라.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위대하시다!"(이사 12,1-6)

독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제들에게 복종하며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셈을 해 드려야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늘 올바로 처신하려고 하기에 바른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합니다.

영원한 계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어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 13,17-21)[6]

6. 이 책(LS)에는 "히브 3,17-21"로 되어 있지만 인용구는 13장을 언급한다.

솔로몬의 기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내 앞에서 걸은 것처럼 네 자손들도 내 율법에 따라 걸으며 제 길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네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 보시어,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2역대 6,14-17.19)[7]

7. 이 책(LS)에서 인용구는 "열왕기 3권 3장 23절 이하"로 나오는데, 불가타 번역본에서 옮겼다 해도 잘못된 것 같다.

76

7일
성경과 수덕신학

유딧기

유딧기는 유다 임금 므나쎄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들려줍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메디아 임금을 물리친 다음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를 정복하자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항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사제 여호야킴의 선동을 받아 저항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인들을 이끈 대장군 홀로페르네스가 배툴리아를 포위하여 병거를 최소한으로 축소시켰을 때 배툴리아인들은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신심 깊은 과부 유딧은 하녀와 함께 아시리아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홀로페르네스의 호의로 그의 진영에서 머물던 유딧은 그의 머리를 잘라 배툴리아로 가져옵니다. 포위당한 사람들은 도망치는 적군들을 공격한 다음 진영을 약탈합니다. 여호야킴은 백성과 함께 유딧을 축하하며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여 축제를 거행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가득한 이 작은 책은, 하느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의 여주인공은 유딧입니다. 유딧은 미덕과 강인함의 아름다운 귀감이요, 참으로 강인한 여성인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전형典型으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스테르기

에스테르기는 역사서입니다. 이 책이 다루는 사건들은 키루스 칙령 이후 페르시아에 남은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크세르크세스 1세 대왕(아하수에로)의 통치 기간인 485-465년 사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77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의 통치 3년차에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와스티 왕비가 궁궐에서 베푸는 공식 잔치에 나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왕궁에서 봉사하는 유다 사람 모르도카이의 수양딸 에스테르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선택합니다. 수양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피고, 임금에 대한 음모를 밝혀 그 배후를 드러내기 위해 궁정을 자주 방문한 모르도카이의 행적이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하만은 총독이 되어 유다인들, 특히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는 모르도카이를 미워한 나머지 유다인들을 몰살하기로 작정합니다. 몰살 명령을 받은 다음 주사위를 던져 날짜를 정했는데, 그 명령이 내려지자 유다인들은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도카이의 권유를 받은 에스테르 왕비가 임금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합니다. 임금은 그녀를 받아들여 하만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거듭 초대합니다. 하만은 모르도카이를 매달기 위해 말뚝을 세웠지만 크세르크세스는 모르도카이의 행적을 읽고 그를 존경할 것을 명령합니다. 에스테르가 연회를 베푼 자리에서 하만을 고발하자, 크세르크세스는 하만이 모

르도카이를 위해 준비한 교수대(말뚝)에 그를 매달도록 명령합니다. 마침내 모르도카이는 총독이 되어 임금의 새로운 칙령으로 하만의 법령을 무효화하고 적군들에게 엄청난 복수를 하며 푸림절을 제정합니다.

품위있게 성장하여 박해받는 형제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중재하며 그들의 목숨을 구한 에스테르의 귀감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이 책은 대부분 모르도카이 자신이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이 책에 쓰인 것 외에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묵상 7
성경과 수덕신학

> "당신의 가르침이 제 즐거움이 아니었던들 저는 고통 속에서 사라졌으리다."
> (시편 119,92)

성경과 관련된 신학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은 성경과 수덕신학에 대해 묵상합시다.

78 수덕신학이란 "평범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그리스도교적 완덕의 기술"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학문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역학, 물리학, 화학, 수학 등과 같은 자연 과학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며 존중합니다. 이러한 학문은 한마디로 현재의 삶에 유용한 모든 기술을 뜻합니다. 현대인들은 훨씬 중요하고 고귀한 기술, 곧 영혼을 구원하는 예술에 대해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덕신학은 **숭고하고 거룩한 학문**으로, 창조주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목표는 영혼을 하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처럼 아름답고 유용한 학문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요? 분명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이 지상의 인간이 지닌 주요 임무입니다.

인간의 모든 완덕은 하느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 하느님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헛될 뿐입니다. 수덕신학은 계명과 복음적 권고라는 **평범한 길**을 통해 영혼이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매우 고귀한 목표를 지닙니다.

수덕신학의 임무는 인간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악덕의 모든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서 모든 덕이 피어나게 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혼이 일상적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온유하신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다음 증언은 참으로 뜻이 깊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믿을 수 없다고 여겼을 때조차 아주 많이 사랑하던 이 거룩한 책을 나는 전에 없던 크나큰 공경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서히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더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서는 저에게, 편협하고 광신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신심으로 잘못 이해된 편견에 기울어지지 않는 경향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하느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의 나라가 더 오래 지속되게 하고, 죄악을 미워하고 사악한 사람들을 용서하

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실비오 펠리코)[1]

79 완덕을 가장 열렬히 갈망하고, 성덕에 있어 늘 더욱 진보하기를 바라는 영혼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 곧 하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덕을 쌓으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수덕적인 책을 찾습니다. 이를 목적으로 한 영성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 알폰소의 모든 작품은 바로 수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알론소 로드리게스 신부,[2] 알바레즈,[3] 성 이냐시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등이 저술한 책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이름이며, 그들이 쓴 작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책들은 성경 주석서에 지나지 않지만 성경이 지속되는 한 지속될 것이며, 성경과 함께 독특한 통합을 이룹니다.

따라서 신학과 성경의 관계는 무척 가깝습니다. 사실 수행자들은 모두 성경에서 드높은 진리를 이끌어냅니다. 교회 초창기를 이

1. 이탈리아 애국자이자 작가인 실비오 펠리코(1789년 살루초에서 태어나 1854년 튜린에서 선종함)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통치 아래서 정치적인 문제로 투옥된 이야기로 유명하다. 이 이야기는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한 고귀한 증언으로 여겨지는 「나의 옥중기*Le mie prigioni*」에 잘 묘사되어 있다.
2. 스페인의 예수회 회원이요, 수덕신학 작가인 알론소(알폰소가 아님) 로드리게스(1538년 바야돌리드에서 태어나 1616년 세비야에서 선종함)에 대한 것이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몬테레이 대학에서 윤리신학을 가르쳤으며, 그 후 30년 동안 수련장과 몬티야 학장을 역임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은 1609년 세비야에서 출간된 세 권으로 된 「완덕과 그리스도교적 덕의 실천*Ejercicio de perfección y virtudes cristianas*」이다. 그는 수도회의 여러 창립자, 그 중에서도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디에고 알바레즈 데 파스(1560년 톨레도에서 태어나 1620년 포토시에서 선종함)는 예수회 영성을 다룬 주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페루 선교사, 철학, 신학, 성경학 교수로서, 그는 영성신학에 대한 세 권의 책, 곧 「악의 근절과 선의 촉진에 대하여*De exterminatione mali et promotione boni*」(1613), 「평화의 추구 또는 기도의 연구에 대하여*De inquisitione pacis seu studio orationis*」(1617), 「영적 삶과 완덕에 대하여*De vita spirituali eiusque perfectione*」(1618)로 명성을 얻었다.

끈 주요 서적은 오로지 수덕에 관련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복음이었습니다. 성 세라피온은 복음을 읽고 회심한 후 세상을 버리고 어깨에 소박한 아마포 천을 두른 채, 손에는 오로지 거룩한 복음서만 들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파코미오, 성 바실리오, 성 베네딕토 같은 수도승들은 성경 외에 다른 수덕 관련 서적을 지니지 않았으며, 날마다 거룩한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간에 나오는 구절만 읽어야 한다고 수도회 규칙서에 못박았습니다.

수덕신학이 모든 가톨릭 전통을 통해 주석되고 설명되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그 참된 원천은 언제나 성경이 될 것입니다. 80

만일 제가 성경을 수덕적인 교재로 삼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이 아닌, 오류가 없는 우리 어머니인 교회의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성경에서 진리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수덕학 이론을 이해하고 이끌어내려면 먼저 수덕신학에 관련된 글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실천*La pratica di amar Gesù Cristo*」,[4] 「그리스도를 본받아*L'Imitazione di Cristo*」,[5] 「영적 일기*Il Diario Spirituale*」,[6]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증언*Il Teotimo*」[7]을

4. 이 책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고 완덕에 이르는 길을 걷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해" 1768년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가 쓴 작품이다. 알폰소 성인은 이를 "내가 쓴 작품 가운데 가장 신심 깊고 유용한 책"이라고 했다. 이 책은 516쇄가 발행되었다.(「거룩한 도서관*Bibliotheca San – ctorum*」, 제1권, p.853 참조)
5. 이 책은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다.(p.226의 각주 5 참조)
6. 「영적 일기– 탁월한 덕을 지닌 성인들과 인물들의 이야기와 실화 모음*Diario spirituale. Scelta di detti e fatti di santi e di altre persone di singolare virtù*」, 로마–알바: 성바오로수도회, 1927 (재판: 바리, 1956–1957). (참조: 이 책은 1775년 나폴리에서 익명으로 출판되었다. 2세기 후, 「영성 사전*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영적 일

비롯한 여러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한 책들을 읽은 다음 성경을 펼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모든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가 영성 서적에서 읽고 배우는 모든 진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수덕의 첫 번째 스승인 하느님은 우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행자들이 보여준 매우 아름다운 귀감을 언급하면서 여러 면에서 완덕을 향해 우리를 가르치며 자극하십니다.

아벨, 요셉, 야곱, 에즈라, 룻, 유딧 등과 같은 훌륭한 귀감은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로와 예언자들은 우리가 성덕에 이르도록 촉진하는 귀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발견하는 수덕신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아름다운 구절은 수덕생활의 가장 완벽한 귀감인 천상 스승 예수님의 삶을 폭넓고 깊게 설명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특히 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온 삶이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행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무척 사랑하신 나머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

기*Journal spirituel*"라는 항목 아래 나옴, 파리, 1974)은 바르나비테 B. 카날레가 쓴 것으로 1749년 밀라노에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1월 1일 말씀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것으로 "너의 과거는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라. 다윗과 함께 '이제 나는 내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라.

7. 1616년 리옹에서 출간된 「신애론*Teotimo or Trattato dell'amor di Dio*」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요 원천은 성경, 무엇보다 시편, 욥기, 예레미야, 아가와 성 바오로 서간이며, 또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시에나의 가타리나, 제노아의 가타리나, 아빌라의 데레사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서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나는 거룩한 사랑의 탄생, 발전, 타락, 활동, 특성, 장점, 탁월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신심 깊은 영혼들을 도와 목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책은 성모마리아방문수녀회와 관상생활을 하는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저술되었다.

에게 배워라."(마태 11,29)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 모든 것에서 천상 스승을 본받으려고 노력했기에, 마침내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바오로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성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1코린 4,16)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성덕과 완덕의 모델입니까! 그렇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을 따르며 본받는 사람은 성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모든 수덕신학의 원천이 되는지,[8*] 그 정신과 혼은 무엇인지, 그 방법과 우리가 받게 될 상에 대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선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원수들을 어떻게 경고하는지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오로지 한 가지 일을 하기를 초대합니다. 곧, 거룩한 복음서를 손에 들고 성 마태오 복음 5장을 펼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 설교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절, 곧 여덟 가지 참행복에서 여러분은 수덕신학을 요약

8.* 비오 6세는 유명한 성경 번역가 몬시뇰 마르티니에게 이렇게 썼다.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복음을 읽도록 효과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은 매우 훌륭합니다. 복음은 내용이 가장 풍부한 출처로서, 모든 신자가 여기에서[원본에는 "da esse"가 아니라 "da essi"로 쓰여 있는데 이는 실수인 것 같다] 관습의 성덕과 교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짝 펼쳐져야 하며 접근하기 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몬시뇰 안토니오 마르티니(1720년 프라토에서 태어나 1809년 피렌체에서 선종함)는 피사에서 서간을 전공한 피렌체 대주교였다. 그는 란체의 비토리오 아메데오 추기경의 초대를 받고 교황 베네딕토 14세(1757년 6월 13일에

하는 개요를 얻게 되며, 모든 영성 서적의 기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덕을 갈망하는 영혼은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이성과 정서에 파묻혀 죽지 않고 참되고 살아있는 수덕 정신을 지니려면 이에 관련된 글을 읽은 다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은 | 그 영혼 안에 전달되는 생명과 따뜻함을 얻게 됩니다.

82

이제 주님께서 성덕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참된 생명의 근원인 성경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귀감 – 푸아티에의 성 힐라리오. 성 힐라리오는 성 아타나시오를 비롯해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톨릭 교회를 아리우스주의[9]의 심각한 위험에서 옹호한 교회의 수호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힐라리오는 이교도 가정에서 태어나 이교도 교육을 받았으나 이교도의 어리석은 이상에 만족하지 않고 진심으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저는 깊이 생각할수록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곧 하느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 지성에 떠올랐을 때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쓴 책을 손에 들고 읽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발표한 증거 문서)의 규정을 따라 불가타 성경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며 주석하는 일에 전념했다. 현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거룩한 교부들과 박학다식한 가톨릭 작가들이 쓴 주석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다. 마르티니 몬시뇰(1771–1781, 나폴리)의 성경은 1778년 3월 17일자로 비오 6세의 증거 문서에서 승인되었다.]

9. 이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으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단죄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는 336년에 선종했지만 아리우스 논쟁은 4세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명백한 설명과 그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의 지성은 온전히 맑아져 신약성경을 읽자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교회 안에 들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사가들과 사도들의 저술, 특히 성 요한 복음의 원리는 제가 찾던 것, 감히 제가 희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쓴 작품 가운데는 성 마태오 복음과 시편에 대한 주석, 신약성경에 관련된 구약성경의 특징에 대한 해설 등의 성경에 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교회 박사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작은 희생 : "영광스러운 동정녀 체칠리아의 공로와 덕을 칭송하는 일화 가운데 체칠리아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처럼 하라고 권고합니다. 영성생활을 함에 있어 이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용하며 높은 단계의 완덕에 나아가도록 이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성 보나벤투라)

하바쿡의 찬가 [#]

주님, 저는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업적을 두려워합니다.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되살리시고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노여우셔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테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 오신다.

83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고
그분을 찬미하는 소리가 땅을 가득 채운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두 줄기 빛이 그분 손에서 뻗어 나온다.
거기에 그분의 힘이 숨어 있다.
흑사병이 그분 앞에 서서 가고
열병이 그분 발꿈치의 뒤를 따른다.
그분께서 멈추시고 땅을 흔드시며
그분께서 보시고 민족들을 떨게 하신다.
예로부터 있던 산들이 무너지고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이 내려앉는다.
그분의 길만이 영원하다.
나는 쿠산의 천막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천막 휘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당신께서 말을 모시고
승리의 병거를 모시니
주님, 강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강들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바다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당신께서는 활을 꺼내시어
시위에 화살을 메우십니다.
당신께서는 강줄기로 땅을 가르십니다.
산들이 당신을 보고 몸부림칩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심연은 소리를 지르고
그 물줄기가 치솟습니다.
당신의 화살이 날아갈 때 번쩍이는 빛 때문에
당신의 번뜩이는 창의 광채 때문에
해와 달은 그 높은 거처에 멈추어 섭니다.

당신께서는 진노하시어 땅을 짓밟으시고
분노하시어 민족들을 내리밟으십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기름부음받은이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악인의 집 지붕을 부수시고
그 집을 주춧돌에서 천장까지 발가벗겨 버리셨습니다.
숨이 있는 가련한 이를 삼키려는 듯이
그의 용사들이 기뻐 날뛰며 저희를 흩으려고 들이닥쳤지만
당신께서는 당신의 화살로
그들의 머리를 꿰뚫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거대한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를
말을 타고 짓밟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내 배 속이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린다.
뼈는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는 밑에서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에게 들이닥칠
환난의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
무화과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서는 양 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 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하느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곳을 치닫게 해 주신다. (하바 3,2-19)

84

독서

가장 큰 계명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마르 12,28-34)

에즈라의 기도

"저의 하느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저희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과 칼에 넘겨지고, 포로살이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이나마 주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겨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곳에 저희를 위하여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희 눈을 비추시고, 종살이하는 저희를 조금이나마 되살려 주셨습니다. 정녕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셔서,|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그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 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게 해 주셨습니다."(에즈 9,6-9)

85

86

8일
성경과 신비신학

욥기

욥기는 유다 문학의 황금기,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쓰인 놀라운 시詩입니다.

이 책은 가장 끔찍한 불행에 시달린 욥을 보고 당황하여 할 말을 잃은 세 친구의 방문을 받은 매우 경건한 욥을 소개합니다. 고통스러운 침묵은 고뇌에 찬 욥의 외침, 그의 친구들이 신성모독으로 이해한 외침, 고통에 대한 가장 어려운 물음을 던짐으로써 깨집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 자신의 죄로 인한 불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선언하지만 그의 친구들이 이를 믿지 않고 모욕하자 욥은 하느님께 호소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언제나 같은 순서로 세 차례씩 말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두 번째는 말을 더듬고, 세 번째는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친구들이 침묵에 빠지자 욥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선언하며 이러한 형벌이 자기 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인물인 엘리후가 개입하여 고통의 목적을 드러내며 하느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 개입하시어 하느님의 계획을 살피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담함을 드러냅니다.

알다시피 이 책은 가장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왜 때때로 악에 의해 억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가르침은, 고통이란 인간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정화하며 덕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섭리의 길을 호기심을 갖고 의아해하기보다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정의와 선의로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생각하며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7

묵상 8

성경과 신비신학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온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시편 119,97)

교의신학, 윤리신학, 수덕신학, 사목신학과 같이 신비신학 또한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신비신학이란 무엇인가? 신비신학은 특별한 여정을 통해 얻은 하느님과 영혼의 일치에 대한 것으로 거룩한 신학에 속하는데, 그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장 높은 완덕으로 이끌며 가르치는 것입니다.[1]

신비신학은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실천하는 숭고하고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신비신학은 안전하고 오류가 없는 성경과

1.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은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이고 바오로적인 영성의 표현이기에 사도직의 본질적 원천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결합은 초자연적 삶의 시작이요 끝이며 본질 그 자체입니다. 바로 여기에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이 있습니다."(「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p.1379; 참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95)

전승을 바탕으로 하는 한 그 자체의 기원과 명확하고 확실한 원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아경, 발현, 계시, 오상, 변모, 동시다발적 출현을 비롯한 여러 신비 현상처럼 특정 성인들의 삶에서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모든 것이 신비 차원에 해당됩니다.

복자 젬마 갈가니[2]의 삶은 신적 차원을 띱니다. 루카 출신의 이 젊은 동정녀는 신비주의의 최고 단계인 영적 배우자가 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젬마 갈가니는 숨겨진 일들과 미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두 손과 발에 거룩한 오상을 받았으며, 자신의 수호천사가 자주 나타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88

이처럼 초자연적인 은사를 즐기는 영혼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1코린 12,7) 하고 말씀하신 성 바오로의 교의에 따라,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교화를 위해 허락하시는 온전한 무상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1코린 12,11)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에게서 거저 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 젬마 갈가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임금님의 희생자요 배우자"로서 확실한 인상을 지닌 20세기 최초의 신비가요 오상을 받은 여성이다. 1878년 3월 12일 루카에서 태어나 1903년 4월 11일 같은 곳에서 선종한 젬마는 1940년 5월 2일 비오 12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이 책이 출판될 당시(1933)는 '복자'였다.

* * *

신비신학과 성경의 관계는 매우 가깝습니다. 사실 성령의 영감과 도움으로 글을 쓰는 성인 전기 작가들의 활동은 신비주의에 속합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몇 백 년 전, 선천적으로 비추임을 받아 구세주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소한 특수 사항들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과 성 요한의 묵시록을 읽을 때 그러한 책들이 신적 개입 없이 단순히 인간에 의해 쓰였다고 확신에 차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분명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담긴 가장 숭고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제대로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신비로운 은사[3]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많은 진리가 성인전을 통해 기적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 요한이 환시를 보았던 것처럼 비전을 보거나, 모세처럼 하느님에게서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89

따라서 신비신학은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확실한 학문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증거는 전적으로 거룩한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입니다.

* * *

신비신학과 성경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 또 다

3. 성경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다. 인간은 성경을 신비로운 선물로 받는다.

른 이유는 신비신학 전체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혼이 하느님께 이르기까지 들어 높여 주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가장 친밀한 소통으로 이끄는 숭고한 기도가 담긴 다윗 시편과 예언서와 같은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짧은 시를 모아 놓은 아가雅歌는 신비가들의 찬가라고 불립니다. 아가는 사랑에 빠진 영혼과 천상 배우자가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영혼의 혼인 상태인 가장 높은 신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혼을 들어 높이려는 목표를 지닙니다.

이 책은 모든 신비 차원의 영혼이 좋아한 책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은 사람은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깨닫게 되는지요! 이는 또한 아가에 나오는 매우 심오한 교의를 내면화하여 열네 편의 서간을 집필함으로써 신비신학에 대해 다루었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이 의탁할 수 있는 무한한 원천을 집대성한 성 바오로가 좋아한 책이었습니다.

성 바오로는 신비신학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서간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남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느님과 이룬 매우 높은 단계의 일치를 귀감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90

그러므로 신비학은 인간이 단순히 이성의 빛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 학문이 아니라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학문입니다. 신비신학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므로 그 기원은 물론 본질에 있어 모든 인간적 학문보다 뛰어납니다.

거룩한 교부들과 신비주의 박사들이 성경에서가 아니라면 그 어디에서 자신의 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거룩한 사랑을 목말라하는 영혼들인 여러분에게 저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알폰소, 성 베르나르도, 신비주의의 박사라 불리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책들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련된 이 책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그 책들은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잔물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고 읽으십시오. 바로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 앞서 여러분의 천상 배우자를 사랑하는 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대화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영혼은 그곳에서 자신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법을 찾을 것입니다.[4*]

예수회의 비티 신부는 사람들을 신비주의의 진정한 샘인 성경으로 이끌고, 바오로 안에서 신비 차원의 일치를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귀감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3년째 「치빌타 카톨리카」에 성 바오로의 신비신학에 대한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91

이처럼 박학한 예수회 회원은 1931년 10월 17일자 발행호에 이

4.* "완덕에 대한 느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느낌은 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도덕적 선의 이상에 이르기까지 가장 순수한 영혼의 갈망이 개인적 욕망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그 갈망들은 복음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을 것입니다."(알렉산드로 만초니)

[외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충분하지 않은 알렉산드로 만초니의 생애는(1785년 밀라노에서 태어나 1873년 선종함) 내적 추구와 면학, 깊은 종교성에 대한 내면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다. 교양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그는 1810년 신앙으로 귀의했다. 안토니오 로스미니와 형제적 우애를 나눈 벗이었던 그는 자신의 영성과 정치·사회적 비전을 함께 나누었다. 「약혼자 *Promessi sposi*」(1821–1873)와 「가톨릭 윤리에 대한 관찰*Osservazioni sulla Morale Cattolica*」의 저자인 그는 전례력에 나오는 주요 축일에서 영감을 받은 "거룩한 찬가"를 주기적으로 바치는 것을 고안해 냈다.]

렇게 썼습니다. "성 바오로를 즐겨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친밀한 일치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열정 안에서 성 바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더는 느껴지지 않는 자신의 인성이 신성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날 때까지 퍼져가는 일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도의 교의가 가르치는 개념들의 깊은 의미에 이르러 그 심연을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신학 분야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신비신학의 예가 되는 귀감을 묵상하고, 모든 신비가의 영혼이 그랬던 것처럼 무한한 샘, 곧 성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천사와 같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생애 마지막 밤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렬하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느끼며 「아가」 전체를 주석했습니다. 이 뛰어난 박사의 죽음은 비참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아가」는 습관적으로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열렬히 읽는 사람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그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은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천국으로 가는 결정적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영혼은 분명 배우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일치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귀감 – 성 보나벤투라. 교회의 수많은 박사 가운데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절친이자 성 프란치스코의 초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성 보나벤투라는 특별한 빛으로 빛납니다.

완덕을 갈망한 그는 아주 어렸을 때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했고, 거기서 그는 아버지 프란치스코에게서 성체성사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사랑은 물론 | 면학과 영적 완덕에 이르게 하는 기초가 된 성경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선행의 여정에서 게으르지 않고 용감하고 관대하게 임하며, 자기 자신과 투쟁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이름으로 가장 큰 작업을 벌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 대적하여 승리한 청년 다윗의 예, 유딧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예는 보나벤투라에게 모든 원수에 맞서 자신을 던져 싸우게 한 매우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정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드높은 성덕에 올라 마치 새로운 세라핌처럼 보여져 세라핌 박사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가장 합당한 성 프란치스코의 자녀로서 그의 마음은 이제 갖가지 덕으로 넘쳐흘렀고, 마침내 자신을 표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설교대에 올라가 몇 시간 동안 줄곧 말해도 듣는 이들이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보나벤투라의 열정에 비해 너무 적은 수였기에 그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룩한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펜을 잡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저술은 그야말로 세라핌 천사 같았습니다.

그는 코헬렛, 지혜서, 성 루카 복음, 성 요한 복음에 대한 해설과 수많은 주석 작업을 했을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79차례의 강의를 집필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작품은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순례기*Itinerarium mentis ad Deum*」였습니다. 그 책에서 성인은 자신이 신비신학의 매우 높은 단계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그는 유명한 신비신학 박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그러한 지혜를 얻었는지를 우리는 그에게서 직접 들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책상 위에 계속 놓아두었던 유일한 물품들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성경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우리가 이끌어내야 할 가르침을 직접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참된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희생 :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묵주기도 신비 한 단을 바친다.

93

히즈키야의 찬미가 [#]

"저는 제비처럼 두루미처럼 울고 비둘기처럼 탄식합니다.
위를 보느라 제 눈은 지쳤습니다.
주님, 곤경에 빠진 이 몸, 저를 돌보아 주소서.
나 무어라 말하리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행하셨는데!
내 영혼의 쓰라림 때문에
내 잠이 모두 달아나 버렸다네.

주님, 사람들은 그것들로 해서 살아가고
제 목숨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낫게 해 주소서. 저를 살려 주소서.
보소서, 저의 쓰디쓴 쓰라림은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제 목숨을 지켜 주셨습니다.
정녕 저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등 뒤로 던져 버리셨습니다.
저승은 당신을 찬송할 수 없고
죽음은 당신을 찬양할 수 없으며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당신의 성실하심에 희망을 두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하듯이
산 사람, 살아 있는 사람만이
당신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하심을 알립니다.
주님은 나를 구하시는 분.
우리 한평생 모든 날에
주님의 집에서 현악기 타며 노래 부르세." (이사 38,14-20)

독서

하느님께서 성 바오로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선물

이로울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시와 계시까지 말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열네 해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낙원까지 들어 올려진 그는 발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내가 설사 자랑하고 싶어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그만두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 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 떠나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2코린 12,1-10)

94

유딧의 찬양가

"나는 내 하느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 힘이 놀라우신 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자 생겨났으니 모든 조물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당신께서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거역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산들이 그 밑바닥부터 바다와 함께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당신 앞에서 밀초처럼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을 당신께서는 가엾이 여기십니다. 향기로 바치는 희생 제물도 모두 별 것 아니고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는 굳기름도 모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언제나 위대합니다.
불행하여라, 내 겨레를 치러 일어나는 민족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심판 날에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들의 몸속으로 불과 벌레를 보내시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통곡할 것이다." (유딧 16,13-17)[5]

5. 이 책은 불가타 번역을 언급하며 "유딧 16,16-21"을 제시하지만, 현재 번역본은 16,13-17에 해당한다.

95

9일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진리다

다 윗

시편의 대부분은 궁중 예언자 다윗에게서 기인합니다.

열왕기1·2·3권에 자세하게 묘사된 이 거룩한 임금의 다사다난한 삶은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임금, 참회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울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다윗 David[1]은 사울의 후계자로 축성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들레헴의 이사이입니다.

하느님이 내리신 형벌로 사울 임금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청년 다윗은 궁정으로 불려가 조화로운 선율의 비파를 타서 사울을 진정시켰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봅니다. 이곳이 바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한 골리앗을 대적하여 죽인 곳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군중이 기뻐했으나 사울은 다윗을 둘러싼 대중의 호의까지 의심하면서 갈수록 질투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 딸 메랍과의 혼인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승리한 후에야 비로소 [둘째딸] 미칼과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출전하여 죽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청년 다윗은 처남 요나탄과 친밀한 우정을 쌓았기에 요나탄은

1. 다비드Davide: 이 이름의 스펠링은 아마도 서로 다른 출처로 인해 일관되지 않는다.

분노에 휩싸인 임금의 창에서 여러 차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궁정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음을 깨달은 다윗은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헤매다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피해다녔는데 사울이 번번이 뒤쫓아왔고,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해치울 기회가 있었으나 관대하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추종자들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96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하자 다윗은 유다 임금으로 축성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스럽고 행복한 통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다윗이 지은 심각한 죄로 그를 벌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후일에는 그의 교만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3일 동안 계속된 흑사병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룩한 임금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울며 끊임없이 통회하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가 하느님께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형벌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머무실 합당한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그 계획의 실현은 그의 후계자의 영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한 후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택한 후 70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시 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찬가 모음입니다. 시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시인 다윗이 쓴 것으로 여겨 다윗 시편이라고 일컫습니다.

교회가 물려받은 시편은 회당의 기도서 역할을 했습니다. 150편의 시편 모음은 다윗 시대부터 에즈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에 걸쳐 수집되었습니다.

모든 시편을 다윗이 쓴 것은 아닙니다. 시편 제목만 보아도 모세와 느헤미야Nechemia[2]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을 언급합니다. 유배와 회복 시편을 수집한 에즈라가 마지막으로 시편을 손질한 것 같습니다. 시편은 거의 모든 종류의 시에 고귀함을 부여하여 찬가, 감사, 기도, 경건한 묵상, 역사시, 교훈시, 참회시를 이룹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며 웅장한 예언을 하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는 「갈리아 시편」으로, 오리게네스의 「헥사플라」(6개 언어 대조 성경)를 성 예로니모가 수정하여 불가타 번역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성무일도서의 혼이자 구약성경의 참된 신심의 정원인 시편은 농부, 사색하는 사람, 포도원지기, 목자들이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97 각자의 일을 성화했던 순교자 시대와 교부 시대에서처럼 |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서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편에는 모든 영혼을 위한 찬가와 기도가 담겨 있으므로, 각자 자기 것으로 만들어 마음으로부터 암송하기가 수월합니다.

묵상 9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진리다

"당신 말씀은 지극히 순수하니 당신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시편119,140)

2. Neemia or Nehemia: 다양한 스펠링(이전 각주 참조).

성경 곧 가장 탁월한 책은 트리엔트 공의회가 거룩하며 하느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정의 내린 72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하늘 나라로 초대하며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낸 유일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출판 사도직의 본질적 요소로서 오로지 성경이 담기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때때로 성경과 비슷한 무엇인가를 행한다 해도 성경 자체가 없다면 출판 사도직은 어떤 식으로든 지속될 수 없습니다.[3]

실제로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시고, 사도들과 교황들은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그 뒤를 계속 따라갑니다. 사제는 교황의 펜과 입과 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출판 사도직은 하느님 활동의 연속입니다. 뿌리 없는 식물이 있을까요? 샘이 없는 시냇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성사가 있습니까? 시작하지 않은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지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괴로워할 것입니다. | 그러한 가지는 권위와 힘과 공덕 98

3. 출판 사도직과 성경 공부의 밀접한 관계는 이 책(LS)의 근본 주제 중 하나다(참조:pp.72 이하, 98 이하, 191-193, 289-294, 306, 317 이하) 이는 또한 앞서 출간된 「인쇄 사도직」의 주제였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의 노선을 따른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배필인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느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기 위해 성경을 날로 더 깊이 이해하도록 힘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동방과 서방의 거룩한 교부들과 거룩한 전례에 대한 연구를 장려한다. 가톨릭 성경 해석자들과 신학자들은 교도권의 감독을 받으며 서로 합심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말씀의 많은 봉사자들이 성경의 양식을 하느님 백성에게 풍성하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경의 양식은 정신을 비추어 주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이다. 거룩한 공의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의 자녀들이 기꺼이 받아들인 과업을 교회의 감각에 따라 계속하도록 격려한다." (「하느님의 말씀 *Dei Verbum*」, 23항)

과 독자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명이 없는 사제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 *

성경의 진리는 출판 사도직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글을 쓰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후의 모든 거룩한 저술가들은 모세에게서 내용을 가져와 확장하며 적용했습니다. 신약성경을 쓴 작가들은 우리에게 어둠과 성취된[4] 예언을 보여주었고, 하느님 아드님이 가져오신 진리와 은총의 신비를 드러냈습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성화시키며 유일하고 보편되며 결함이 없는 스승으로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신비 차원의 삶을 계속합니다. 사제들은 출판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전하며 굳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출판 사도직이 주는 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출판 사도직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그 진리를 내어 주려고 투신하는 한, 그 진리 위에 교리와 도덕, 하느님을 공경해야 하는 경신례의 실천 사항을 쓰는 한 출판 사도직은 성경의 진리를 전해줍니다. 역사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위에 글을 쓰셨으며 또 쓰고 계십니다. 저술가들은 이를 읽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에 대해 묵상하고 읽고 식별하고 배우고 살아내며 구원 받게 합니다.

4. 이는 sensus plenior 또는 충만한 의미에 대한 것이다. 이 책 p.40의 각주 7의 3항을 보라.

* * *

1) **주요 목표**: 사실 출판 사도직의 주요 목표는 성경의 목표와 같습니다. 곧 하느님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는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로서의 하느님 활동, 성자로서의 하느님 활동, 성령으로서 하느님 활동이 계시되고 선포됩니다. 더욱이 영혼들에 대한 임무, 곧 거룩한 계명에서 복음적 권고에 이르기까지 | 가장 드높은 덕에 이르기까지 전합니다. 그리고 계시가 우리에게 매우 풍성하고, 성도들의 어머니인 거룩한 교회가 권위 있는 스승이 되는 온갖 성화 수단이 있습니다.

2) **같은 목적**: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출판 사도직은 인간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보물, 곧 영원성을 지닙니다. 출판 사도직은 영원을 보장하며 이웃에게 그 영원을 얻어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마음에 소중한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3) **같은 수단**: 성경과 출판 사도직은 같은 목소리, 곧 글로 쓰인 것을 활용합니다. 편집실의 가장 좋은 장식품은 복음사가들의 모습이 담긴 액자입니다. 신심의 가장 좋은 표징이자 목표는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루카 8,11)[5]라는 말씀이 쓰인 펼쳐진 복음서입니다. 몇몇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최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것은 삼십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또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5. "Semen est verbum Dei." – 이 책(LS)에 루카 17,11이라고 잘못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 * *

바로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경건하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필요성이 따릅니다. 교황 레오 13세, 비오 10세, 베네딕토 15세는 이처럼 성경을 읽는 경건한 실천을 무척이나 권했습니다.

비오 10세가 카세타 추기경Francesco di Paola Cassetta, 1841–1919 – 옮긴이에게 쓴 내용을 들어 봅시다.

"거룩한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건전한 활동으로, 신적인 모든 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를 성화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100 모든 이는 항구하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출판 사도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하듯 눈먼 사람을 이끄는 또 하나의 눈먼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누구보다도 항구하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거룩한 책을 읽는 사람은 거룩한 언어를 선택하고, 거룩한 언어를 말하며, 거룩한 효과를 얻습니다.

만일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많은 설교와 책과 훈화는 더 많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히브 4,12–13)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참되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은 **경건하게**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쓰인 시대와 같은 정신으로, 성경에 귀 기울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길 바라는 자녀들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영적 독서로, 성체방문 때 묵상하며 깊이는 수단으로, 묵상을 위한 주요 독서로, 모든 영적 필요와 사도직의 필요, 그리고 사회적 필요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할 거룩한 신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귀감 – 루이 뵈이요. 루이 뵈이요Louis Veuillot, 1813–1883 – 옮긴이는 프랑스 가톨릭 언론계의 영광으로, 굴하지 않고 교회의 권리를 옹호한 사람이며, 교황청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교황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정부의 탄압을 받은 전투적인 가톨릭 신문 〈우주 L'Univers〉를 몇 년 동안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거룩한 복음을 몇 차례 읽고 묵상한 다음 경건한 독서와 묵상의 결실로 | 천상 스승 예수님께 대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 101
긴 전기 「예수님의 생애 *Vita di Gesù*」를 썼습니다.

그는 언제나 거룩한 복음서를 자기 몸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는 관에 들어갈 때 자신이 쓴 「예수님의 생애」를 놓아 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다음은 저명한 가톨릭 기자의 무덤 비문에 쓰인 그의 유서 내용입니다.

제 옆에는 제 펜을 놓고
제 심장 위에는 제 유일한 자랑이신 그리스도를 두고

제 발 밑에는 이 책을 놓아주세요.
그런 다음 친구들이여, 관을 평온히 닫아주세요.

마지막 기도를 마치면 제 무덤에 십자가를 심으십시오. 관대하게도 비석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믿었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에서 봅니다."라고 써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진솔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마쳤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어느 날 자신이 그토록 꿈꾸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제 예수님 안에서 희망합니다. 거기 많은 사람 가운데
저는 제 믿음에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분 또한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노[6]는 이 유서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워 노래로 만들고자 했으

6. 샤를 구노(181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893년 세인트클라우드에서 선종함), 한때 신학생이었던 그는 음악 외에도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1840년과 1841년에 머물렀던 로마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프랑스 '산 루이지 데이 프란치시' 성당에서 '채플 마에스트로' 자격을 받기 위해 미사곡을 작곡하는 방법으로 팔레스트리나의 대위법 다성음악에 열중했다. 뛰어난 오페라 경력에서 그는 파리를 제외하고 비엔나와 라이프치히에서 성공했다. 그는 J.S. 바흐의 서곡을 기초로 작곡한 "아베 마리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며, 마침내 그 유명한 "마지막 기도"를 작곡했습니다.

작은 희생 : 이 책의 끝 부분에 있는 '거룩한 작가들의 호칭기도'를 암송하며, 출판이 성경의 거룩한 가르침에서 언제나 영감을 얻도록 하십시오.

한나의 찬가 [#]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거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은 정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며 **102**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는 이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 간다.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 더미에서 일으키시어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발걸음은 지켜 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리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신 그분께 맞서는 자들은 깨어진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으로 호령하신다.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 임금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부음받은이의 뿔을 높이신다."(1사무 2,1-10)[7]

독서

사도직에 있어 성실함과 솔직함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 두어야 할 것들을 버렸으며, 간교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어 하느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하여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

7. 이 책에서 열왕기 1권은 사무엘기 상권을 나타낸다.

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2코린 4,1-12)

기도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요한 1,1-14)

10일
성경은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솔로몬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선택된 민족의 세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스무 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임금으로 선출되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젊은 임금은 선과 악의 길을 분별하고 정의롭게 통치하기 위해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청했습니다. 솔로몬이 부나 지상의 재화를 청하지 않아 매우 기뻐하신 주님께서는 그가 청한 선물 외에 부와 영광 또한 덤으로 주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하느님 백성의 임금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4년차에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미 계획했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6만 명의 일꾼들이 그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금과 은, 가장 귀중한 보석들이 매우 풍성하게 성전에 장식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흡족한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 봉헌절 동안 주님의 집을 가득 채운 구름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희생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가장 먼 나라에까지 퍼졌지만 그는 너무 유명해져서 안타깝게도 주님과 그분의 법을 잊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이 그를 우상숭배에 빠뜨렸으므로, 그는 끔찍한 불경스러움에 물들어 구원이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105 솔로몬은 거룩한 지혜로 가득한 네 권의 성경, 곧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 언

우리는 유다인들 가운데 대중적인 격언 외에 지혜, 곧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기술, 하느님에 따라 잘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현자들이 공들여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주로 언급한 격언 모음으로 몇 차례에 걸쳐 수집되었습니다. 이는 지혜가 가르쳐 주는 내용에 따라 이상적인 삶과 대조되는 실제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코헬렛[1]

코헬렛은 산문과 시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표현한 철학적 사고의 모음집입니다.

코헬렛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주제로 삼고, 주어진 문제의 시험에 합격할 때처럼 한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글을 쓰면서 갑자기 지나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헛됨을 살펴봅니다. 학문, 쾌락, 재물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

1.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집회서 또는 시라와 달리 코헬렛은 좀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비참한 삶을 살펴보며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기에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행을 살펴보면서 행복에 대한 실제적 규칙을 제시하며, 먹고 마시며 하느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지니고, 종교적 의무를 완수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삶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이르고, 삶의 질서를 가져오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코헬렛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 짓습니다.

아 가

106

이 책은 제목만 보아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참으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어려운 노래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사랑은 하느님 사랑, 곧 선택된 민족과 교회와 영혼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모습으로 기념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가를 왕궁의 유혹과 대조되는 주인공들이 있는 짧막한 드라마로 여깁니다. 이는 신부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들판에서의 삶을 위해 화려함을 포기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처럼 이질적인 사랑은 호화로운 이교도 문명에 의해 위협받는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대다수의 교부들에 따르면, 이는 하느님과 교회, 영혼, 인류와 함께하는 말씀Logos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매우 아름다운 비유[2]

2. 이 책이 성경 해석 방법으로 "비유"에 대해 언급하는 곳은 이곳뿐이다.(교황청 성경위원회,「교회 안에서의 성경 해석*L'interpretazione della Bibbia nella Chiesa*」, 31c 참조)

입니다. 하느님은 신랑이시므로 임금이라 불리며, 영혼과 교회와 인류는 신부입니다.

지혜서

지혜서라는 이름을 채택한 것은 지혜서가 종교와 미덕에 대해 사람들과 나누는 거룩한 지혜를 숭고하게 찬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란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보고, 평생 동안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하느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느님의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변적이고 실용적인 이 지혜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느님에게서 오며, 이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되지 않은 지혜의 참여입니다.

거룩한 작가는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지적, 도덕적 측면에서 지혜를 제시하고, 두 번째는 역사적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책은 정의와 종교, 행복과 불멸의 원천을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이승과 다음 생에서 의인과 악인의 다른 운명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상숭배의 기원과 부도덕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집트의 재앙에서 대조적인 유다인과 이집트인을 살펴보며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107

묵상 10

성경은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켜라."(묵시 10,8)[3]

이 마지막 성체조배 시간에 우리는 성경보다 인간적인 책을 더 좋아하는 많은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스승 예수님께 드린 슬픔에 대해 보속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책이 아닌 다른 책만 많이 읽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세상 땅끝 어느 구석에나 박혀 있을 아주 작은 금 조각을 찾아다니면서도 금덩어리로 된 산과 같은 성경은 보지 못합니다!

돌팔이 말은 뭐라 해도 귀 기울이며 다 믿습니다. 만병통치라도 되는 양 그가 권하는 특효약을 삽니다. 특효약이라 해봤자 물과 벽돌을 섞어 뭉쳐놓았을 테지요. 그러고는 무척 비싸고 귀하게 팔립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하기는커녕 자기 이익 챙기는 데에만 급급한 사람한테서 건강을 사려 합니다.

또 소설은 찾기도 많이 찾고 값도 비싸게 팔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별로 찾지 않습니다!

어느 서점을 가든 여러분이 찾는 책이 있고, 여러분이 찾는 소설이 있을 테지만, 책의 으뜸이 되는 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다른 책 아래 깔려 | 구석진 곳에나 있을 테지요! 모든 것이 각기 자리가 있으나, 하느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108

3. "Accipe librum et devora illum": "가서 … 두루마리를 받고… 받아 삼켜라."(묵시 10,8-9)

아! 바로 여기서 악마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현상을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속합시다! 우리가 먼저 자주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읽도록 권합시다. 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나쁜 책이나 덜 진지한 책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면, 그러한 책은 태워버리고 그 대신 성경을 구입하라고 권고합시다.

* * *

이제 성경을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첫째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깊게 살펴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200번이나 읽게 됩니다.

하느님 몸소 거룩한 저자들을 움직여 성경을 쓰도록 하셨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그분께서 바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성사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사를 받아들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성경을 쓰게 하셨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바라신다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귀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경청하며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4]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의 권고가 아직 귀에 쟁쟁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날마다, 심지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위험과 박해의 순간이 와도 성경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은 언제나 성경을, 적어도 거룩한 복음서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통해 역경을 이겨낼 힘을 얻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앙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힘을 얻은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교회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분류하여 쉽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최고기관인 교황청은 성경 읽기를 얼마나 많이 권고했는지요![5]

성경 연구에 관한 레오 13세의 회칙 「지극히 섭리하시는 하느님*Providentissimus Deus*」, 근대주의자들의 학설에 관한 비오 10세의 회칙 「주님 양떼의 사목*Pascendi Dominici gregis*」, 성 예로니모에 관한 베네딕토 15세의 회칙 「보호자 성령*Spiritus Paraclitus*」은 모두 성경에 대한 것으로, 성경이 읽히기를 바라는 교회의 간절한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 *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며, 또 성경을 읽는 데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

4. 요한 5,39. 이 구절이 성경을 읽으라는 초대로 인용되었으나 원래 의미는 아닌 것 같다.
5. 17p.과 p.30 참조.

성경은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사랑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시하는 대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교회의 손을 통해 성경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개신교 신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성경에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세우신 길, 곧 하늘나라로 이끄는 길에 있지 않습니다.

110 개신교 신자들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참된 성경에서 모든 주석을 없애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 자신의 열정을 다그치는 내용만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절단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 직접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만큼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교회의 손에서 성경을 받아들여 교회의 방침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오로지 교회에만 당신 책을 맡기셨기 때문이며, 오로지 교회만이 성경을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처럼[6]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

6. 이 책(LS)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 성경 해석 방법을 잘 아는 교회처럼 성경을 "완전하게" 또는 그리스도교적으로 잘 해석할 것을 권고한다.(pp.9, 17, 111, 285, 310) 성경은 일부 유다인들과(pp.40, 111) 그리스도교 이단자들에(p.260) 의해 잘못 해석될 수 있다. 독자들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알베리오네 신부에 따르면 우리는 스승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것처럼(p.319), 그리고 교회가 하듯이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해석의 규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12항 참조)에 제시된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겸손한" 사람들은

하거나 각자가 이해한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성령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교회만이 성경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가 주석이 없는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한 까닭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된 길에서 일탈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배우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습니다. 반면에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이 비추임 받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 계명, 가르침 등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에서 진리, 길, 생명을 찾습니다만, 개신교 신자들은 오로지 진리만을 찾습니다.[7] 따라서 그들의 모토는 "죄를 많이 짓고 더 굳게 믿으라 pecca fortiter et crede forties."[8]는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올바르게 해석한다.(LS, p. 200)

7. 이 일반화는 올바르지 않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몰몬교 저자인 영국인 브리검 헨리 로버츠(1857년에 태어남)는 요한 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세 가지 기본 단어에 따라 「진리, 길, 생명: 신학에 대한 기초 논문」에서 자기 생각을 설명하면서 처음 두 가지의 순서를 뒤바꾸었다. 로버츠는 자기 삶의 말기(1933년)에 이 논문을 출간하면서 자신의 자료를 세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학문과 성경을 하나로 묶는 복합성에 대한 성찰을 통합하고자 했다. (ㄱ) 땅에 관한 진리와 계시 진리, (ㄴ) 구원의 길, (ㄷ) 예수님의 지상 생활. 이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전 존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8. "실천 없는 믿음"은 개신교의 신앙고백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 루터의 정확한 진술은 "[Esto peccator, pecca fortiter :sed fortius fide] 죄인이 되십시오. 죄를 많이 지으면 신앙이 더 굳건해집니다."였다. 1517년, (마르틴 루터를 소환해 루터의 견해를 심의한) 보름스 의회는 구원에 있어 실천은 필수적이라고 믿은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이를 확인했다. 이러한 입장과 이 책에 대해

러면 당신은 똑같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에
111 게는 | 자선 활동과 미덕과 도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자체에서 뽑은 몇몇 구절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9] 그들은 선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선행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며, 성경을 해석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해석만 믿는 사람은 거룩한 종교가 지닌 가장 명료하고 본질적인 진리들을 부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가톨릭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본질적인 진리들을 배우고 나서 교회의 손을 통해 성경을 받아들인 다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 유다인들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성 아우구스티노가 잘 설명합니다. 유다인들은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길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성론과 물질주의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친 유다인들이 되게 한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예수님의 대리자인 교황,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신성한 모성애, 성사생활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성경 구절은 성 바오로의 가르침(갈라 2,16; 3,2; 5.6, 티모 3,8)과 야고보의 가르침(야고 2:14,17,18,20,22,24,26)이다.

9. 아마도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 바오로의 서간 구절의 해석을 뜻하는 것 같다.(로마 3,27-28; 9,32; 갈라 2,16; 3,2) 바오로의 잘못된 해석은 그가 자선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갈라 5,6: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참조: 1코린 8,1; 12,31 – 13,13)

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참된 가톨릭 정신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다시 말해, 가톨릭적 도덕을 이해하고 하늘나라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을 배우기 위해 성경을 읽읍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고, 성녀 안나에게서 성경 읽는 법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상 스승 예수님께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거룩한 표양이 되는 분들을 통해 배우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사목자들에게서 성경을 받아들여, 교회가 보여주는 대로 무한한 사랑과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도록 합시다.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 호기심으로 새로움을 갈망하는 112
이들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성성에 이르는 책이며, 하느님의 책입니다.[10]*

교회가 비추어 주는, 오류가 없는 안내에 따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하시며 세기가 다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모든 이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귀감 –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

10.* "성경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거울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죄의 추악함과 우리 선행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선에서 얼마나 많이 진보하는지, 완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다."(성 대 그레고리오)

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
113 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요한 5,31-47)

작은 희생 :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시다. 오늘, 예수님을 흠숭하기 위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언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유딧의 찬양가 [#]

"나는 내 하느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
힘이 놀라우신 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자 생겨났으니
모든 조물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당신께서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거역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산들이 그 밑바닥부터 바다와 함께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당신 앞에서 밀초처럼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을 당신께서는 가엾이 여기십니다.
향기로 바치는 희생 제물도 모두 별 것 아니고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는 굳기름도 모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언제나 위대합니다.
불행하여라, 내 겨레를 치러 일어나는 민족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심판 날에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들의 몸속으로 불과 벌레를 보내시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통곡할 것이다."(유딧 16,13-17)[11]

11. 이 책은 불가타 번역본을 따라 "유딧 16, 15-21"이라고 되어 있다.

독서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내시

114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피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사도 8,26-40)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기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루카 1,46-55)

제2부: 성경과 도덕(길)

11일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신덕

시라의 아들 예수

예수의 손자가 쓴 머리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바로 집회서[2]의 영감받은 저자입니다. 50장 27절에는 "엘아자르의 아들,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이 책에 쏟아 부었다."[3]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출신인 그는 지혜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지혜를 얻기 위해 심각한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긴 여행을 떠났는데, 마침내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인해 널리 알려졌으며, 바로 그 성경에서 참된 지혜를 얻었습니다.

거룩한 저자가 오니아의 아들인 대사제 시몬 2세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저자가 그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회서가 기원전 2세기에 쓰였고, 곧바로 저자의 손자에 의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서

집회서는 교회 초기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

1. 원 텍스트 p.114와 p.115 사이에 "제2부"라는 부제가 달린 한 면에 이어 쪽수에 포함되지 않은 백면이 연달아 삽입되어 있다.
2. Ecclesiasticus 또는 Sirach 시라의 지혜.
3. 집회 50,27. 불가타 번역본에서는 29절에 해당한다.

"집회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본문에
116 는 "시라의 지혜"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사실, | 그는 독자들에게 지혜를 향해 나아가라고, 곧 모든 덕을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책은 머리글과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글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라는 권고에 이어 지혜의 기원과 열매를 묘사하고, 지혜와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제1부는 교리적이며 참된 지혜와 덕의 실천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시합니다.

이와 달리 제2부는 역사적입니다. 창조주 하느님께 찬미가를 드린 다음 저자는 각각의 피조물을 묘사하면서 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업적을 노래하며, 에녹에서 대사제 시몬에 이르기까지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결론은 지혜를 추구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권고를 거듭 반복하며 아름다운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묵상 11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신덕

"당신 계명을 지키려 저는 지체하지 않고 서두릅니다." (시편 119,60)

이달 초순에[4] 우리는 성경이 우리 지성을 비추어주는 참된 빛임

4.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설교한 성체조배 시간은 10시간이었지만 이 책에서는

을 묵상했고, 성경에 담긴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리고 교회가 이를 거룩한 학문의 가장 큰 부분으로 이끄는 방식과 거룩한 책이 자연 과학을 밝히며 확인하는 길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열 차례에 걸친 이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 의지가 어떻게 성경에서 모든 덕의 놀라운 귀감을 찾을 수 있는지 | 또 녹슬거나 영원히 117
좀먹지 않는 불멸의 재화를 얻게 하는 채찍질과 힘이 되는 모범을 어떻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에서 신덕 가운데 첫째인 믿음이 어떻게 성경에서 솟아나는지 보도록 합시다. 다른 모든 덕이 수많은 말과 귀감을 통해 어떻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권고하는지 살펴봅시다.

* * *

오늘 우리는 대신덕의 첫 번째 덕목인 믿음이 어떻게 성경에서 솟아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교리 문답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이란 "하느님이 계시하시고[5]

30차례의 묵상이 제시되었음을 기억하자. 성바오로딸수도회에 보낸 회람에 제시된 것처럼 이 책의 새로운 구성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승인한 것이다. "G.D.P.H. | 1933년 11월 22일, 알바 | 착한 성바오로딸수도회, | 나는 죽음에 대한 여섯 차례의 성체방문과 천국에 대한 여섯 차례의 성체방문 내용을 인쇄하라고 성바오로딸수도회에 맡겼습니다. 성경 독서에 대한 성체방문 책은 이미 인쇄되었습니다."(「여러분의 성소를 생각하십시오*Considerate la vostra vocazione*」, 34번)

5. 「하느님의 말씀」 6항은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인류 구원에 대한 당신 의지의 항구한 결정들을 계시로써 드러내 보이시고 전달하기를 원하셨다. 곧 하느님께서는 '인간 지성의 이해를 온전히 초월하는 신적 부유함에 인간을 참여하게 하셨다.' 거룩한 공의회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목적이신 하느님께서는 인간 이성의 자연적 빛으로 창조물을 통하여 확실하게 인식 될 수 있다.'(로마 1,20 참조)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인간이 본디 하느님의 일들에 관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모든 사람이 현재

교회를 통해 믿도록 제안한 모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관찰할 때 모든 계시의 중심[6]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입니다. 구약성경은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신약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 말함으로써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읽을 때면 우리 지성이 언제나 유일한 중심이신 거룩한 스승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거룩한 복음서들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변모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 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마태 17,1-8)

더 쉽게, 확실히, 오류 없이 알 수 있게 된 것'은 하느님 계시의 덕분이라고 가르친다."

6. 이 책에서 이 용어는 언제나 의미가 풍부하다. 예를 들면,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p.118); 성경을 사랑하며 읽는 사람은 변방에 머물지 않고 중심에 도달합니다.(p.318) 이탈리아주교위원회의 「사목 주석」이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내용과 이 확언들을 비교해 보라.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며 목표입니다. … 이 때문에 교회는 사도적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만나며, 이를 그분의 빛에 비추어 우리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유일한 계획으로 이해합니다."(「교회 생활에서의 성경 *La Bibbia nella vita della Chiesa*」, 2항) 그리스도 중심성은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의 해석학적 원리다. 성경이 지닌 가장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오, 참으로 거룩한 광경입니다! 우리는 중심[7]에서 변모되신 거룩한 스승 을 바라봅니다. 그분 위에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며, 그분 아래에는 신약성경을 대표하는 세 명의 사도들, 곧 믿음의 상징인 베드로, 사랑을 상징하는 요한, 그리고 세 가지 대신덕, 곧 믿음, 희망, 사랑을 실천에 옮긴 이를 상징하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인물, 상징, 예표, 예언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시어"(갈라 4,4 참조) 아드님으로 하여금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과 (예형적) 인물이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의 오심, 곧 메시아의 탄생과 삶, 구원 업적,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 말하는 27권의 신약성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신약성경은 성령의 오심과 성화시키시는 업적에 대해 말합니다. 끝으로, 묵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심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7. 스승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과 표현에서 언제나 중심이시며 중심에 서 계신다. 성경에서 중심에 계신 분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 * *

올바른 지향으로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생생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지 보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도록 확실하고 평온한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119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생기 있게 하고 성장시켜 주기 위해 위대하고 감탄할 만한 믿음을 지닌 여러 사람의 표양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귀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 그를 희생제물로 바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조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 말씀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곧바로 하느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귀감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생기를 얻게 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지요!

* * *

깊은 신심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사람의 생각은 일찌감치 거룩해지고, 판단과 추론이 거룩해지며, 짧은 시간 안에 초자연적인 것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안에서 새 인간, 의로운 인간이 탄생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히브 10,38)[8]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을 한 번 느껴보십시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원초적인 욕구와 애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더는 여느 사람처럼 되지 않고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갈망이 거룩해지며, 여러분의 욕망이 거룩해지고 초자연적으로 됩니다.

120

이에 대한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지상적인 것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세속적이 되지만, 천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천상적이 됩니다."

* * *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오로지 예수님만을 찾도록 합시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분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은 분명 우리의 신앙을 활기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이 지극히 거룩하신 마

8. "Justus ex fide vivit."

리아에 대해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이라고 말한 바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면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에게서처럼 우리에게서도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눈이 성경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관상하듯, 우리가 이제 하늘 나라에 계신 그분을 더는 신앙의 눈이나 희미한 거울로 비추어보지 않고, 성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귀감 – 성경의 순교자 성 펠릭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무렵 많은 그리스도인이 비겁해져 이교도들에게 성경을 넘겨 불태우게 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21 아프리카 영사관에 있던 티바라의 주교 펠릭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의 타락은 그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자극하며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티바라 시의 행정관인 막닐리아누스는 펠릭스 주교를 붙잡아 교회에 속한 성경을 포기하라고 헛되이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잘못을 하기보다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것이 더 낫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막닐리아누스는 그를 카르타고 총독에게 안내했고, 총독은 그

당시 아프리카에 있던 행정관 지사에게 보냈습니다. 펠릭스가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고백하자 화가 난 그는 펠릭스를 비좁은 감옥에 가두어 무거운 쇠사슬에 짓눌리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는 9일 후, 그를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해 배에 태워 이탈리아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배 밑창에 있던 성인은 먹거나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4일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배는 아그리젠토에 이르렀습니다. 시칠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펠릭스가 지나갈 때 영예롭게 생각하였습니다. 펠릭스가 베노사에 있었을 때, 그의 쇠사슬을 풀어주며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도록 강요받자 그는 '예' 하고 대답했지만 성경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항구함을 굴복시키지 못한 것에 절망한 지사는 그를 참수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처형 장소에 도착한 펠릭스는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303년, 56세의 나이에 목숨을 앗아간 처형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희생 : 누군가를 초대하며, 성경을 구입하여 날마다 읽게 한다.

감사 노래[#]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께서 하신 일들 얼마나 경외롭습니까!
당신의 크신 능력에
원수들도 당신께 굽실거립니다.
122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께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그 행적 경외로워라.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어
맨발로 건너갔다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네.
그분께서 당신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두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니
반항자들은 대들지 마라.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분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를 시험하시고
은을 단련하듯 저희를 단련하셨습니다.
저희를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저희 허리에 지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머리 위를 밟고 가게 하시어
저희는 불과 물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저는 번제물을 가지고 당신 집으로 들어가
당신께 저의 서원을 채우오리다.
곤경 중에 제 입술이 말씀드리고
제 입이 아뢰었던 것을 채우오리다.

숫양을 태우는 향연과 더불어
기름진 번제물을 당신께 봉헌하오리다.
소와 염소들을 바치오리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와서 들어라. 그분께서 내게 하신 일을
내가 들려주리라.
그분께 내가 입을 열어 부르짖었지만
내 입술 밑에는 이미 찬미 노래가 있었네.
만일 내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 있었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으리라.
그러나 정녕 하느님께서는 들으셨네.
내 기도 소리를 새겨 들으셨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내게서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시편 66,2-20)

독서

의로움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아,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렸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23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께서, 율법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가 하느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갈라 3,1-14)

다윗의 기도

하느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하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입의 말씀에 귀 기울이소서.
이방인들이 저를 거슬러 일어나고
포악한 자들이 제 생명을 노리기 때문이니
그들은 하느님을 자기 눈앞에 모시지도 않습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받쳐 주시는 분이시다.
저의 적에게 악이 되돌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진실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제가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오리다.
주님, 당신의 좋으신 이름을 찬송하오리다.
당신의 그 이름이 저를 구원하시어
제 눈이 원수들을 내려다보겠기 때문입니다.(시편 54,3-9)

124

12일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망덕

이사야

이사야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비록 연대기적으로는 첫 번째 예언자가 아니지만, 그의 계시 내용과 그 문체의 고상함에 있어 탁월하기에 성경의 경전 가운데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사야는 매우 어렸을 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직은 거의 5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었을 때 시작된 그의 예언 사명은 타락한 이스라엘에 맞서 요탐의 통치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영향력은 시리아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 왕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 불경한 아하즈의 통치 아래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아하즈는 아시리아의 강력한 임금 티글랏 필에세르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빌론의 사절단에서, 그리고 아시리아의 임금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 이사야가 친구요 조언자로서 예언을 해 준 거룩한 히즈키야 임금이 병에 걸렸을 무렵 이사야의 영향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 이후 이사야는 정치계에서 사라졌지만 세상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아마도 696년, 자신을 나무 톱으로 켜 죽게 한 불경한 므나쎄의 통치 아래 살았다고 봅니다.

그의 예언 활동은 작가로서의 활동보다 분명 더 방대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 예언 내용을 요약하여 썼을 따름입니다.

125

이사야 예언서

이사야서는 50년 동안 구술되어 쓰인 연설과 예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부분이 비록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을지라도, 예언자가 첫 장에서 표현한 한 가지 목적, 곧 시온은 심판에서 구속되고 정의를 통해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율법으로 되돌리기 위해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사야는 이제 엄하게 꾸짖고 위로하며 위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전부를 "위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사야는 거룩한 자비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이방인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만일 심판과 형벌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것이라면 그들은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며, 이교도들은 언젠가 영원히 지속될 메시아 왕국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 왕국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임금은 유다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는 세련된 문체와 웅장한 상징을 사용한 예언자요, 메시아의 예언자이며, 어쩌면 예언자 그 이상의 복음선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성 암브로시오가 성 아우구스티노에게 추천한 예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묵상 12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망덕

"당신의 법령이 제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살이하는 이 집에서."
(시편 119,54)

희망은 두 번째 대신덕입니다. 교리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126 "희망은 | 초자연적인 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믿게 되고, 하느님에게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며 선행으로 이 땅에 공로를 쌓는 데 필요한 은총을 기대합니다."

희망은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덕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괴로워하는 우리 마음의 욕정을 진정시키고, 우리 의지에 힘을 주는, 건강에 좋은 기름입니다.

하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낙담과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요!

하늘 나라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큰 희생은 없습니다!

믿음처럼 망덕은 성경에서 솟아나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장하며 확장됩니다.

* * *

희망의 목적은 이중적입니다. 곧, 천국과 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하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며, 이를 얻기 위한 공로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하느님에게서 얻게 되리라는 확신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탄은 마카베오기 상권에서 로마인들에게 그들과 형제애와 우정을 맺는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동맹)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위안을 위해 우리 손에 거룩한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로마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우정과 화합의 표시로서만 그러한 동맹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필요한 모든 도움을 하느님에게서 받는다는 유일한 희망은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약속에 기반을 두었기에 매우 강력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구세주를 약 127
속하셨을 때 그들의 영혼에서 빛나기 시작한 희망[1]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유다인들은 물론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매우 생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평화의 왕자를 그분 안에서 보았기에 모두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이 오시길 열렬히 바랐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평화를 희망했습니다.

---

1. 이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희망의 사람이 된다. 이 책(pp.17, 30, 109)에서 여러 번 인용된 레오 13세가 쓴 「지극히 섭리하시는 하느님」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편리하게 잘 준비되어 젊은이들이 받아들여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합리주의자들의 속임수와 박학다식한 겉모습에 사로잡혀 더 큰 악이 될 수 있는 단순한 희망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들이 길을 잃는 부주의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6항) 알베리오네 신부는 여기서 무엇보다 영원한 삶과 천국에 대한 희망을 언급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또한 희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로 인해 닫힌 하늘 나라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그분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 성 요셉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도성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이후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수많은 방법으로 시련을 준 욥은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는데, 욥이 우리에게 준 희망의 표양은 놀랍습니다. 그의 하느님은 의로우시므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욥 19,25-27)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희망이 얼마나 강해지는지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글들을 읽음으로써 희망이 생생하게 살아난다면 신약성경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128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보여준 희망의 표양은 얼마나 숭고한지요! 신심 깊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 성모님께 무덤에 오시라고 초대했을 때 성모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언서에서 여러 차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임을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얼마나 많은 예화가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희망이 주는 위로와 성장을 언급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 나라에 있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분의 거처는 이곳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고 성경 전체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시편 4,3) 여러분은 창조된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우리 안에 살아 있게 될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커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늘 나라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청하고 구하라는 말씀이 400번[2]이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인용해 봅시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루카 18,1) "…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1베드 4,7) "서원을 제때에 채우기를 망설이지 말고…"(집회 18,22),[3]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마태 7,7)

---

2. 이 숫자가 불가타 번역본과 일치하는지 보려고 이처럼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최신판 성경*Nuovissima Versione*」(성바오로 편집)에 나오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사 '기도하다', 명사 '기도preghiere' 또는 'orazione'에서 파생된) 29개의 언어 형태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360개의 구절에 나와, 모두 542번이나 언급된다. 분명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3.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르게 표현한다. "시간이 있을 때 서원을 미루지 말고 죽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어 원어는 "서원" 또는 "언제나 일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다음 구절(23절: "Ante orationem praepara animam tuam et noli esse quasi homo qui tentat Deum.")은 기도에 대해 말한다. 이탈리아어 번역본은 라틴어 번역본을 반영하며 명시한다. "서원하기 전에 준비하고 주님을 유혹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교화를 위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例에 대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거룩하신 동정 마
129 리아가 |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단순하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강조합시다. 예수님에게서 무슨 말씀인가를 들으신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1 이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맛 좋은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지체장애인, 나병환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기도 후 치유되어 나은 언어장애인의 비유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갈망하는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과 하늘 나라를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 *

여기서 가장 훌륭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적 독서가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거룩함을 갈망하며 자기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쓸모 없는 책을 여기저기서 찾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만족하지 못한 그들이 성경을 집어 든다면 바로 거기서 풍성하고 실질적인 양식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말하듯 이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련하신 천상 잔치입니다.

"이 삶에서 무척 필요하다고 느끼는 두 가지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저는 이 비참한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저는 두 가지 것, 곧 양식과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는 그토록 연약한 저에게 제 영혼과 몸이 | 새로워 130
지도록 당신의 거룩한 살을 저에게 주셨고, 제 발에 등불로서 당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도움이 없다면 저는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말씀은 제 영혼의 빛이며, 당신의 성사는 생명의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당신의 거룩한 교회의 보물창고 양편에 놓인 두 개의 식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식탁은 거룩하게 축성된 빵, 곧 당신의 귀중한 몸이 세워진 거룩한 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교리를 담고 있고 참된 믿음을 가르치며 우리를 지성소[4*]가 있는 휘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인 식탁입니다.

귀감 – 성 에우플리오.[5] 그는 성경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

4.* 「그리스도를 본받아」 1권 4부 11장 4번.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는 문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을 뜻하는 debir라고 일컬어졌다. debir라는 단어는 "분리된 것"과 광범위하고 신비롭고 "거룩하며" 예약된 것을 뜻한다. 각 측면에서 10미터 정도 되는 큐빅 홀인 debir는 계약의 방주를 수용할 수 있으며, 오로지 대사제만이 1년에 단 한 번, 디스리월(9-10월) 10일에 유다인들이 기념하는 속죄의 날(욤 키푸르)에 방문할 수 있었다. 역대기 저자는 이를 "지성소"라고 부른다.(2역대 3, 8.10) 동사 '말하다dabhar'와 관련하여 예로니모는 'oraculum'이라고 번역한다. 이는 "말씀" 또는 "신탁"의 자리를 뜻한다.

5. 카타니아의 순교자 에우플리오를 말한다. 그는 거룩한 책을 버리라고 명령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303년 2월)의 첫 번째 심문을 거슬러 죽음에 이르는 고문을 당했다. 「성인 전집*Bibliotheca Sanctorum*」, 제5권, p.231 참조.

니다. 부제 에우플리오는 카타니아의 지방 관리 칼비시아누스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법관이 있는 방에 이르자 그 부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거룩한 복음서를 손에 들고 관리 앞에 섰습니다. "그런 책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네 집에서 가져왔느냐?" 하고 칼비시아누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우플리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체포되었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몇 구절 읽어보라고 하자 그는 성경을 펼치고 짧은 두 문장을 읽었습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6]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7]

칼비시아누스는 이 참회자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는지 보려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우플리오는 이마에 십자성호를 긋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거룩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글이 담긴 책을 버린다면 하느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짓느니 |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한 죽음 뒤에는 영원히 축복받는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관리는 고문을 두 배로 늘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리는 그 순교자에게 풀어줄테니 희생 제물을 봉헌하기 위해 신들을

6. 마태 5,10.
7. 마태 16,24. 참조: 마르 8,34; 루카 9,23.

숭배하라고 권했지만 에우플리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을 흠숭합니다.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흠숭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저의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당신은 헛되이 제 결심을 바꾸려고 애쓰시는군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쳐버린 칼비시아누스는 마침내 사형선고문을 읽었습니다. 에우플리오는 자기 목에 거룩한 복음서를 매달고 처형 장소로 인도되었습니다. 그의 피는 그가 죽을 때까지 옹호하며 고백한 성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때는 304년 8월 12일이었습니다.

작은 희생 : 나 또한 언제나 거룩한 복음을 적어도 한 쪽이라도 지니고 다니겠다.

찬 가 [#]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루카 2,29-32)

독서

부활의 희망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맏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맏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굴복되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이 제외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들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1코린 15,20-30)

기도

주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고
주님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며
제 속과 마음을 달구어 보소서.
정녕 당신 자애가 제 눈앞에 있었고
당신 진실에 따라 제가 걸어왔습니다.
저는 옳지 않은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고
음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무도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주님, 결백함으로 제 손을 씻고
당신 제단을 돕니다.
큰소리로 감사 노래 부르고
당신의 기적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계시는 집과
당신 영광이 깃드는 곳을 사랑합니다.
제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제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두 손에는 부정이,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백하게 살아가니
저를 구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 발은 올바른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저는 주님을 찬미하오리다.(시편 26,1-12)

133

13일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애덕

예레미야 예언서

이 책은 40년 동안 이루어진 많은 담화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예언들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많은 이야깃거리가 들어 있습니다. 연대순을 따르지 않지만, 그대신 선택된 백성과 이방인들을 거슬러 거룩한 의로움으로 위협하며 그 실행을 발전시킨다는 논리적인 순서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의로움이라는 하나의 요점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보복적인 의로움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세우고 심어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회복을 설교함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언자가 자신의 예언서를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여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서기관인 바룩에게 확실한 지침을 주면서 여호야킴 임금이 태워버린 책에 기록된 많은 예언 내용을 쓰게 했으며, 바룩이 베껴 쓴 새 책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의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의 장엄함이나 독수리 같은 시각을 지니지 않았지만, 무척 단순하고 즉흥적이며 자연스러워 모든 문학 유형에서 모범적인 서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예언자이며, 그리스도의 가장 생생한 인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희망을 자신의 예언에서 표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34

다섯 편의 애가로 구성된 이 작은 책은 "애가"라는 라틴어 제목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애가는 서로 다른 다섯 편의 짧은 시입니다. 처음 네 편의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구절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작되며, 세 번째 짧은 시는 같은 글자를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애가는 실제 사건을 묘사합니다. 곧 버려진 여자에 비유된 황폐한 예루살렘에 대해 탄식합니다. 둘째 애가는 예루살렘 학살을 묘사합니다. 하느님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 정당한 분노를 보이셨습니다. 셋째 애가는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예루살렘의 깊은 애도를 표현합니다. 넷째 애가는 예루살렘의 현재와 과거를 극적으로 대조하여 그토록 많은 불행의 원인이 된 죄를 열거하며, 에돔에 대한 분노로 마무리됩니다. 다섯째 애가는 그들이 처한 곤경을 하소연하며 하느님의 분노가 영원하지 않기를 애원하는 선택받은 민족의 기도입니다.

바룩 예언서

역사적인 서문 다음에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청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국가적 파멸의 원인을 경고하며 큰 위로를 약속합니다. 부록에는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룩

네리야의 아들이며 예레미야의 제자이자 비서인 바룩은 유다 지파의 귀족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킴 임금 재위 4년 동안 바룩은 예레미야의 신탁을 읽으며 임금이 불태운 신탁을 다시 썼습니다. 그는 치드키야 [임금] 아래 |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까지 예레미야처럼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따라 맛사로, 그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5년이 지난 후, 바빌론에서 여호야킨 임금 주위에 모인 유배자들에게 죄의 고백에 대한 내용을 읽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약 12년 후에 바빌론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135

묵상 13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애덕

"당신께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당신 말씀을 간직합니다."(시편 119,1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우리의 희망을 되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애덕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덕입니다.**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덕

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몰랐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였기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스로 복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스승이 오시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국가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자선 활동은 이에 대한 훌륭한 증거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딸[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에페 5,2)

136

사람들은 타고난 힘을 지니고 있지만, 복음의 영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스승이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 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먼저 표양을 보이신 다음, 말씀으로 가르치시어 사랑하는 법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 가르침은 유한한 당신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동일한 가르침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가 제정된 부분을 읽는 사람에게 사랑은 얼마나 열렬히 타오르는지요! 아름다운 착한

1. 이 책에서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랑에 대한 견해는 마태오 복음 7장 12절과 22장 4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성경 전체의 의미, 적어도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고 싶거나 받고 싶지 않은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하느님 자녀들 사이의 형제적 사랑에 대한 가장 완전한 정의인 것 같다.

목자의 비유를 읽을 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불타오르는지요! 하느님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어 발견하면 품에 안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중풍병자와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고, 마귀 들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죽은 이를 되살리시는 등,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살아납니다.

막달레나의 일화는 우리 안에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온화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막달레나는 참으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키는 것은 신약성경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또한 사랑에 대한 매우 아름다운 예例들과 소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출기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나는 …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탈출 20,5-6)[2]

우리가 성 마태오 복음에서 읽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몇 세기 전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5) 마태오 복음은 "네 힘을 다하여" 대신 "네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하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매우 아름다운 요셉의 모범을 읽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긴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포옹하며 입맞춤합니다.

2. "Ego … faciens misericordiam in milia his qui diligunt me, et custodiunt praecepta mea."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덕이 적어도 200번 정도 언급됩니다.

성 바오로는 서간에서 애덕의 특징과 필요성, 그 열매와 상급에 대해 말합니다. 복음서와 거룩한 스승의 마음에서 사랑을 직접 이끌어낸 성 요한의 편지들은 천상적인 이 미덕을 끊임없이 권고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하느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 알폰소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대신덕의 필요성과 아름다움을 확신한 나머지 | 성 요한 복음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 대한 논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 Qui habet mandata mea et servat ea, ille est qui diligit me. Qui autem diligit me, diligetur a Patre meo…"(요한 14,21)

우리는 또한, 성 베드로에게 행정권, 통치권, 재판권이라는 세 가지 권능과 하늘 나라의 열쇠를 맡기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나 사랑을 고백하길 바라셨다는 것을 거룩한 복음서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대신덕을 성장시키려는 지향과 갈망을 지니고 성경을 읽도록 합시다. 성경 안에서 성장하며 굳건하게 강화할 수 있는 행위와 표현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성경을 읽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귀감 – 성경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교회 역사는 성경에 대

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무척 대단했다고 말합니다. 성경과 성체성사는 안팎의 원수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두 가지 중요한 샘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가슴에 거룩한 복음을 품고 다녔습니다. 성녀 세실리아는 언제나 자기 가슴에 복음서를 지니고 있었다'Virgo semper in corde suo Evangelium Christi ferebat.'고 성무일도는 분명히 전합니다. 이는 하루 동안, 그리고 심각하거나 갑작스러운 위험 중에도 자주 성경 말씀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세기 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죽음에 이르는 혹독한 고통을 가하며 성경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경스러운 법령은 거룩한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애착이 더 커지게 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보물인 성경을 포기하기보다 목숨을 바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에우세비우스에 따르면
139 | 성경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몇 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순교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의 축일을 제각기 기념할 수 없었던 교회는 1월 2일을 이른바 성경의 순교자들의 축일로 정했습니다.

교회 역사는 또 다른 곳에서 그 열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을 특별한 서판에 어떻게 썼는지 설명하고, 또 그들은 언제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교회와 각 가정의 벽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기보다 죽음을 택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웅적 용기에 대해, 그리고 그들 서로가 보여준 큰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교도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 그들은 모두 형제들인 것 같습니다!"

작은 희생 :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 저는 제 책과 노트에 몇몇 성경 구절을 적어놓겠습니다.

창조주께 드리는 찬가 [#]

경건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시냇가에 피어나는 장미처럼 번성하여라.
유향처럼 향기를 내뿜고
백합처럼 꽃을 피워라.
소리 내어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온갖 업적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에 위엄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하여라.
입술에 노래를 담고 수금을 타며
감사드릴 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업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분의 모든 분부는 제때에 이루어지리라."
아무도 "이게 무어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제때에 풀리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물이 모여들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물이 저수지가 된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아무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막지 못한다.
모든 인간의 일은 다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눈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
그분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려다보시니
그분 앞에는 도무지 신기한 것이 없다.
아무도 "이게 무어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복은 강물처럼 넘쳐흘러
마른땅을 홍수처럼 적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물을 소금밭으로 바꾸실 때처럼
이민족이 그분의 분노를 상속받으리라.
그분의 길은 경건한 이들에게는 평탄하지만
무도한 자들에게는 장애가 된다.(집회 39,13-24)

140

독서

사랑의 특성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코린 13,4-13)

다윗의 기도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보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당신 앞에서 저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하소서.
당신 눈으로 올바른 것을 보아주소서.
당신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중에도 캐어 보시며
저를 달구어 보셔도 부정을 찾지 못하시리이다.
저의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저는 당신 입술에서 나온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계명의 길을 저는 꿋꿋이 걷고
당신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겠기에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어 제 말씀을 들어주소서.
당신 자애의 기적을 베푸소서.
당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 주시는 분이시여!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시편 17,1-8)

141

14일
성경과 복음에 나오는 참행복의 실천

에제키엘

사제 혈통의 에제키엘은 두 번째 유배시기기원전 (601–599년)에 예레미야와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갔으며, 텔아빕TelAbib에서 죽은 아내와 함께 케바르Colbar(아마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잇는 대운하)에 있는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5년이 지난 후, 30세에 예언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22년 동안 그는 백성의 도덕적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에제키엘이 사제요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원로들은 그의 집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정신적으로 훌륭하였으므로 백성들 사이에서 큰 권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배살이 중에 죽었는데, 그가 우상숭배에 대해 꾸짖은 유다 왕자에게 살해된 것 같습니다.

에제키엘은 선택된 백성들이 겪는 슬픔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국 땅에서 하느님의 위협과 약속을 전하며 하느님께 충실했던 예언자로서, 그는 감탄할 만한 훌륭한 정신과 굳건한 품성, 설득력 있는 웅변으로 위협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했고, 마침내 유배가 끝날 무렵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은 조국으로 돌아가며,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42

에제키엘 예언서

에제키엘 예언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언서의 순서에 따라 그 자신이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책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거룩한 도시가 멸망하기 전에 그의 예언은 마음 아파하는 유다인들의 심정을 함께 느끼고, 이집트나 다른 민족이 아닌 하느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승리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주장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1] 그의 예언의 목적은 해방을 약속하고, 놀라운 상징으로 묘사되는 조국과 메시아 왕국으로 귀환하는 포로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제키엘서는 특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징과 환시, 언어와 관습이 많아 모호합니다. 언어는 유배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문체가 고상하지 않아도 모든 이에게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대담함으로 가득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호함은 그가 상징한 메시아 왕국의 현실 앞에서 명확해집니다.

---

1. 예루살렘은 영향력이 큰 시민들이 강제 유배되기 시작한 기원전 597년 3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승복한다. 587–586년, 도시가 최종적으로 파괴된 다음 또 다른 유배가 이어진다. 예레미야 52장 30절에서 포로가 모두 "사천육백 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빌론으로 유배된 사람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 에제키엘이 유배된 날짜도 알려져 있지 않다. 알베리오네 신부에 따르면 그의 유배가 601–599년 사이에 일어났을 테지만(p.141 참조), 에제키엘의 직무가 "유배된 지 5년 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때 이는 모호한 추측이다. 그러나 바빌론 출신의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전에 유다인들이 회개하도록 어떻게 자극했는지는 알 수 없다.(p.142 참조)

묵상 14

성경과 복음에 나오는 참행복의 실천

"당신 법이 저의 즐거움이며 저의 조언자입니다."(시편 119,24)

산에 올라가 자리에 앉으신 거룩한 스승께서는 군중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14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마태 5,3-12)

이는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은 대신덕에 뿌리를 둔 거룩한 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희망, 사랑의 덕목에 대해 언급한 다음 곧바로 참행복에 대해 말하는 까닭입니다.

복음의 참행복은 그 자체로 두 가지 약속, 곧 지상에서의 참행복에 대한 약속과 천국에서의 참행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용감하게 완덕의 길을 서둘러 가며, 그 안에서 평화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참행복은 성 마태오 복음 가운데 한 장을 넘지 않지만, 성경 전체가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참행복에 대한 주석이며, 지속적인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4 예를 들어, 성경 여러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고결한 룻의 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룻은 생계를 위해 보아즈라는 부유한 영주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즈는 그 젊은 여인의 미덕을 보고 결혼하기를 바랐고, 그 이후로 룻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에 대한 보상의 또 다른 예는 하느님께서 예언자 엘리사에게 까마귀를 통해 기적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부자들 곧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에서 여러 예를 계속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행복의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칭찬하는 행적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백하고 순수한 히브리인 요셉의 훌륭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요? 순결한 수산나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실제 사건을 통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 보여줍니다.

대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거듭되면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느님에 의해 엄청난 벌과 저주를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참행복 하나하나에 대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은 모두 그러한 상황을 칭찬하고 권장합니다.

* * *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룩하고 천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성경이 전하는 거
145 룩한 귀감을 통해 불타오르며 |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 영웅적인 계획을 세우고 완덕의 길을 달려갈 뿐 아니라, 날아가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는 성경을 읽는 동안 마음의 불꽃이 타올라 큰 발걸음을 내디디며 성성에 진보했습니다.

참행복은 그리스도교적 완덕 생활의 요약이며 실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가난, 온유, 인내, 순결의 덕은 가장 높고 지극히 숭고한 완덕을 이룹니다.

* * *

바로 여기서 성경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완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스승께서는 "하늘의 너희 아버

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2]는 기본적인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72권의 책 가운데 일부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더 적합하고, 또 다른 책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룻기, 토빗기, 욥기처럼 많은 영감을 주는 책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은 실천적 가르침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선을 얻을 수 있는지요!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빛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특히 신약성경은 교회의 초세기와 중세 시대를 거쳐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 보급되었으며, | 모든 신자가 성경을 매일의 양 146
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신교와 합리주의의 위험이 도래하면서 그러한 관행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때 하느님 섭리의 사람 레오 13세가 등장하여 가정마다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읽는, 매우 칭송할 만한 관행이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 각 가정이 거룩한 책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네바의 대주교 몬시뇰 베손[3]은 그의 저서 「가톨릭 교회와 성

2. "Estote ergo perfecti sicut et Pater vester coelestis perfectus est."

3. 스위스 로잔, 제네바, 프라이부르크의 주교였던 몬시뇰 마리우스 베손(1876년 튜린에서 태어나 194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선종함)은 방대하고 탄탄한 신학적, 역사적 교양을 갖춘 열성적인 목자였다. 그는 제네바의 주교로서 국제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자선 문화 단체와 가톨릭 액션 단체와 함께 선한 출판을 지지하는 활동가였다. 그는 개신교

경」에서 "성경 읽기는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극구 권장할 만한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열렬한 영혼과 성덕의 길에서 진보하길 바라는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양식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 * *

이제 예수님께 청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참행복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길 바라신 참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지금 여기, 바로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귀감 – 성경 속 성인들. 모든 성인은 성경의 살아있는, 영원한 주석입니다. 그들 모두는 흠없는 부지런한 삶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류에게 보낸 하느님의 편지를 더욱 생생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책의 어떤 구절을 읽은 후 죄에서 해방되어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높은 완덕의 단계에 이르는 추진력과 힘을 얻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에 비추어 자기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

147

신자들 사이에서 회유적인 정신으로 명망이 높았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의 저서 가운데 1927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출판된 이탈리아어판 「교회와 성경*L' Église et la Bible*」을 인용했다.

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로마 13,13-14)

이 말씀은 그가 우연히 성경을 펼치는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인데, 아우구스티노의 회심과 거룩한 삶을 결정짓는 말씀이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이교도로 살아왔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사제가 되었으며, 그 후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가 깊이 있게 쓴 수많은 저술로 인해 그는 공공하게 "신학자들 중에서 독수리"라고 불립니다.

성 안토니오 아빠스는 성경의 또 다른 위대한 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당에서 들은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태 19,21) 하는 복음 말씀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젊은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막으로 들어가 매우 엄격한 고행을 했으며, 그가 행한 기적들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도자들의 위대한 원조입니다.

성 요한 보스코[4]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처럼 성경이 아브라

4. 요한 보스코(1815년 카스텔누오보 다스티에서 태어나 1888년 튜린에서 선종함) 신부는 1929년 6월 2일, 비오 11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34년 4월 1일 시성되었다.(알베리오네가 이 책을 쓸 당시는 복자였다.) 이 책에서 그의 삶의 '목표'는 아브라함의 말씀(창세 14,21)으로, 악을 바로잡기보다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예방 교육 제도"에 따라 어린 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저자가 9쪽에 이르는 개요로 설명한 이 예방 교육 제도를 알베리오네 신부도 알고 있었다.(참조: G. 바르베로,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와 성 요한 보스코, 바오로 가족과 살레시오 가족의 관계와 유사점 *Relazioni ed analogie tra Don Giacomo Alberione e San Giovanni Bosco, e tra la Famiglia Paolina e la Famiglia Salesiana*」 미간행 모노그래프, 로마, 1988)

함의 입술에 담아준 말씀, 곧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Da mihi animas, cætera tolle."(창세 14,21)라는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온 삶의 목표였고, 또한 모든 활동의 목표였습니다.

성 예로니모 에밀리아니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네 양식을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 58,7) 그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고아들을 위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고아원과 호스피스와 쉼터를 세우고, 소마스카의 성직 수도회를 설립했습니다. 때문에 예로니모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귀감이 되는 몇 가지 일화이지만, 사실 모든 성인이 | 자신의 삶으로 성경 구절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몇 백만 명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에 주석을 달은 것입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10,28)

148

동정녀들의 끝없는 행렬은 참행복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주석이 아닐까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 5,8)

성경 말씀은 모두 하느님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자녀인 성인들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들을 통해 검증됩니다.

작은 희생 :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여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며 행동으로 본받도록 합시다.

찬가: 참행복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마태 5,3-12)

독서

최후의 심판에서의 의인과 악인

149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

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마태 25,31-46)

슬픔과 확신의 기도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마치 불이 섶나무를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하리이다. 이는 당신의 적들이 당신 이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민족들이 당신 앞에서 무서워 떨리이다.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당신께서 하셨을 때,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 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개짐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주님, 너무 진노하지 마소서. 저희 죄악을 언제까지나 기억하지는 말아 주소서. 제발 굽어보소서. 저희는 모두 당신의 백성입니

다. 당신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당신을 찬양하던 곳, 저희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집은 불에 타 버렸고 저희에게 보배로운 것들은 모두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었는데도 끝내 참고 계시렵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시렵니까? 저희를 이토록 극심하게 억누르시렵니까?(이사 63,19—64,11)

15일
성경과 수도자 신분

다니엘

예루살렘을 포위한 네부카드네자르의 첫 번째 원정에서 고귀한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가 된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왕궁으로 끌려가 양육받았습니다. 큰 위험에도 그는 동료들과 함께 모세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지혜와 예언의 영을 내려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유명해진 그에게 네부카드네자르는 바빌론 지방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죽은 다음 그는 궁궐에서 물러나, 벨사차르가 베푼 궁중 연회에서 왕궁 벽에 저절로 쓰인 신비로운 세 글자를 해독하라는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침내 바빌론이 함락되면서 다니엘은 정복자들한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와 키루스에게도 존경을 받아 으뜸 재상이 되었을 때 다른 재상들과 총독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 굴에 던져졌으나 주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니엘 예언서

다니엘은 법정에서 자기 백성을 변호하며 이교도들을 구원하도

록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152 그는 군주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알리며 하느님 백성을 존중하는 이중의 사명을 놀랍도록 성취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참 하느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특히 그는 마치 그림처럼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상 나라들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정확하고 놀라운 예언을 함으로써 이를 성취합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기적들과 다니엘이 한 예언의 놀라운 정확성에 대해 합리주의자들에게서 모든 시대에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합리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러한 사건들은 미리 예언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닐 뿐더러, 다니엘서가 마카베오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 예레니모는, 불경한 자들의 고발은 진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그가 살던 시대에 이미 응수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고발은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서가 바빌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쓰였다는 것은 화려한 칼데아어가 확증해 줍니다. 다니엘 예언서와 같은 책은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인 요셉은 자신이 332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다니엘서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전해졌으며, 그에 관련된 예언으로 그는 유다 종교를 존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역사상 위대한 빛이요, 메시아 시대를 정확하게 선포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묵상 15

성경과 수도자 신분

"당신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저의 길이 굳건하였으면!"(시편 119,5)

수도자 신분이란 무엇일까요?

수도자 신분은 평신도 신분과 사제 신분과는 달리 **안정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은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 영혼이 | 서원을 통해 153
복음적 권고까지도 준수하겠다고 받아들이며 약속합니다.

이는 드높은 단계의 완덕을 갈망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규정된 계명을 이미 준수하며, 복음적 권고까지도 준수하기로 결심한 영혼들이 선택한, 더 완전한 신분의 삶입니다.

복음적 권고는 **순명**, **청빈**, **정결**이라는 세 가지 삶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권고를 잘 따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역사는 이러한 권고의 준수로 성인이 된 수많은 남녀 수도자들의 귀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 신분의 탁월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창립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더 큰 완덕을 지향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 복음적 권고도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수도자 신분은 하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책들이 없다면 수도자 신분과 그 장점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음을 던지는 청년의 매우 아름다운 일화를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 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태 19,16-21)

154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거룩한 스승의 목소리를 듣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더 완전한 삶을 받아들였는지요!

여덟 가지 참행복은 수도자 신분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수도생활의 진정한 창립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수도자이며, 가난하고 순명하며 정결한 삶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모든 복음사가가 메시아의 겸손한 청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묘사합니다. 성 마태오는 그분에 대해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마태 8,20)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순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예수님은 …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루카 2,51)[1]는 말씀을 읽습니다.

천사적 미덕과 관련하여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미덕으로 인해 비난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2]

첫 번째이자 가장 완벽한 수도자인 예수님의 뒤를 이어 곧바로 지극히 복되고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성 요셉, 세례자 요한이 따릅니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 천상 스승 예수님을 동반한 신심 깊은 여인들이 따릅니다. 오늘날에는 수도 공동체, 곧 회원들의 성화를 주요 목표로 삼는 수도회가 무척 많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은 수도자 신분을 가장 아름답게 옹호합니다. 복음서와 특히 사도들의 편지는 완덕의 길로 들어서라는 가장 따뜻한 초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과 서간을 읽으면서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투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목소리를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155

거룩한 복음을 통해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기꺼이 귀 기울이는 이들은 대부분 젊은 영혼들입니다. 이에 대해 천상 스승 예수님은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하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1. 사람들에게 순명하기에 앞서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순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루카 2,48; 마태 12,48; 마태 19,29; 마르 11,27-33.
2. 바리사이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비난했다. 예를 들어,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마태 11,19)라고. 성경을 남용하는 사람은 특정 본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은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신념을 정당화하는 구절은 늘 찾아낸다. 지금까지 통합된 주석의 규칙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맥락과 성경 전체의 틀 안에서 모든 구절을 읽는 것이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신학"이나 단 하나의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루카 1,53) 하고 외쳤을 때도 똑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몇몇 복음 구절은 영혼이 완덕에 이르게 해주는 참으로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다음 말씀만을 기억합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태 19,21)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영혼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초대하는 이와 비슷한 권고가 많습니다.

수도생활의 위대한 창립자들인 성 안토니오 아빠스, 성 바실리오, 성 베네딕토는 수도승들에게 성경을 제외한 다른 책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과 | 온종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수도승들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에 여러 번 친교를 나누었고, 그러한 독서에서 받은 격려와 힘은 악마, 곧 세상과 영혼들을 파멸시키기로 맹세한 원수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정도였습니다.

156

* * *

이 땅에서 하느님의 편지를 읽음으로써 천상 스승은 물론 하느님 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그분 곁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감 – 성 안토니오 아빠스.[3] 그는 259년 이집트 헤라클레오폴리스 마그나 근교의 쿠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토니오는 어렸을 때부터 외딴 곳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성장해가면서 자신에게 악의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세속적 학문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연구를 성경에 국한시켰고, 그의 즐거움은 오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두었으며, 거룩한 소명에서 얻은 열매를 오롯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스무 살에 부모를 여읜 그는 많은 유산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세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 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도들과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처분에 맡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부제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곧 "당신이 완전해지기를 바란다면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당신은 천국의 보물을 갖게 될 것이다."[4]라는 말씀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초대를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팔고, 자신과 여동생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얼마 후,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5]는 예수님의 권고를 들은 그는 더는 거룩한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이도 수

3. 이 성인은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의 모범으로 자주 언급된다.(pp.47, 155, 156이하, 244, 290, 311을 보라) 아빠스의 이탈리아어 철자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abate" 또는 "abbate"로 사용된다.
4. 마태 19,21 참조.
5. 마태 6,34 참조.

도원에 데려와 작은 독방에 머물게 했으며, 자신은 후에 사막으로
157 가서 |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덕에 대한 그의 명성은 많은 제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수도원에 모이게 하여 생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곧 시편을 노래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일, 금식, 기도, 손 노동을 그들의 유일한 활동이 되게 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수도승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권고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에 담긴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희생 : 나는 오늘 더 잠심하여 성경 통독을 하도록 결심합니다.

찬 가 [#]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 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환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
새끼 양과 송아지들을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 댄 동산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예레 31,10-14)

독서

수도자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158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다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콜로 3,5-17)

기 도

신심 깊은 영혼의 갈망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룁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이들과
위대한 이들에게 저의 온 마음이 쏠립니다.
다른 신들을 붙좇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저는 그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그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159 저의 차지로 좋은 땅 위에 측량줄 내려지니
저의 재산에 제 마음 흐뭇합니다.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렁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시편 16,1-11)

160

16일
성경과 사제직

호세아 예언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는 유다 임금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의 통치 기간에 예언활동을 수행했지만, 아모스 시대 직후에는 북왕국에서 예언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장수하여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져 파멸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 자기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가 묘사한 끔찍한 부패 상황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형벌은 정의로운 일이기에 받아들여야 하며, 회개하면 구원되리라고 소리 높여 선포했습니다. 그는 완고한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하느님의 정의와, 회개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의 책은 그가 예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선포한 예언을 요약하기 위해 예언자로서의 생애를 마무리할 무렵 서둘러 쓰여진 것입니다.

요엘 예언서

프투엘의 아들 요엘은 오바드야와 함께 남겨진 기록상 가장 오래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에 속했고, 그곳에서 예언직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볼 때 그는 유다 문

학의 황금기, 아마도 우찌야의 통치 초반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엘은 | 명확하고 우아하며 거룩함이 돋보이는 위대한 예 161
언자로서, 거룩함에서 그를 능가하는 이사야와 하바쿡[1]을 제외한 다른 예언자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메뚜기에 대한 묘사는 참으로 뛰어납니다.

아모스 예언서

아모스는 가축을 키우며 트코아에서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를 예언직으로 부르시어 분열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북왕국으로 파견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는 권세와 영화, 그리고 부패 또한 극에 달했습니다. 아모스가 설교한 장소는 베텔로서, 이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는 유다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찌야 시대에 많은 적들을 정복하여 두 왕국이 현재 누리는 번영에 대한 징벌과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위협하였으나 그는 결국 희망을 제시하며 격려합니다.

오바드야 예언서

몇몇 사람에 따르면 불가타 번역본에서 오바드야는 소예언자들 가운데 네 번째 사람으로 글을 남긴 오래된 예언자입니다. 오바드야라는 이름은 주님의 종을 뜻하며, 유다 왕국과 가장 적대적인

1. "Habacuc"은 불가타 번역본에 나오는 철자다. 이 책 「성경을 읽으십시오」에서는 대부분 "Abacuc"이라고 쓰인다.

에돔에 대한 격렬한 예언에 미루어 볼 때 그가 유다 왕국에 속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장인, 21절로 구성된 오바드야 예언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글입니다. 단지 하나의 예언으로 하느님의 적으로 여겨진 에돔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에돔은 앞으로 들어 높여질 이스라엘의 적이었으므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요나 예언서

불가타 번역본의 순서에 따라 다섯 번째 소예언자인 요나는 즈불른 갓에서 태어난 | 이스라엘 왕국 출신입니다. 요나서에는 신탁이 없지만, 요나는 신탁으로 가득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열렬한 애국자인 요나는 자기 백성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에게 오시어 니네베로 가서 설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아시리아의 도읍인 니네베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열렬한 애국자인 그는 이에 순종하지 않고 야포로 도망쳐 페니키아인의 배에 올라 탑니다. 그런데 격렬한 폭풍이 일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게 합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 먹혔다가 3일 만에 해안으로 나와 하느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니네베로 설교하러 갑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느님께서는 멸망시키리라는 선언을 철회하시고, 그에게 그늘을 드리워준 아주까리 나무에 벌레 하나를 보내 이파리를 쏠아 시들게 하며 이를 한탄하는 요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미카 예언서

유다 왕국의 갓 근처에 있는 모레셋 사람 미카는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의 통치 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으로 그의 예언 내용과 성격도 이사야의 예언과 비슷합니다. 미카는 때때로 위협을 하지만 무엇보다 위로를 주며, 이미지와 어휘 구사력이 풍부한 고상한 문체를 사용합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침략,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 바빌론 노예살이, 귀환, 메시아 왕국,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과 같은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묵상 16

성경과 사제직

> "당신의 두 손이 저를 지어 굳게 세우셨으니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계명을 배우오리다."(시편 119,73)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수도자 신분은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성직자 신분이 어떻게 성경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제의 직무와 의무가 | 무엇인지, 사제의 미덕은 무엇이며, 내세에서 사제가 받게 될 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제란 누구일까요? 사제는 천 명, 이천 명, 또는 오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느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ex hominibus assumptus"으로, "그리스도의 성직자요, 하느님의 신비로운 보물을 나누어

주는 분배자Ministros Christi, et dispensatores mysteriorum Dei"입니다.

천상 스승은 젊은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친밀하고 은밀한 매력으로 그를 당신 곁으로 끌어당기십니다. 다시 말해 젊은이를 동료들에게서 떼어 놓고 몇 천 가지의 전략으로 그를 가족과 분리시켜, 거룩한 장소인 신학교나 수도회로 이끌어 그 젊은이에게 필요한 교육과 양성을 받게 하십니다.

이 섬세한 양성기간 동안, 예수님은 젊은이 안에서 사랑의 장미, 순결의 백합, 순명의 마가렛 싹이 움트게 합니다. 곧 사제에게 필요한 모든 덕이 자라게 하면서, 그 젊은이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장상과 스승들을 통해 자신의 지성을 형성하고 일깨우며, 내적이고 지속적인 은총으로 자신을 굳건하게 하여 강인한 의지를 형성합니다. 그가 양성을 충분히 받았다고 판단될 때 주교가 개입합니다. 주교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가 앞으로 나아도록 초대하며, 그에게 거룩한 미사 성제를 집전하고 설교하며 지극히 거룩한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하느님의 사목자로 축성합니다.

사제란 특권을 받은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된 사람, 천상 재화의 분배자, 거룩한 감실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그의 | 손에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있으며,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손에서 신비로운 승차권(신분증명서), 곧 세례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Sacerdos alter Christus"입니다. 그는 천상 스승과 같은 덕(권능)을 행사하도록 부름 받았으므로, 그는 그 모범을 충실히 본받아야 합니다.

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ex hominibus assumptus, et pro hominibus constituitur"(히브 5,1)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해성사를 주어 사람들의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켜 완덕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Pro hominibus constituitur." 아침에 사제를 관찰해 보십시오. 사제는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 거룩한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될 갈바리아로 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발걸음을 장엄하게 옮기며 천천히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사람들을 위해 전능하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드리며, 간청합니다!

그 미사의 힘으로 연옥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은 자유롭게 해방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행복한 사람들은 영광과 영예를 지니게 됩니다.

사제는 얼마나 숭고한 사람인지요!

이에 대해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은 사제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의 직무와 의무와 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가르침에서 사제가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구약의 율법에서 사제가 누구인지, 참된 사제로서의 인물과 유형이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가 | 레위 지파의 숭고한 직분에 대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제의 미덕과 의무는 무엇인지, 그를 감싸는 권위와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존경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0장에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 곧 아론과 그의 모든 자손이 언제나 거룩함과 불경스러움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내용을 읽습니다. 그들은 건강해야 하고,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 얼굴이 일그러졌거나 몸이 기형인 사람,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레위 21,17이하)

사제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까지도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약성경을 통해) 사목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으며, 그렇게 한 사람은 곧바로 산 채로 불에 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코라와 그의 추종자 이백오십 명의 일화입니다. 그들은 사제들의 직분을 빼앗으려고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웠습니다. 바로 그때 신비로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산 채로 불태웠습니다.(민수 16장 참조)

민수기 16장에 나오듯이 사제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던 이들도 곧장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만사천칠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산 채로 불에 탔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한 누이 미르얌에게 성경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아주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2]

166 거룩한 복음에는 사제의 완전한 유형이며 모델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목자들의 삶과 열정과 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복음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사제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문장이 정확하지 않지만 원문과 일치한다. 이는 "성경에서 미르얌에게 내려진 처벌 만큼 가혹한 처벌"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 * *

성경과 사제직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제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사목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성경과 사제직은 매우 밀접합니다. 사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깨달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을 알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성경에서 얻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천상 스승의 극진한 돌봄과,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게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사랑의 성사를 제정하신 다음 사도들과 사도들의 모든 후계자에게 세상 끝 날까지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루카 복음에서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3]

사제는 또한 거룩한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힘이 직접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사제는 거룩한 복음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충실한 사제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큰 보상에 대해 읽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167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마태 19,28)

이렇게 거룩한 복음서는 사제는 물론 그처럼 거룩한 신분에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도 중요한 커다란 의미를 지닌 가장 사랑받는 책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안에 사제의 규범과 가르침, 사제의

3. "Hoc facite, in meam commemorationem."

삶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직자는 자신이 부름 받은 성소의 어려운 여정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감 –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16세기 루터교 개혁에 반대하여 진정한 가톨릭 개혁을 외치며 개신교의 확산을 막는 성채 역할을 한 주요 성인들 가운데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가 반드시 열거됩니다.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이냐시오는 팜플로나 포위 공격(1521년) 중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강요된 긴 휴식시간의 지루함을 덜어 줄 만한 책을 청했습니다. 그는 기사도 소설이나 영웅담에 관한 책을 바랐지만, 그에게 섭리처럼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성인들의 생애였습니다. 그는 책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고, 그가 받들어오던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속세의 군인 신분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그는 속세의 임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고귀한 군대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그는 몬세라토의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제단에 자신의 칼을 걸어 놓고, 긴 수련을 받기 위해 만레사로 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회를 설립하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공부하느라 머물렀던 파리에서 그는 첫 동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살메론, 라이네즈, 르페브르와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대학교에는 세상과 학문의 명성과 영예를 한몸에 받고 있던, 아직 젊지만 저명한 교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있었습니다. 이냐시오는 "자기 | 영혼을 잃는다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는 천상 스승의 말씀으로 그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말씀은 프란치스코의 선한 마음에 조금씩 파고들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1534년 8월 15일, 파리 몽마르뜨 성당에서 이냐시오는 그의 첫 동료들과 함께 첫 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인과 교의에 능한 인물들을 배출한 예수회의 첫 번째 기지가 설립되었습니다. 예수회는 교회의 오른팔로서 이미 세상에서 많은 선을 이루었습니다.

찬 가 [#]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라.
푸른 들에 내리는 가랑비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우리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라.
바위이신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느님
의로우시고 올곧으신 분이시다.
그분께 못된 짓을 하여
그 허물로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아닌 그들,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일 따름이다.

주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그분은 너희를 내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희를 만들고 세우시지 않았느냐?
옛날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아라.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알려 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말해 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실 때
사람들을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에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당신의 백성
그분의 소유는 야곱이었다.(신명 32,1-9)

169

독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마태 19,27-30)

지혜를 청하는 솔로몬의 기도

"조상들의 하느님, 자비의 주님! 당신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인간을 당신의 지혜로 빚으시어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관리하며 올바른 영혼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당신 어좌에 자리를 같이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저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정녕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연약하고 덧없는 인간으로서 재판과 법을 아주 조금밖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완전하다 하더라도 당신에게서 오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당신 백성의 임금으로, 당신 아들딸들의 재판관으로 뽑으셨습니다. 또 당신의 거룩한 산에 성전을 짓고 당신께서 거처하시는 성읍에 제단을 만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룩한 천막을 본뜬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지혜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실 적에도 지혜가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당신 눈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 계명에 따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파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어좌에서 지혜를 보내시어 그가 제 곁에서 고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에 제가 일을 할 때에 저를 지혜롭게 이끌고 자기의 영광으로 저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당신께 받아들여지고 또 당신의 백성을 의롭게 재판하여 제 아버지의 왕좌에 맞갖은 자가 될 것입니다."(지혜 9,1-12)

17일
성경과 가정의 덕목

나훔[1] 예언서

불가타 번역본에 따르면, 나훔은 일곱 번째 소예언자로서, 갈릴래아의 작은 마을 엘코스 사람, 곧 멸망된 이스라엘 왕국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아름다운 문체로 니네베와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665년 이후에 선포된 것입니다. 최근 발견된 사본에 따르면 니네베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612년 여름에 멸망했는데 예언은 그 이전에 선포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므나쎄 임금이 투옥되었을 때, 니네베가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바쿡 예언서

여덟 번째 소예언자 하바쿡은 히브리의 주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언 외에 자신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요시야 임금 통치 초반기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 609년, 그가 임박한 사건으로 선포한 칼데아인들의 침략 이전에 살았습니다. 하바쿡의 예언은 칼데아인들의 침략에 대한 것입니다.

1. Nahum 또는 "Naum"이라고도 사용됨.(p.284 참조)

스바니야 예언서

아홉 번째 소예언자인 스바니야는 여러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왕족 혈통으로 히즈키야의 후손입니다. 그는 요시야 임금 통치 초반에 예언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곳에서 설교했다고 믿어집니다.

스바니야의 예언은 독창성이 좀 부족하지만 명확하고 편안하며 활기차고 특히 3장은 메시아적입니다.

하까이 예언서

열 번째 소예언자인 하까이는 유배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새 성전을 지으려던 때의 예언자입니다. 선택된 백성은 70년 동안의 유배살이 후 키루스의 칙령으로 승인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 번째 생존자 그룹은 대학살의 제단을 원래의 제단으로 복원했습니다. 다리우스 임금 제2년에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하까이에게 영감을 주어 유다인들의 열정을 자극하게 하시어 성전이 빨리 완성되도록 예언직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리우스 임금 제2년에 몇 달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하까이의 문체는 화려하지 않으며 시詩보다는 산문에 가깝습니다.

즈카르야 예언서

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르야는 하까이 이후 두 달쯤 지나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지

막 신탁은 다리우스 임금 제4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즈카르야서는 신권과 미래의 메시아 왕국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즈카르야서는 놀라운 통일성으로 메시아 왕국을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환시로, 그 다음에는 담화로, 마지막에는 신탁으로 예언하는데, 주제에 따라 문체를 바꾸어 예언합니다. 환시는 거의 산문적이며, 담화는 웅변적이고, 신탁은 시적입니다. 그의 예언은 상징과 신비로운 내용이 많고, 또 세상 종말에 일어날 예언들 때문에 모호하기도 합니다.

172

말라키 예언서

마지막 소예언자인 말라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라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라키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주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예언자가 백성들의 악덕을 꾸짖는 모습에서 그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롱기마누스 임금의 통치 아래, 곧 그리스도 이전 432년 이후에 예언했다고 봅니다. 말라키서는 대화체의 박력과 순수한 언어, 명확하고 활기찬 문체로, 사제들과 백성을 책망하며 하느님께서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변함없는 재판관이심을 보여줍니다.

묵상 17

성경과 가정의 덕목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큰 평화가 있고 무엇 하나 거칠 것이 없습니다."(시편 119,165)

특히 비오 9세에서 비오11세에 이르는 훌륭한 교황들은 나자렛 성가정 축일을 장엄하게 지내며, 가정적인 모든 덕의 완벽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870년, **비오 9세**는 성가정회 회규를 승인했습니다. **레오** 13**세**는 그리스도인의 혼인에 대한 훌륭한 회칙을 발표한 다음 | 그 당시 자유당의 영향을 받아 비그리스도교 가정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을 각 가정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성가정 축일을 제정했습니다. 비오 10세는 성가정 미사와 직무를 교회 전체에 확대했습니다. 비오 10세는 새로운 전대사와 함께 가정을 성가정으로 축성 봉헌할 것을 승인하며 풍요롭게 했습니다. 베네딕토 15세는 성가정 미사와 직무를 교회 전체에 확대시켰습니다. 영광스러운 통치를 보여준 **비오** 11**세**[2]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지상의 삼위일체인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는 천상 모델을 관상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과 청소년 교육에 대한 두 개의 회칙을 꼭 기억하

173

2. 비오 11세(암브로조 아킬레 라티, 1857–1939)는 1922년부터 교황으로 재임했다. 이 책(LS)이 쓰일 무렵에도 교황으로 계셨다. 일부 내용을 참조한 두 개의 회칙은 「정결한 혼인*Casti connubii*」(1930년 12월 31일)과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하여*Divini illius Magistri*」(1929년 12월 31일)이다. 이 두 번째 회칙은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바오로적 양성에 대한 책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DF, 1932)를 쓰도록 자극했다.

도록 합시다.

가정의 완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그토록 많이 권고하며 관심을 기울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정은 사회의 기본 세포이며,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덕의 화로와 같은 가정의 미덕이라는 것을 그들은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거룩할 때 사회의 기반이 되는 성소도 건강하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는 가정이 덕의 화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황들의 이러한 노력과 지대한 관심은 가장 아름다운 성가정을 모든 가정이 본받아야 할 완벽한 모델로 제시하는 데 있었음을 실감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귀감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 귀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귀한 귀감이 되는 성가정의 모습을 이제 각 가정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 가정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귀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덕에 대한 귀감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오 1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들은 분명 요셉 안에서 깨어 있는 자세와 아버지다운 관심을 보이는 훌륭한 귀감을 봅니다. 어머니들은 사랑, 겸손하게 존중하는 마음, 순종, 완
174 전한 신앙을 지닌 영혼의 탁월한 귀감이신 |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서 그 모범을 얻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본받는 순명의 거룩한 귀감이 된 당신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귀감으로 삼습니다. 귀족과 왕족으로 태어난 이들은 성가정에서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아 번성하는 가운데 절제하며 환난 속에서도 존엄성을 간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나자렛] 학교에서 부유함보다 덕을 더 존중하는 법을 깨달을 것입니다. 노동자들과, 가족 부양의 어려움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은 거룩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다소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기네 처지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덕과 가정의 모든 덕을 지닌 성가정의 모범보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의 품에 안겨 간청하는 이들은 도움을 얻게 되고, 사랑으로 관습을 다스리며, 가정의 각 구성원이 성가정의 덕을 본받아 사방에서 위협하는 치명적인 시련을 호전시키거나 견뎌낼 수 있는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이 지닌 숭고한 모든 덕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는데, 구약성경에서는 베일에 가린 상징과 인물 형태로 서술되는 데 반해, 신약성경에서는 그들이 지닌 모든 아름다움과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서술된다는 것입니다.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성 바오로 사도는 가정의 덕목을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175
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

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

종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주님에게서 상속 재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가기가 저지른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콜로 3,12-25)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보다 완전한 삶을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176 참으로 성경이 모든 가정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가정을 거룩하게 하며, 모든 이가 성가정의 귀감을 본받게 할 것입니다!

* * *

성경은 현실적인 가정 외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가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구성원들은 혈육으로 맺은 유대가 아니라 영적인 유대입니다. 다시 말해, 은총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비체에 대한 성 바오로의 교리, 곧 그의 생생한 권고를 기억하여 모든 구성원이 서로에게서 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성경의 독자가 되어 사도의 편지, 특히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손에 들고 봉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가정의 경우, 가장 아름다운 덕의 꽃이 자기 마음속에 활짝 피어난 것을 보고 싶다면, 가정의 각 구성원은 성경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 봉독해야 합니다.[3]*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관을 쓰게 되도록, 가정의 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가정에 간청합시다.

귀감 - 성 루카 복음을 읽고 회개한 젊은 이교도 여성. "내 딸아, 이 거룩한 양피지를 가져가거라. 양피지에는 이 지상에서 생활하신 우리 주님의 삶이 담겨 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행하신 일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사랑하 177

3.* "하느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와 성경이라는 두 가지 구원의 상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징에 매달려야 하며,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복음을 읽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책은 환히 빛나는 등대처럼 온 세상에 천상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성 예로니모가 유스토키움에게 보낸 편지)

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다." 카르타고의 주교가 이렇게 말하며 칼리스타에게 성 루카 복음서를 선물로 주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이교도였습니다만, 애정 가득한 그의 말은 칼리스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칼리스타는 그 말을 기억하며 소중한 그 책을 펼쳤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첫 부분에서 자기 작품을 테오필로에게 헌정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설명해준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실되게 묘사하며 제시합니다.

그 진지한 어조와 단순한 설명은 칼리스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칼리스타는 몇 장을 읽고 나서 곧바로 흥미를 느껴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그 젊은 여성 앞에 펼쳐졌습니다.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 요셉과 마리아, 시메온과 안나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덕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칼리스타는 다른 모든 것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존재, 그 모든 상상력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현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이고 완전한 존재,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는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을 비로소 이 책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시인이 지어낸 상상이 아닙니다. … 이는 참된 존재의 초상화입니다. 이 인물은 내 신념을 바꿀 만큼 온전한 진실과 자연스러움, 생명력과 정확성을 지닙니다." 칼리스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깊이 연구할수록 그분 안에 있는 무한한 완전성을 한층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뿌리내린 성덕의 이상 앞에서 그녀는 참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휩싸여 자신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으나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훌륭한 시메온의 집에서 열린 잔치 이야기를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천상 스승은 당신 발에 향유를 바르고 눈물로 씻은 죄인에게 | 한없는 사랑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자 칼리스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상 스승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받아 주신 그 가엾은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정신이 든 그 젊은 여인은 자기 삶을 바꾸기로 마음먹고 그날부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희생 : 오늘 나는 성경을 포기한 수많은 가정, 여전히 성경을 소홀히 하는 가정들에 대해 보속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절제를 하겠습니다.

찬가 [#](모세의 노래 계속됨)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 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
주님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곁에 낯선 신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그가 이 땅의 높은 곳을 달리게 하시고
들의 소출로 그를 먹이셨다.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빨아먹게 하시고
차돌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엉긴 소젖과 양의 젖을
어린 양들의 굳기름과 함께 먹게 하시고
바산의 숫양과 염소들을
기름진 밀과 함께 먹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붉은 포도로 빚은 술을 마셨다.
여수룬은 살이 찌더니 불평을 늘어놓았다.
살이 찌고 몸이 불어나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만드신 하느님을 저버리고
제 구원의 바위이신 분을 업신여겼다.
그들은 낯선 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하고
역겨운 짓으로 그분을 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잡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
갓 들어온 새 신들
너희의 조상들은 두려워하지도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바위를 무시하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어
당신 아들딸들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추고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리라.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식들이다!(신명 32,10-20)

독서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의무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행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종이든 자유인이든 저마다 좋은 일을 하면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그리고 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종들을 이와 같이 대해 주십시오. 겁주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그들은 주님이시며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에페 6,1-9)

기도

임금이신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저의 구세주 하느님이신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는 저의 보호자요 협조자가 되시어 이 몸을 멸망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중상하는 혀의 올가미와 거짓을 꾸며 내는 자들의 입술에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주위 사람들 앞에서 협조자가 되시어 저를 구하셨습니다. 크신 자비와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삼키려는 자들의 올무에서, 제 영혼을 노리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제게 닥친 수많은 환난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사방에서 타올라 저를 질식시키는 불길에서, 제가 지피지도 않은 불길 한가운데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저승의 깊은 구렁에서, 부정한 혀와 거짓된 말에서, 불의한 혀의 화살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제 영혼은 죽음에 이르렀고 제 생명은 저 아래 저승 가까이 갔었습니다. 곳곳에서 저를 에워쌌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때 저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고 영원으로부터 드러난 당신의 자애를 기억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출해 내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땅에서 당신께 간청을 올렸고 죽음에서 구출해 주십사고 기도드렸습니다.(집회 51,1-9)

18일
성경과 사회적 덕목

마카베오기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유다인들의 신정정치제도를 용인해 주던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팔레스티나인들은 시리아 왕국과 이집트 왕국 사이에서 항쟁을 벌였습니다. 유다인들을 잔인하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헬레니즘을 강요하려 했던 사람은 셀레우코스의 형제이자 후계자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이집트 원정대에서 돌아온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에게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점령한 군대와 함께 아폴로니우스를 보냈으며, 그 자신이 올림피아의 주피터 동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이후 유다교가 금지되고 죽음의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배교했으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기보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연로한 엘아자르와 일곱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로 피신하여 헬레니즘에 대한 저항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저항운동은 유다인 역사상 가장 빛나는 거룩한 항쟁입니다.

사제 마타티아스가 백성을 이끌어 저항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가운데 영웅적인 유다 마카베오가 그 뒤를 이어 거룩한 항쟁에 참전하는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막내 요나탄이 유다인들에게 평화를 얻어주고, 요나탄이 죽자 주님께서는 형 시몬을 일으켜 선택된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독립을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들의 묘사가 두 권의 마카베오기가 쓰인 목적입니다.

182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의 후계자들을 언급한 | 마카베오기 상권은, 안티오쿠스의 박해와 시몬의 죽음에 이르는 마카베오의 항쟁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개인적 묵상을 덧붙이지 않고 사건들만 묘사할 뿐입니다. 상권에서 완전히 독립한 하권은 셀레우코스가 성전을 약탈하려는 시도를 다시 묘사하며, 니카노르에 대한 유다의 승리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책은 사람과 사건들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하며,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이끄는 섭리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마카베오기 상 · 하권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 쓰였지만,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한 권의 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 권이 빛을 비추어 다른 한 권을 완성하지만, 그 자체로는 별개로서 독립적입니다. 두 책이 원래 다른 언어로 작성되었으므로 불가타 번역본의 정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씩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책에 묘사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하권이 상권 앞에 놓이게 됩니다.

묵상 18

성경과 사회적 덕목

"당신 법은 영원히 의로우니 저를 깨우

치소서. 제가 살리이다."(시편 119,144)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과 가족의 덕목을 가르침으로써 개인적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1]

성경은 가장 훌륭한 기도서이며 묵상서이고 신학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2]과 상업 활동, 사회생활의 규범이며 규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가톨릭 윤리와 관련되거나 가톨릭 윤리에 따른 모든 것에 관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성경은 나라의 왕과 통치자들에게는 통치하는 법을, 국민들에 183
게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판관들에게 그들이 심판하는 대로 모든 선고가 심판받게 됨을 상기시키면서 공정하게 선고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판관기 전체, 열왕기 네 권(사무엘기 상 · 하, 열왕기 상 · 하), 여호수아기, 역대기, 성 바오로의 서간 모두를 문자 그대로 인용해야 하며, 그러한 책들을 좋아하고, 읽고 또 읽

1. 지금까지 알베리오네 신부는 개인 성화와 사회적 성화(p.14), 사도직과 사회적 필요(p.100),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세포로서의 가족(p.173)에 대해 언급했다.

2. 알베리오네 신부의 중요한 말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주교회의(CEI)의 사목 노트를 읽어 보라. "무엇보다 오늘날, 성령께서 다종교와 다문화 상황에서 '새 복음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재촉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계시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남겨 주신 여러 표징 사이에 일어나는 독특한 대화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증언의 중심이자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영감의 원천이며, 충실함을 보장해 주는 하느님 말씀의 토착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영적, 윤리적, 문화적 표현의 측면에서 교회나 사회에 미치는 성경 역사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큰일"(시편 126,3)을 인식하는 섭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으며, 창조 때부터 결정적으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당신 백성 가운데 끊임없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교회생활 안에서의 성경」, 23)

으며,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신실한 가톨릭 신자인 에콰도르 대통령 가르시아 모레노는 하느님을 닮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가를 다스려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에 대해 알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었고 그 내용을 통치의 기본이요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농업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도로와 교량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는 성모 승천 대축일 며칠 전에 선종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하느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죽지 않습니다!"였습니다.

베네딕토 15세는 "오늘날 사회의 일탈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의와 활동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들의 활동이 더는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세상에는 그토록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현재 교회를 이끄는 비오 11세의 권고처럼 국제적인 자선 활동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고 보속할 것을 교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같은 아버지의 자녀요 형제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도와야 하는지, 종들이 주인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며, 또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 성경은 상업과 이윤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정의로울 것을, 또 근면하게 일할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또한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사도직의 샘이며 젊은이, 노인, 가난한 사람 등을 돕는 모든 사도직의 원천입니다. 14개의 자선 활동, 곧 7개의 육체적 자선 활동과 7개의 영적 자선 활동은 모두

그 기원과 토대를 성경에 두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이 실천되는 곳에는 번영과 참행복이 따릅니다.

비오 11세가 떠올려 준 것처럼 오늘날 사회에서 엄청난 선을 이루는 가톨릭 액션의 기원도 성경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 사도들, 특히 성 바오로가 주님의 포도밭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그들을 부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의와 진리에 영감을 주는 모든 규범의 토대입니다. 모든 상업적 규범이나 그리스도교 사회학은 성경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은 성경 외에는 다른 법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물음에 답하고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참조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신권적 백성, 곧 머리요 임금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을 다스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등을 통해 백성에게 율법을 제시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그들을 위해 싸우라고 당신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히브리인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도 패배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칸트의 보편사가 보여주듯, 하느님을 자기들의 임금이요 주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 참으로 복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Beata gens cujus est Dominus Deus ejus."(시편 33,12)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원칙을 따르고, 그들의 머리이자 최고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잘 걸어갈 것입니다.

모든 법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으면 국가 간의 모든 어려움과 증오가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 본성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시기에, 하느님은 인간 본성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잘 아십니다. 또한 성경의 주요 저자이시기에 성경이 인간 본성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준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인류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통치자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으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으며, 적들이 돌아서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의 법이 불공정한 경우 그들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모르도카이를 위해 준비해 놓은 말뚝에 매달린 하만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구덩이에 그들 자신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왕 성 루이는 먼저 거룩한 미사에 두 번 참례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는 그 어떤 법이나 법령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일깨우시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나 법령을 제정하도록 그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법과 법령을 제정할 때 "하느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느님의 뜻대로"라고 기록하는 모범적인 왕들을 일으키신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지구상의 모든 왕과 총독이 |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법을 만든다면 머지않아 세상은 지상낙원이 될 것입니다.

귀감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거룩한 복음. 거룩한 복음에 대한 사랑은, 위대한 일을 위해 하느님께서 택하신 열렬한 영혼들

의 표징이요 특징입니다. 아시시의 이 가난한 사람도 놀라운 선행을 수행할 인물이었기에 그의 마음에는 그러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전기작가들이 말하듯이, 그는 의심이 들거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나 먼저 거룩한 복음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가서 복음을 들고 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3] 이 말씀에서 비추임을 받은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성 다미아노 성당과 성 베드로 성당, 포르치운콜라 성당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성당을 자신이 재건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규칙을 제시하는 문제 앞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몇 백만 명의 영혼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할 레일을 놓는 것이었기에 그 작업이 섬세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르나르도 수사와 함께 제단으로 가서 세 번 상징적 행동을 했습니다. 곧 복음서를 들고 가서 읽은 다음 그 복음서를 덮었고, 또 다시 펼쳐 읽고 덮었으며, 또 세 번째로 복음서를 펼쳐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프란치스코회 규칙의 기본적 요소가 확립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읽은 세 구절의 복음 말씀은 세 개의 큰 지주가 되어 그 위에 수 천

3. 마태 28,19.

명에 이른 프란치스코회가 세워졌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인들의 진정한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뿌린 겨자씨는 웅대한 아름드리 나무로 자랐고, 그곳에서 단테, 조토, 크리스토퍼 콜롬버스와 같은 인류의 위대한 천재들이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작은 희생 : 의심과 유혹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달려가자.

187

찬가 [#](모세의 노래 계속)

"그들은 신도 아닌 것들로 나를 질투하게 하고
헛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나 또한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리라.
나의 진노로 불이 타올라
저승 밑바닥까지 타 들어가며
땅과 그 소출을 삼켜 버리고
산들의 기초까지 살라 버리리라.
나는 그들에게 재앙을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쏘리라.
그들은 굶주려 쇠약해지고 열병과 모진 괴질로 죽어 가리라.
나는 그들에게 짐승들의 이빨을
먼지 위를 기는 것들의 독과 함께 보내리라.
밖에서는 칼이 아이들을 앗아 가고
안에서는 공포가 난무하여
총각도 처녀도 젖먹이도 백발 노인도 같은 꼴을 당하리라.

'나는 그들을 산산조각 내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 버리리라.' 생각하였지만
원수가 뽐낼까 두려워서
또 그들의 적대자들이 착각하여
'우리의 손이 더 강하였다.
이 모든 것을 한 이는 주님이 아니다.' 할까 보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신명 32,21-27)[4]

독서

형제적 교정,
함께하는 기도의 효과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두 사람 188
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15-20)

4. 이 책 (LS)에서는 "신명 32,21-29"이라고 하지만 인용된 라틴어 본문은 27절에서 끝난다.

사라의 기도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이제 저는 당신께 제 얼굴과 눈을 들어 올립니다. 분부를 내리시어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다시는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남자에게 조금도 더렵혀지지 않고 깨끗함을, 제가 이 유배의 땅에서 제 이름이나 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음을. 저는 제 아버지에게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제 아버지에게는 대를 이을 다른 아이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를 아내로 맞아들일 가까운 친족도 일가붙이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일곱이나 잃었습니다. 제가 더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제 목숨을 거두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모욕하는 저 말이라도 들어 보소서."(토빗 3,11-15)[5]

5. 이 구절은 편집자가 가지고 있는 불가타 번역본에만 해당하므로, 다른 이탈리아어 번역본에서 동일한 본문을 찾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토빗기의 그리스어 본문은 세 가지로 전해졌는데, 그 하나는 시나이 사본으로 되어 있으며, 고전 라틴어가 이에 가깝다. 그리스 교회에서 사용된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들어 있으며, 더 짧아 보이는 동시에 잘 편집되어 있다. 이탈리아주교위원회의 성경은 산발적으로 조정된 시나이 사본에 표현된 (더 긴) 본문 유형을 따른다.

19일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길이다[1]

성 마태오

성 마태오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하여 사도들의 무리 가운데 새 삶을 살게 하셨을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였으나 곧바로 세관을 버리고 천상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또 다른 복음구절에 나오는 알패오의 아들 레위라 불리는 세리가 있는데 마태오와 동일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을 통해 그의 회심이 카파르나움 근처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부르심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으며, 사도행전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언제나 육식을 삼가면서 매우 엄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스에 따르면 그는 15년 동안 팔레스티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후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로마 성무일도가 받아들인 내용에 따르면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많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설교를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임금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낸 기적으로 그 임금과 왕비와 온 지역민이 개종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유명합니다. 그 임

1. *LS*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말은 "길"이다. 사실 제2부는 모두 "길"을 다루며, "생명"은 제3부에서 다룬다.(참조: 제29장 묵상 제목은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생명"이다)

금의 죽음과 함께 후계자가 된 이르타쿠스는 임금의 딸 이피제니아를 신부로 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성 마태오의 조언에 따라 동정을 서약한 그녀는 자신의 거룩한 결심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
190 니다.|이 때문에 이르타쿠스는 성 마태오가 제대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을 때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9월 21일, 성 마태오는 자신의 사도적 삶을 순교의 월계관으로 장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살레르노로 옮겨져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이 그에게 헌정한 성당에 안장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깊은 신심으로 그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성 마태오 복음

모든 교부들은 성 마태오 복음을 첫 번째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마태오 복음이 유다인들 가운데 팔레스티나 사람들을 위해, 유다인들을 위해 쓰였다고 주장하는 데 동의합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 발췌한 많은 예언 내용은 복음사가가 유다인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설명, 이야기, 관습에 대한 모든 표현이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제시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목적 : 성 마태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분 안에서 예언들이 실현되었고,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의 편견과 완고한 마음에서 비롯된 불신이 이미 예견되었고 예언되었습니다.

따라서 성 마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과 신성을 입증함에 있어서 예언적 주장을 폭넓게 발전시킵니다.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의 불신을 밝히기 위해 그는 동방박사들이 오면서 시작

된 사제들과 교사들의 무관심을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회당에서의 박해를 예언하셨고, 또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의 비방과 불신을 예견하셨습니다.

마태오 복음의 성격과 목적을 통해 우리는 그 순서와 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 마태오는 역사적 작품이 아닌 신학적 작품을 만들고자 했기에 연대순에 대해서는 거의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정 사건의 설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사건[2]과 기적에 대한 교리를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시므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서의 작성 시기는 기원전 42-48년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번역본 또한 성 마태오의 작품일 것입니다.

191

묵 상 19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길이다[3]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2. 여기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신이 충실하게 지켜온 원칙, 곧 말보다 행동이 우선임을 밝힌다. 복자 자카르도는 일기에 복자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아침 기도 중에 하신 훈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은 작고 숨겨져 있지만 죄에 대해 뉘우친다면 겸손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하느님께 굳게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출판을 통해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임무를 통해 부지런히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1918년 9월 30일)

3. p.189 각주 1을 보라.

우리는 9일째[4] 내용에서 출판 사도직의 교의와 목표가 성경의 목표와 같다고 숙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과 출판 사도직은 모두 **보편적**이다. 곧,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둘째, **같은 형태**를 지닌다. 곧, 최대한의 단순성과 명료성을 지닌다. 셋째, 같은 과정, 곧 인가와 출판 과정을 거친다.

참된 출판 사도직은 저자이신 하느님, 또는 성경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위안으로 가득한 주제, 사랑의 대상, 밝게 비추어주는 빛, 굴욕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출판 사도직은 1) 보편적 성격, 2) 단순성과 명료성, 3) 인가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 * *

1. **보편성**.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다."(1티모 2,4)[5] 이처럼 확고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하늘 나라로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 예수님의 성심에서 "…모두 나에게 오너라."(마태 11,28) 하시는 매우 감미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92

장소와 관련하여 성경 말씀이 모든 이에게 도달해야 하고, **사람들**과 관련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가 자신의 목적지를 알게 되

4. 원본에서 이 숫자는 19로 쓰여 있는데, 이는 오류다. 19일과 묵상 19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9이다. p.95 참조. p.97 이하에서 묵상 9의 제목은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진리다"이다.

5. "Deus vult omnes homines salvos fieri." – 원본에는 "1티모 11,4"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기를 바라시며, **내용과** 관련하여 그 주제가 영적이고 영원하기에 성경은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출판 사도직은 그 보편성을 지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참 빛"이신 하느님의 비추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판 사도는 자기의 등불을 밝혀 높은 곳에 올려 놓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

* * *

2. 단순성. 단순함은 대중적인 종교 출판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특성입니다. 사실 단순함은 농민,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대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스승 예수님은 단순하게 설교하셨습니다. 설교단이나 학교 같은 외적 장치가 없고, 고상한 언어를 구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소, 청중, 어조, 어법, 예시例示, 비유 등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파견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함은 진리이고, 단순함은 거룩함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출판 사도의 저술은 필치 면에서 대중적이고 간결하며, 형식 면에서 단순하고 명료하며, 적정한 기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6]

6. "책 표지에 인쇄된 가격"은 금전이 아니라 "적정한 기부"이다. 알베리오네 신부의 표현에 따르면 사도가 사용하는 말은 결코 상업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바오로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말씀을 내어 줄 수 있을까요?" 하고 수사학적 물음을 던지면서 곧 이렇게 대답했다. "구원에 필요한 중요한 진리와 함께 아무런 봉헌금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종이 위에, 작은 교리문답 시간에 이에 대해 펼

성체성사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음식의 모양을 취하고 있으며 음식 형태로 주어지지만, 하느님이시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193 마찬가지로 출판 사도직은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는 책**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출판 사도직은 소박한 책의 형태로 주어지지만 "나는 진리다."(요한 14,6)[7]라고 하신 거룩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 * *

3. 인가의 **유익함**이란 성경과 출판 사도직에 모두 해당됩니다. 모세와 사도들은 설교한 다음 글을 썼습니다. 이 사도직에 헌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 사도는 같은 수단, 곧 인쇄를 통

쳐 보십시오."(1932년 8월, 「이것을 묵상하라」 II, 4, pp.169-170) 1954년 1월, 그는 바오로딸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다. "우리 사도직은 사업(예를 들어 인쇄기)과 같은 성격을 지니며 상업(서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 박사의 손에 들린 펜처럼 전적으로 설교를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사업가와 기업인과 같은 특징을 갖고 출판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p.1089 이하) 1957년 설교에서는 훨씬 명확하고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전진하라 했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라는 것을 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최소한의 가격이나 봉헌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우리가 사도직을 계속하고, 우리 수도회가 살아나가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수행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Pr D, p.522. 밑줄은 우리가 표시한 것임)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본문은 1960년에 발행된 것으로 바오로딸 서원의 역할에 대해 다룬다. "바오로딸 서원은 사업체가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봉사하는 터전입니다. 판매가 아니라 희사를 받는 사도직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아니라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과 따뜻함을 전하는 센터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들의 선익을 위한 것입니다. 착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신자들과 성직자들은 그 안에서 사목을 위한 협력과 빛과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격은 봉헌을 의미합니다."(「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IV, p.162)

7. "Ego sum Veritas."

해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되도록 말씀을 종이에 박아, 활동과 공덕, 영원한 영광의 삶이 되게 합니다.

* * *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도직이 희생이라면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희생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출판 양식과 형태, 보급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욱이 출판 사도직은 빵(양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출판된 책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영양을 공급할 것입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 손에 있어야 하는 성경의 일부인 신약성경은 매우 특별하게 보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도직에서 하느님을 귀감으로 삼으십시오.

선을 위한 투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그들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될 줄 알고, 천상 스승 예수님의 마음에 숨겨 있는 전지전능한 희생으로 사도직을 펼쳐 나가는 법을 아는 관대한 영혼들입니다.

귀감 - 성 베르나르도. 이 성인은 복되신 동정녀에 대한 크나큰 194
신심과 거룩한 지식과 성경에 관한 박학다식함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1090년 프랑스 퐁텐에서 태어났으며, 스무 살에 시토회에 입회했습니다. 시토회에서 개혁을 많이 했고, 더불어 수도원도 많이 창설하였으므로 공동 창립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많은 저서에서 우리는 그가 성경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컸는지, 또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한결같이 좋아한 면학을 통해 얻은 지식과 흠숭 행

위의 결과로서, 그는 그것을 수사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쓴 작품은 경이롭게도 모두 성경 구절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전기작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 베르나르도의 양식은 성경이라고 단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들은 거룩한 복음 구절에 대한 설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자 강생론*Missus est*」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아가」에 대한 84개의 설교와 주석입니다. 그의 전기작가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그에게 수없이 나타나, 그가 쓰거나 설교해야 하는 주제를 제시하고, 논의되고 있는 주장을 증명하고,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아름다운 성경 구절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화가들은 거룩한 아기를 품에 안고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며, 아기에게 성경을 봉헌하는 거룩한 박사요 교부로서의 그의 모습을 즐겨 표현했습니다.

그는 1153년, 자신을 따르던 많은 수사가 슬퍼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한 황홀경을 맛보며 선종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품위를 지닌 교부시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는 8월 20일을 베르나르도의 기념일로 지냅니다.

작은 희생 : 출판 사도직을 위해 스승 예수님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세 번 바친다.

찬 가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며
열 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환성과 함께 고운 가락 내어라.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다.
그분은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자애가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그분께서는 제방으로 모으듯 바닷물을 모으시고
대양을 곳집에다 넣으신다.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민족들의 결의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주님의 결의는 영원히,
그분 마음의 계획들은 대대로 이어진다.(시편 33,1-11)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요한 17,1-17)

독서

박해 중에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 10,16-28)

20일
성경을 읽는 자세

성 마르코

사도행전에는 "마르코라 하는" 제자 요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불렸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어머니 집에는 박해 시대에 형제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전한 다음 요한 마르코를 데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마르코는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했지만, 그는 고된 여정이 힘들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바르나바가 그 제자를 다시 데려가고자 했을 때 바오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르코는 바르나바와 함께 키프로스로 갔지만, 그는 성 바오로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오로는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마르코를 자기의 협력자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마르코 복음사가는 로마에 있었고, 얼마 동안 성 베드로와 함께 머물렀는데 요한 마르코는 바오로 사도에게 돌아와 그에게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집트로 파견된 그는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웠으며 그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후(9세기)에 그의 시신은 베네치아로 옮겨졌으며, 그곳에 그의 이름을 붙인 유명한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198

마르코 복음

교부들은 성 베드로의 조언과 그의 승인에 따라 로마인들을 위해 로마에서 쓴 두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성 마르코라는 사실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 예레니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의 요청에 따라 성 베드로의 제자이자 통역자인 마르코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대로 짧은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 복음서를 승인한 베드로는 이를 교회에서 읽게 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복음서에는 성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 마르코는 자신의 스승에게 바쳐진 모든 칭송을 생략합니다. 서술 방식은 성 베드로가 했던 말을 동시통역자처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 마르코는 자주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특정 상황을 추가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목격자를 자신이 본 그대로 전개합니다.

성 마르코의 복음서 저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두 번째 복음서는 성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고 싶어했던 로마인들의 요청에 따라 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 베드로의 설교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복음사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과 마귀와 질병에 대해 행사하시는 권능을 강조하고 있어 마르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

묵상 20

성경을 읽는 자세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 가르침의 기적들을 제가 바라보오리다."
(시편 119,18)

성경은 무엇보다 열렬한 정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고 중요성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가장 강도 높은 목마름과 갈망을 지녀야 합니다.

성경은 큰 사랑으로, 자녀다운 사랑을 다해[1*]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편지,[2] 곧 우리의 천상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자녀다운 사랑을 다해 그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머물면서 놀라운 일들에 대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신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하느님은 그들에게 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는 충실한 우

1.* "Nemo potest sensum Scripturae sacrae cognoscere, nisi legendi familiaritate, sicut scriptum est: Ama illam et exaltabit te: glorificaberis ab ea, cum ea fueris amplexatus." ["기록된 바에 따르면, 성경을 열중하여 읽지 않고서는 아무도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성경을 사랑하라. 그러면 성경이 그대를 들어 높일 것이다. 그대가 성경의 품안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은 그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2. 이 주제에 대해 성 아우구스티노를 인용하는 이탈리아주교위원회(CEI)의 사목적 주석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다가온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주시어 그 [천상] 도시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려는 갈망이 타오르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편지들을 "열정적이고 지적이며 기도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교회 생활 안에서의 성경」, 14항 참조)

편배달부로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걸어가는 길에서 깨달음을 얻고, 언젠가 천국에 계신 하느님께 갈 수 있도록 그 편지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200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위해 어떻게 고행과 사랑을 해야 할지 모른다며 투덜거리는데 성경을 손에 들고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느님의 마음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흠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승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의 행동은 우리가 스승 예수님의 학교에 가서 그분의 거룩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흠숭해야 하는지 모른다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반드시 긴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구절만으로도 우리 영혼을 살찌우며 열렬히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비판이나 세속적 연구 목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그 마음이 텅 비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만에 가려진 눈 때문에 메시아의 특징을 발견하지 못한 바리사이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바리사이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3] 그들은 그분을 알아뵙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음에 처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성경의 의미를 꿰뚫어보며 올바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쓰인 글자 이면에 계신 주님을 알아뵙

3. "Et sui eum non receperunt."(요한 1,11)

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받으시도록 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4*]

역사는,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 사람들에 대한 많은 예화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들 201
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 결국에는 하느님 대신 악마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그릇된 지향으로 읽은 다음 저주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 * *

성 바오로의 말씀처럼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2티모 3,16)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또 나중에 가르칠 수 있으려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을 바로잡아 교정할 수 있으려면, 또 우리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위로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게 될 때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은 우리 영혼에게 가장 맛깔스러운 양식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빵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맛있게 먹읍시다. 날마다 물질적

4.* "복음은 숭고한 힘을 지닌다. …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간직한 명백한 진리를 어떤 기교도 부리지 않고 절친한 친구처럼 무지한 사람과 박학다식한 사람 모두의 마음에 제안한다. … 복음적 가르침은 그 자유로움으로 숭고하다."(성 토마스 아퀴나스)

인 양식이 우리 몸에 필요하듯이 영혼도 천상 양식으로 매일 양육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성성, 곧 모든 원수에 맞서 싸워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성체, 묵상, 미사, 양심성찰 등 모든 신심 실천에 가장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심을 실천하는 이들이 **완덕의 길에서 얼마나 많이 진보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며,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순간에 빛을 비춰 줍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하듯이 성경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고,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초대하고, 마음을 비추고, 혀를 정화하고, 양심을 따르게 하고, 영혼을 성화하고, 믿음을 굳건히 다져주며, 악마를 몰아내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냉랭한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학문에 빛을 주고, 무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시대의 부패를 막아주고, 성령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며,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5]* 성 바오로가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1티모 4,8)[6]라고 신심에 대해 말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 적용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성경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202

* * *

거룩한 복음 봉독에 관한 매우 아름다운 구절이 여기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옵니다.

5.*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 28.

6. "Pietas ad omnia utilis est."

"오, 그리스도인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그대가 하는 가장 큰 공부가 되게 하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능수능란한 웅변이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쓰인 바로 그 정신대로 읽어야 합니다. 표현의 미묘함보다 성경의 유용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익을 얻으려면 겸손하고 단순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호기심은 종종 성경을 읽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전달된 내용을 이해하며 살펴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이 참으로 영혼에게 유익하게 하려면 성경을 읽기 전 ·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7]* 그리고 최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두 손을 모으고 | 무릎을 꿇은 후 "오,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하고 주님께 말씀 드린 다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미사 때 사제가 복음서를 봉독한 다음 입맞춤을 하도록 교회가 규정한 것처럼 애정과 사랑의 표시로 거룩한 본문에 입맞춤 하십시오. 더욱이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해 짧게 묵상하고 하루를 위한 실천적 결심을 해야 합니다."

203

성경을 읽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 이를 충실히 따릅시다.

15분씩 거룩한 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 레오 13세는 교황청 대사(1898년 12월)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300일 **대사**

한 달에 한 번, 하루 중 어느 때나 15분간 성경 봉독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전대사**.

7.* 이 책 맨 끝에 나오는 성경을 읽기 전과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를 보라.

조건 :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성 비오10세[8]는 1903년 8월 28일 성 예로니모 수도회[9]의 모든 회원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경우 성 예로니모 축일(9월 30일)이나 팔부 축제 동안 어느 날이든 전대사를 받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복음사가인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9월 21일, 4월 25일, 10월 18일, 12월 27일) 축일에는 300일의 속죄기간을 통한 대사[10*]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영혼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양식으로 만드는 일을 교황들이 얼마나 마음 깊이 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4 **귀감 – 성 코톨렌고.**[11] 성 코톨렌고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온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신앙을 실천하였기에 "의로운 이는 믿음

8. 비오 10세는 1951년 6월 3일 비오 12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54년 5월 9일 성인품에 올랐다.

9. 성 예로니모 수도회는 1902년에 설립된 자치 단체로 자체의 자금과 동료, 성직자, 평신도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으나, 마침내 교황청에 위임되었다. 이 수도회는 1902년 4월 27일, 후에 베네딕토 15세 교황이 된 제임스 델라 키에사 몬시뇰의 집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수도회의 목표는 "이탈리아어 복음서의 출간과 보급을 촉진하고,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보급 활동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 수도회가 보급하기 시작한 복음서 초판은 불가타 번역본을 바탕으로 같은 수도회 회원들이(Fr. G. 클레멘티, Fr. G. 메르카티, 평신도 노가라 씨) 쓴 간략한 주석을 넣어 만들어졌다. 1902년 11월에 119,702권이 보급되었으며, 같은 책이 1944년에는 516쇄나 재판되었다. 마침내 사도행전이 복음서에 추가되어 신약성경 전체가 나오게 되었고, 구약성경 전체를 현대 언어로 의역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게 되었다. 수도회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므로 언제나 저렴한 가격에 성경을 발행했다.

10.* 이 대사는 다른 성경 책이 아니라 복음을 읽을 때만 받았다.

11. 주세페 코톨렌고(Giuseppe Cottolengo, 1786년 5월 3일 – 1842년 여름). 복자 알베리오네 신부와 같은 쿠네오 주 브라 출신으로, 1917년 4월 29일 베네딕토 15세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고, 1934년 3월 19일 비오 11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다. 그는 "선행의 천재"로 알려졌다. 토리노에 있는 "하느님 섭리의 작은 집"을 설립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세 개의 수도회를 세웠다.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있어 그는 섭리에 의탁하는 신앙의 모범이며, 본인이 창립한 수도회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가한 경우의 귀감이었다.(AD, 131–134항 참조)

으로 살 것이다."[12]라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성 바오로의 서간 말씀을 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 그러나 드높은 믿음"이라고 그 자신이 말했듯이 그는 매우 높은 단계의 성덕에 도달했으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선행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코톨렌고는 어린시절부터 본당신부님의 주일 강론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를 직접 보는 행운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강론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방을 성당으로 꾸민 후, 들은 강론을 자신의 설교대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사제가 된 그는 미사 때 거룩한 복음을 봉독하는 순간이 되면 마음이 불타올라 말씀에 힘을 주어 천천히 또박또박 읽음으로써 모든 이가 말씀을 잘 알아듣게 했습니다. 봉독 후 그는 전례에서 규정한 대로 미사 독서 경본을 높이 들고 그 위에 입맞춤을 하곤 했는데, 미사를 도와주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 만큼 성경에 대한 애정이 넘쳤고, 열렬했습니다. 복음에 입맞춤할 때면 자기 입술로 그 말씀을 너무 세게 누른 나머지 마치 목마른 이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2.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로마 1,17) 사실 모세 율법이나 그 활동과 의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의화에 이르는 것에 관련된 중요한 이 표현은 하바 2, 4에 속한다. 이는 또한 갈라 3,11과 히브 10,3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적어도 바오로 학파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

참으로 그는 신비로운 음료를 거룩한 복음에서 빨아들였고, 하느님과 이웃 사랑에 흠뻑 취하여 열렬하게 자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작은 집Piccola Case'을 세웠을 때부터 이미 성경에 대한 그의 사랑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이 세운 수도회 외벽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새기게 했고, 내벽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걸어 두게 했습니다.

거룩한 미사와 영성체를 통해 성체를 모시기 위해 준비해야 했던 모든 이에게 그는 자신이 바란 신심의 귀감을 보여주기 위해 때때로 그 자신이 성체를 분배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동안 그는 주님의 수난과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제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작은 희생 : 미사나 성체조배 때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한 다음 실천적 결심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205

찬가 [#](모세의 노래 계속)

정녕 그들은 소견이 없는 백성이며
슬기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지혜롭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끝이 어떠할지 깨달을 터인데.
그들의 바위께서 그들을 팔아 버리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신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으랴?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녕 그들의 바위는 우리의 바위와 같지 않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나온 것.
그들의 포도는 독 포도여서 송이마다 쓰기만 하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 독사의 무서운 독이다.
"그것은 나에게 간직되어 있지 않느냐?
나의 보고 안에 밀봉되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
복수와 보복은 내가 할 일,
멸망의 날이 가까웠고
그들의 재난이 재빨리 다가온다."
당신 백성의 힘이 다함을,
노예도 자유인도 남아 있지 않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권리를 옹호하시며
당신의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들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신처로 삼던 바위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의 굳기름을 먹고
그들이 따라 바친 제주를 마시던 것들이 아니냐?
그것들에게 일어나 너희를 도와 달라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하여라.
이제 너희는 보아라! 나, 바로 내가 그다.
나 말고는 하느님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치기도 하고 고쳐 주기도 한다.
내 손에서 빠져나갈 자 하나도 없다.
나는 하늘로 손을 들어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번뜩이는 칼을 갈아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할 때
나의 적대자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되갚으리라.
내 화살들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살코기를 먹게 하리라.
살해당한 자들과 포로들의 피를 마시고
적장들의 머리를 먹게 하리라."
206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에게 환호하여라.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 주시고
당신의 적대자들에게 복수하시며
당신 땅과 당신 백성의 죄를 풀어주신다.(신명 32,28-43)

독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 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 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루카8,5-8)

기도

만물의 주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들 위

에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이민족들을 거슬러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이 당신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그들 앞에서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듯이 저희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소서. 주님, 당신 말고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 주소서.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시고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당신 손과 오른팔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소서. 진노를 일으키시고 분노를 쏟아 부으시어 적을 쳐부수시고 원수를 없애소서. 시간을 재촉하시고 정해진 때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하신 업적을 헤아리게 하소서. 분노의 불꽃이 살아남은 자마저 사르고 당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적의 통치자들의 머리를 부수어뜨리소서. 야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을 지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맏아들로 대우해 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성소가 있는 도성이요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에 자비를 보이소서. 당신 위업에 대한 찬미로 시온을 채우시고 당신 영광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우소서. 당신께서 한처음에 창조하신 이들을 증언해 주시고 |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 209[13]
된 예언들을 성취시켜 주소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주시고 당신의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호의로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이 세상 만민이 당신께서 영원하신 주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집회 36,1-22)

[빈페이지] 210

13. 206번에서 209번으로 넘어간 것은 원본 pp.207-208이 예언자 요나와 미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에는 본문 외의 페이지로 간주도어 이 부분이 계산되지 않았다.

제3부: 성경과 신심 행위(생명)

21일
죄를 사하여 주는 성경

성 루카

성 예레니모가 증명하듯 성 루카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출신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문체는 그가 높은 교양[1]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질병과 치유에 대해 말할 때 정확하게 사용한 전문적 용어는 그 자신이 의학을 제대로 알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성 바오로는 그를 "사랑하는 의사"라고 부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화가이기도 하여, "성 루카의 마돈나"라고 불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성 바오로의 활동 덕분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여 트로아스에서 성 바오로를 만난 다음 거의 모든 선교 여행에 동행하였으며, 성 바오로가 카이사리아와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는 매우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

1. p.257과 p.218 참조. 지식에 관련된 교양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하고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교양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수단으로서의 면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후로도 자주 주장한다. "우리는 면학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좋은 결과가 마치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공부하되 반드시 하느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참으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강론대에서 설교하는 사제처럼 우리도 적절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세상에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글을 잘 쓰십시오. 언어를 배우고 문장기술을 잘 익히십시오. 무엇보다 사고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 우리 출판물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출판물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서 길 진리 생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ER 1, 1935, pp.107-108)

그는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내 복음에 따라"라는 성 바오로의 표현이 루카 복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대부분은 성 바오로의 선교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성 바오로의 첫 투옥에 대한 체험을 설명합니다. 성 바오로가 참수된 다음 루카는 그리스에서 설교했으며, 그도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4

루카 복음

성 루카는 세 번째 복음서 저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의 이유와 목적을 제시합니다. 모든 교부는 성 루카가 신약성경 저자 가운데 가장 우아한 작가이며, 성 바오로의 생각과 말씀을 반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 바오로는 물론 다른 사도들에게서도 이방인들을 향해 선포된 복음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사가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진리, 곧 테오필로스가 이미 배운 교리를 널리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카는 일차적 가르침을 주지 않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서술된 역사적 사건, 곧 신앙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테오필로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복음서의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성 마르코와 성 루카 사이에 자료와 배열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성 루카가 성 마르코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두 번째 복음사가는 루카보다 일찍 저술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루카는 그리스인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사실 그는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많은 것을 생략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

을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을 부지런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복음서는 우아한 문체로 쓰인 것만 아니라 잘 정리된 문헌과 서문, 개념으로 그 시대를 이해하는 진정한 역사적 작품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좀더 자세하게 다룸으로써 첫 두 복음서를 완성합니다.

사도행전

성 루카 자신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사도행전은 단일한 작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복음서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저자가 그렇게 되길 바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자기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쓴 내용은 이미 두 번째 작품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성 바오로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책의 대부분이 성 바오로의 사도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2]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 루카는 | 성령의 힘으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215

사도행전은 복음의 연속이고 완성이며 화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교회의 삶, 은총의 승리, 그리스도교적 덕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의 개론이요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 바오로 서간과 다른 사도들의 서간에 필요한 입문이기도 합니다.

2. 사도 1,8.

묵상 21

죄를 사하여 주는 성경

"영원토록 당신 규정을 잊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그것으로 저를 살리셨기 때문
입니다."(시편 119,93)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위한 생명의 샘이 되는지, 다시 말해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떻게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굳건하게 하며 유혹에서 보호해 주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어떻게 연옥의 고통을 면하게 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향상시키며, 묵상, 성체방문, 양심성찰 등 모든 신심 행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매월 세 번째 열흘이 시작되는 첫 날(21일),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떻게 영혼을 죄에서 정화시키는지, 영혼으로 하여금 지상의 것에서 이탈하여 하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끄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 * *

거룩한 미사 때 사제는 (복음 봉독 후에) "이 복음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 주소서Per evangelica dicta, deleantur nostra delicta."라는, 매우 짧지만 의미 있고 놀라운 효력이 있는 | 기도를 바칩니다.

복음의 거룩한 말씀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죄를 사해줍니다.

ㄱ) 성경을 읽는 것은 성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수를 찍어 십자성호를 그으면 소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도 누구나 자신이 지은 소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올바른 지향과 자기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복음서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많은 불완전함에서 해방되고 정화되기에 충분합니다.

ㄴ) 성경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북돋아줍니다. 성경을 읽고 하느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를 즐거워하며, 72번(72권의 성경 저술을 의미함—편집자 주)이나 펜을 잡고 글을 쓰기로 하신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서 성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영혼은,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떨어져 계신 아버지의 편지를 읽듯 성경을 읽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발치에 엎드려 겸손하고 신뢰에 찬 소년 사무엘처럼 거듭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Loquere, Domine, quia servus tuus audit te."[3]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실 교회는 모든 사제가 미사 때 거룩한 복음을 봉독한 다음 입맞춤을 하게 합니다. 복자 코톨렌고[4]는 참으로 커다란 애정과 사랑을 다해 복음을 읽고 입맞춤하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들마저 알아차렸으며, 미사 후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거룩한 사제가 복음을 읽은 다음 사랑으로 불타올라 | 홍조를 띤 얼굴로 미사경본에 입맞추는 모습은 마치 미사 경본이 간직하고 있는 숭고한 진리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 참으로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3. 1사무 3,10.
4. 성 요셉 베네딕토 코톨렌고의 예는 더욱 생생하다.(p.204의 각주 11 참조)

목말라 하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볼raffigurare[5] 수 있습니다.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 말씀을 들었다."[6]

여기에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감탄할 만한 예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잠심과 감미로운 침묵 속에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입에서 흘러나온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간직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7]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8]

주님이 바라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서서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원할 만큼 자신의 원의가 거룩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ㄷ) 셋째로, **성경은 영혼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여전히 죄 속에 있다 해도 조만간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매우 효과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데, 으뜸가는 은총은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5. raffigurare(그리다, 상상하다)는 paragonare(비교하다)에 맞지 않는 동사다.

6. 루카 5,1: "turbae irruerunt in eum ut audirent verbum Dei." 불가타는 "Cum turbae irruerent in eum ut audirent verbum Dei…"라고 번역한다. 이탈리아주교위원회는 2절을 "군중이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번역한다.

7. 루카 2,51: "Maria autem conservabat omnia verba haec, conferens in corde suo."

8. 루카 7,47: "Remittuntur ei peccata multa, quoniam dilexit multum."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회심한 죄인들의 수많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 1장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 힐라리오, | 시편을 읽다가 회심한 철학자 성 유스티노, 복음을 읽고 회심한 안티오키아의 성 테오필로와 아테나고라,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Laudate pueri Dominum"[9]이라는 시편 노래를 듣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빛을 받은 성공회 사제 프레데릭 윌리엄 파버를 비롯한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복음 봉독은 영혼에게서 죄를 없애줄 뿐 아니라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영혼을 변화시켜 성덕에 이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죄인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죄를 계속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던 청년 기사 이냐시오를 보십시오. 그는 지루한 시간을 때우려고 영웅들의 화려한 행적이 담긴 소설을 부탁했지만, 하느님의 섭리는 그에게 거룩한 서적을 가져다 주게 했고, 그 가운데 거룩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읽고 그는 눈이 열렸고, 강한 은총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냐시오는 로욜라 가문 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웅적 기사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악마는 성경이 영혼에 미치는 힘을 잘 알고 있기에 성경이 신자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성경을 몸에 지니고 다닙시다. 이는 악마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9. 시편 113,1.

귀감 – 실비오 펠리코.[10] 정치적 음모로 베네치아 '피옴비 교도소'에 들어가 고독과 엄격한 수감생활을 하며 쇠약해진 젊은 애국자 실비오 펠리코는 자기 영혼의 선익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체험을 했습니다.

펠리코는 교도소에서 독서를 할 수 있었는데, 여러 책 가운데 그는 성경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암울함에 빠진 | 그가 한 쪽에 제쳐 둔 성경에는 먼지가 얇게 덮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도관 아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무례한 표현에 용기 있게 나서서 성경을 옹호했고, 그때부터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19

펠리코는 그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의 자녀들 가운데 한 소년이 나를 찾아와 다정하게 안기면서 말했다. "당신이 더는 저런 책(libraccio: 나쁜 책 – 옮긴이)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우울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그렇게 말하며 성경을 집어 들었다.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아무데나 펼쳤는데 이러한 말씀이 눈에 띄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11]

10. p.78의 각주 1 참조.

11. 루카 17,1-2: Et ait ad discipulos suos: Impossibile est ut non veniant scandala: vae autem illi per quem veniunt! Utilius est illi si lapis molaris imponatur circa collum eius et proiciatur in mare, quam ut scandalizet unum de pusillis istis. 마태 18,7 참조.

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그 소년은 성경 위의 먼지를 보고 내가 더는 성경을 읽지 않으며, 이처럼 하느님을 소홀히 한 내가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는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잘못을 아파하며 말했다. "얘야 그게 아니란다!" 나는 다정한 어조로 소년의 말을 부정하였다. "이 책은 나쁜 책이 아니란다. 실은 내가 성경을 얼마 동안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태가 엄청 더 나빠진 거지 …"

소년은 밖으로 나갔다. 나는 성경을 다시 집어 들은 것에 대해,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 내 상태가 더 빠졌다고 고백한 것에 대해 기쁨을 느꼈다. 나는 다소 언짢아진 착한 그 친구를 달래주었고, 또 그와 화해를 한 것 같았다. …

나는 성경을 의자 위에 올려 놓고 땅에 무릎을 꿇은 채 읽어내려 갔는데,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던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12]

작은 희생 : 오늘 성경의 참된 의미가 더 잘, 더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세 가지 절제를 할 것.

찬 가 [#]

아, 구원을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정녕 당신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12. 실비오 펠리코, 「나의 옥중기*Le mie prigioni*」(1832), 24-25장에서 발췌. 실비오 펠리코(1789-1854)는 이탈리아 19세기 낭만주의 산문작가, 시인, 극작가, 애국자. 「나의 옥중기」는 1820년 혁명파에 가입한 혐의로 오스트리아 경찰에게 체포되어 석방되던 1830년까지 지낸 슈필베르크 요새 감옥생활을 묘사한 것이다. (옮긴이가 덧붙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치욕 속에 물러가리라.
220 이스라엘은 주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영원한 구원이어라.
영원무궁토록 너희는 부끄러움도 수치도 당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 그분께서 하느님이시다.
땅을 빚으시고 땅을 만드신 분
그분께서 그것을 굳게 세우셨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혼돈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빚어 만드셨다.
내가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숨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두운 땅 어느 구석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혼돈 속에서 찾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
나 주님은 의로운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민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 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떠받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각없는 자들이다.
말해 보아라. 설명해 보아라. 함께 의논해 보아라.
누가 이것을 옛날에 들려주었느냐?
누가 이것을 예전에 알려 주었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
나밖에는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땅 끝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정녕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맹세하며 말하리라.
"주님께만 의로움과 권능이 있다.
그분께 격분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 앞에 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와 영예를 얻으리라."(이사 45,15-25)[13]

독서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나무라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

13. 이 책은 이사 45,15-26을 가리킨다. 불가타 번역본의 이사야 45장은 26절까지 있는데 새 번역본에는 25절까지 있다. 23절과 24절이 23절 하나로 합쳐졌다.

221 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 6,41-47)

에즈라의 기도

"저의 하느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저희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과 칼에 넘겨지고, 포로살이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이나마 주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겨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곳에 저희를 위하여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희 눈을 비추시고, 종살이하는 저희를 조금이나마 되살려 주셨습니다. 정녕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셔서,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그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지금, 하느님께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저버렸습니다. 이 계명들은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그 지방 백성들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으로 더럽혀진 곳이다. 그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역겨운 짓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딸을 그들에게 시집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마라. 결코 그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녕을 좇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강해지고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저희가 겪은 것은 모두 저희의 악한 행실과 저희의 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 죄악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당신의 계명들을 어기고,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이런 백성들과 통혼하였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남은 자도 생존자도 하나 없이 저희를 몰살시켜 버리실 정도로 저희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처럼 생존자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잘못한 채 당신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저희 잘못을 지닌 채 당신 앞에 있습니다."(에즈 9,6-15)

222

22일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

성 요한

벳사이다에서 제베데오와 살로메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대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한, 겐네사렛 호수의 어부인 요한은 이미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아버지와 형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자기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으며, 갈바리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아들의 임무로 예수님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고귀한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베드로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자주 머물며 성모님을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뒤, 요한은 에페소로 가서 아시아 교회들을 이끌었습니다. 로마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끓는 기름 가마솥에 갇혔으나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묵시록을 썼던 파트모스 섬으로 쫓겨갔다가 도미티아누스가 죽자 다시 에페소로 돌아가 거의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교부들은 성 요한이 네 번째 복음과 세 편의 서간, 그리고 묵시록을 썼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223

요한 복음

교부들은 사도 성 요한이 1세기 말 노년기에, 에페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관 복음보다 늦게 요한 복음을 썼다고 증언합니다. 교부들이 확신하는 바는 넷째 복음서를 분석함으로써 확인됩니다. 곧 공관 복음의 조화로운 일치 안에서, 공관 복음에도 실린 유용한 것이 요한 복음 본문에 많이 담겨 있음을 볼 때 요한 복음은 공관 복음을 완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넷째 복음은 저자가 히브리인임을 보여줍니다. 요한 복음은, 그가 팔레스티나에서 오래 산 히브리인으로서 사도단의 일원이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더는 단일 민족이 아닐 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글을 썼음을 보여줍니다. 또 요한 복음사가가 목격 증인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사실과 더불어 그가 쓴 모든 증언에 비추어볼 때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닐 수 없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부들의 증언이며, 한 세기의 논쟁을 거친 오늘날 그 어떤 엄격한 비평가도 세계 문학 작품 중에서도 초세기의 독보적인 이 책의 저자가 성 요한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숭고한 이 복음도 공관 복음의 소중한 화관이며, 사랑의 펜으로 쓰인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직 요한만이 "천사들의 영역을 초월하여 곧바로 하느님께 가는"(아우구스티노)[1] 넷째 복음을 쓸 수

1.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가 요한에 대해 쓴 중요한 주석서는 「요한 복음 강해 *Tractatus in Ioannem*」(복음에 대한 124 차례의 설교와 첫 번째 서간에 대한 10 차례의 설교)으로, 406년과 418년 사이에 구두로 전해지거나 부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다. 아우구스티노가 쓴 또 다른 주요 성경 주석서는 「시편 상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박동을 직접 느꼈고, 동정녀 어머니의 온유함을 감탄하며 천상 비밀을 받아들인 요한만이 넷째 복음의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은 요한은 스승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그 거룩한 말씀은 그의 마음에서 사랑으로 흘러나왔으며, 참으로 신비롭고 환한 빛으로 그 의미를 비추었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들의 영적 현장에 있었으므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공관 복음이 이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그는 요한 복음을 통해 공관 복음을 충만하게 하고 더욱 승화시켰으며, 공관 복음을 더욱 거룩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은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224

묵상 22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

"주님, 당신 구원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당신의 가르침이 제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174)

교회는 사제들이 성무일도에 포함된 성경소구를 읽기 전에 "복

Enarrationes in Psalmum」 또는 *in Psalmos*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일치의 신비를 바탕으로 한 신학적·영적 작품이며, "온전한 그리스도Christus totus"의 소리기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일치에 대한 것이다.

음 봉독이 저희를 구원하고 보호하게 하소서Evangelica lectio sit nobis salus et protection."라는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되는지 묵상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복음을 읽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복음은 그 자체로 큰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음은 우리의 지향을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음은 영적 완덕에 이르는 유익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복음은 큰 공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거룩한 말씀의 계시와 강생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위대한 성사라고 불립니다. 선행을 하고 자선 활동을 하고 싶어하지만, 그 수단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미사에 참례하고 싶어하지만 시간이 없으며, 공로를 쌓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능력과 건강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선행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 하늘 나라에 큰 공덕을 쌓을 것입니다. 모든 선행이 공덕이 된다면, 최초의 성사 가운데 하나인 하느님 말씀을 읽는 것은 얼마나 큰 공로를 세우겠습니까! 공로의 기회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공덕은 하느님 말씀을 읽는 성사에 곧바로 따라옵니다.

225

둘째, **복음은 우리의 지향을 정화시킵니다**. 성경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거룩한 성경, 그 말씀, 숭고한 예화들은 그 안에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으며, 영혼을 지상의 것들에서

조금씩 이탈시켜 하늘 나라로 들어올립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2]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이어라."[3]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 제 나는 기뻤네."[4]

영혼이 하늘 나라로 들어 높여지는 것을 느끼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최상의 목표에 대한 아름다움과 감미로움을 맛봅니다. 추방된 인간도 긴 여정 끝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대하는 망명자로서 기뻐합니다.

226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사들, 성인들과 일치합니다. 그는 천상적 열망을 지니며, 하느님과 축복받은 영혼들에 대해 생각하며 그들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것, 다시 말해 하느님과 적대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거룩한 복음은 영적 완덕에 이르는 유익한 도움입니다.**

2. 마태 6,24.33.
3. 시편 4,3; 100,3.
4. 시편 122,1.

오, 하느님 말씀이 주는 효과는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담론과 글은 종종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안타깝게도 때로는 나쁜 내용일 때도 있습니다. 죄인에게 충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조언에서 유익을 얻기보다 자신의 악으로 더 완고해집니다! 하지만 하느님 말씀은 놀라운 효과를 지닙니다!

책이나 충고는, 충고를 하거나 책을 쓴 사람의 성덕에 따른 힘을 지닙니다. 책은 그 저자가 주입한 만큼 더 큰 힘을 지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5],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6],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필로데아」[7] 등에서 영혼들이 얻는 결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라면, 우리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그 자체로 헤아릴 수 없이 큰 은총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은총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느님의 책입니다. 하느님은 성경의 주요 저자이십니다. 성경은 영적 독서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용한 책입니다. 성경에 관련된 다른 모든 신심 서적은 태양에 비교할 때 반딧불에 불과합니다.

5.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수도회에서 시작된 작품으로 베르첼리의 제르송(카발리아의 제르세니오 조반니, 베네딕토회, 베르첼리의 수도원장이라고도 함) 또는 파리의 장 거슨(신학자이자 철학자 – 거슨, 샴페인, 1363 – 리온, 1429)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구스티노회의 토마스 아 켐피스가 쓴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책은 근대주의적 신심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6.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실천*Pratica di amar Gesù Cristo*」, 18쇄, 치니셀로 발사모: 성바오로, 1999 참조.
7. 「필로테아 – 신심 생활 입문」 3쇄가 나왔을 때 저자는 머리말을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책은 1608년에 제 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언제나 그 구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하기에 성경 구절을 통해 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은총과 많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늘 성경을 읽으며 잘 양육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도 힘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느끼듯 완덕에 이르는 길을 아주 쉽게 찾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보통의 책을 영적 독서로 삼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땅과 하늘, 자연적인 상태와 초자연적인 상태, 또는 영적 친교와 성사적 친교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습니다.

227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복음에서 말씀하신 신비로운 작은 겨자씨로, 싹이 트면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씨앗입니다. "씨는 하느님 말씀입니다Semen est verbum Dei."[8]

그 씨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질 수 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9]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실망에 빠질 때, 은총과 빛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믿음을 갖고 거룩한 책으로 달려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귀감 – 성 안드레아 아벨리노는 성경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란셀로트라는 세례명으로 불리던 안드레아 아벨리노는 루카니아 카스트로노보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우 젊었을 때 문학을 공부하러 떠난 그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섬세한 시기를 여러 교양과목을 공부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영혼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성직자 민병대에 등록을 하고 지내던 그는 교회법과 시

8. 루카 8,11.
9. 마태 13,8.23.

민법을 공부하러 나폴리로 갔습니다. 법학 공부를 마치고 교회 법정에서 소송 사건을 변호하는 데 힘을 쏟던 그는 한 사건을 변호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중에 "은밀히 하는 말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인다."[10]라는 성경 말씀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곧바로 변호사직을 떠나 거룩한 신심 활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는 수도 사제가 되고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도생활에서 자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기도와 성경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전기작가들은 그가 시편을 낭송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노래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단으로 걸어나가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다."[11]라는 성경 구절을 선포하면서 공덕으로 가득 찬 가운데 선종했습니다. 교회는 11월 10일을 그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작은 희생 : 우리에게 거룩한 성경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송을 열 번 바칠 것.

창조주 하느님께 바치는 찬가 [#] 228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10. 지혜 1,11.
11. 시편 43,4.

민족들을 우리 밑에,
겨레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셨네.
우리에게 골라 주셨네, 우리 상속의 땅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을.
하느님께서 환호 소리와 함께 오르신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께서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가를 불러라.
하느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뭇 민족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느님 백성이 되어 모여 온다.
세상의 방패들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분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어라.(시편 47,2-10)

독서

가나안의 어머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마태 15,21-28; 마르 7,24-30)

예레미야의 기도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 주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당신 분노를 늦추시다가 저를 잃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주소서.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고 떠드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하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득 채운 당신의 분노 때문에 당신 손에 눌려 홀로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제 상처는 치유를 마다하고 깊어만 갑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가짜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물처럼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네가 쓸모없는 말을 삼가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망정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맞서 내가 너를 요새의 청동 벽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움을 걸겠지만 너를 이겨 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 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악

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내고 무도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내리라."(예레 15,15-21)

23일
우리를 보호하는 성경

성 바오로

킬리키아 타르수스(사도 9,30)에서 태어난 사울이라고도 불리는 바오로는 벤야민 지파 태생의 유다인이며 기원후 초세기에 바리사이요 로마 시민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저명한 가말리엘(사도 5,34)의 교육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 기회는 없었습니다.

열렬한 바리사이인 바오로는 초대 그리스도교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대단하여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지켰고, 대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팔레스티나 밖에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를 기다리던 예수님은 박해자였던 그를 열렬한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때는 서기 35년 무렵이었고, 바오로는 서른 살 가량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회개라는 위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부하고 묵상하고 계시를 받으며 10여 년 동안 준비한 바오로는 45년에 동양의 대도시이며 당시 모든 민족들이 오가던 안티오키아를 출발지요 도착지로 삼아 선교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네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때로 그가 지나가야 했던 지역은 험난했고, 특히 그의 복음선포 활동을 저지하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유다인들의 박해로 인해 위태로웠습니다.

이 선교여행 동안 성 바오로는 14편의 경이로운 서간을 집필했
231 습니다. 이 서간들을 통해 | 그는 여러 교회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현존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58년 성령강림절 무렵 예루살렘에서 투옥되었고, 카이사리아의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로마로 떠났습니다. 몰타에서 그가 탔던 배가 파선당했으나, 마침내 세계의 수도에 도착하여 2년 동안 머문 다음 네로 황제의 대리자들인 부루스와 세네카에 의해 재판을 받아 사면되었고, 63년에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로마에서 에페소 신자들에게, 콜로새 신자들에게, 필레몬에게,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롭게 된 바오로는 사도적 여행을 계속했으며, 몇몇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에도 갔습니다. 그는 다시 동양으로 돌아와 콜로새, 트로아스, 밀레토스, 크레타를 거쳐 마케도니아, 코린토, 데카폴리스에 갔다가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로마로 돌아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66년에 성 베드로와 함께 체포되어 혹독한 감옥생활 끝에 67년 비아 오스티엔세에서 (전승에 따르면 6월 29일에) 참수되었습니다.

성 바오로는 뛰어난 사도, 특히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그는 로마인 세계를 모두 돌아다니며 30년 동안 집요하게 분노에 싸인 위협과 박해를 받았고, 이방인들의 증오와 유다인들의 박해를 받았으며, 고발당하고 중상모략을 받고, 매 맞고, 돌을 맞았으며, 배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의 문턱에서도 복음을 전했으며, 그의 선교 여행은 피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자를 자기 피로 붉게 물들이며 영광스럽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교의 서간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각 서간이 교의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 바오로 서간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서간마다 두드러진 요소에 따라 교의 서간, 도덕 서간, 사목 서간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길 바랐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야 서양에도 그리스도를 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토록 바라던 로마 교회 방문기회가 옵니다. 이를 위해 바오로는 로마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를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됩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편지 그 이상의 내용을 지닙니다.
이는 | 한 편의 논문입니다. 그 안에서 성 바오로는 이방인들 가운 232
데서 펼치는 사도직을 정당화하며, 자기 설교의 요점을 펼칩니다. 특히 유다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주요 논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는 향후 그리스도교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의화 은총은 예전의 공로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유다인과 이방인은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의화는 모세의 율법 준수에 달려 있지 않으며, 선행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 서간은 특정 교회가 아니라

갈라티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로마에 속하는 이 지방에서 성 바오로는 1,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티아인들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모세의 율법 준수와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유다인들에게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적대자들의 위험한 음모를 알아차린 성 바오로는 자기 권위를 옹호하고 선동하는 유다인들에 맞서 참된 교의를 재정립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서간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같이 근본적으로 교의적입니다. 의화는 모세의 율법, 곧 불필요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율법 준수에 달려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논제를 옹호합니다.

이 서간은 성 바오로의 초상화입니다, 바오로의 생기 가득한 활력과 열의와 열정이 그 안에서 맥박처럼 뛰고 있습니다. 아버지다운 애정이 담겨 있으며, 추론자의 저력이 담겨 있습니다.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성 바오로의 제자요 콜로새의 주교인 에파프라스는 수인이 된 바오로를 방문하기 위해 로마에 가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 특히 콜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을 바오로에게 알렸습니다. 그 위험은 이미 영지주의의 창시자였던 거짓 유다인 박사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1]

1. 그리스어 '그노시스'(gnosis: 지식 또는 인식)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분지의 여러 지역에서 2-3세기에 널리 퍼진 철학적 종교적 흐름을 나타내는 그룹을 지칭한다. 1945년, 나그함마디, 곧 이집트 북부의 영지주의 통합 도서관에서 영지주의 복음서를 발견할 때까지 학자들은 그 본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영지주의 이론 연구의 출처는 리옹의 이레네오와 같은 그리스도교 저자들 편에서 겪은 혼돈에 담긴 설명과 인용으로 구성되었다. 영지주의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La Sofia di Gesù Cristo*」나 「요한의 외경*Apocrifa di Giovanni*」과 같은 몇몇 외경 복음서를 거론하며 예수님은 오로지 몇몇 사도나 선택된 제자들과 몇몇 추종자에게만 계시하셨다는 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깨달은 바오로는 콜로새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의 부분에서 바오로는 하느님, 피조물, 교회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은혜로움과 존귀함에 대해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참된 그리스도교 교의로 그들의 망상을 반박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의 보편성,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교 교의를 탁월하게 역설합니다. 그는 유다인들의 율법 준수와 | 거짓 박사들의 고행 실천이 지닌 허무맹랑함을 드러내며 천 **233**
사들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행위를 비난합니다.

도덕 부분에서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해, 특별하든 일반적이든 삶의 여러 단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성 바오로는 테살로니카에 발전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떠나라고 강요하는 유다인들의 모략으로 그곳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그는 티모테오를 보냈습니다. 코린토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그는 그 교회에 안부를 전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첫 인사말과 마지막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처신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자신의 염려에 응답한 것을 칭찬합니다. 교의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그들이 덕스럽게 되기를 권고하고, 심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은 많은 사람에 대해 해명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지닌 모든 의무를 완수하라고 권고합니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테살로니카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왔다고 이해했으며, 많은 사람이 더는 일하지 않아도 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성 바오로는 둘째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적인 무법자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실제로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불확실하므로, 그들은 믿음 안에서 인내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노동법을 염두에 두고서 게으름과 불순종을 피하며 미덕을 추구하라고 권고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팔레스티나의 히브리인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 바오로[2]의 한없는 사랑은 육으로 맺어진 형제들을 잊을 수

2. 이 책(LS)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성 바오로의 친서로 간주된다. 학자들은 이 서간이 성 바오로의 친서라는 사실을 문제 삼는 몇몇 사실을 보여준다. "바오로 서간"으로 간주되는 다른 13편의 서간과 달리 히브리서에는 바오로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문헌에는 또한 바오로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 양식도 나오지 않는다. 히브 13,23에서는 티모테오와 함께 익명의 저자가 대상자들에게 직접 언급한다. "우리의 형제 티모테오가 풀려났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편지를 쓴 사람이 바오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로마 16,21, 1코린 4,17과 16, 10, 2코린 1,1과 19, 필레 1,1과 19, 1테살 1,1과 3,2. 6,

없었습니다.

교의 부분에서 바오로 사도는 고대 관습을 여전히 실천하는 사람을 단죄하기보다는, 옛 율법의 멍에에 매어 있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신약성경의 저자이며 옛 율법을 전해 준 천사들과 모세보다 신약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신약성경이 구약성경보다 우세함을 증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실재를 드러내는 그림자로 결론을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면에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절대적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도덕 부분은 이러한 교의의 결론이며, 신앙과 선행의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234

묵상 23

우리를 보호하는 성경

"당신 말씀이 저를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고통 가운데 제 위로입니다." (시편 119,50)

어제 우리는 거룩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 영혼에게 구원이 되는

2테살 1,1에서, 그리고 디모테오 전·후서와 필레 1장에서 바오로는 티모테오를 자신의 협력자, 형제, 영적 자녀라고 부른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라는 주제를 새롭고 독창적으로 다루면서도 바오로의 생각을 담은 위대한 생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히브리인들의 교사는 알렉산드리아의 교육 문화(그리스 헬레니즘)와 그리스어(칠십인역) 성경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르나바 또는 아폴로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바오로의 사상이 이 서간에 미친 영향을 볼 수 있는데도 이는 바오로의 친서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복음이 악마와 육정과 세상에 맞서 어떻게 우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 거룩한 복음은 악마에 맞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거룩한 복음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 곧 살아 계시며 참된 스승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영성체 직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우리 영혼 안에, 당신 진리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한 복음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같은 이미지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에 복음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매우 단순하고 불가분한 방식으로 진리이신 그분이 현존하시는 곳에서는 그분의 선의와 전지전능하심 등으로 끊임없이 현존해야 합니다.

거룩한 복음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훌륭한 동료와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 * *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악마의 나라가 매우 방대했습니다. 거룩한 복음은 천상 스승께서 악마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앞에 서서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켰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 오시기 전에는 사탄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었지만, 기쁜 소식이 선포되자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악마에 사로잡힌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교도인들 가운데서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둠의 왕자인 악마가 복음의 빛이 나타나자 달아난 것입니다.

악마와 복음이 서로 맞서는 한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한 거룩한 교회는 구마 의식을 통해 사제가 네 구절의 복음을 읽고 몇몇 시편을 암송함으로써 악령 들린 가엾은 사람에게서 악마를 쫓아내게 했습니다.

복음은 사탄이 선언한 적입니다.[3]*

II. 거룩한 복음은 욕정을 가라앉히며 둔화시킵니다.[4]* 인간의 마음은 원죄의 결과로 독사들의 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정이 하와의 가련한 아들을 뒤흔들었습니까!

3.* "성경 읽기에 참여하십시오. 옛 원수(악마)가 당신이 성경에 몰두해 있는 것을 보면, 마치 무장한 적 앞에서 도망치듯 달아납니다."(성 베드로 다미아노) [그는 988-1072년 사이에 살았다.(어떤 이들은 그가 1007년에 라벤나에서 태어나 1072년 2월 22일 파엔차에서 선종했다고 한다.) 엄격한 참회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성 베드로 다미아노는, 극심한 도덕적 타락으로 고통받는 교회의 정화와 쇄신을 더 효과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주교와 추기경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단테 알레기에리의 피난처이기도 한 폰테 아벨라나에서 깊은 관상과 고독한 삶을 살았고 전례, 신학, 도덕에 대해 중요한 저술을 남겼다.]

4.* "성경에서 위안을 얻지 못하는 깊은 관상, 불명예, 재난은 없습니다. 그 어떤 위로나 조언이나 다른 치료법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빌라노바의 성 토마스는 1486년 스페인 빌라노바에서 태어났다. 철학을 전공하고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했다. 사제로 수품된 후 원장이 되었다. 발렌치아 대주교로 임명된 그는 온 세상에 선교사들을 파견했으며, 특히 페루에 복음을 전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교관에 고아원을 만들었고, 청소년 사목에 전념했다. 그는 무슬림의 위협에서 교구를 보호했으며, 예수봉헌신학대학을 설립했다. 훌륭한 설교자로서 그는 말보다는 모범으로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다. 동정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학적 깊이는 성 베르나르도에 비견되며, 1550년에 선종했다.]

무수한 여러 악의는 칠죄종(교만, 인색, 음욕, 분노, 식탐, 시기, 나태)을 따라다닙니다. 이를 염두에 둔 성 아우구스티노는 "실제로 인간은 파멸의 덩어리"라고 외쳤습니다.[5]

236 욕정이 끓어오를 때 | 가슴에 복음을 대면 곧바로 큰 위안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신묘한 약처럼 가련하게 흔들리는 마음을 잠재워줄 것입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영적) 아들이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 시편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매우 신심 깊은 크리스토퍼는 이를 받고 무척 기뻐했으며, 언제나 소중한 보물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는 곤경에 처해 낙담하게 되면 늘 시편을 읽곤 했습니다. 영혼이 흔들릴 때마다 시편에서 큰 위로를 받았고, 특히 투옥되었을 때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복음은 욕정의 강력한 진정제입니다![6*] 마음은 그 열망 속에서 드높아지고, 어려움 속에서 굳건해지며, 어둠과 투쟁 속에서 평온하고 고요해집니다.

---

5. 교회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의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수많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노는 이미 언급했다. 성 대 그레고리오와 여러 교부와 교회 박사들도 저주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확언한다. 그가 여러 차례 자유 의지를 변호했음에도 아우구스티노는 아우구스티노회 수사인 루터의 지속적인 예정설에 이르렀다. 원죄 이후 인간은 저주받은 수많은 사람에게 속하므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느님이 원죄를 고려하지 않으며, 믿는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6.* "복음은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신비로운 미덕과 무어라 정의 내릴 수 없는 효능을 지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늘 나라를 관상할 때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책이 아니라 장애를 모르는 힘을 받은 살아 있는 실재입니다."(나폴레옹 1세)
[1769년 8월 15일, 코르시카 섬의 아작시오에서 토스카나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821년 5월 5일 52세의 나이로 남대서양의 영국 식민지인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폐되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복음서를 늘 지니고 다녔으며, 많은 순교자가 그들의 목에 거룩한 종이를 매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에우세비우스는 말합니다.

동정녀 세실리아는 언제나 거룩한 복음서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Virgo semper in corde suo, Evangelium ferebat.고 성무일도는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복음서는 참으로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녀 로마나는 그 복음서의 감탄할 힘으로 남편과 며느리, 황제에게 저항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그녀의 강인한 끈기를 보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으로 인해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서 힘을 얻었을까요? 성모님은 어떻게 해서 낙심하거나 | 실망하지 않았을까 237
요! 성모님은 무척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 구세주께서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 했지만 사흗날에 다시 부활하여 당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Ⅲ. 또한 복음은 세상의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세상이란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느님을 따라 활동하지 않으며, 지옥의 영에 따라 활동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젊은이는 천상 스승께서 더 완전한 삶으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느껴 '예' 하고 대답하며 거룩한 부르심을 따르고 싶어하지만 친척과 친지들한테서 비롯된 어려움에 직면하면 성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이 주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다면, 우리는 복음 말씀으로 악마의 말에 맞서야 합니다!

복음 봉독은 모든 위험과 온갖 거짓말에 맞서 빛을 비추며 힘을 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Vivus est enim sermo Dei et efficax, et penetrabilior omni gladio ancipiti." (히브 4,12)

* * *

결실: 모든 가정과 학교에, 각계각층의 사람들 사이에 거룩한 복음이 놓이도록 할 것.[7] 거룩한 복음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일 뿐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많은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됩니다.

238 **귀감 – 가경자 콘타르도 페리니.**[8] 그는 학생들의 뛰어난 귀감입

7. 이에 대해 AD 136-145항을 읽으라. 여기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비오 10세는 신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의무화했다."(137항)고 하며 "대중에게는 성경은 물론 복음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특별한 사상도 있었다. 복음서를 읽는 것은 거의 비가톨릭인들이 독점했고, 그들은 복음서를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다."(139)고 말한다. 따라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곧 "교리서와 함께 모든 가정에 복음서가 들어가도록 할 것."(140항) "복음서가 가톨릭의 모든 출판물에 영감을 주고 모델이 될 것."(141항) "복음서를 흠숭하는 마음으로 간직할 것."(142항) 복음 전파는 1902년부터 활동한 성 예로니모 수도회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p.203의 각주 9 참조)

8. 콘타르도 페리니(1859년 4월 4일 밀라노에서 태어나 마조레 수나에서 1902년에 선종함)는 1931년에 가경자로 선포되었고, 1947년 4월 13일 비오 12세에 의

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변호한 변증법 교수이며, 여러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던 성인입니다.

그는 밀라노 베카리아 학교에서 연구 과정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동료 학생들이 레크리에이션에 쏟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게 하려고 마음을 썼습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기를 갈망한 그는 암브로시오 도서관장 체리아니 몬시뇰에게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다는 원의를 드러냈습니다. 박학한 고위 성직자는 기꺼이 받아들여 산스크리트어와 콥트어의 기초요강으로 히브리어와 시리아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동료이자 친구인 파올로 마펠리 백작은 성경을 강독하는 페리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는 성경 공부를 아주 좋아하여 성경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읽었고…, 타르수스의 바오로에 대해 매료된 그는 학생 때 이미 열정적으로 낭송했던 성 바오로 서간을 외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후 그는 사도직을 하면서 파비아 대학, 메시나 대학, 모데나 대학, 파르마 대학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교

해 복자품에 올랐다. 평신도 독신자였던 그를 사람들은 "성성과 학문의 별"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이 책(LS)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대학의 교수였다. 그의 유해는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의 주장에 따라 예수 성심 가톨릭 대학교 지하성당에 안치되었다. 페리니는 무엇보다 학문과 신앙, 문화와 종교를 조화롭게 일치시키려는 큰 소망을 지닌 이상적인 선구자였다. 국제적 문화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서 (베를린에서도 공부한) 그는 가톨릭 교수의 모델로 추앙되었으며, "기도를 사랑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는 사회학자 토니올로와 탈라모에게 자극을 받아 "국제 사회과학 및 보조 학문 저널"의 존경받는 협력자로서 가톨릭 작가와 사회과학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연합시키려고 노력했다. "토니올로가 기록한 페리니의 이야기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그의 탁월한 겸손이었습니다. 그의 교의와 선의와 미덕 또한 뛰어났습니다." 페리니 교수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동경했다. "오,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은 참으로 감미롭습니다."

회는 1931년 2월 8일자 교령으로 그를 가경자로 선포하고 시복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희생 : 오늘 유혹과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내 가슴 곧 "복음 말씀은 우리 죄를 씻어준다Per evangelica dicta, deleantur nostra delicta."는 복음 말씀을 간직한 심장에 손을 얹겠다.

토빗의 찬가 [#]

영원히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나라도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땅속 가장 깊은 곳 저승으로 내려가게도 하시지만
그 무서운 파멸에서 올라오게도 하신다.
그분의 손을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민족들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너희를 그들 사이에 흩으셨지만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위대함을 너희에게 드러내셨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불의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너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제 그분께서 너희에게 해 주신 것들을 보고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239 의로우신 주님을 찬미하고
영원하신 임금님을 높이 받들어라.
나는 내 하느님을,
나의 영혼은 하늘의 임금님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위대함을 즐거이 알린다.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분께 말씀을 올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그분께서는 네 자녀들의 행실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의인들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올바로 찬양하여라.
영원하신 임금님을 찬미하여라.
네 성소가 다시 기쁨 속에 지어지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대대로 영원히
모든 유배자를 네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를 네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빈다.
(토빗 13,2-10)[9]

독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9. 번역본의 구절은 원본에 따라 번역된 불가타의 라틴어 원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토빗기 13장"을 참조로 요약하여 표시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마르 8,34-38; 마태16,28)

기 도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음모에 저를 넘기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소서. 누가 제 생각에 채찍질을 하고 제 마음에 지혜로운 교훈을 | 내려 제 잘못을 그냥 두지 않고 저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까? 그리하여 제 실수가 불어나거나 제 죄가 넘쳐 나지 않게 되어 적대자들 앞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제 원수가 넘어진 저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게 해 주겠습니까? 또 누가 당신의 자비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도록 해 주겠습니까? 제 생명의 하느님이신 아버지 주님, 저에게 오만한 눈길을 허락하지 마시고 제게서 욕망을 멀리하여 주소서. 식욕과 색욕이 저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집회 23,1-6)

24일
성경과 성직자 양성

도덕 서간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코린토는 52년 성 바오로가 18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한 곳으로, 특히 가난한 이교도들 사이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바오로가 에페소로 떠난 후 코린토 신자들은 다른 이들, 특히 아폴로의 가르침을 듣고 신자들이 분열되었습니다. 에페소에서 코린토 교회에 대한 소식을 처음에는 편지로, 그 다음에는 구두로 접한 성 바오로는 서둘러 긴 편지를 써서 악폐를 근절하고, 코린토 신자들이 제기한 물음들에 응답하고자 했습니다. 이 서간은 아마도 57년에 에페소에서 썼을 것입니다.

서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그는 코린토인들의 분열, 파렴치한 불륜, 교우끼리 다툼에서의 상호 신뢰 부족을 책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코린토 신자들이 제기한 다섯 가지 질문, 곧 결혼과 독신, 우상에게 바친 고기, 종교 모임의 질서, 거룩한 성찬례를 거행하는 예절, 초자연적 은사의 중요성과 가치와 사용, 미래의 부활에 대해 연속적으로 응답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첫 번째 편지 이후 성 바오로는 티토를 다른 제자와 함께 코린토에 보내어 코린토 교회 상황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제자를 아마 필립

피에서 만난 것 같고, 그에게서 코린토의 좋은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변덕스럽고 야심으로 가득하며 사도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고발한 몇몇 사람이 코린토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자신의 행위와 사도직에 대한 긴 옹호문으로, 처음에는 가려져 있다가 후에 공개되었습니다.

242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부분: 가려진 해명. 그는 자신이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고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며 비난을 반박하고 자신의 행동거지를 해명합니다.

둘째 부분: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금에 대한 여담餘談.

셋째 부분: 공개 해명. 그는 자신이 열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적대자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주며 사도로서의 권위를 입증합니다.

이 서간은 아마도 필리피에서 첫 번째 서간 이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아시아 속주의 수도인 에페소는 성 바오로가 자기 전도의 중심지로 선택한 곳입니다. 그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끝낼 무렵 그곳에 가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제3차 선교 여행 동안 이미 세워진 그리스도교회는 부흥되었으나 성 바오로가 떠나자 영지주의 이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수인이 된 사도 바오로는 아시아 교회들, 특히 콜로새와 에페소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첫 번째 구금 생활 동안에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

간,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등 네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교의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활동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곧 유다인과 이교도들이 모두 하느님의 양자가 되도록 교회로 부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느님의 품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운명을 지닙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리스도교 생활 규범을 추적하며 특정 의무는 물론 일반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리피는 성 바오로가 복음을 전한 최초의 유럽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도 그곳을 찾았고, 마지막 여행 동안에도 그곳에 머물렀다고 봅니다.

이 서간은 그가 로마에서 처음 연금되었을 때 에파프로디토스가 필리피 신자들의 이름으로 성 바오로에게 가져다준 관대한 봉헌금에 대해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교리적인 면보다 티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에게 바오로의 투옥을 알리는 소식지에 가깝습니다. 유다인들에 대해서는 암시만 할 뿐입니다.

이 서간은 감옥 생활이 끝날 무렵, 곧 62년 말이나 63년 초에 로마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필레몬은 성 바오로의 친구로 콜로새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친 후 부랑자들과 함께 로마로 탈출한 오네시모스의 주인입니다. 감옥에서

243 성 바오로에 의해 개종한 | 오네시모스는 필레몬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성 바오로의 짧은 편지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감사와 찬미의 간략한 인사를 한 다음 곧바로 필레몬에게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며 오네시모스를 위해 간청합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며, 도난당한 돈을 자신이라도 갚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는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며 다음 번에 방문할 때 손님방 하나를 마련해 달라고 필레몬에게 부탁합니다.

묵상 24

성경과 성직자 양성

"젊은이가 무엇으로 제 길을 깨끗이 보존하겠습니까?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시편 119,9)

우리는 성경이 영적 독서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책임을 이미 말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기와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개인 상황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가 자기 영혼을 위한 풍부하고 건강한 양식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하다면, 사제직에 부름받은 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성경은 특히 하느님의 사목자가 되려고 열망하며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작은 이들에게 성경의 비밀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

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 철부지들 244
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루카10,21; 마태 11,25)

신자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은 사제들에게 속합니다. 사실 주교는 부제를 안수하면서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읽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앙 안에서 신자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수품자에게 확실하게 부여합니다.

성 바오로는 코린토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폴로 편이며, 몇몇 사람은 케파 편이며, 또 다른 사람들은 바오로 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에게서, 다른 사람들은 바오로에게서,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反하여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복음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도록 당부합니다.

거룩한 복음을 읽는 것이 몸에 밴 젊은이는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지어 흔들리지 않는 양성, 곧 온화하고 섬세한 정신으로 튼튼해집니다.

성 토마스, 성 베르나르도, 성 알폰소의 책을 비롯해, 알렉산드로 만초니와 단테처럼 성인은 아니지만 유명한 작가들의 책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아름다움은 무한히 뛰어납니다. 복음을 읽는 것은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거룩한 복음을 읽거나 듣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바로 여러분, 곧 젊은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 아빠스[1]는 18세 때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라는 복음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245 다음 사막으로 들어가 높은 성덕에 이르러 | 행한 기적과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와의 투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도 성 바오로는 제자 티모테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1티모 4,13) 그리고 성 티도에게는 주교로서 지녀야 하는 주요 자질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안수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만 선택하라고 권고합니다.

성 바오로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모세 율법과 예언을 배웠다고 자랑했습니다.

성경의 최고 스승인 성 예로니모는 성직자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격려하기 위해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썼습니다. 또 성직자 네푸티안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십시오. 당신의 손에서 거룩한 교훈을 제쳐 두지 마십시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배우십시오." 위대한 박사는 젊음이 넘치는 영혼들을 양성하는 데 성경이 필수적임을 확신하여,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거룩한 독서에로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마르첼라, 바올라, 알가시아, 아셀라와 같은 로마인 동정녀들에게 쓴 편지에서 늘 성경을 읽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정배들은 거룩한 독서를 더욱 열망하게 되어

1. 성경을 듣고 읽음으로써 변화된 이 위대한 성인의 예는 이 책 pp.147. 155-157. 290. 311에서 여러 번 언급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룩한 박사(예로니모)에게 다른 책도 번역하여 보내 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 * *

일곱 가지 성품 가운데 세 가지 성품에서 | 교회는 성경 읽기와 246
실천, 그리고 가르침을 독려합니다.

독서품을 주는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말씀을 읽는 것은 독서자의 임무입니다. … 말씀을 입술로 읽고, 마음으로 믿으며,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범을 통해 청중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시종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산 이들과 죽은 이들 모두를 위해 서간을 읽을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이 서간들을 받으십시오."

부제에게는 거룩한 복음서를 [그의 손에]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 이들과 죽은 이들 모두를 위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복음을 읽을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이 복음서를 받으십시오."

주교 안수식에서는 성경 전체가 서품을 받는 주교의 손에 전해지며, 성 바오로가 성 티도 주교에게 언급했던 열렬한 권고 전체를 다시 들려줍니다.

교회가 그토록 장엄하게 성경을 읽고 실천하며 설교하도록 권고한다면, 이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뜻합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바에 충실하게 귀 기울이는 사람은 처형을 당해도 결코 패하지 않는다고 성 에피파니오는 썼습니다. "규칙 안에서 인도받는 복음의 사제는 처형을 당해도 패하지 않는다Sacerdos Dei

Evan-gelium tenens et praecepta Dei custodiens, occidi potest, vinci non potest."

* * *

만일 당신이 열렬한 영혼들을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거룩한 복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책은 성소를 불러일으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인쇄된 성경 말씀을 통해 영혼이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며 초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47 젊은이가 성바오로수도회에 들어와 곧바로 성경을 사랑하고 | 성경에 입맞춤하며 기쁘게 읽는다면,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수도회 정신을 지니고 성덕에 이르는 큰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로 주님께 기도하여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을 형성하는 은총을 주시고, 사제직에 부름 받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하나의 하느님,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거룩하게 되십시오. 사도 성 베드로가 쓴 것처럼 사제들은 또 다른 신입니다. "너희는 신이다Dii estis."[2] 성경 말씀과 그 안에 내포된 내용이 아니라면 사제로서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언어로 경전을 이야기하며 쓰도록 합시다.

2. 시편 82,6; 이사 41,23; 요한 10,34.

귀감 – 성 예로니모의 신비로운 꿈.[3] 예로니모는 342년에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12세에 로마에 간 예로니모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고전에 열렬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 키케로, 테렌티우스, 루크레티우스, 세네카를 비롯해 뛰어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계속 읽게 되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비참하다. 저는 키케로를 읽기 전에 단식을 했다. 며칠 밤을 지샌 다음 나의 죄를 기억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플라우투스를 읽곤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또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악마가 나를 유혹하고 있던 사순시기(아마도 375년의 사순절) 한 가운데에서 나는 쉬지 못해 뼈만 앙상한 채 쇠약해진 몸으로 열병에 시달렸다. 휴식이 부족한 내 몸은 무척 지쳐 있어 내 뼈들은 마치

3. '최고'의 성경 박사와 그 자신의 생각에 대한 언급은 pp.96. 152. 176이하. 198. 203. 213. 245. 247. 297에 있다. 예로니모(그리스어로 '히에로뉘모스 Ιερώνυμος, Ieronymos'에서 파생된 히에로니무스는 "거룩한 이름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이다)는 불가타 라틴어 성경의 주요 번역자다. 그의 주요 약력은 예로니모 자신이 쓴 글과 편지들에서 발췌한 393편의 작품을 모아 놓은 「위인들의 생애*De viribus illustribus*」(135번)에서 가져 온 것이다. 347년경 달마티아 스트리도니우스에서 태어나 360년 로마로 가 공부한 후 366년 세례를 받았다. 예로니모의 삶은 세 가지 시대, 특히 동방 시대(372-381), 로마 시대(382-385), 그리고 두 번째 동방 시대로 부각된다. 교황 다마수스의 죽음(384년 12월)과 로마 성직자들과의 강한 긴장으로 예로니모는 동방으로 돌아갔다. 385년 8월, 그는 베들레헴에 자리를 잡았다. 386-393년에는 무엇보다 성경 번역과 주석 분야에서 강력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419년 9월 30일 (또는 420년), 예레미야서에 대해 논평할 무렵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570년 무렵, 익명의 피아첸차 순례자가 예로니모가 바올라와 에우스토키오의 무덤 옆에 있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 아래에 안치되어 있다고 썼다. 이 박사의 삶의 여정은 성경에 대한 사랑과 연구에 그 성덕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함께 붙어 있지 않은 것처럼 소모되었다. 내 장례식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차가워졌다. 남은 온기가 내 심장을 뛰게 했을 뿐이었다. 갑자기 환영幻影에 사로잡혀 재판관 앞으로 인도되었다. 빛이 너무나 눈부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살아있는 광채를 발산했다. 나는 땅에 넘어져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 내가 누군지 물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판관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 거짓말을 하는군. 당신은 키케로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오. 당신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4] 나는 침묵했고, (재판관이 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한 이후) 구타를 당할 무렵 극심한 후회로 시달렸다. 나는 내 안에서 '죽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5]라는 시편 구절을 되뇌었다.

나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외쳤다. 이 외침은 나를 내리치는 가운데 메아리쳤다. 마침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재판관의 발 앞에 엎드려 젊음이 넘치는 나를 용서하고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그리고 이교도들의 책을 다시 읽게 된다면 참혹하게 처벌하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내가 처한 비참함에서 나를 끌어내기 위해 나는 더 많은 것을 약속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맹세하며 그의 이름을 증인으로 삼아 말했다. '주님, 앞으로 제가 세속적인 책을 간직하며 다시 읽는다면 당신을 저버린 사람으로 취급하소서.' 이렇게 맹세하자 그들이 나를 풀어주어 나는 세상으로 돌아왔다. 모든 사람이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놀랐으나 이러한 상황은 나로 하여금 눈

4. 참조: 마태 6,21; 루카 12,34.
5. 시편 6,6; 참조: 이사 38,18; 집회 17,22.

물을 흘리게 하여 내 슬픔은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설득시켰다. 이는 우리를 속이는 헛된 꿈이 아니었다. 나는 그 재판소에 항소했다. 나는 재판소 앞에 엎드려 나를 두렵게 한 그 선고에 항소했다. 그런 고문이 다시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하느님께 바란다. 내가 깨어 났을 때 나는 여전히 구타를 느꼈고, 내 어깨는 여전히 아팠다. 그때부터 나는 세속적인 책을 읽던 때보다 더 열심히 거룩한 책을 공부했다."

주님께서는 최고의 성경 박사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반의 번역과 주석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작은 희생 : 거룩한 작가들의 호칭기도를 바쳐(이 책 끝 부분 참조) 사제직에 부름 받은 모든 이가 거룩한 복음을 사랑하고 읽음으로써 내면화하도록 하겠다.

감사 찬가 [#]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벽과 보루를 세우셨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겨레가 들어가게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라.
한결 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분께서는 높은 곳의 주민들을 낮추시고
높은 도시를 헐어 버리셨으며
그것을 땅바닥에다 헐어 버리시어 먼지 위로 내던지셨다.
발이 그것을 짓밟는다.
빈곤한 이들의 발이,
힘없는 이들의 발길이 그것을 짓밟는다."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당신께서 닦아주신 의인의 행로는 올곧습니다.
당신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저의 영혼이 밤에 당신을 열망하며
저의 넋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판결들이 이 땅에 미치면
누리의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겠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자비를 입는다면
정의를 배우지 못하여
의로운 세상에서도 불의를 저지르며
주님의 위엄을 보지 못하리이다.(이사 26,1-10)

독서

성직자의 자질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 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특히 할례 받은 자들 가운데에 많습니다. 그들이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가르치면서 여러 집안을 온통 망쳐 놓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들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 고약한 짐승, 게으른 먹보들이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의 믿음이 건전해져서 유다인들의 신화, 그리고 진리를 저버리는 인간들의 계명에 정신을 팔지 않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정합니다. 혐오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행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티토 1,5-16)

기도

주님의 집에 들어가려는 갈망

하느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충실치 못한 백성을 거슬러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당신은 제 피신처 하느님이시건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핍박 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실을 보내소서.
그들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이 저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 타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시편 43,1-5)

25일
연옥을 단축하고 복된 희망을 키우는 성경

사목 서간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티모테오에게 보낸 이 서간은 첫 번째 사목 서간입니다. 사목 서간이란 영혼들을 돌보는 사목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교회 통솔에 관련된 지침을 알려줍니다. 편지는 애정어린, 도식적으로 통일시키지 않은, 완전히 주관적인 순서에 따라 생각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사실 짧은 인사말 이후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방법, 회중 기도와 예배의 올바른 자세, 거룩한 사목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이단과 다양한 신자 계층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 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다시 언급하며 특별한 권고와 인사로 편지를 끝냅니다.

이 편지는 64-67년 사이에 쓰였습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첫 번째 편지보다 더 친밀하고 애정어린 이 서간은 67년에 쓰였기에 성 바오로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가 에페소에 남겨 둔 티모테오는 사도 바오로가 로마에서 다시 수감되어 이 서간을 쓸 때 에페소 교회에서 사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네로 앞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 확실하

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사도의 죽음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권고를 결합한 이 온
252 화한 편지는 개인적인 소식도 섞여 있으며, | 바오로의 모범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힘을 얻어 사제직의 은총을 풍요롭게 하라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의무를 완수함에 있어 자신이 전수받은 교리 안에 굳건하게 머물러 싸워야 할 이단에 대한 가르침도 담고 있습니다.

티토에게 보낸 서간. 이방인으로 성 바오로에 의해 개종한 티토는 스승을 수행하여 예루살렘 공의회와 제3차 선교여행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 바오로는 첫 번째 로마 구금 이후 티토와 함께 크레타 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섬에 세운 여러 교회의 조직을 세우기 위해 티토를 그곳에 남겨 두었습니다.

크레타를 떠난 성 바오로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를 방문했고, 64년이나 66년쯤 에피루스의 수도인 데카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데카폴리스에서 이 서간을 써서 자신이 티토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합류하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티토에게 보낸 이 서간은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와 같은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두 서간 모두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문체와 비슷한 어법을 지니고 있으며, 거의 같은 사목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 25

연옥을 단축하고 복된 희망을 키우는 성경

"저는 항상 당신의 가르침을 길이길이
지키오리다."(시편 119,44)

천국은 우리의 모든 희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천국은 하느님을 마주 보고 그분을 소유하며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긴 편지를 쓰신 것은 천국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시편 저 253
자의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시편 27,4) 이렇게 하여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뛰어난 신학자요 철학자인 성 토마스[1]는 그토록 귀중한 수많은 저작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바라느냐는 주님의 물음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천국 외에는 아

1.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4/1225-1274, 도미니코회, 1323년에 시성됨, 1567년 이래 교회 박사로 선포됨, 축일은 1월 28일)는 이 책에 자주 언급된다. (성경의 독자, 학자, 주석가로서 그의 모범에 대해 p.51 이하), (보나벤투라의 동료이자 「아가」의 심오한 전문가 p.91), (성경 교리의 진리와 자유에 대한 그의 생각 p.200의 각주 4), (멋진 책들의 저자 p.244). 교회 박사이자 뛰어난 신학자는 신학교와 교회 내 대학교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알베리오네 신부와 초창기 바오로인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도자요 설교자였던 토마스는 하느님 말씀을 읽고 숙고하는 것(contemplata aliis trader: 자기 묵상의 결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사상가로서 그는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앙, 자연과 은총의 통합을 시도했다. 대학교 특히 가톨릭 학교의 수호성인인 토마스는 명확하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 대가로서, 계시된 말씀의 신비와 관련된 지성을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펼치는 역량을 갖추었다.

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Non aliud nisi te."

둘째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불행히 연옥에 떨어지더라도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는 곧 하느님의 얼굴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 *

성경은 무엇보다 인간이 자신의 종말과 자신이 창조된 이유를 깨닫게 한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곧 우리의 종말에 대해 600번이나 언급합니다.

천상 스승은 하늘 나라에 대한 매우 아름다운 비유를 몇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성경 전체가 인간은 천국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모두 우리에게 잘 살고 악을 피할 것을 끊임없이 권고합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지닐까요? 어느 날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로 자주 표현되어 그가 잘못
254 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합니다. "계명은 등불이고, 가르침은 | 빛Mandatum lucerna est, et lex lux"(잠언 6,23)이며, 심판 날에 모든 사람을 그 빛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성경에 담긴 규정에 따라 행동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리라."(스바 1,12)[2]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 말씀은 제

2. "Scrutabor Jerusalem in lucernis."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Lucerna pedibus meis, verbum tuum, et lumen semitis meis."(시편 119,105)

천국으로 가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분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시는 분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아,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요! 그는 이 땅의 비참함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재빨리 터득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을 얻으려는 결심을 세우고 실천할 것입니다.

성 바실리오는 성경에 대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은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영혼에 가장 강력한 보약을 조제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약국"이라고 했습니다.

* * *

둘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연옥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에서 하느님, 곧 천국에 대한 복된 희망을 자연스럽게 키워줍니다. 경박하고 속된 내용의 책을 읽는 사람은 세속적 사고와 욕망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그의 지성의 눈은 어둠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느님을 묵상하고 거룩한 신비에 맛들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선 오랫동안 연옥에 머물러 정화된 다음에야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 두 눈
255 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하느님을 마주보며 관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노바의 성녀 가타리나가 연옥에 대해 쓴 책을 읽으면, 연옥에 있는 가엾은 영혼들이 하느님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엄청난 고통

을 겪고 있음을 곧바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은 분명 기쁨을 줄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마태 5,6)[3]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복된 사람들은 신비에서 신비로 옮겨갈 것이며, 하느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히브리 11,6)[4]

그의 눈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와 함께 태양을 향해 높이 날아갈 때부터 태양 광선에 익숙해진 눈처럼 강력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주님의 영원한 참행복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즐겨 묵상합니다. 언젠가 죽게 될 육체에서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느님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드높은 신비를 묵상하는 데 익숙해지는 만큼 그는 더 빨리 하느님께로 곧바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신비를 알고자 열망했던 복음사가 성 요한 옆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을 관상하기 위해 날아오름의 경이로움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의 복음은 얼마나 드높은 숭고함으로 시작되는지요! 그는 하느님의 본성에서 출발하여 | 영원한 말씀Verbo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에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러한 숭고함 앞에서 우리는 성 바오로와 함께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로마 11,33)[5] 하고 외

3. "Beati qui esuriunt, et sitiunt justitiam: quoniam ipsi saturabuntur."

4. "Inquirentibus se remunerator sit."

5. 인쇄 오류로 인해 원서는 "로마 21,33"로 표시되었다.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책을 펼쳐 읽어 봅시다. 성경을 읽기 위한 준비는 성경을 펼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펼쳐 영원한 축복을 증대시켜 주는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찌우도록 합시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했듯이 "성경의 교리는 학문 중의 학문, 양식, 대천사의 보양식, 사도들의 영광, 원로들의 신앙, 예언자들의 희망, 순교자들의 면류관, 동정녀들의 힘, 수도승들의 위로, 주교들의 안도, 사제들의 진료소, 자녀들의 입문서, 과부들의 교리, 결혼한 사람들의 아름다움, 죽은 사람의 부활,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보호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다워지고, 소망으로 굳건해지며, 사랑으로 강화되는 교리입니다. 이는 "누구든 성경을 발견하면 생명을 얻고 주님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교리입니다.[6*]

올바른 지향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는 감탄의 눈길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지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아직 지상에 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귀감 – 성 베다. 그는 영국과 교회를 자신의 거룩함과 저술로 빛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심과 학문의 가르침을 받은 그는 |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뛰어난 자질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도 서원을 통해 자신을 주님께 일찍 봉헌했으며, 동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학문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소명을 통해 추구한 것은 허영이나 자아 만족이 아

6.*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 28.

니었습니다. 그가 영문학을 공부한 것은 헛되지 않았고, 그는 단순히 인간적인 교양을 위해 학문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과 성경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위해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이 배워 박학했지만,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겸손한 학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연구는 널리 알려져[7] 요크York[8] 대주교는 그를 자주 불러 함께 성경을 읽고 풀이하며 영적인 문제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여섯 시간씩 성경을 읽었고, 성경에 대해 깊이 연구했으므로 후에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쓰거나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인 성경 주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성경 주해가들이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교회에서 사제들에 의해 복음과 서간처럼 읽혀졌는데, 그의 책들은 지혜로 가득하고 수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희생 :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통회의 기도를 바칠 것.

7. 735년, 그가 선종하기 얼마 전, 영국 교회사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작품 목록을 제출하면서 베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요약해 보여주었다. "저는 한평생 웨어머스(Wearmouth) 수도원과 재로(Jarrow) 수도원에서 지내면서 성경 공부에 전념했고, 수도회 규칙의 가르침을 따르며 날마다 성당에서 찬미가를 바쳤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이 늘 즐거웠습니다. … 오, 선하신 예수님, 당신은 당신 학문의 말씀을 제가 온화하게 그려내게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제가 모든 지혜의 샘이신 당신께 나아가 당신 앞에 서게 하소서." 베다는 무엇보다 성경을 읽었다. 그의 주해 작업, 성경에 대한 통찰은 그를 초기 라틴어 중세 시대의 주요 성경 주해 가운데 하나가 되게 했다.

8. 원본에는 Jork라고 되어 있다.

찬가 중의 찬가 [#]

주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며 당신 이름을 찬송하리니
당신께서 예로부터 세우신 계획대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기적들을 이루신 까닭입니다.
성읍을 돌무더기로,
요새 도시를 폐허로 만드신 까닭입니다.
이방인들의 성채는 더 이상 성읍이라 할 수 없고
다시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하리이다.
그리하여 힘센 겨레가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포악한 민족들의 도시가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당신께서는 힘없는 이들에게 피신처가,
곤경에 빠진 가난한 이들에게 피신처가 되어 주시고
폭우에는 피난처, 폭염에는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포악한 자들의 기세는
겨울에 쏟아지는 폭우와 같고 **258**
메마른 땅에 내리쬐는 폭염과 같습니다.
당신께서 이방인들의 소란을 잠잠하게 하시어
폭염이 구름 그늘로 스러지듯
포악한 자들의 승리 노래가 스러지리이다.(이사 25,1-5)

독서

숨겨진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마태 13,44-52)

다윗의 기도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당신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이 위대한 일을 모두 이루시고 그것을 당신 종에게 알려주신 것은, 당신의 말씀 때문이며 또 그것은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2사무 7,18이하)

26일
성경과 거룩한 전례

성 소 야고보

성 소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 소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다른 야고보는 사도 성 요한의 형으로 대 야고보로, 그는 42-44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 의해 참수됐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친척인 클로파스와 마리아의 아들인 소 야고보는 유다, 시몬, 요셉[1]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촌입니다. 사실 복음에서 그는 자주 주님의 형제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성모님이 예수님 외에 다른 자녀를 가지지 않으셨고, 복음은 형제와 사촌에 대해 '형제'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하신 후 그에게 나타나셨고, 후에 그는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선출된 것 같습니다.

약 30년 동안 그는 예루살렘에서 감독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신중하고 거룩한 그는 자신의 적대자인 유다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 바오로는 그가 교회의 기둥 가운데 하나라고 하며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방문했습니다.

그는 62-64년 사이에 율법교사와 바리사이들에 의해 시작된 민중의 폭동으로 순교했습니다. 그의 축일은 사도 성 필립보와 함께 5월 3일에 지냅니다.

---

1. 참조: 마태 13,55; 마르 6,3.

260

성 야고보 서간

성 야고보 서간은 이교도 국가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박해를 받는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부합하도록 독려하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 성 바오로의 몇 가지 표현을 잘못 해석한 일부 사람들 — 시몬과 같은 사람들,[2] 니콜라오스와 같은 사람들[3] — 을 경계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성 야고보는 이처럼 파괴적인 생각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다른 여러 미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그 가운데 의로움과 사랑을 강조하며 선행이 없는 믿음은 헛되며, 지식과 교리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서간은 편지라기보다는 도덕적 권고 형식을 취합니다.

이 서간은 간략한 인사말에 이어 항구함, 행동이 따르는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권고입니다. 교사가 되기를 열망하여 참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를 말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평화와 일치를 권고한 다음 몰인정한 부자들들 경고하고, 인내와 맹세에 대해 말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특히 질병이 있는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처

2. 사도 8,9-24: 시몬 이야기와 시몬과 같은 사람들의 기원.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p.270에서 "시몬과 같은 사람들 Simoniacs"이라고 언급하는데, 아마도 신부는 "니콜라오스와 같은 사람들 Nicholaits"이라는 표현과 함께 여전히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

3. 적어도 서로 다른 두 종파에 속하는 영지주의자들. 하나는 안티오키아 출신 집사 니콜라오스(사도 6,5)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도 시대에 일어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르벨로 영지주의와 연결되어 기원후 1-2세기에 번창했다. 묵시록(2,6.14-15)에서 비난받은 첫 번째 부류는 우상을 숭배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하였고, 첫 번째 부류와 유사하게 보이는 두 번째 부류는 이집트의 영지주의에 속한 것으로, 불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신해야 하는 방법을 언급하며,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고로 끝맺습니다.

60년 경에 예루살렘에서 쓰인 이 편지는 마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실천이 따라야 하며, 의로움은 율법에 따른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행위에서 온다는 성 바오로의 생각을 당시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기에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1

묵상 26

성경과 거룩한 전례

"당신 법이 놀랍기에 제 영혼이 그것을 따릅니다."(시편 119,129)

우리는 이미, 성경이 우리 지성을 위한 빛, 우리 의지를 위한 길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위한 힘이요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례의 주요 목표이기에, 곧 성사와 준성사를 통해 우리의 성화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우리 마음에 얻어주는 것이기에, 은총을 바라는 길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달의 세 번째 부분을 다루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례가 무엇인지,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례와 성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 *

거룩한 전례란 "교도권에 의해 이루어진 공적 예배 행위의 복합 형태"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전례는 이러한 공적 예배의 모든 것을 내포하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전례 행위와 물품, 전례 장소와 시간 등의 여러 요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례 거행자**는 미사 때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성직자
262 를 보조하는 낮은 단계의 성직자, | 곧 사제를 보조하는 부제입니다. 사제는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는 기능을 지닌 반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서품 계열에서 사제 위에 가장 높은 단계의 주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례 수행원들은 전례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 예를 들어 행렬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입니다.

전례 행위는 성가, 강복, 축성, 봉헌 등의 합법적인 예식과 함께 거행하는 거룩한 미사, 성사와 준성사의 집행, 성무일도 기도, 행렬 등을 말합니다.

전례 물품은 여러 거룩한 예식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입니다. 이 중에는 성합과 성반처럼 축성된 것과 십자가, 상본, 그림, 의복, 물, 향처럼 단순한 강복을 받은 것들입니다.

전례 장소는 바실리카(대성당), 성당, 성전, 경당, 기도원, 수도원, 공동묘지 등입니다.

전례 시기에는 무엇보다 전례력이 있는데, 그 놀라운 전례 주기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 생애의 특별한 시기, 다양한 성인 축일, 성무일도 기도를 바치거나 거룩한 희생 제물을 바치는 등

다양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각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귀중한 영적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전례를 이루도록 기여합니다. 전례는 20세기 동안 교회 내 예식에 몰두할 수 있었던 성령의 영감과 인도를 받은 교회가 아름답고 신심 깊으며 거룩하게 되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이 | 그 순수하고 풍요로운 샘물을 마 263
시며 스스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묵상으로 준비된 전례 형식에서, 몇 백 페이지에 이르는 특정 신심 서적이 줄 수 없는 신심의 풍성한 샘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교회가 성경에서 교회 내 모든 전례를 이끌어냈다는 사실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례는 거룩한 책이 지닌 힘과 능력을 공유합니다.

1.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전례에는 성무일도, 미사 경본, 의식서, 예식서, 장엄 미사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을 구성하는 단어의 3분의 2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많은 것을 사제들에게서 듣게 되는데 사제들의 저술도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거나 읽은 내용의 상당 부분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전례에는 매우 아름다운 예식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예식의 본질적인 부분은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식은 사실 거룩한 세례성사가 히브리인들의 할례를 대신하는 것처럼, 예전 방식으로 거행되지는 않지만 전혀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완성되었을 뿐입니다. 교회는 사제들이 성무로 바쳐야 하는 성무일도 시간경의 분배까지도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전례는 모두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 전례가 지닌 많은 기능과 예배 행위는 거룩한 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펼칠 때 얻게 되는 온갖 아름다움 속에서 발견됩니다.

264 3. 교회는 교회 전례의 모든 정신과 혼, 복음적 전례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전례를 성경에서 취합니다.

* * *

전례 말씀과 예식과 물품 속에 깃든 전례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예식이나 성가들로 전례를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 더욱이 사제직에 부름받은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훨씬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묵상은 전례 물품과 행위와 말씀에 멈추어서는 안 되며, 여러 서적과 번역물을 이용하여 모든 전례 예식과 말씀이 지닌 정신 속으로 파고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까지도 전례는 일곱 개의 인장으로 봉인된 유명한 묵시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님 덕분에 전례의 비밀과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길을 활짝 열어 준 수많은 번역물과 서적과 전례 잡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본당에서 신자들이 거룩한 미사, 성무일도 저녁기도, 모든 전례 행사, 특히 성주간 전례 때 전례서를 손에 들고 영혼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전례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제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 더욱 탄복할 만한 전례 행위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모든 거룩한 전례 정신과 목표, 곧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발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귀감 – 백성 앞에서 율법을 읽은 에즈라. 일곱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다. 그때에 온 백성이 일제히 '물 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 가져왔다. 때는 일곱째 265
달 초하룻날이었다. 그는 '물 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곁에는 마티트야, 세마, 아나야, 우리야, 힐키야, 마아세야가 오른쪽에, 프다야, 미사엘, 말키야, 하숨, 하스바따나, 즈카르야, 므술람이 왼쪽에 섰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러자 예수아, 바니, 세

레브야, 야민, 아쿱, 샤브타이, 호디야, 마아세야, 클리타, 아자르아, 요자밧, 하난, 플라야 등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 백성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 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 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 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레위인들도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하며 온 백성을 진정시켰다.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느헤 7,72ㄴ－8,12)

작은 희생 : 누군가와 성경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성경을 읽도록 조언을 해줍니다.

다윗의 찬가[#]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오물 진창에서 들어 올리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시고 **266**
내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네.
내 입에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은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신뢰를 두며
오만한 자들과
거짓된 변절자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기적과 계획들을 많이도 행하셨으니
그 누구도 당신께 견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알리고 말하려 해도
헤아리기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께서는 희생과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의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소서,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에 저에 대하여 쓰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즐겨 이룹니다.
제 가슴속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당신 정의를 제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않고
당신의 성실과 구원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자애와 진실을 큰 모임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게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지 않으시니
당신의 자애와 진실이
항상 저를 지켜 주리이다.
셀 수조차 없는 불행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제 죄악들이 저를 사로잡아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제 머리카락보다도 많아
저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주님, 저를 기꺼이 구하여 주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 목숨을 잡아채려 노리는 자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고
제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치욕을 느끼게 하소서.
"옳거니!" 하며 저를 놀려 대는 자들은
부끄러워 몸이 굳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찾는 이들은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구원을 사랑하는 이들은 항상
"주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아뢰게 하소서.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지체하지 마소서!(시편 40,2-18)

267

독서

성찬례 제정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놓은 큰 이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

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그러자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루카 22,7-23)

기 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내 앞에서 걸은 것처럼 네 자손들도 내 앞에서 | 걸으며 제 길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네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1열왕 8,23-30)

27일
신심의 샘인 성경

성 베드로

요한 또는 요나의 아들인 시몬은 갈릴래아 벳사이다 출신입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그는 동생 안드레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물고기의 기적 이후 그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사도로, 사도들 중의 으뜸 사도로 지명되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그는 언제나 첫 번째 사도로 기억됩니다. 그는 거룩하신 스승께 대한 큰 믿음과 열렬한 사랑을 지녔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던 그는 [예수님의] 수난 때 위기에 몰리자, 최후의 만찬에서 표명한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의 잘못을 보속했습니다.

그는 성령 강림 이후에 앞장서서 대담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안티오키아에 가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사도 12,17) 이때 그가 로마로 갔고, 영원한 도시에

머물렀음을 로마의 성 클레멘스, 성 이레네오, 테르툴리아노와 성 이냐시오 순교자와 같은 초기 그리스도인 작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70 그가 또 다른 사도적 여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승은 67년에 성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축일은 6월 29일입니다.

성 베드로가 쓴 서간은 두 편입니다.

성 베드로의 첫째 서간.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아마도 서기 63년에서 65년 사이에 로마에서 쓴 것 같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 전역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서간은 그 박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에 관련하여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간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권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 규정에 따른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로들에게는 깨어 있을 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원로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하며, 그리스도인다운 덕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드높고 진지하게 표현된 단순한 교리와 실천 사항들은 환난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면서 독성죄와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성 베드로의 둘째 서간. 4세기까지 전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 서간은 성 베드로가 쓴 것이 분명합니다. 성 베드로만이 쓸 수 있는 자신의 이름과 여러 세부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 서간에 비해 글의 형식이 다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 베드로가 자신의 서간을 쓸 때 여러 필사자들과 함께했다는 사실로 설명이 됩니다.

둘째 서간은 67년 로마에서 보낸 첫 번째 서간과 같은 수신자들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간의 목적은 선행의 필요성,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자들과 맞서 싸워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간은 성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권고를 하며, 첫째 서간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신의 열렬한 정신을 드러내는 유언입니다.

271

묵상 27

신심의 샘인 성경

"사랑하는 당신 계명을 향해 제 두 손 쳐들고 당신의 법령을 묵상합니다."
(시편 119,48)

신심이라는 말은 기도, 덕행, 우리가 낮 동안 하는 선행 그 자체 등 경건한 실천 행위를 모두 일컫습니다.

성경이 신심의 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묵주기도를 암송하거나 성체를 모시는 것처럼 외적인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행위를 활기차게 하는 영(혼)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이 없

다면 모든 신심 행위, 심지어 성찬례처럼 지극히 거룩한 행위일지라도 무척 아름답게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대리석 조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치며,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하는 영혼은 신심 깊은 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은 입으로 말하는 구송기도나 외적인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우리 의지가 하느님의 뜻과 늘 하나 되려는 데에 있습니다.

사도 성 바오로가 가르치는 것처럼 신심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Pietas ad omnia utilis est."(1티모 4,8) | 신심은 죄없는 어린이들을 도와 그들이 언제나 순수하게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그들 삶의 매우 민감한 단계인 청소년 시기에 겪게 되는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어른과 노인, 주인과 하인에게도 유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심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며, 선종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272

신심은 번영과 불행, 풍요와 불행,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심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도와 굳건하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 *

신심의 덕은 주로 감실과 성경이라는 두 개의 샘에서 솟아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샘에 집중하여 묵상할 것입니다.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1]은 영혼의 구원에 "거룩한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오도루스[2]는 "거룩한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최상의 이로움을 준다."고 단언했습니다.

신심의 영은 영적 독서라는 자양분을 지닙니다. 수덕의 모든 대가들은 영적 독서를 권장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영성 서적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묵상에서 제가 온전히 몰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에서 저의 가엾은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그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빛, 신비롭게 숨어 있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라고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3]는 썼습니다.

---

1. 다마스쿠스의 요한(650년경-750년경, 사제, 교회박사). 저술가이며 연설가로 서교의, 주석, 윤리, 수덕학, 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시의 움직임과 자기 이야기를 듣는 대중의 기대에 발맞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2. 카시오도루스(490년 무렵 태어나 583년 무렵 선종함). 로마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인 그는 칼라브리아에서 외딴 시리아 출신의 상원 의원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아버지는 동 고트 임금인 테오도리쿠스가 통치하던 행정 구역의 지사였는데, 카시오도루스는 아버지와 같은 경력을 이어갔다. 535년 그는 (교황 아가피토와 협력하여) 로마에 그리스도교 대학을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537년 은퇴하여 신학 공부에 전념했다. 그는 칼라브리아에 있는 그의 가족의 땅(스퀼라체)에 비바리움(Vivarium)이라 불린 수도 공동체를 설립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수도승들의 지적 활동에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비바리움은 7세기 이후 살아남지 못했지만,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서적을 보존하여 나중에 베네딕토회에 영향을 미친 수도생활의 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카시오도루스는 서양 중세 문명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3.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면(거룩한 얼굴)의 데레사라 불리는 가르멜수도회 회원인 데레사(1873-1897)는 1925년 5월 17일에 시성되었다. 비오 12세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라고 일컬은 데레사는 1997년 10월 19일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교회박사로 선포되었다. 데레사가 성덕에 이르는 "전적으

영적 독서는 완덕의 길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진보하고자 하는 사람, 영성 서적을 안내인으로 삼는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영적
273 독서로 가장 많이 권장되는 책은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알폰소, 올리에Olié,[4] 성 이냐시오, 아빌라의 데레사, 스쿠폴리[5]가 쓴

로 새로운 작은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은 1894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무렵 데레사는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이사 66,13)라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만났다. "아! 이처럼 내 영혼을 기쁘게 한, 가장 부드럽고 조화로운 말씀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를 하늘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승강기는 바로 예수님, 당신의 팔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작은 자로 남아 있어야 하며 언제나 더 성장해야 합니다." 데레사는 순수한 은총의 박사로서, 모든 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에 달려 있음을 보았다. 데레사의 또 다른 위대한 깨달음은 코린토 1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사랑에 있다. "사랑은 나의 성소의 열쇠를 찾아 주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몸을 지니고 있지만, 그 모든 지체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고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 교회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은 사랑으로 타오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사랑만이 교회의 지체들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사랑은 모든 성소를 포용하고, 사랑이 전부이며, 모든 시간과 장소를 품어 안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 나의 성소는 사랑입니다."(리지외의 데레사 고문서, Ms B, 전집, 3권, p.223
위에서 인용한 구절은 이 책(LS) 원본에서 다마스쿠스와 카시오도루스의 서로 다른 두 구절처럼 문맥과 관계없이 각주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이 책 본문 가운데 이 부분에 넣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4. 장 자크 올리에(Jean-Jacques Olier,1608-1657, 파리). 사제, 생 쉴피스회 창립자인 그는 예수회 회원들과 함께 공부했고, 그의 영적 지도자는 올리에가 선종하는 순간에도 함께 있었던 빈센트 드 폴이었다. 올리에가 양성 받을 때에도 드러났던 예리한 성찰 능력과 섬세한 정서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 견줄 수 있다.

5. 로렌조 스쿠폴리(Lorenzo Scupoli,1530년 오트란토에서 태어나 1610년 나폴리에서 선종함). 1577년 이래 은둔생활을 하는 테오티노 수도회 사제요 저술가로 활동한 그는 밝혀지지 않은 잘못으로 비난을 받고 고소당했으며, 1585년 총회 교령으로 평신도 수사로 좌천되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영적 대화*Certamen spirituale*」는 1589년 베네치아에서 익명으로 출판되었다. 1610년, 그가 선종하고 며칠이 지난 후 이 책은 처음으로 저자의 이름과 함께 볼로냐에서 발행되었는데 (이미 50쇄가 발행된 때였다.) 「심전: 영적 전쟁*Il combattimento spirituale*」은 탄탄한 교리를 다룬 66개의 장에서 단순하고 실천적인 수덕적 방법으로 수행되는 "영적 전략 처방전"이다. 이 책은 자아부정을 바탕으로 하느님과의 일치로 완성되는 온전한 내적 완덕을 향해 독자를 이끈다.

책입니다. 이 모든 책은 참으로 훌륭합니다만 역시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 더 있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의 원천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적 독서를 위한 최고의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수덕적인 저자들이 가르침을 얻는 가장 명쾌한 원천이며, 그들이 쓴 책들은 그 거대한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개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인내로 이끄는 책 가운데 「욥기」보다 더 좋은 책이 있을까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영혼을 불태우는 기도로 이끌기 위해 「아가」보다 더 효과적인 책이 있을까요?

이를 인식한 탁월한 교황들, 특히 비오 10세, 레오 12세, (현) 교황 비오 11세는 성경, 특히 복음을 날마다 읽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다음은 비오 10세가 1907년 1월 21일 카세타 추기경[6]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건하려고[7]결정한 바

6. 프란치스코 디 파올라 카세타(Francesco di Paola Cassetta,1841년 로마에서 태어나 1919년에 선종함). 그는 로마 신학교에서 신학은 물론 민법과 교회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1865년 8월 10일 사제로 수품된 그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사로 파견되기를 바랐으나, 교회에 순명하여 로마에 머물러 젊은이들의 교육에 전념했다. 그는 주교로 수품되었고, 후에 비오 12세 교황이 된 에우제니오 파첼리에게 서품을 주었다. 그는 공의회성성(지금의 성직자성)과 교육성 장관, 성 로마교회의 사서였다. 추기경으로서 그는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가톨릭 활동을 열렬히 추진한 인물이었으며, 성 바오로의 흘러 넘치는 사랑을 자기 삶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는 가족에게서 상속받은 많은 유산을 가장 가난한 선교지역을 위해 포교성성(지금의 인류복음화성)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겼다.

7. 알베리오네 신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제기되는 모든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건하십시오Instaurare omnia in Christo.'라는 답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러한 재건에서 비롯되지 않을까요?"(Pr 5, p.28. 1954년 5월 23일, 비오 10세 시성식을 기념하여 바오로인 공동체에게 한 강론) 1960년 4월, 아리차에서 열린 바오

로 그때, 신자들에게 그저 자주가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복음서를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안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복음 봉독이야말로 대망의 재건에 도달하도록 하고, 또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가장 훌륭한 후계자인 베네딕토 15세도 성예레니모회[8] 총원장이었던 카세타 추기경에게 글을 쓰면서 거룩한 복음을 읽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그 사회에서 일탈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은 그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 오늘날 사회의 일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의 활동이 이 사회 안에서 심각하게 잊혀져 버린 데서 비롯되는데, 사람들은 더는 그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영감을 거기서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이처럼 강력한 악에 대해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주의에 의해 길을 잃은 가정에서 복음 봉독이 일상적으로 실행되도록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성예로니모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하는 총원장이 되길 바랐고, 1914년 10월 8일 두 번째 교황 문헌을 반포하면서 괄목할 그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그 수도회가 "그 자체로

274

로인 피정에서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본받고 기도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합되며 요약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건하십시오. 모든 것 안에서 항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스승은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omnia instaurare in Christo – In ipso omnia constant – Magister vester unus est Christus."(「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UPS II, pp.243-244) 며칠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아들은 첫 번째 건물(피조물)을 고치러, 다시 말해 인간성과 그 능력을 재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지성(그분은 진리이십니다)을 재건했고, 의지(그분은 길이십니다)를 재건했으며, 감정(그분은 생명이십니다)을 재건했습니다."(「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UPS I, p.369)

8. p. 203의 각주 9 참조.

매우 훌륭하고 그분을 몹시 기쁘게" 한 것을 치하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복음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룩한 복음 그룹Gruppi del Santo Vangelo"을 추인하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이는 현 교황 비오 11세의 활동을 통해 오늘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하며 폭넓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그리스도교 신심이 주는 위안을 다시 일깨우게[9] 된 것은 바로 거룩한 복음에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신심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기에 그 샘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얻는 물은 더 깨끗하고 신선할 것입니다. 영성 서적은 복음에서 더 많은 것을 길어낼수록 영혼에게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수덕 신학과 영성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듣거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손에 성경을 들고 펼쳐 본다면 그 안에서 참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진리를 전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영성 서적은[10] 성경에서 비롯되는 기원과 생명과 따뜻함을 주는 햇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9.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도덕적 영적 "깨달음"에 대한 예가 p.21에 소개된다. 여기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복음을 한층 열심히 읽음으로써 얻는 깨달음에 대해 말한다. 「교회생활 안에서의 성경*La Bibbia nella vita della Chiesa*」(1995, CEI) 9항은 이렇게 말한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의 세 가지 근본적 표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곧 하느님 말씀의 근원에서 이끌어낸 근본적이고 내적인 믿음의 쇄신,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느님 말씀의 우선성을 의식적으로 긍정하며 받아들임, 그리고 성경이 지지하는 교회 일치 여정의 촉진입니다."

10. "거룩한 책을 읽는 사람은 거룩한 언어를 취하고, 거룩한 언어를 말하며, 거룩한 효과를 냅니다. … 많은 설교, 많은 책, 많은 권고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1935년 1월 15일, 「출판 사도직 협력자회*Unione Cooperatori Apostolato Stampa*」 1항, p.3) "장미수처럼 감성적인 신심을 조장하는 수덕주의 서적을 찾지 말고 복음, 곧 탄산수 같은 신심을 찾으십시오."(1941년 6월, IA 1, p.34)

275 영혼이 미지근하면 | 영적 따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신심의 영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가 성경을 받쳐 들고 읽게 하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마음이 거룩한 열망으로 타오르며, 그의 지성은 거룩한 빛으로 비추임 받고, 그 빛은 의지를 통해 활기찬 결심을 맺게 할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복음은 태양이며,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인간 피조물은 행성이요, 그 행성의 위성일 뿐입니다."(파피니)[11]

바로 그곳, 거룩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스런 마음이 맥박처럼 뛰고 있습니다. 얼른 가서 그 마음 안에 머물러 쉬도록 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 베르나르도가 다음과 같은 의미 깊은 말을 한 까닭입니다. "제가 무엇을 읽거나 글을 쓴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읽거나 쓰지 않는다면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글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할 것을 제안하는 구일기도나 삼일기도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한 문장이나 짧은 구절만으로도 영

11. 조반니 파피니(1881년 피렌체에서 태어나 1956년에 선종함). 그는 젊어서부터 틀에 박힌 연구에는 뜻이 없었고, 독서에 심취하였으며, 교의에 대한 열성적인 문화 조직가가 되었다. 실용주의에서 미래주의, 파시즘, 가톨릭교에 이르기까지 모험하며 돌아다닌 그의 모험적인 방황은 모든 확실성과 가치를 탕진한 세계에서 활동하는 지적인 그의 불안한 의식을 드러낸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그에게 깊은 의식성찰을 하게 하여 마침내 공적인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이러한 결말은 극렬한 무신론자 지성인이 회심하는 귀감으로 놀라운 호응과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알려졌다. 1921년에 쓴 「그리스도 이야기*La Storia di Cristo*」로 그는 국제적 명성을 크게 얻었다. 그 생애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오랜 병고로 움직이지 못했고, 시력과 언어까지 상실했지만 학자요 저술가로서의 열렬한 활동을 앗아가지는 못했다. 이 각주에 실린 파피니에 대한 인용문은 본문에 넣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혼을 미지근한 상태에서 열렬하게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며,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일어난 것처럼 죽었을지라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는 성경말씀을 통해 회심한 성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참으로 많은 책이 있지만 중요한 책은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내면화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어느 날, 주님은 에제키엘에게 "사람의 아들아, 네가 보는 것을 받아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에제 3,1 이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가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고 에제키엘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날마다 성경을 읽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본받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양분을 많이 얻어 | 우리 영혼은 276
선善의 여정에서 더 굳건하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귀감 –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 성 치릴로는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옹호한 가장 유명한 박사이자 수호자이며, 천주의 모친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모독한 불경스러운 네스토리우스를 굴복시킨 승리자입니다. 성 치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심을 폭넓게 논의하고 증명했기에 강생의 박사라고도 불립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성 치릴로는 첼레스티노 교황의 지명을 받아 교회 일치 공의회를 개회하고 주재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성인은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장엄한 설교를 하였는데, 성경의 여러 본문과 결합된 명확하고 간결한 논거를 통해 심오한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198명의 주

교들은 만장일치로 네스토리우스를 단죄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전기 작가는 성 치릴로의 활기차고 담대한 성격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매우 깨어 있는 주교요 사목자였기에 주교 임기동안 자신이 돌보는 양떼 가운데 사나운 늑대가 처음 나타났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며, 이단이 그들 가운데 침투하는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성 치릴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수들에 대항하는 그 뛰어난 학문(지식)과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분명 그 뛰어난 내용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매우 자주 읽었고, 그가 가장 즐겨 찾은 위안은 바로 성경 봉독이었습니다.

그가 쓴 가장 귀중한 작품은 열왕기, 시편, 잠언, 아가, 예레미야, 이사야, 에제키엘, 다니엘, 열두 소 예언자, 네 복음사가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가 쓴 여러 작품 가운데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증명하는 매우 아름다운 책을 기억합니다. 그 소책자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주어진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최상의 성경 구절을 한데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신학박사인 성 치릴로의 축일은 2월 9일입니다.

작은 희생 : 특별한 은총을 바란다면 삼일기도나 구일기도를 시작하여 날마다 복음 한 구절을 읽도록 합시다.

찬 가 [#] 277

아, 구원을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정녕 당신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치욕 속에 물러가리라.
이스라엘은 주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영원한 구원이어라.
영원무궁토록
너희는 부끄러움도 수치도 당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 그분께서 하느님이시다.
땅을 빚으시고 땅을 만드신 분
그분께서 그것을 굳게 세우셨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혼돈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빚어 만드셨다.
내가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숨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두운 땅 어느 구석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혼돈 속에서 찾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
나 주님은 의로운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민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 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떠받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각없는 자들이다.
말해 보아라. 설명해 보아라.
함께 의논도 해 보아라.

누가 이것을 옛날에 들려주었느냐?
누가 이것을 예전에 알려 주었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
나밖에는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땅끝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정녕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맹세하며 말하리라.
"주님께만 의로움과 권능이 있다.
그분께 격분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 앞에 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와 영예를 얻으리라."(이사 45,15-25)[12]

독서

성찬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12. 원래 이 책(LS)에는 이사 45,15-26로 되어 있다. 불가타 번역본에 나오는 이사야서 45장은 26절까지 있는데, 새 번역본은 25절까지 있다. 23절과 24절 내용이 23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1코린 11,23-32)

기도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서 만물 위에 드높으십니다.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저희의 하느님, 저희는 지금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당신 앞에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조상처럼 이방인이고 거류민입니다. 저희의 나날은 이 땅 위에서 그림자와 같고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은 다 당신 손에서 받은 것으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당신 백성도 당신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 백성이 마음에 품은 이 같은 생각을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니게 해 주시고, 당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십시오. 제 아들 솔로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어, 그가 당신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제가 준비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1역대 29,10-19)

28일
성경 읽는 방법

성 요한의 서간들

성 요한의 첫째 서간. 성 요한의 첫째 서간은 넷째 복음(요한 복음)의 서문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이 서간은 넷째 복음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따라서 이는 특정 교회들만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서간은 에페소에서 쓰였으며, 요한 복음의 입문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간은 특히 유다교와 철학자들과 합세하여 구세주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영지주의가 탄생한 소아시아와 관련됩니다. 그들은 하느님과의 일치는 그저 도덕적인 면에서의 일치일 뿐이라 스쳐 지나가 버린다고 하거나 삼위일체적인 일치를 아예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악의 원리에서 비롯되기에 본질적으로 악 자체인 육체와 하느님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에게는 그 어떤 구원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 구원을 거부했으며, 오로지 교육과 영지(신비 차원에 대한 지식과 이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서간에서 성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중개자, 희생 제물, 은총과 용서의 원천이심을 확인하며 오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 요한의 둘째 서간. 이 서간에는 성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길이가 짧으며, 모든 초대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문체와 교리가 담긴 성 요한의 작품임이 분명합니다. 글을 쓰는 원로는, 사도들 가운데 살아남아 불멸하는 사람으로 여겨진, 존경받을 만한 에페소의
280 원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는 이단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이 서간은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보낸 것이지만, 우리는 그 선택받은 부인이 여성인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 부인의 자녀들이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믿음과 사랑에서 성장하며 이단자들을 경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곧 방문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서간은 성 요한의 말년인 100년경에 에페소에서 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 요한의 셋째 서간. 둘째 서간에서 언급된 내용이 셋째 서간에서도 언급됩니다. 둘째 서간에서처럼 셋째 서간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셋째 서간에서는 '원로'라고 일컫습니다. 1세기 말 에페소에서 쓰인 이 서간은 예전과 같은 이단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령이 된 사도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예입니다.

이 셋째 서간은 (부유하고 열심한 그리스도인) 가이오스가 복음의 일꾼들에게 베푼 환대를 칭찬하고, 디오트레페스라는 사람에 대해 경고하며, 데메트리오스라는 사람을 추천하려는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둘째 서간보다 더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묵상 28

성경 읽는 방법

"당신 말씀이 제 혀에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그 말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시편 119,103)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좋은 효과를 내게 하려면 올바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매우 소중하며 놀라운 효과를 내는 살아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20일째 묵상[1]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갖춰야 할 자세에 대
281 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자세만으로는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구성하는 72권의 책을 읽기 위해 따라야 하는 순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신학적 순서, 우리에게 익숙한 순서, 전례에 따른 순서에 따라 읽을 수 있습니다.

* * *

1. 신학적 순서. 이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제시한 순서에 따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책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레위기, 탈출기 등으로 이어지며 묵시록으로 끝납니다. 이 방법은 가톨릭 출간 성경 발행본에 나와 있습니다.

1. p.199 이하.

* * *

이 방법은 평범한 교양인에게 권장되는데, 참된 지적 소양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과 모든 학구파들이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르익을 때 읽는 것이 더 좋다고 알려진 「아가」는 따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하루에 15분을 할애하면 2년 만에 우리는 평범한 주석이 달린 성경을 전부 읽을 수 있습니다.

* * *

2. 우리에게 익숙한 순서. 이는 많은 수덕 신학 저자가 권고하는 순서입니다. 이는 거룩한 웅변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아우디시오[2]가 무척 선호하며 권장한 것입니다. 이는 신약성경 전체를 먼저 읽습니다. 아우디시오가 말했듯이,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의 모든
282 사제직과 모든 율법은 물론 | 구약성경의 발전과 완성, 온갖 그림자, 모든 인물, 모든 예언이 담겨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유다의 선지자들이 쓴 글을 에워싼 어둠을 없애는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타볼산에서의 변모 사건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환히 빛난 광채는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에 반영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무엇보다 성경의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가장 쉽고 적합한 역사서를 읽은 다음 교훈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난해한 예언서를 읽으라고 권고합니다.

2. Guglielmo Audisio, 「거룩한 웅변의 교훈*Lezioni di eloquenza sacra*」, 토리노 마리에티, 1858-1859. 토리노 왕실 출판사는 1846년에 이 작품의 2권과 3권을 발행했다.

가장 많이 권장하는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네 복음서를 먼저 읽지 않으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읽은 다음 예언서를 읽을 때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단어와 모든 구절에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예언서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됩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의 **역사서**인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먼저 읽습니다.

교훈적인 책들 곧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야고보, 성 유다와 같은 사도들이 쓴 서간 전체를 읽고.

예언서인 묵시록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 구약성경의 **역사서**인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임금들에 대한 네 권의 책(사무엘기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 -옮긴이), 역대기 두 권, 에즈라기, 느헤미아기,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의 두 권의 책을 일고.

교훈서 또는 **지혜서**인 욥기, 시편,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를 읽은 후.

예언서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애가, 바룩서, 에제키엘서, 다니엘서와 같은 대예언서와 열두 소예언서들을 읽습니다.

* * *

3. 전례에 따른 순서. 교회가 정한 순서로서, 모든 사제는 이 순 283
서를 따라야 합니다.

완전하고 지혜로운 스승인 교회는 사제들이 거룩한 미사를 드

리며 성무일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 주요 성경 구절을 봉독하게 됩니다. 모든 사제는 죄를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을 읽을 의무를 지닙니다. 의식적으로 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대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교회 사제들이 하느님께서 그 큰 사랑과 지혜로 준비해 주신 식탁에서 양분을 얻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혼들의 착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영혼들의 목자가 목초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유익한 목초지로 양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교회 초창기에 사제 서품을 받으려면 시편 전체를 암기해야 했고, 성경의 모든 책을 매우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면 사제로 서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자들은 자신의 목자인 사목자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신자들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뒤를 충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읽어야 할 구절을 세부적으로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대림 시기가 시작되기 전 몇 주 동안, 곧 11월 한 달 동안, 교회는 에제키엘, 다니엘, 호세아, |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카, 나훔, 하바쿡, 스바니야, 하까이, 즈카르야, 말라키와 같은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 메시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예언,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이사야 예언서를 읽습니다.

성탄 시기와 주님공현대축일 전·후에는 로마 신자들, 코린토 신자들, 갈라티아 신자들, 에페소 신자들, 필리피 신자들, 콜로새 신자들, 테살로니카 신자들, 티모테오, 티토, 필레몬,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성 바오로 서간을 읽습니다. 성탄 시기가 끝난 후 칠순 주일과 사순 시기[3]가 시작되면 교회는 창세기를 읽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난 시기가 다가오면 예언자 예레미야의 애가를 읽습니다.

파스카 이후, 교회는 원죄 없는 어린 양의 승리를 언급하는 묵시록을 읽도록 하면서 성 야고보,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유다의 서간을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강림 이후 연중 시기 여정이 펼쳐지면서 여러 역사서와 지혜서가 함께합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왕들에 대한 네 권의 책(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8월에는 네 권의 지혜서, 곧 잠언, 코헬렛, 지혜서, 집회서를 읽습니다. 9월에는 욥기,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처럼 좀더 쉬운 역사서를, 마지막으로 10월에는

3. 주님공현대축일 시기가 지나면 칠순 주일(재의 수요일 전 셋째 주일)이 다가오고, 이어서 재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 시기로 접어드는 한편, 부활절 이전 여덟 번째 주일, 곧 부활절 이전 50일이 된다. 칠순 주일은 부활절까지의 70일을 가리킨다. "칠순 주일과 사순 시기 동안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진지하게 고찰하여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우리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며, 기도와 참회로 속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와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참회함으로써 하느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무익할 것입니다."(비오 12세,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 1947년 11월 20일)

마카베오기를 읽습니다.

* * *

사실 어떤 순서로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 곳이나 펼쳐 첫 구절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박학다식한 성 알폰소가 사용한 방식인데, 그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85 그러나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 교회가 제시하는 방법, 곧 전례에 따른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 성덕과 지식의 여정에서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4]

귀감 – 단테 알레기에리. 단테의 이름은 그의 주요 작품, 곧 그의 작품에 탄복한 후대 사람들이 "거룩한Divina"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불멸의 "희극Commedia"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Divina Commedia*」은 중세 때 단테가 성경에 부여한 흠숭으로, 특히 그의 성경 연구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사실 알레기에리가 그토록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한 것은 아마도 성경에 매우 익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에 구약과 신약에서 발췌하여 성경 구절을 인용했으며, 많은 부분 성 요한과 에제키엘이 본 묵시적 환시에서 가져온 지상낙원에 대한 장엄한 상징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성경과 관련하여 인용한 여러 성경 구절이 널리 알려져 오

4. "Qui sequitur me non ambulat in tenebris."

늘날에도 우리가 흔쾌히 사용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주석을 통해 말했듯이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가르침과 안내를 따르라고 권합니다.

> 그대들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지니며
> 그대들을 이끄는 교회 목자가 있으니
> 그대들의 영혼 구원에 충분하지 않은가![5]
>
>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
> … 성경 진리의
> 이미지들을 일그러뜨리는 칼과 같은
>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랬지요.[6]

단테가 쓴 이 시는 6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매우 찬란한 후광으로 둘러싸여 가톨릭대학교 교재 가운데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아한 시어詩語의 옷, 곧 거룩한 복음과 가톨릭 신학 가운데 가장 숭고한 진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희생 : 이 책 끝부분에 나오는 "성 바오로께 바치는 주간기도"를 바친다.

5. 단테 알레기에리(1265년 피렌체 – 1321년 라벤나), 「신곡」, "천국편," 5곡, 76–78행.

6. 단테 알레기에리, 「신곡」, "천국편", 13곡, 127–129행.

286

창조주 하느님께 바치는 찬가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민족들을 우리 밑에,
겨레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셨네.
우리에게 골라 주셨네, 우리 상속의 땅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을.
하느님께서 환호 소리와 함께 오르신다.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께서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가를 불러라.
하느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뭇 민족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느님 백성이 되어 모여 온다.
세상의 방패들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분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어라.(시편 47,2-10)

독서

항구한 기도의 효과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

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 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1-13)

287

기 도

선택된 백성을 위하여

주님, 기억하소서, 저희가 어찌 되었는지를. 바라다보소서, 저

희의 치욕을. 저희 상속의 땅은 외국인들에게 넘어가고 저희의 가옥들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으며 저희는 아비 없는 고아들이 되고 저희의 어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물을 돈 내고 마셔야 하고 저희의 땔감도 값을 치르고 들여야 합니다.
죄를 지은 저희의 선조들은 이미 없는데 저희가 그들의 죄악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종들이 저희를 다스리게 되었건만 그 손에서 빼내 줄 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의 칼 앞에서 저희는 목숨을 걸고 양식을 들여와야 합니다. 굶주린 끝에 신열로 저희 살갗은 불가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저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춤은 통곡으로 바뀌었으며 저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오, 애통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으니! 이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괴롭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폐허가 되어 여우들이 나돌아 다니는 시온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고 당신의 어좌는 세세 대대로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저희를 끝내 잊으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를 영영 버리려 하십니까?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저희의 날들을 예전처럼 새롭게 하여 주소서.(애가 5,1-4.7-10.15-21)

29일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생명이다

성 유다

성 유다는 유다 이스카리옷[1]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의 성은 '타대오'로서 '칭찬, 고백'을 뜻합니다. 또한 성 마태오 복음의 그리스어 원본에 나오는 '레베우스Lebbeus'라는 단어는 '독창성과 지성'을 지닌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성 소 야고보, 예루살렘의 성 시몬, 그리고 요셉이라 불리는 사람과 형제인데, 그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자매인 마리아와 클로파스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도는 거룩한 스승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피로 맺어진 유대 관계를 넘어 세상에 대한 경멸, 열정, 활력으로 가득한 열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도들 그룹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 복음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승천과 성령강림 이후에 사도들 그룹에 합류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아,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거룩한 이 사도는 62년, 자기 형 성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곳 교회를 이끌

1. 이스카리옷 또는 이스카리오테는 "키리욧(팔레스티나 마을) 사람"을 뜻한다. 기원이 불확실한 타대오(Thaddaios)라는 말은 히브리어(Lebbeo)처럼 '큰 마음을 지닌 용감한' 사람을 뜻한다. 루카 6,16; 마태 10,3; 사도 1,13에 있는 사도들의 목록을 비교해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타대오는 동일 인물이며, 유다 서간의 저자일 가능성이 크다.

게 될 사람으로 성 시몬이 선출되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죽은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축일은 10월 28일입니다. 성 유다는 한 편의 서간을 남겼습니다.

289

유다 서간

이 서간은 성 베드로의 둘째 서간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서간 중에 어느 것이 앞선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두 서간이 거의 동시대에 쓰였기에, 시기와 범위와 목적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 유다의 문체가 더 좋습니다. 내용은 중복되지 않으며, 문체 면에서 볼 때 유다 서간이 더 일관적입니다.

그는 교만하고 음란한 거짓 교사들을 강력하게 공격하여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며 위협하는 한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을 굳건히 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서간은 65년경 디아스포라 유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묵상 29

성경은 출판 사도직에서 생명이다[2]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살려 주소서.
당신 입에서 나온 법을 지키오리다."
(시편 119,88)

2. 성경 주석을 다루는 학문적이고 대중적인 출판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PCB,「교회 안에서의 성경 해석*L'interpretazione della Bibbia nella Chiesa*」, 1993, 36번.

오늘 묵상은 "성경과 출판 사도직"이라는 주제를 계속 다룬 9일과 19일[3] 묵상과 연결됩니다.

ㄱ)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실 하느님은 |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Deus qui amas animas"(지혜 11,26)이라고 일컫습니다. 출판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 사도를 사도직으로 이끄는 동기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사랑은 저에게 말하게 합니다."[4] 290

사랑은 사도의 마음에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꽃Ignis, charitas 그 자체이십니다. 불꽃은 활활 타오르면서 팽창하는 경향이 있고, 본성적으로 열을 내어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은 그 선을 전하고자bonum est diffusivum sui[5] 합니다.

성인들은 천국을 바라지만 결코 그들 자신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성 바오로는 자기 제자들에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1테살 2,20)[6]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3. p.97 이하와 p.191 이하 참조.

4. "Amor mi mosse, che mi fa parlare." 단테 알레기에리,「신곡*La Divina Commedia*」, 연옥편, II, 72.

5. 이는 플로티누스(203/5에서 약 270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의 저술에서 가져온 신플라톤주의 격언이며, 5-6세기 시리아의 수사인 위(僞)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테스(「천상의 위계*De coelesti hierarchia*」, 4)를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과 스콜라주의가 등장했다. 플로티누스의 형이상학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나오는 현실의 발산 또는 외적 흐름의 과정이었다. 플로티누스는 이 발산에 대한 은유로 불꽃에서 방출되는 열, 눈에서 비롯되는 추위, 꽃의 향기, 또는 태양에서 퍼져 나오는 빛을 제공했다. 선한 것은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선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고 그는 결론지었다. 완덕에 이른 존재는 그 완전함을 자기 것으로 간직하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내적 활동의 외적 이미지를 자아냈다. 같은 개념이 오늘날 인터넷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슬로건으로 채택되었다.

6. "Gaudium meum et corona mea." 1테살 2,19 참조: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출판 사도는 가장 높은 설교대에 올라갔습니다. "목청껏 소리쳐라. 나팔처럼 네 목소리를 높여라Clama, ne cesses, quasi tuba exalta vocem tuam."(이사 58,1)

* * *

ㄴ) 출판 사도직의 효과는 성경의 효과와 같습니다. 곧 참된 신적인 내적 힘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교부들과 교회 박사들은 거룩한 성경을 읽음으로써 빛과 동기를 받아 성인이 되어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갈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 이냐시오, 성 안토니오 아빠스, 성 베네딕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계명을 온전히 준수했을 뿐 아니라 복음적 권고와 가장 높은 완덕에 이르는 새 삶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성인과 모든 사람은 | 성경을 읽음으로써 용기, 정의, 예지, 이웃 사랑과 같은 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신적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 안에서 성사적으로 작용합니다.

291

출판 사도직에도 같은 덕이 내재합니다. 1) **출판 사도직의 내용**은 진리이신 하느님 또는 하느님-진리입니다. 2) **출판 사도직의 목적**은 지성을 치유하여 영원한 선으로 마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3) 출판 사도직의 **기원과 설립**을 통해서.

사도직은 언제나 이러한 힘(덕)을 지니지만, 특별히 출판할 때는 성경을 인용하여 해설하고 적용합니다. 성사와 준성사와 기도가 지닌 모든 힘은 거룩한 미사의 희생 제물, 곧 갈바리아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거룩한 샘에서 더 많은 것을 길어낼수록 사도직은 더욱 효과적입니다.7*

마찬가지로 출판 사도직 전체, 곧 정기 간행물과 도서는 성경과 예수님의 설교와 복음이 지닌 힘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며, 복음 자체에서 끌어내고, 접근하고, 변호하고, 반응하고, 열렬히 소망하며 복음을 적용하는 만큼 더 큰 효과를 냅니다.

ㄷ) 거룩한 작가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정신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주님, 곧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위한 평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올바른 지향이 들어갑니다. 효과를 위해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는 사도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도 정신과 올바른 지향은 | 신적 은총의 조건입니다. 이는 "나는 하느님께 의탁하며 하느님을 목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정의, 진리, 질서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신학, 수덕과 경험, 교회와 공의회는 이러한 원칙들을 선포하는 데 일치합니다. 다만 이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믿음과 일치하기를 바라고 또 느껴야 합니다. 기도가 사도직에 앞서고 동반하며 따르게 하십시오. 글쓰기와 출판과 보급을 결정하는 동기가 올바른 지향이어야 합니다.

292

7.*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눈먼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눈먼 사람의 인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분명 무엇을 받아들이고 또 무엇에서 달아나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온갖 꿀보다 달콤하고 온갖 빵보다 감미로우며 온갖 포도주보다 더 맛들이게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신들 가운데 신이신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의 넓이, 영원의 길이, 그 위엄의 높이, 지혜의 깊이와 광대함을 지니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작자 미상. 성 아우구스티노일 것이다]

* * *

특히 복음과 성경 **보급**은 출판 사도직의 본질적 활동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수행한 출판 사도는, 이 직무의 핵심 부분을 완성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 없이 행해지는 것은 모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모든 가정에** 복음을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모시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한데 모인 온 가족에게 가장이 복음을 읽고, 승인된 주석으로 이를 유익하게 설명하며, 안내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읽게 할 것. 하느님은 최상의 교육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직무상으로, 그리고 소명에 따른 참된 스승이십니다. 순수함과 단순함을 지닌 어린이의 영혼은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루카 10,21)[8]는 거룩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유일한 스승이신 그분을 제외시키는 학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293 교회에서 성경을 읽게 할 것. 적어도 주일에는 복음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설명을 덧붙이십시오. 사순 시기에, 성체조배 시간에, 저녁기도 시간에, 가톨릭 액션에서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8. "Revelasti ea parvulis."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것. 특히 묵상 가운데 하게 되는 성찰은, 거룩한 생각과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결심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전문가, 예술가, 공무원,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귀감 – 오리게네스. 그는 교회에 풍요로움을 지대하게 기여한 작가입니다. 그의 전기작가들은 그가 쓴 작품이 6천 권이 넘으며, 그 가운데 주요 작품은 성경을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9] 그의 아버지 성 레오니다는 오리게네스에게 성경 구절을 외우도록 하였으므로, 그는 성경을 잘 습득하여, 어떤 구절을 물어도 한 음절도 틀리지 않고 곧바로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편지가 쓰인 성경을 원어로 읽고 싶어하는 열렬한 열망을 지니고 있던 그는 그리스어,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의지로 인해, 그리고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그는 성경을 온전히 알게 되어 나중에는 그의 주요 작품인 「헥사플라」[10]를 집필할 수 있었습

9. 초기 급진주의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어 사본을 매우 적은 금액을 받고 팔아버림으로써(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 포기함을 나타냄) 극도로 엄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10. 「헥사플라*Exapla*」는 오리게네스의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다. 이는 히브리어 본문과 다양한 그리스어 번역본이 6개의 열에 나란히 나타나는 구약성경 판본(서기 240년 무렵 편찬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본문 비평 연구에서 인상적으로 파고들어간 작업을 드러내는 작품 가운데 일부만 남아 있다.

11. 오리게네스는 예로니모와 함께 고대의 가장 위대한 "문학" 비평 주석가다. 그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필사본에서 발견한 다양한 판독이나 변형 상태에 대해 한없는 호기심을 지녔다. 그는 떠오르는 것을 메모한 다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리스어 본문은 사도들이 교회에 준 것이기에 그에게

니다. 이처럼 웅장한 작업은 히브리어 본문과 그리스어 본문[11]을 한눈에 보고, 그 히브리어 본문과 그리스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6개의 열로 나누어 배열합니다. 첫 번째 열에는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 본문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열에는 그리스어로 된 같은 히브리어 본문이 제시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에는 각각 아퀼라, 심마쿠스, 70인역, 테오도시우스가 그리스어로 번역한[12]내용이 있습니다.

294 이 위대한 박사는 성 요한 복음에 주석을 달면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

는 히브리어보다 중요했다. 본문의 문자적 의미는 그리스어 문헌에서 도움을 받아 히브리 사람들의 용법과 역사적 관습을 통해 정확하게 설명되었으며, 그는 또한 몇몇 라삐를 알고 있어 히브리어 해석본에서도 도움을 받아 설명했다. 오리게네스의 "문자적" 의미는 단어 또는 구절의 철학적, 어원학적 의미다. 한편, 문자적 의미를 통해 우리는 인간인 저자가 의도하며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드러낸다.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문자적 의미(문자주의자 또는 문자를 고수하는 것) 추구 때문에 성경 본문에 존재하는 비유 언어(예를 들어, 비유와 은유)를 파악하지 못하는 위험성도 지녔다. 그럼에도 오리게네스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영적" 의미를 알고 있었다. 바오로처럼 그는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예언이나 모습을 드러내는 "형상" 또는 "우리에게 경고"(1코린 10,11)가 되도록 기록되었음을 받아들였다. 신약성경 주석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요컨대,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오리게네스의 방법은 성경 전체의 삼중적 의미(「원리론*De Principiis*」, IV, 2 참조)를 예견했으며, 이는 세 가지 관점의 인류학, 곧 물질적(또는 문자적) 의미, 정신적(또는 도덕적) 의미, 영적(또는 신비 차원의) 의미에 해당한다. 앙리 드 뤼박(H. de Lubac)의 「중세 주석*Exégèse Médiévale*」 I / 1, 198-211은 카시아누스 수사(360-435)가 선포한 네 가지 의미의 교리를 오리게네스의 주석을 통해 거슬러 올라가 추적해냈다. 그 네 가지 의미란 문자적 의미, 역사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구성된 우화적 의미,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관련된 비유적 의미, 하나의 체험을 만들어 내고 미래, 곧 영원한 선을 미리 맛보게 하는 영적 의미다.(p.40의 각주 7 참조)

12. 이 책에는 마르티니 몬시뇰의 「성경 번역」(p.81의 각주 8)과 예로니모의 불가타 번역본(pp.245-248)에 대한 암시가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번역은 사목적, 사도적인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해 대해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교의헌장)은 적절하고 정확한 번역의 필요

면서 자신이 성 요한처럼 천상 스승의 가슴에 기대지 않고, 또 예수님에게서 직접 마리아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리게네스도 성 아우구스티노처럼 완덕의 길에서 진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가장 완전하게 아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리게네스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주님의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과 예수님의 덕에 대해 알게 하며, 그분의 계명과 가르침을 알게 하여 우리를 완덕의 산꼭대기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작은 희생 : 이 책 끝부분에 첨부한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도(기도서 263쪽 "가톨릭 출판물을 위하여)께 바치는 기도를 통해 출판 사도직에 부름 받은 모든 이가 성경에서 진리, 길, 생명을 끌어내는 법을 배운다.

입법자 하느님께 바치는 찬가 [#]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성을 재차 단언한다.(22항)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가네.
그곳에 해를 위하여 천막을 쳐 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용사처럼 길을 달리며 좋아하네.
하늘 끝에서 나와
다시 끝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그 열기 앞에서 숨을 수 없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이를 슬기롭게 하네.
주님의 규정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주님을 경외함은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하니 모두가 의롭네.
295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다네.
당신의 종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을 받으리이다.
뜻 아니한 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숨겨진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해 주소서.
또 오만한 자들에게서 당신 종을 보호하소서.
그들이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결백해지고
커다란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시편 19편)

독서

복음과 인간적 지혜의 대립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 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 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1코린 1,17-31)

296

기 도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마치 불이 섶나무를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하리이다. 이는 당신의 적들이 당신 이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민족들이 당신 앞에서 무서워 떨리이다.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당신께서 하셨을 때,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개짐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주님, 너무 진노하지 마소서. 저희 죄악을 언제까지나 기억하지는 말아 주소서. 제발 굽어보소서. 저희는 모두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당신을 찬양하던 곳, 저희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집은 불에 타 버렸고 저희에게 보배로운 것들은 모두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었는데도 끝내 참고 계시렵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시렵니까? 저희를 이토록 극심하게 억누르시렵니까? (이사 63,19ㄴ-64,11)[13]

13. 이 책 원서에서는 불가타 번역본을 따라 이사 64,1-12라고 명시하고 있다.

297

30일
성경은 누가, 어디서 읽어야 하는가?

묵시록

성 요한은 교회가 최종 승리에 이르게 될 사건들을 선포하는 신비로운 책의 제목을 묵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95년, 파트모스 유배시기에 썼습니다. "묵시록은 닫힌 책입니다. 단어마다 많은 신비가 숨겨 있고, 많은 의미를 지닌 드높은 차원의 예언입니다."(성 예로니모) 예언의 많은 부분이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것이기에, 지금 예언을 설명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비를 겸손하게 흠숭하고 그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숭고한 가르침의 보물을 간직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상징과 숫자, 이미지들이 조화를 이루는 운문의 진정한 걸작이기도 하지만, 그 예언 때문에 암흑의 걸작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시대에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한 요한 묵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화를 이루며 구분되어 있는 구상을 펼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머리말과 맺음말 외에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부분: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환시로 보여주신 것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써 보내는 임무를 주시고, 그 뒤로 편지가 이어집니다.

둘째 부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상상의 비전을 포함합니다.

1) 일곱 봉인: 정복, 전쟁, 기근, 죽음, 순교, 세상의 종말, 금 향로.

2) 일곱 나팔: 우박과 불, 피의 바다 | 별 '쓴 흰쑥', 일식, 메뚜기, 기병, 하늘에서 울려오는 찬미가. 298

3) 일곱 가지 표징: 악마, 바다 괴물, 땅의 짐승, 악한 사람의 표징, 선한 사람의 표징, 종말과 심판에 대한 언급.

4) 일곱 대접: 땅, 바다, 강, 태양, 짐승의 보좌, 유프라테스에 쏟아짐.

5) 그리스도와 악마 사이의 투쟁: 땅이 애통해하고 하늘이 기뻐하는 바빌론의 패망, 짐승과 거짓 예언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몇 세기에 걸친 투쟁과 악마에 대한 최후의 승리.

셋째 부분: 마지막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천상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

묵 상 30

성경은 누가, 어디서 읽어야 하는가?

"주님,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당신의 가르침이 제 즐거움입니다."(시편 119,174)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모두가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지 이야기하자면, 첫째, 가정에서, 둘째, 학교에서, 셋째, 교회에서 읽어야 합니다.

* * *

1. **가정에서**. 복음서는 집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곧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299 나 펼쳐져 있어, 가족 누구나 | 수시로 천상 스승과 함께 머물러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를 쉽게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스승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매요 라자로의 누이인 마르타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루카 10,38-41)

우리 또한 하루 동안 여러 번 천상 스승의 발치에 엎드려 그분의 진리와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라고 겸손되이 말씀드립시다.

각 가정이 날마다 거룩한 복음을 읽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가장으로 모신다면, 그들의 영적 물질적 보고가 가득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장이 먼저 성경을 읽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가장에게 가장 큰 존경심을 갖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장 선하고 순수한 어린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에 지속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경 읽기 전·후에 짧은 기도를 바쳐야 하며,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 가장이나 가능한 사람이 읽은 내용에 대해 설명이나 해설을 몇 마디 덧붙이면 | 각 300
사람이 하루를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을 실천하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머무십니다. 그들은 "나는 세상의 빛lux mundi"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기에, "어둠 속을 걷지 않을Non ambulant in tenebris"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 * *

2.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스승 예수님의 현존이 더욱 필요한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교육자이시며, 인류의 소중한 스승이십니다.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다."[1] 코린토 신자들이 어떤 사람은 바오로를 스승으로, 어떤 사람들은 케파를 스승으로, 또는 아폴로를 스승으

1. "Unus est enim magister vester."(마태 23,8.10)

로 여기는 것을 본 성 바오로는 그들을 단호하게 꾸짖고 오직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스승이라고 선언할 만한 품위를 지닌 분, 청소년들의 교육자로 들어 높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르치는 능력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개별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함으로써 당신께로 일끌어 교육하는 방법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예수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이와 모든 어린이를 당신께로 이끄시어 당신 사랑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양육하소서. 당신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마르 10,14)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어린이를 당신께로 이끄시어 거룩하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시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그 자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차지
301 했습니다. 톰마세오[2]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학교들은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학교에 되돌아가시어 예수님의 진리가 모든 어린아이의 마음을 비

2. 니콜로 톰마세오(1802년 쉬베닉에서 태어나 1874년 피렌체에서 선종함). 사업가 집안 출신인 톰마세오는 파도바에서 공부하면서 안토니오 로스미니(1797–1855)를 만나 오랜 동안 우정을 나누었다. 꿈이 많고 성격이 불안정했던 톰마세오는 밀라노에 가 살면서 만초니를 만났고, 다시 피렌체와 베네치아로 떠났다. 그는 많은 문학 작품과 언어학 관련 서적을 저술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새 이탈리아어 동의어 사전」(1830), 「이탈리아어 사전」(1859), 「신곡 해설」(1837), 소설 「아테네 공작」(1837), 「신앙과 아름다움」(1841–1842)을, 그리고 정치 문제를 논한 「이탈리아에 대하여」(1835)가 있다.

추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룩한 복음을 읽고 공부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다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어린이에게 거룩한 복음에서 영감을 받은 교과서와 서적 등을 나누어 주는 날이 빨리 오게 해 주시길 빕니다.

* * *

3. 교회에서. 이는 복음을 읽으라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미사를 드리는 사제는 큰소리로 복음을 읽어야 하며, 모든 신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장엄미사 때는 촛불을 밝혀든 (복사들 사이에서 복음에) 분향을 하고, 최대한 장엄하게 성가를 불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 규정은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주일 미사 때 본당신부는 거룩한 복음에 대해 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순 시기 동안은 본당 신부들이 매일 거룩한 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에몬테, 베네토, 에밀리아 지역의 많은 본당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참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관행이 이탈리아의 모든 본당에서 실천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따르면 교회가 영혼들에게 주는 영양
302 가 높은 두 가지 양식은 | 성체와 성경[3]입니다. 성체와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양육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지성, 감성, 의

지[4]* 모든 면에서 만족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 읽기가 보편적이 되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성경이 모든 가정에 들어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 되어 평화를 전했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복음사가들이 받는 상급과 화관을 우리도 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귀감 – 성 에피파니오. 이 성인은 교회 초세기에 수많은 책을 쓴 저술가로서 성경을 열정적으로 흠숭한 학자였습니다. 에피파니오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면학에 대해 큰 사랑을 지녔고, 신심이 매우 깊었던 그의 부모는 그가 성경을 공부하도록 배려했습니

3. 성경과 성체, 없어서는 안 될 책과 빵이라는 두 개의 식탁에 대해 「성경을 읽으십시오」에서 자주 언급한다.(pp.15-16, 136, 138, 192, 234, 267 이하) p.20을 읽으면, 알베리오네 신부의 참된 사도적 사상을 알 수 있다. "복음서가 제대 위에 얼마나 잘 놓여 있는가! 지극히 복되신 성체성사 안에서, 흠 없는 성체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하여 계신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성경 안에, 하얀 종이 아래 계십니다." 교회 전체를 위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을 참조하라.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다. 교회는 특히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에서뿐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빵을 취하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복음 선포는 바로 그리스도교가 그렇듯이 성경들로 양육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을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 버팀과 활력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생활의 순수하고도 영구적인 원천이 되는 힘과 능력이 있다."(21항)

4.*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오롯한 사랑으로 우리 창조주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 있는 하느님 마음을 살펴보고 영원한 보화를 더 열렬히 갈망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부추기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행복을 향해 타오르는 열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성 대 그레고리오)

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의 기쁨이었고,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지성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언제나 더 잘 이해하려는 갈망으로 성경이 쓰인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20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어, 히브리어, 콥트어, 시리아어, 라틴어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그의 전기작가들은 증언합니다. 사막의 수도승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집트에 다녀온 후 그는 수도생활을 몹시 갈망하여 곧바로 수도원을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수도승이었고, 여러 수도승의 아버지였으며, 동시에 거룩한 독서와 저술을 미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안내를 받고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는 수도승들을 열정적으로 불러모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 그는 자신이 먼저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기작가 메타프라테는 그가 완전한 수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도승들을 이끄는 일에 신중했으며, 일상적인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준수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온종일 성경 공부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요한 밤 시간을 기도하는 데 바쳤습니다.

367년, 그는 키프로스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습격하여 마구 죽이는 사나운 늑대들에 맞서 양떼를 지키며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했지만, 성경을 멀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힘과 용기를 길어냈고, 이단자들과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논란의 여지 없는 강력한 주장을 끌어내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추종자들은 에피파니오에게서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피파니오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동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맞서, 마리아는 출산 전이

나 출산 중에도, 그리고 출산 후에도 영원히 동정성을 간직하셨음을 훌륭하게 변호하였으며, 하느님의 참된 어머니이심을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성 에피파니오는 성경을 연구하며 주석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성경 고고학 연구를 시도했는데, 오늘날에도 성경 주석가들은 이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5월 12일에 이처럼 훌륭한 학자의 축일을 거행합니다.

작은 희생 :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사은찬미가Te Deum"를 바칩시다.

다윗의 찬가[#]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신다.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굽어보신다,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마음을 다 빚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병력이 많다고 임금이 승리하지 못하며
근력이 세다고 용사가 제 몸을 살리지 못하네.
기마로 승리한다 함은 환상이며
그 힘이 세다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한다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저희 위에 당신의 자애를 베푸소서.(시편33,12-22)

독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참조: 마태 28,16-20; 마르 16,16-18)

기도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저의 두 손 들어 올리오리다.
305 제 영혼이 비계와 기름을 먹은 듯 배불러
환호하는 입술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환호합니다.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저들은 멸망으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리라.
칼날에 내맡겨져
여우들의 몫이나 되리라.
그러나 임금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 이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하리라.
정녕 거짓을 말하는 입은 틀어막히리라.(시편 63편)

성경에 대한 공경 306

프리모 마에스트로요 신학자인 야고보 알베리오네가 쓰신 「출판 사도직」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성경에 대한 공경이라는 제목의 훌륭한 한 장을 여기에 인용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1]

성경에 대한 공경

복음과 성경 전반에 대한 공경의 예禮는
지성, 의지, 마음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성으로

흠숭지례의 신심 행위는 하느님께 바치는 최고의 흠모이며, 숭배의 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행위가 주님께 직접 전해진다면 그것은 절대적이며, 주님을 나타내는 대상을 통해 전해진다면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림이나 조각 이상으로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표현합니다. 거룩한 복음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된 그림이나 십자가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하올 인격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흠숭 행위란 | 흠숭 활동, 곧 상대적인 흠숭지례입 307

1. 이 내용을 집필하여 이 책에 한 장을 첨가한 사람은 편집인 B.길리오네다. 그는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온전한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이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해도 신부님의 제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니다.

이 교리는 제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여덟 번째 교회 일치 모임)에서 규정된 믿을 교리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 일치 모임인 제2차 니케아 공의회(일곱 개 분과, 787년 10월 13일)는 신앙의 상징과 예전에 개최된 여섯 차례의 교회 일치 공의회 모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거룩하고 숭고한 이미지는 구세주, 하느님의 어머니, 천사들, 성인들의 모습에 관련되어 있는 한, 채색되어 있든 모자이크로 되어 있든 또는 다른 재료로 되어 있든 교회와 집, 거리와 화판, 꽃병과 의복에 묘사될 수 있고 또 묘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은 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본받도록 들어올려집니다. 고대의 용례에 따르면 입맞춤, 인사, 향로, 조명, 절, 엎드리는 행위proscúnesin를 통해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 또한 합법적입니다. 십자가와 복음, 기타 성물의 이미지에 대한 사용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흠숭 행위(흠숭지례)는 거룩한 본성을 제외하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미지는 상대적인 공경 행위에만 국한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부여된 존경은 본연의 이미지, 곧 그 이미지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2]*

바로 여기에 이미 이 흠숭 행위와, 이 흠숭 행위가 옛날의 관습을 반영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2.* 조셉 헨겐라더(Hengenröther), 「보편 역사*Storia Universale*」, 제3권, p.40. [독일 교회 신학자, 역사가(1824년 뷔르츠부르크에서 태어나 1890년 브레겐츠에서 선종함). 고국과 로마 독일대학에서 공부했고, 1850년 뮌헨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852년부터 뷔르츠부르크에서 교회 역사와 교회법을 가르쳤다. 비오 9세는 1867년 그를 로마에 초대하여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준비 고문으로 위촉했고, "교회교육위원회"에서 일하게 했다. 레오 13세는 1879년에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여 바티칸 기록 보관소 장관으로 임명했다. 헨겐라더는 역사 연구 분야가 더 많이 성장하도록 모든 학자에게 기록 보관소를 개방했다.]

제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 여덟 번째 교회 일치 모임(869–870).[3]

교회법 3. 우리는 모든 사람의 해방자이자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미지를 거룩한 복음서에 필적할 만큼 공경하며 흠숭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모두 구원을 | 얻으며, 모든 이미지의 다채로운 색을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무지한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습니다. 사실 음절의 배열에 따라 표현되고 가르쳐주는 동일한 진리가 색의 배열을 통해서도 설교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와 아주 오래된 전통에 따라, 숭상한다는 점에서 우선시 되는 대상으로서 성화를 공경하고 소중히 받드는 것은 복음서와 십자가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당한 일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어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칭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다."(2테살 1,10) 그러나 그의 친교와 그의 영광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 파문됩니다.

여기에서 흠숭 행위는 고대 전통으로 인정됩니다.

성경: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손수 쓰신 십계판을 만나를 모신 계약 궤에 함께 두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

3. 제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일반적으로 여덟 번째 교회 일치 모임으로 간주되며, 로마 관할권의 우선권을 검증했다. 우상 파괴를 비난했고, 포티오스(810–895년 무렵)의 지지자들을 물리치려고 했다. 포티오스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다시 취임시킨 후 해임되었는데, 정교회가 성인으로 공경한 사람이다. 이 공의회에서 발표한 교회법 21조에서 교황 하드리아노 2세는 알렉산드리아보다 콘스탄티노플의 우선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 안에 판들을 넣었는데, 그것들이 지금도 그 안에 있다."(신명 10,5)고 모세는 말합니다.

율법서는 지성소의 계약 궤 옆에 두었으며, 오로지 참된 사제들만 율법서와 함께 계약 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율법 말씀을 쓴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이 율법서를 가져다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 궤 곁에 두어라. 거기에서 이 책이 너희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라."(신명 31,26) 하고 말했습니다.

309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공경과 흠숭의 예식을 통하여 이미 구약성경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곧 성체의 전형인 만나를 계약판과, 진리이신 그리스도 곧 복음의 전형인 율법서와 연결시키십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전형을 제시하셨다면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것과 같은 흠숭 행위로 복음을 공경해야 합니다.

전통: 제2차 니케아 공의회와 제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고대 전통과 이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공경은 구세주의 형상에 적용된 흠숭 행위를 확증하는 동기로 받아들여집니다. 더욱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교회법 1항에서 포티우스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걸림돌 없이 거룩한 정의의 길을 항구하게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이 정의 내린 규정과 말씀을, 우리 발걸음을 비추며 한결같이 타오르는 등불처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복음서에 대한 흠숭 행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부들과 그리스도교 전통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현행 전례에서 우리는 거룩한 복음과 성경을 다음과 같이 공경합니다.

ㄱ) 성경을 성무일도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거룩한 미사의 큰 부분이 되게 하며, 미사의 교훈적인 부분(봉헌에 이르기까지)에서는 더 많이 차지하게 하고, 축성하는 말씀과 함께 거룩한 제물봉헌과 성찬의 주요부분 등 거룩한 미사의 전체 구조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ㄴ) 오늘날은 주례자가 복음에 입맞춤함으로써, 이전에는 사목자들과 사람들이 복음에 입맞춤함으로써.(미오니, 「거룩한 전례 안내」, 제1권, p.235 참조; 머밀로드 추기경)

ㄷ) 장엄 미사 때 부제가 노래하기 전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행위를 통해서.

동기: 동인動因이 같다면 흠숭도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제4차 310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구원자의 형상(이미지, 그림)을 통한 흠숭이나 성전聖傳에 따른 경배가 가능함을 선포하였을 때, 십자가와 거룩한 복음서, 그리고 구세주의 형상 사이의 동인動因이 유사함을 정확하게 기초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더 나아가 성경을 흠숭해야 합니다. 구원자의 형상을 흠숭할 수 있다면 성경을 흠숭하는 것은 더욱더 당연합니다. 코넬리Cornely는 구원자의 형상에 하느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흠숭한다면 하느님의 말씀 자체인 성경을 흠숭함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성경 입문 *Introduzione alla S. Scrittura*」, 1)

성경에 대한 믿음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ㄱ) 보편성. 성령께서는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시지만 확

실한 것은 아니므로 교회가 거룩한 스승의 지성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께서 확실하게 교회를 비추어 줍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적절한 종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교회가 승인한 주석서를 함께 봅시다.

ㄴ) **그리스도인다움**.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지니셨던 그 사랑과 영으로 복음을 읽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스승의 참되고 온순한 제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복음을 해석합시다.

ㄷ) **단순함**. 순수한 영혼만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겸손한 영혼만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반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
311 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을 단죄하고 | 처벌하기 위한 구실을 찾았습니다.

ㄹ) **강인함**. 복음은 회심으로 이어지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열정을 다해 희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지로

코르넬리우스 아 라피데[4]는 (제3권, 3-4)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 코르넬리우스 코르넬리센 반 덴 스틴(Cornelius Cornelissen van den Steen, 1567년 림뷔르흐에서 태어나 1637년 로마에서 선종함). 예수회 회원으로 지칠줄 모르는 열정의 성경 주석가였다. 1596년 사제로 서품되었고, 1596년부터 1616년까지 루뱅에서 성경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후 로마 대학에서 선종할 때까지 성경학 교수로 재직했다. 욥기와 시편을 제외한 성경 전체에 주석을 달았다. 그의 작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크 폴 미뉴(J.P. Migne)가 편집한 「성경 전집*Cursus S. Scripturae*」에 수록되었다.(제5-20권, 파리, 1837-1845)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책, 철학,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구속과 은총과 온 인류의 구원을 큰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가져와 신자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은, 훨씬 더 숭고하고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복음을 읽거나 듣는 것은 바로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읽거나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듯 경외심을 갖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 안토니오, 성 바실리오, 성 프란치스코를 비롯한 많은 성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 요한에 대한 논문 XXX(30)에서 이렇게 312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현존하시듯 복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 높이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도 진리이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복음을 읽을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듯 일어서야 하고, 복음 안에 약속된 천국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성 클레멘스에게 귀 기울입시다. 복음을 봉독할 때 사제와 부제, 평신도는 모두 경건한 침묵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사도 헌법 *Constitut. Apost*」, 제2권, 61장)

아나스타시오 교황은 같은 의미에서 독일과 부르고뉴의 모든 주교에게 다음과 같은 법령을 내렸습니다. "복음을 봉독할 때 몇

몇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적 권위로 말하건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복음을 봉독할 때 사제들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은 서 있는 자세로, 거룩한 복음 앞에 공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여 절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충실하게 경배해야 합니다."(「축성 생활과 사도생활 교회법Can. Apost. de Consecrat」, I)

펠루시움[5]의 이시도르는 이처럼 복음이 봉독되는 동안 서 있는 관습은 주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증언하면서(제1권, 서한 136번)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참된 사목자가 사랑 어린 복음서를 펼치기 위해 다가서면 주교 또한 일어나 모관을 벗습니다. 이는 주님, 지도자, 하느님, 사목의 주인께서 그곳에 함께 계심을 뜻합니다.

소조멘[6]은 알렉산드리아인들의 의식을 비판합니다.(「여행 이야기 *Storia Trip*」, 제9권, c.[7] 39) 그 책에서 보면 일반적인 관습과 달리 복음을 봉독하는 동안에도 주교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제8차 교회 일치 모임, 제10

5. 펠루시움은 나일 강 주변의 고대 이집트 도시로, 상업이 번창했으며, 이집트 병사들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다. 펠루시움에서 로마 사령관 폼페이가 죽었고, 천문학자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가 태어났다.(프톨레마이오스는 그리스도 이후 2세기에 살았고,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일했다.) 그리스도교 시대에 펠루시움에서 수도생활이 발전했으며, 바로 이곳에서 수도승 이시도르가 오랫동안 수행했다. 그는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호교론자로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못했으나, (안티오키아 학파의) 성경 해석가로 널리 알려졌으며, 역사적-문학적 의미와 영적 의미(테오리아라고 함)를 조화시켰으나 때로 우화적 해석에 빠지기도 했다.

6. 살미니우스 헤르미아스 소조메노스. 5세기에 팔레스티나 가자 근처 베델리아에서 태어나 콘스탄티노플에서 살았다. 그는 신학자는 아니고 교회 역사가요 변호사였다.

7. 제3장.

분과, 교회법 3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경하듯 복음을 공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제와 백성은 지극히 거룩한 미사 때, 복음을 봉독하려 할 때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미덕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기꺼이 복음을 공경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지성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계시 자체, 곧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구속이요 구원으로 여겨 사랑하며, 복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공경한다는 것은 세상 앞에서 우리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313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공경하기도 하고 불명예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에게 사랑과 절제, 근면함, 용기로 알려졌습니다. 착한 제자들은 선하신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증거합니다.

마음으로

행렬. 전례규정이 허용하는 한 행렬을 통해 성경을 모셔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는 〈로세르바토레 로마노〉(1933년 2월 19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첸치오 카메라리오(첸치오 사벨리를 일컬음. 177대 교황 호노리오 3세인 그는 로마 전례 예식서를 썼다 – 옮긴이) 전례 예식에 따라 부제들은 어깨에 종려나무 가지를 메고, 향로와 불이 켜진 촛대를 들고 걸어가는 행렬을 만납니다. 그들은 도시 학교의 기준을 따라 "포르타토리움Portatorium"이라 일컫는 우아하고 눈에 띄는 보면대가 시내 학교 깃발(교기) 뒤를 따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흠숭과 흡사한 흠숭을 복음

에도 드리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공경할 만한 이러한 관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 유혹과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니고 다니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악마들은 거룩한 복음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는 복음이 악마에게 거룩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강론 51번에서 복음사가 성 요한에 대해 언급하면서 "악마들은 복음서가 놓인 곳에는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에 복음서를 모셔두고, 낮 동안에는 복음서를 지니고 다니며 밤에는 침대 옆에 두십시오. 질병 중에도, 병원에도… 복음서를 모셔 두십시오.

314 이러한 신심 행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투르의 성 그레고리오는, 교부들의 생애 제4장에서 오베르뉴 시에 불이 났을 때 갈렌 성인이 성당에 들어가 거룩한 제단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한 후 복음서를 들고 번져가는 불길을 향해 가자 불이 꺼졌고, 불씨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 마르티노와 니케포로스 또한 이와 비슷한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9일기도와 3일기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9일기도와 3일기도는, 9일 또는 3일 동안 매일 복음서 한 장을 읽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공경은 언제나 놀랍기만 합니다.(「코르넬리오 아 라피데」, 제8권, p.2) 복음서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공경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니케포로스는 (제14권, 3장에서) 두 차례의 교회 일치를 위한 니케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와 에페소 공의회가 모임을 진행하는 회의장 중앙에 복음서를 모셔 놓고, 마치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복음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듯이 했다고 성 치릴로는 호교론에서 말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린 회의장 중앙에도 성경을 모셔두었습니다.

교회법은 엄숙한 서약을 할 때 복음서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느님과 거룩한 복음서가 저를 도울 수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맹세하면서 복음서 위에 손을 얹고 선언하거나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 맹세하는 것입니다. 곧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 말씀을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믿으며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고백하며, 우리가 맺은 약속에 충실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은총을 청하고, 또 하느님의 형상인 거룩한 복음서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315

맺음말

성경에 대한 30차례[1]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성경을 언제 읽을 것인가? 2. 성경을 어디서 읽을 것인가? 3.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성경을 언제 읽을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곧 날마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1년 동안 영성체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 영성체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할 수 없는데, 성경은 언제나 가지고 다니며 하루에도 여러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여러 차례 복음을 읽는 살레시오수도회가 있습니다. 살레시오수도회의 영광스러운 창립자 복자[2] 돈보스코는 좋은 설교가가 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보다 |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계기에 그는 젊은이들과 성직자들의 훌륭한 장상이 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양을 건너 가는 선교사들에게 그는 거룩한 복음서를 가져가라고 권고했습니다.

316

1. 처음 쓰인 글과 맺음말은 아마도 이 책의 편집자 B.길리오네가 쓰고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승인한 것 같다. 30 차례의 묵상에는 「출판 사도직」에서 발췌한 한 장(章)이 원본 306-314쪽에 삽입되었다.
2. 성 요한 보스코, 그 당시는 복자였다. p.147의 각주 4 참조.

살레시오회 선교사들의 활동은 효과적이었습니까? 복자 돈 보스코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서, 특히 청소년들 가운데 이룬 업적은 얼마나 큰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준주성범)는 복음을 성찬례와 같은 차원에 놓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제4차 칼케돈 교회 일치 공의회는 이보다 더 나아가 거룩한 복음에 대한 흠숭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흠숭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해방자이자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흠숭을 받는 것과 같은 태도로 거룩한 복음서가 공경받게 되기를 확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심각한 이유로 평소에 읽던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는 날은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경건한 영혼들이 성체를 받아 모시지 못할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잃어버린 날처럼 느끼며,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갈증과 신비스러운 갈망을 느낍니다.

오, 성경이여! 마치 복음이 우리 삶의 규정이듯, 우리 손 안에서 타오르는 등불이듯 복음서의 일부라도 지니고 다니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을 비추고, 지옥에 있는 악마의 어둠을 몰아내게 합시다.

성경을 어디서 읽을 것인가?

317

성경은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교과 과정을 앞두고 있는 학생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손에 있는 빛입니다Lucerna in manibus vestris.

고통과 의혹, 삶의 힘든 순간에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위로와 빛, 인도를 받게 되는지요! 주사위가 무심코 던져지듯, 주님께서는 우리 눈이 우리에게 알맞은 구절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박학다식한 성 알폰소가 어려운 질문을 풀지 못했을 때, 성경을 가져다 펼치자, 바로 그 순간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경건한 신심 서적이 많아졌지만, 성경만큼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책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삶의 어느 때나 도움이 됩니다.

성경 없이 출판 사도직을 행하겠다는 사람은 거룩한 사도직에 대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는 사제와 같을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제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제가 성경 말씀 없이 어떻게 영혼들에게 빛과 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출판 사도직에 불림 받은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읽고 내면화하지 못할 때 그는 자신의 성소에서 멀어집니다. 그가 여러 사도직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생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렬과 같은 외적 활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은 사물의 핵심을 곧바로 이해하고
318 따르는 것이 |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출판 사도직에서 성경보다는 주변의 쉬운 서적과 공상적인 책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핵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는 많은 신심을 지닌 피상적인 영혼들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성인들을 공경하고, 성당에 들어가면 곧바로 그러한 성인들의 모습이 담긴 성화 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숙이며 공경을 표하고 무릎을 꿇기까지 합니다.

가장 먼저 존경해야 할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감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교회'라는 길을 제대로 찾고, '성경'에서 진리를 찾으며, '복음'에서 생명을 찾게 되기를 빕니다. 그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거룩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성경은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각 개인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성경이 지금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담대하게 우리 자신이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편집하고 인쇄하며 순수한 손과 마음으로 제본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3]

그리고 올바른 지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향이 부족하다면, 설교나 종이에 쓰인 글이 효과를 지녔을지라도 선을 이루지 못하며, 영혼을 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 사도가 영혼들을 위해 갈망하는 은총을 지니고 있다면, 그가 쓴 글은 참으로 선을 이룰 것이고, 영혼이 성화될 것입니다!

영혼들을 비추며 가르치는 일에 있어 출판 사도직으로 충분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의지를 움직이고 마음을 자극하며 덕의 실천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위를 위해 필요한 것은 | 기도와 극기와 희생이며,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믿을 수 없 319

3. "Innocens manibus et mundo corde."(시편 24,4)

는 은총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사도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앞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깊이 잠심하며 사랑을 다해 성경을 읽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봅시다. 모든 말씀은 성모님께 사랑으로 꽃히는 번개이며, 하느님을 향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묵상하는 천상 스승을 관조하는 우리 자신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길, 생명의 거룩한 책을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니피캇을 노래하며 마무리합시다.

몇 가지 기도

320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여, 저는 당신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 위해 하느님에게서 오셨으며, 진리 안에서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과 영은 당신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 책을 펼쳐 그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겠습니까?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 피로 저희를 하느님에게서 속량하신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하오니 제가 하느님 나라의 신비와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 숨어 있는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저에게 보여주소서. 당신 말씀이 제 영혼에 스며들게 하소서. 빛으로 제 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길을 환히 비추시어 새 날이 동터 올라 어둠이 사라지게 하소서. 당신은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또는: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경을 읽고 나서 드리는 기도

321

"우리 구세주이신 하느님, 당신은 저희를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어 저희가 불경과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이 땅에서 침착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호의와 사랑

으로 우리 모습과 비슷하게 되신 당신을 따름으로써 저희 내면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또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이시여, 당신은 저희 상황에 필요한 평화와 모든 은총을 약속하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목말라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서 47쪽 "바오로인의 봉헌기도")

주님, 오늘 미사 성제를 드리는 사제들과 하나 되어 성체이신 예수님과 작은 제물인 저 자신을,

1.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많은 오류와 나쁜 표양을 보속하고,

2. 이 강력한 수단에 속거나 유혹되어 아버지 당신 사랑에서 멀어져가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자비를 구하며,

3. 이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행동을 이처럼 빗나가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회심을 위하여,

4.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만을 따르기 위하여,

5.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 확실한 길이며 완전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 전하기 위하여,

6. 교회 안에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도직에 봉헌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많아져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7. 저작자와 기술자, 그리고 보급자들이 복음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되어 사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도록,

8. 사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톨릭 창안이 점점 증가하고,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참된 가치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9. 저희 모두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달아 겸손과 신뢰로써 생명의 원천으로 나아가, 당신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될 필요성을 느끼도록 당신께 바치오니,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빛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소서.

성 바오로께 바치는 주간기도

(기도서 149-151쪽)

1. 예수님, 성 바오로에게 베푸신 큰 자비로, 포악한 박해자를 교회의 열렬한 사도로 변화시킨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위대하신 성 바오로 사도님, 저에게 은총에 온순히 따르는 마음과 주요 결점에서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 성 바오로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 예수님, 성 바오로를 거룩한 동정의 표양과 설교자가 되게 하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신 성 바오로님, 제 지성과 마음과 감각을 지키시어 | 오직 예수님만을 알고, 사랑하

고, 섬기며, 모든 힘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봉헌할 수 있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 성 바오로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 예수님, 성 바오로를 통하여 완전한 순명의 표양과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위대하신 성 바오로 사도님, 모든 웃어른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은혜를 얻어주시며, 순명함으로써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 성 바오로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4. 예수님, 성 바오로의 행적과 말씀으로 참된 가난의 정신을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위대하신 성 바오로 사도님, 가난의 복음 정신을 저희에게 얻어주시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당신을 본받고, 하늘나라에서는 당신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 성 바오로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예수님, 성 바오로에게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그의 열정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저희의 벗이신 성 바오로 사도님, 착한 사도들에게 약속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사회 커뮤니케이션, 기도, 모범, 활동, 말씀의 사도직을 수행할 열렬한 원의를 얻어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 성 바오로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께 드리는 기도

(기도서 263쪽 "가톨릭 출판물을 위하여")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사도 성 바오로님, 에페소에서 당신은 믿는 사람들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저서들을 없애기 위해 혼신을 다 바치셨으니 | 오늘도 저희를 굽어보소서. 믿음을 저해하는 324
출판물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보배로운 믿음과 순수한 관습을 앗아가기 위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사도님, 당신께 청하오니 글 쓰는 사람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그릇된 가르침과 죄를 조장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글 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양떼에게 끼치는 악을 혐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소서. 저희에게 은총을 얻어주시어 언제나 최고 목자의 말씀에 온순히 따르며, 사악한 출판물에 결코 물들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교회의 발전과 사람들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서를 장려하고, 전하게 하소서. 아멘.

(50일 대사)

거룩한 저술가들의 호칭기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
천주 성령님,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
성부의 말씀이신 예수님, "
325 예언자들의 기대이신 예수님, "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
성령의 샘이신 예수님, "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의 스승 예수님, "
교부들과 박사들의 빛이신 예수님, "
그리스도의 어머니,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들의 모후, "
성 요셉, "
성 모세, "
성 다윗, "
성 이사야, "
모든 성조와 예언자, "
성 베드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
성 야곱, "

성 요한, "
성 마태오, "
성 타대오, "
성 루카, "
성 마르코, "
모든 거룩한 사도와 복음사가, "
모든 거룩한 사도들의 교부, "
성 아타나시오, "
성 바실리오, "
성 예레니모, "
성 아우구스티노,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
성 (대)그레고리오, "
모든 거룩한 교부, "
성 베르나르도, "
성 토마스, "
십자가의 성 요한, "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성 알폰소, "
모든 거룩한 박사, "
모든 거룩한 저자, "
성 베네딕토, "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26
성 도미니코, "
성 이냐시오, "

모든 수도자의 거룩한 교부, "
성녀 데레사, "
성녀 가타리나, "
하느님의 모든 성인, "
청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온갖 악에서,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모든 죄에서, "
사람이 되신 주님의 신비와 설교로, "
주님의 십자가와 수난으로, "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
파라클리토 성령의 강림과 성경의 영감으로, "
교회의 감탄할 만한 무류성으로, "
심판 날에, "
죄인들이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도좌와 모든 성직자를 거룩한 진리 안에 보존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을 하나의 교회로 이끌어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계)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응)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저희가 사도 바오로의 정신으로 당신의 가장 뛰어난 지식을 배우게 하시어, 당신 계명의 길로 걸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당신은 …[1] **327**

1. "Oremus. – Domine Jesu Christe, qui es Via, Veritas et Vita, fac nos tuam supereminentem scientiam spiritu Pauli Apostoli ediscere, ut in viam mandatorum tuorum currentes, ad vitam perveniamus sempiternam.
Qui vivis…

발행일 | 2023년 6월 15일
엮은이 | 안젤로 콜라크라이
옮긴이 | 김애란
펴낸곳 | 바오로딸